방배동 성당

1982
2012

30 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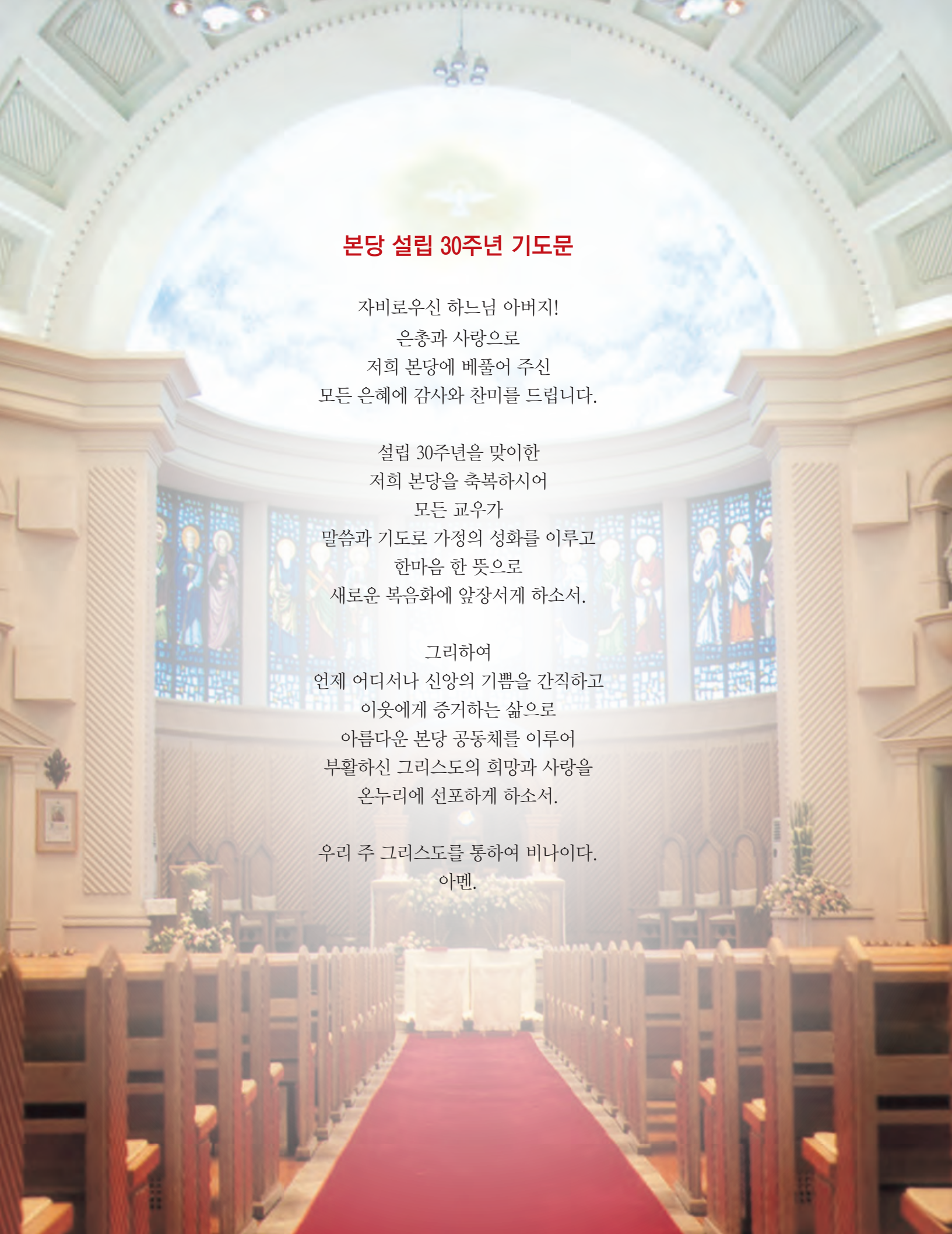
방배동 성당

1982
2012

30년사

방배동 성당

30년사



본당 설립 30주년 기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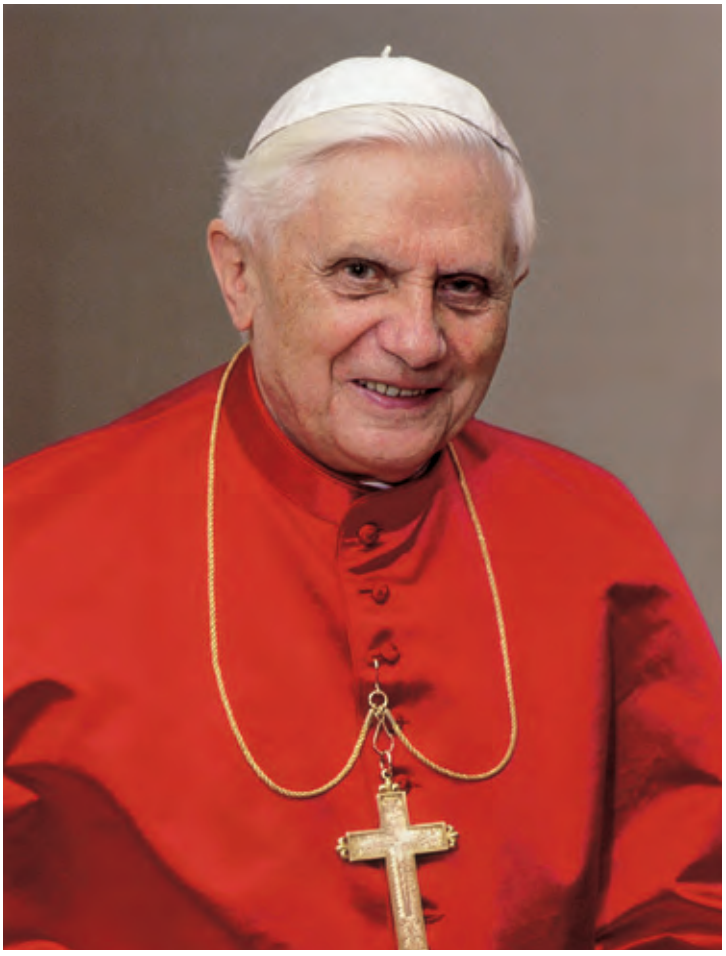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은총과 사랑으로
저희 본당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저희 본당을 축복하시어
모든 교우가
말씀과 기도로 가정의 성화를 이루고
한마음 한 뜻으로
새로운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앙의 기쁨을 간직하고
이웃에게 증거하는 삶으로
아름다운 본당 공동체를 이루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희망과 사랑을
온누리에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교황 |



교황 베네딕토 16세

| 추기경 |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 |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 현 본당신부 및 수녀 |



1보좌
이재학 예로니모 신부



주임
이원규 마태오 신부



2보좌
김경진 베드로 신부



원장
오미경 마리비따 수녀



수녀
변복희 에스더 수녀

| 역대 주임신부 |



초대
김운회 루카 신부(현 춘천교구장 · 주교)
1982. 3. 2. ~ 1988. 9. 7.



2대
김병학 라파엘 신부
1988. 9. 8. ~ 1993. 11. 4.



3대
최준웅 바르나바 신부
1993. 11. 5. ~ 1998. 10. 8.



4대
김영일 발타사르 신부
1998. 10. 9. ~ 2003. 9. 15.



5대
임덕일 아마투스 신부
2003. 9. 16. ~ 2008. 9. 1.

| 역대 1보좌신부 |



1대 원종현 야고보 신부
1989. 2. ~ 1991. 2.



2대 장희동 베드로 신부
1991. 2. ~ 1993. 3.



3대 박기호 다미아노 신부
1993. 3. 12. ~ 1995. 3. 17.



4대 홍사영 바오로 신부
1995. 3. 17. ~ 1995. 12. 1.



5대 오인섭 토마 신부
1995. 12. 1. ~ 1996.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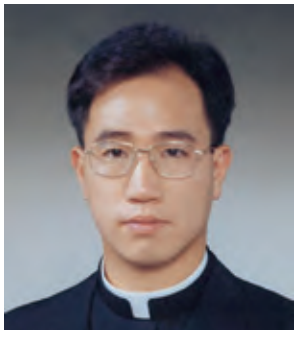
6대 조신형 도미니코 신부
1996. 11. 29. ~ 1999. 12. 3.



7대 양경모 바르나바 신부
1999. 12. 3. ~ 2001. 3. 6.



8대 이문호 빈첸시오 신부
2001. 3. 6. ~ 2003. 12. 5.



9대 남상만 베드로 신부
2003. 12. 5. ~ 2006. 11. 21.



10대 최형규 미카엘 신부
2006. 11. 21. ~ 2008. 12. 11.



11대 김범준 요한 신부
2008. 12. 11. ~ 2009. 12. 1.



12대 곽희태 스테파노 신부
2009. 12. 1. ~ 2012. 2. 21.

| 역대 2보좌신부 |



1대 황경원 안드레아 신부
1991. 9. 4. ~ 1993. 11. 5.



2대 홍사영 바오로 신부
1993. 12. 3. ~ 1995. 3. 17.



3대 권철호 다니엘 신부
1995. 3. 17. ~ 1996. 11. 29.



4대 김연범 안토니오 신부
1996. 11. 29. ~ 1998. 11. 27.



5대 신중호 베드로 신부
1998. 11. 27. ~ 2001. 1. 9.



6대 이문호 빈첸시오 신부
2001. 1. 9. ~ 2001. 3. 6.



7대 배한상 스테파노 신부
2001. 10. 5. ~ 2003. 12. 5.



8대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2003. 12. 5. ~ 2004. 9. 21.



9대 김종호 야고보 신부
2005. 11. 25. ~ 2007. 11. 21.



10대 김범준 요한 신부
2007. 11. 21. ~ 2008. 12. 11



11대 신광수 베드로 신부
2008. 12. 11. ~ 2011. 2. 22.

| 본당 출신 신부 |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



이경상 바오로 신부



장경원 요한 신부



김병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조유관 베드로 신부



박창엽 파비아노 신부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조민환 요한 신부



이희천 프란치스코 신부

| 역대 재임 원장 수녀 |



김송곤 휘델리스 수녀
1982. 9. ~ 1985. 2.



김영자 카스타 수녀
1985. 2. ~ 1988. 2.



김행자 사비나 수녀
1988. 2. ~ 1991. 9.



이춘예 알비나 수녀
1991. 9. ~ 1992. 3.



김희자 안셀모 수녀
1992. 3. ~ 1995. 2.



김학경 예레미아 수녀
1995. 2. ~ 1998. 2.



이복애 루까 수녀
1998. 2. ~ 1999. 2.



이영자 유제니아 수녀
1999. 2. ~ 2002. 2.



홍희자 고르넬리아 수녀
2002. 2. ~ 2005. 2.



사정숙 안토니아 수녀
2005. 2. ~ 2007. 8.



최옥순 콘세크라타 수녀
2007. 8. ~ 2010. 2.



전배경 엠마 수녀
2010. 2. ~ 2012. 5.

| 역대 재임 수녀 |



김순자 보니따스 수녀
1983. 9. 1. ~ 1984. 9. 1.



곽유희 마르꼬 수녀
1985. 2. 2. ~ 1986. 2. 3.



김영미 에디따 수녀
1986. 2. 5. ~ 1988. 2. 7.



김병옥 후밀리아 수녀
1988. 2. 8. ~ 1990. 2. 5.



신종련 마티아 수녀
1988. 2. 8. ~ 1989. 8. 31.



조영숙 안나마리 수녀
1989. 9. 1. ~ 1991. 2. 6.



남금자 시메온 수녀
1991. 2. 7. ~ 1992. 3. 2.



장미애 미애말첼리나 수녀
1992. 3. 3. ~ 1993. 2. 22.



지경희 마르틴 수녀
1992. 9. 3. ~ 1993. 8. 30.



김동선 임마꿀라다 수녀
1993. 2. 23. ~ 1994. 8. 23



홍혜영 마리엣다 수녀
1993. 8. 30. ~ 1996. 2. 20.



조미예 미예루시아 수녀
1994. 8. 23. ~ 1996. 8. 23.



곽희자 쟌다크 수녀
1996. 2. 20. ~ 1998. 2. 16.



박정애 올리비아 수녀
1998. 2. 17. ~ 1999. 2. 18.



김경민 어네스트 수녀
1999. 2. 18. ~ 2000. 8. 21.



김음전 마리대건 수녀
1999. 2. 18. ~ 2001. 2. 19.



성정아 니꼬데모 수녀
2000. 8. 21. ~ 2002. 2. 18.



박진 아숨따 수녀
2001. 2. 23. ~ 2002. 8. 21.



정선희 재니스 수녀
2002. 2. 18. ~ 2003. 8. 20.



이영숙 마리에스텔 수녀
2002. 8. 21. ~ 2003. 8. 20.



이덕애 마르셀 수녀
2003. 8. 20. ~ 2005. 2. 17.



강미용 헤셋 수녀
2003. 8. 20. ~ 2005. 2. 17.



김승미 이네스 수녀
2005. 2. 17. ~ 2006. 8. 20.



박은경 은경레나 수녀
2008. 2. 18. ~ 2009. 2. 14.



정현경 아스테리아 수녀
2009. 2. 18. ~ 2010. 8. 18.



김미라 마리앤 수녀
2010. 8. 18. ~ 2012. 8. 20

| 본당 출신 신학생 |



정규현 마르티노



이명진 요셉



이상민 바오로

| 현 사목협의회 회장단 |



총회장
하상도 대건 안드레아



부회장
최현태 요셉



부회장
주용식 바오로



부회장
이창진 요셉



부회장
이영숙 스콜라스티카



총무
홍기탁 요셉



부총무
최상열 미카엘



부총무
김순주 크리스티나

| 현 사목협의회 상임임원 |



남성총구역장
김태곤 대건 안드레아



여성총구역장
강인희 아녜스



재정분과위원장
박광수 레오



전례분과위원장
김정은 안젤라



선교분과위원장
김성숙 안나



교육분과위원장
최영섭 요셉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유승진 루카



가정분과위원장
노병희 세실리아



노인분과위원장
방용주 리고리오



시설분과위원장
김연웅 프란치스코



청년분과위원장
이종운 베르나르디노



청소년분과위원장
이성용 세레노

| 역대 사목협의회 회장 |



초대
김정희 알로이시오



2대
윤봉현 베네딕토



3대
최호식 라우렌시오



4대
구본호 프란치스코



5대
김종세 그레고리오



6대
김찬진 야고보



7대
지태욱 요셉



8대
이춘 가브리엘



9대
김동진 암브로시오



10대
김호길 마태오



11대
허주열 바오로



12대
최상철 요한



13대
한상헌 스테파노

방배동 성당 외관











1
2 3
4
5
6

01 성당 전경
02 사제관
03 수녀원
04 성모동산
05-06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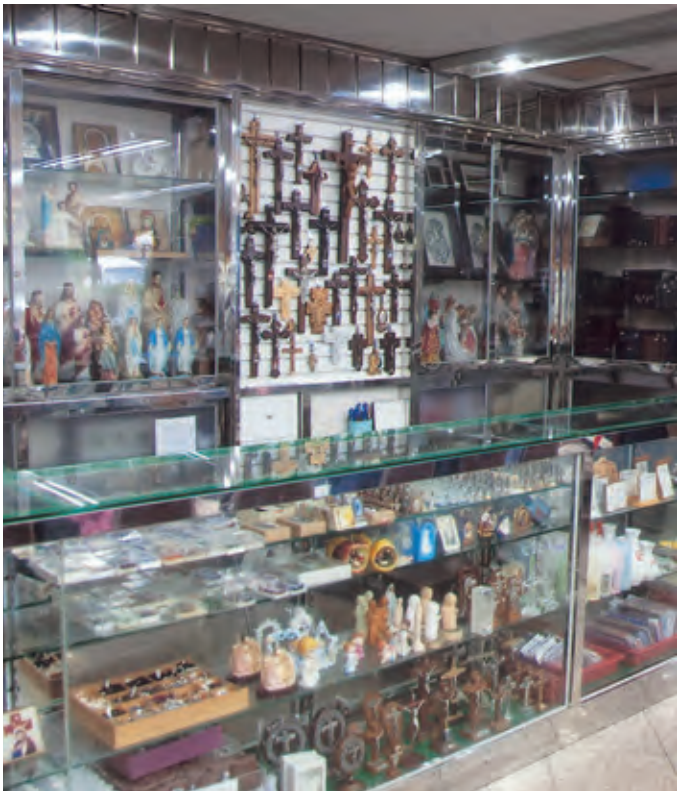
방배동 성당 내관



1 2 3 4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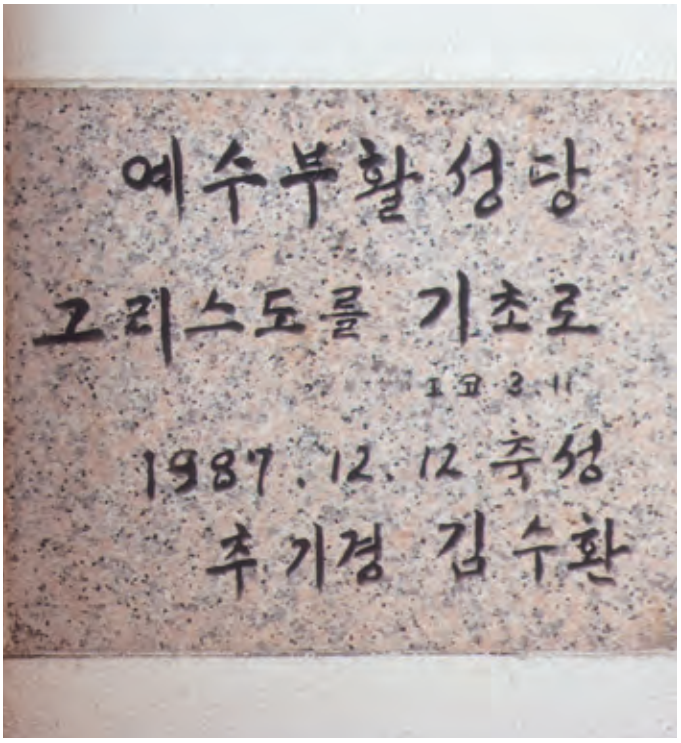
01 대성당 파이프오르간
02 만남의 방
03 성물방
04 머릿돌
05 사무실
06 사목회의실
07 고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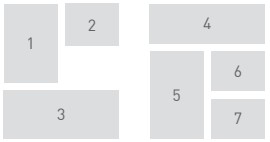

예수부활성당
그리스도를 기초로
1고 3.11
1987. 12. 12 축성
추기경 김수환



방배동 성당 내관







01-02 성체조배실
03 소성당
04 지하교리실
05 엘리베이터
06 유아방
07 발전실











복음4가와 12제자 스테인드글라스










성 마태오
성 바르톨로메오
성 필립보
성 장야고보
성 안드레아
성 베드로
성 토마스
성 차야고보
성 타대오
성 시몬
성 마티아
성 요한

방배동 성당 14처

방배동 성당에는 14처가 있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시다.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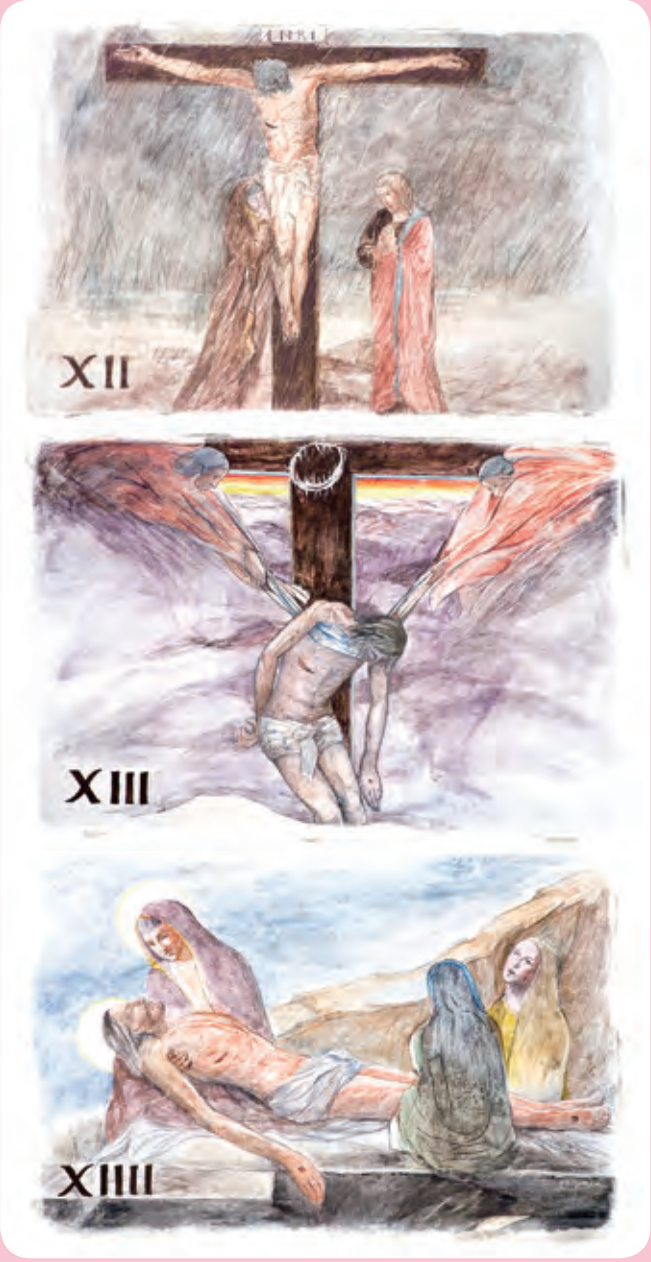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시다.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늘 곁에 계시는 주님

본당 주임신부 이원규 마태오



"여러분은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1코린 3,16)

우리는 매번 성체성사에 참여할 때마다 세례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주님의 은총과 약속을 기억합니다.

세례성사를 통하여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새로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은총의 선물에 힘입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께서 머무시는 공동체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응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이 약속은 주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해 주시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이 약속으로 우리는 이 복잡하고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처음의 결심을 잊지 않고 우리 자신을 끊임 없이 돌아보며, 주님의 몸과 피를 모실 때마다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얻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방배동 성당 공동체는 지난 30년을 이렇게 모두가 하느님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하느님의 영을 모시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든 허물과 부족함이 우리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되돌아가기도 하면서 힘없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총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0년의 시간은 그래서 우리 방배동 성당 공동체 모두에게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그분의 손길에 이끌려 온 시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온 몸과 마음이 따스해짐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하느님의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여 본당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천주교 방배동 성당 주임신부 이원규 마태오

축사

교우 여러분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대하며!



추기경 정진석 니콜라오

사랑하는 방배동 본당 교우 여러분!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방배동 본당의 공동체와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하시는 일에 항상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0년 전, 방배동의 어느 조그만 건물에서 셋방살이로 하느님 사업을 시작했던 방배동 본당이 성당 설립 30주년사를 편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감회가 떠올랐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변화무쌍했던 사회의 흐름 속에서도, 역대 신부님들과 교우들이 모두 함께 하느님을 따르면서 화합과 노력을 기울인 끝에 내적, 외적으로 커다란 규모의 공동체를 이룩해 놓았으며, 서울 도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울창한 숲으로 둘러쌓인 아름다운 성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교구장 시절, 본당신부님과 교우 분들의 초청으로 몇 차례 방배동 본당을 방문했을 때 하느님 사업에 열정이 가득했던 신자들, 그리고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졌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올 2012년은 방배동 본당 공동체가 그러한 성장 위에 한층 더 개개인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거룩하고 보편적인 성숙한 교회로 거듭나는 의미 있고 소중한 한 해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이웃의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을 더욱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복음전파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는 확고한 전환의 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더 복잡하고 질서가 흔들려가는 오늘날, 방배동 본당 교우 여러분들의 값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아 사랑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있는 주임신부님을 비롯한 방배동 본당 공동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석(니콜라오) 추기경 

축사

아주 특별한, 은총이 충만한 30주년!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짧지 않은 지난 시간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고 교우간 화합과 신심을 다지는 여러가지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는 방배동 성당 교우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가정과 공동체에 풍성한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1980년대 초반 조그만 상가 건물에 성전을 마련하고 방배동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느님께 첫 약속을 드렸던 방배동 교우 여러분들의 열정 어린 복음 전파와 기도와 노력으로 방배동 성당이 그 교세의 확장과 더불어 신심이 충만한 아름다운 본당으로 견고한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특별한 하느님의 은총이라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그간의 하루하루가 물론 은총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방배동 본당의 올해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신자 성지순례, 전체 교우들이 참여하는 성경필사, 체육대회 겸 축제한마당, 성가대회를 비롯한 문화예술제, 음식 나눔 잔치, 묵주기도 100만단 바치기, 방배동 성당 30년사 편찬 등 많은 기념행사와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당 주임신부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교우 여러분들간의 친교와 화합의 아름다운 은총의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방배동 교우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항상 변화하고 새로워지면서 끊임없이 발전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사회적으로 다양성이 요구되고 각 개인의 삶의 방식이 세분화 되고 있으며 가치관의 기준이 수시로 변화하는 예측불허의 시대이기에 우리 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기롭게 되돌아 보는 가운데 지속적인 쇄신과 변화를 추구하며,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한편, 가난 속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소외된 외로운 이웃과 함께 하는 등의 우리 본연의 사랑 실천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생활화 된 기도와 하느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간의 하루하루가 물론 은총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방배동 본당의 올해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배동 교우 형제자매 여러분,

본당주보가 "예수부활"인 방배동 성당은 부활 신앙이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 용서, 기쁨, 희망, 평화 속에 부활하신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하면서 "여러분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골로 4,17)라고 하신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은총 속에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충실히 하여 다가올 50년사, 100년사 또한 아름다운 축복 속에 준비하고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방배동 본당이 있기까지 하루하루 본당의 발전과 사목활동에 힘써오신 역대 신부님, 역대 수녀님들을 비롯하여 은총이 충만한 30주년의 해를 지내고 있는 주임신부님과 사목위원들을 비롯한 형제자매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2012. 8. 14.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

회고사

방배동 성당 설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천주교춘천교구장 김운회 루카 주교

친애하는 방배동 성당 교형자매여러분!

하느님의 크신 은총으로 방배동 성당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방배동 공동체의 형제자매 여러분과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저는 축하의 글을 쓰면서 30년 전 열악했던 공동체의 시작을 생각하며 벅차오르는 감격과 크신 하느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떨리는 마음을 참을 수 가 없습니다.

당시에 방배동 공동체는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을 연상 시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려웠지만 늘 서로 만나면 기쁘고 행복해 했습니다. 비록 상가 건물을 빌려 시작한 공동체이기에 회합실이 없어 각자의 가정을 돌아가며 이루어진 모임이었지만 큰 열성으로 임했으며 모두들 행복해 했습니다. 그때의 형제자매들의 모습이 저에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곳이든 함께 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 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신자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듯이 30년 전 방배동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때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발전되고 모범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자라났다고 믿습니다.

성전건립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두고 이루어진 바자회나 각종 행사들에서도 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몫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하면서도 시골본당을 돕기 위해 기꺼이 나섰고 지방 성당건립 공사비를 돕기 위한 헌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모금을 왔던 신부님이 우리 공동체에 열악한 상황을 보고 오히려 안절부절 못하며 모금해 가던 일이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방배동 성당 공동체는 이웃의 어려움을 우선 생각하고 진정으로 나눔을 실천해온 공동체였기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했다고 믿습니다.

방배동 성당 공동체는 이웃의 어려움을 우선 생각하고
진정으로 나눔을 실천해온 공동체였기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했다고 믿습니다.

방배동 본당 교형자매여러분!

본당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방배 공동체가 주님 안에 더욱 사랑받는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빕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보이신 예수 부활의 신앙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부활신앙은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과 십자가를 통한 승리의 기쁨을 약속합니다.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늘 새로워집니다. 부활의 기쁨과 희망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와 화해가 가능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닮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예수 부활을 주보로 모신 방배동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이 예수 부활의 신앙을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방배동 성당 설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주임 신부님과 보좌 신부님들 그리고 수녀님들과 교형자매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충만 하시기를 빕니다.

2012년 8월

천주교춘천교구장 김운회 루카 주교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공동체



사목회 총회장 하상도 대건 안드레아

"나도 은퇴 후에는 이곳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우리 성당 축성식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주요 일간지에 우리 성당 정경이 "눈 오면 서울시내에서 가볼 만 한 명소"로 선정(조선일보 2007.1.14자)되기도 하였습니다.

웅장한 성전과 넓게 트인 주차장, 병풍처럼 둘러 처진 우면산 자락을 배경으로 계절마다 예쁜 옷을 갈아 입는 아름다운 성당에서 하느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는 참으로 복 받은 곳 입니다.

그러나 설립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가건물을 빌려 374세대 총 신자수 1,375명의 아주 작고 초라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 후 모두가 노력하여 마련 했던 현재의 성당 부지도 행려 사망자들의 주검을 안치했던 장소로, 당시 각종 회합도 시체를 냉동하던 창고를 청소하고 개최 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30년을 지나오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며 묵묵히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직자와 수도자, 본당의 모든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희생을 보시고 이제는 누구나 오고 싶어하며, 혼인미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크고 아름다운 본당 공동체로 성장 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인생의 여정에서도 30년은 장래의 삶을 위한 준비기간이라 할 수 있듯이 우리 본당 공동체도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성당부지매입과 신축, 방배4동성당 분당, 운동장(주차장)포장과 돔 모자이크를 비롯한 성전 내,외부의 크고 작은

하느님께서는 기도와 희생을 보시고 이제는 누구나 오고 싶어하며,
혼인미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크고 아름다운 본당 공동체로 성장 시키셨습니다.

시설공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열차를 이용한 전 신자 성지순례, 체육대회, 각종피정이나 교육 등의 신자 일치 단합과 신심함양 노력도 끊임없이 추진 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0세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사명을 공적으로 수행하시기 시작 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그 동안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30년 이란 짧지 않은 세월 속에 녹아든 수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을 바탕으로 공동체 내에서는 따듯한 형제적 사랑을 나누고, 더 나아가 밖으로는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 해 봅니다.

저는 이번 본당설립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각종 행사를 교우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축복 받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당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웠다고 머릿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서른 살이 된 우리 방배동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 30년사 발간을 적극 지원 해 주신 이원규(마태오)주임신부님과 바쁘신 중에도 많은 시간을 내어 방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애쓰신 30년사 발간 추진위원장 이창진(요셉) 사목회 부회장님과 김규만(마지아), 박동수(베드로), 이승구(요셉), 박민철(라파엘) 형제님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2년 10월

총회장 하상도 대건 안드레아

CONTENTS

발간사

늘 곁에 계시는 주님 _ 이원규 마태오 주임신부 ····· 36

축 사

교우여러분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대하며 _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 37

축 사

아주 특별한, 은총이 충만한 30주년 _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 ··· 38

회고사

방배동 성당 설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_ 춘천교구장 김운회 루카 주교 ····· 40

인사말

사랑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_ 사목회 총회장 하상도 대건 안드레아 ····· 42

제1부 본당사

제1장 방배동의 유래와 특성 ····· 58

제2장 여명기 – 방배 본당의 시작

1. 공소설립 ····· 59

2. 방배동 성전(공소) 건립 준비위원회 발족 ····· 60

3. 상가 성전 완성 ····· 60

제3장 태동기 – 방배 본당 성전의 건립

〈제1대 김운회(루카) 신부 사목시기〉

1. 상가 성전 시대 ····· 62

1) 본당 설립 승인
2) 초대 김운회(루카) 주임신부 부임
3) 첫 미사 봉헌
4) 봉사 단체 구성
5) 수녀 부임

2. 임시(가건물) 성전 시대 ····· 67

1) 성당 부지 구입
2) 성전 건립 기금 모금 운동
3) 임시 성당 건축
4) 성전 건립을 위한 바자회 개최
5) 성당 이전 및 임시 성전 축성식

제4장 성장기 – 방배 본당의 성장

1. 성전 건립 ····· 72
   1) 성전 건립 준비위원회 구성
   2) 설계 및 감리 계약
   3) 제2차 성전 건립기금 모금 시작
   4) 건축 허가
   5) 건축회사 선정
   6) 신축 성전 기공식
   7) 공사 진행
   8) 새 성전 준공 기념 바자회
   9) 새 성전 축성식
2. 봉사단체 구성 ····· 81
   1) 사목협의회 재편성
   2) 구역 반 재편성
   3) 레지오 마리애
3. 신앙생활 활성화와 성가정화 ····· 82
   1) 친교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2) 김대건 신부 유해, 본당 순회기도와 103위 시성식
   3) 영세식 및 견진성사
   4) 한마당 축제
   5) 본당 소식지 〈방배가족〉 발행
   6) 주부대학 강좌
   7) 요셉노인대학 설립
4. 본당 출신 첫 사제 서품 ····· 84
5. 김운회(루카) 신부 이임 ····· 85

제5장 안정 및 도약기 – 성장하는 방배 본당

〈제2대 김병학(라파엘) 신부 사목시기〉

1. 제2대 김병학(라파엘) 주임신부 부임 ····· 86
2. 평안함을 느끼는 본당으로 ····· 87
   1) 평안한 교회
   2) 성서강좌
3. 보좌신부 부임 ····· 89
4. 수녀 부임 ····· 89
5. 봉사단체 구성 ····· 90
   1) 사목협의회
   2) 구역 반
   3) 레지오 마리애

CONTENTS

6. 사제 서품과 성소후원회 발족 ····· 91
1) 본당 출신 세 번째 사제 서품 2) 성소후원회 발족
7. 밖으로 평화, 안으로 화목 ····· 92
8. 제44차 세계성체대회 참가 ····· 93
9. 장학기금 조성 및 지급 ····· 94
10. 본당 설립 10주년 ····· 95
1) 성서 읽기의 해 2) 무료 상담실 개설
3)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 한마당잔치
11. 김병학(라파엘) 주임신부 은경축 행사 ····· 96
12. 청년회 활동 ····· 97
1) 청년연합회 2) 청년성서모임
3) 청년성가단 4) 청년봉사단
13. 김병학(라파엘) 주임신부 이임 ····· 98

〈제3대 최준웅(바르나바) 신부 사목시기〉

1. 제3대 최준웅(바르나바) 주임신부 부임 ····· 99
1) 신자들과 함께 있는 신부 2) 남성 구역모임 활성화
3) 김수환 추기경 사목방문
2. 보좌신부 부임 ····· 102
3. 수녀 부임 ····· 102
4. 봉사단체 구성 ····· 102
1) 사목협의회 2) 신자에게 베푸는 교회로
3) 건의함 설치 4) 의료자원봉사 실시
5) 구역 반 6) 구역 소공동체
5. 서품과 성소후원회 ····· 105
1) 사제 서품과 부제 서품 2) 성소후원회
6.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행사 ····· 107
1)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유해 순회 기도회
2)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

7. 사랑의 나눔 ····· 109
1) 백운성당과 자매결연 2) 사랑 나누기 농산물 판매
8. 청년모임 ····· 109
9. 삼풍백화점 희생자를 위한 기도 ····· 110
10. 새 성전 신설 준비 ····· 111
1) 교세 현황 2) 대지 구입
3) 새 성전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11. 《방배동 본당 15년사》 편찬 ····· 114

제6장 성숙기 – 굳건해지는 방배 본당

〈제4대 김영일(발타사르) 신부 사목시기〉

1. 제4대 김영일(발타사르) 주임신부 부임 ····· 115
2. 보좌신부 부임 ····· 116
3. 수녀 부임 ····· 116
4. 봉사단체 재편성 ····· 117
1) 사목협의회 구성 2) 구역 조직 재편
3) 레지오 마리애 4) 청년단체
5. 성전 보수 ····· 118
6. 의료 봉사 실시 ····· 118
7.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 서명 및 장기 기증, 헌혈 ····· 120
8. 구역 친선 겨루기 ····· 120
9. 구역 성가 대회 ····· 120
10. 본당 전 교우 성지순례 ····· 120
11. 사랑의 나눔 ····· 122
1) 웃어른 모시는 날 2) 우면산 내셔널 트러스트 사업 참여
3) 한마음 잔치 4) 어린이 나눔잔치
5) 해외(브라질) 동포를 위한 도서 수집
6) 알뜰시장 기증 물품 수집 행사 7) 대만 어린이 합창단 공연

CONTENTS

12. 사제 서품과 부제 서품 ····· 124

13. 김영일(발타사르) 주임신부 기념 미사 ····· 124

1) 고희 기념 미사 2) 은퇴 미사

14. 김영일(발타사르) 신부 이임 ····· 124

〈제5대 임덕일(아마투스) 신부 사목시기〉

1. 제5대 임덕일(아마투스) 주임신부 부임 ····· 126

2. 보좌신부 부임 ····· 126

3. 수녀 부임 ····· 127

4. 봉사단체 구성 ····· 128

1) 사목협의회 재편성 2) 구역 활성화

3) 레지오 마리애 4) 연령회

5) 청년단체

5.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중요 행사 ····· 131

1) 경축미사와 윷놀이 대회 2) 전대사와 축복장

3) 전 신자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4)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특강

5) 돔 모자이크 완공 공개행사 6)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한마당 잔치

7)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음악회 8)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마감미사

6. 기타 행사 ····· 137

1) 남성 구역 가을맞이 행사 2) 훈화 모음집 《사랑의 산책길》 출판 기념회

3) 묵주기도의 밤 행사 4) 상설고해소 축복식, 현판식

5) 정월 대보름맞이 구역 친선 윷놀이대회

6) 쉬는 교우 회두를 위한 고리기도

7) 성경 필사대회 8) 본당 야외 행사

7. 임덕일(아마투스) 주임신부 이임 ····· 138

〈제6대 이원규(마태오) 신부 사목시기〉

1. 제6대 이원규(마태오) 주임신부 부임 ····· 140

2. 보좌신부 부임 ····· 141

3. 수녀부임 ····· 141

4. 봉사단체 구성 ····· 142
1) 사목협의회 재편성
2) 구역 조직 확대 재편
3) 레지오 마리애와 단체들의 활성화

5. 신심과 영성의 심화를 위한 노력 ····· 144
1) 전 신자 새해 피정
2) 미사 전 성서 읽기와 성무일도 바치기
3) 신앙학교
4) 사순 음악 피정과 음악이 있는 십자가의 길

6. 화합과 일치를 위한 행사 ····· 145
1) 본당의 날 행사
2) 구역 성가 경연대회
3) 전 신자 성지순례– 배론성지
4) 레지오 마리애 사진 전시회
5) 구역 대항 연도대회
6) 전 신자 등산대회

7.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 148

8. 사랑과 나눔 ····· 149
1) 칠레 대지진 긴급 구호 재해 의연금 모금
2) 불우이웃 돕기 전 신자 참여 바자회
3) 사순시기 불우이웃 돕기 헌금
4) 방배동 집중호우 재해 지원

9. 본당 성전의 보수 ····· 150
1) 본당 내부 공사
2) 축복의 방, 유아방 리모델링 공사
3) 주차장 포장공사

10. 기타 행사 ····· 152
1) 성체조배실 개관 행사
2) 김영일(발타사르) 신부님 금경축 미사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행사〉

11.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행사 ····· 153
1) 전 신자 성지순례
2) 묵주기도 100만단 바치기
3) 성경필사
4) 한마음 체육대회
5) 글짓기 사생대회
6) 자선 까페
7) 음악회
8) 음악 피정
9) 30주년 기념 특별미사
10) 30년사 발간

CONTENTS

제2부 본당의 현황

제1장 역대 성직자 · 수도자 현황

1. 역대 주임신부 ····· 166
2. 역대 보좌신부 ····· 166
3. 역대 수녀 ····· 168
4. 본당 출신 사제 ····· 169
5. 신학생 ····· 169

제2장 교세 현황

1. 교세 증가 현황 ····· 170
2. 신자 연령별 구분 ····· 171
3. 전년도 대비 총수의 증감 ····· 171
4. 관할 행정 구역 인구수 및 신자수 ····· 171

제3장 미사 전례와 성사 현황

1. 미사전례 ····· 172
2. 성사 현황 ····· 172
3. 성사 집행 현황 ····· 172

제4장 사목협의회 현황

1. 기구 조직도 ····· 179
2. 역대 사목협의회 회장 ····· 180
3. 역대 사무장 ····· 180
4. 현 직원 현황 ····· 180

제5장 단체 현황

1. 평신도 사목단체 현황 ····· 181
2. 주일학교 및 청년 사목 현황 ····· 182

제6장 재정 현황
1. 교무금 및 헌금 연도별 증감 현황 ····· 186
2. 교무금 납부 실태 ····· 187

제7장 성당 대지 및 건물 현황
1. 대지 ····· 189
2. 건물 ····· 189
3. 건물 배치도 ····· 189

제8장 관할 구역도

제9장 구역 배치도
1. 구역도 ····· 191
2. 구역별 주요시설 ····· 192

제3부 사진으로 보는 방배동 성당 30년

1. 초대 김운회(루카) 주임신부 사목시기 ····· 196
2. 제2대 김병학(라파엘) 주임신부 사목시기 ····· 210
3. 제3대 최준웅(바르나바) 주임신부 사목시기 ····· 220
4. 제4대 김영일(발타사르) 주임신부 사목시기 ····· 241
5. 제5대 임덕일(아마투스) 주임신부 사목시기 ····· 255
6. 제6대 이원규(마태오) 주임신부 사목시기 ····· 273

CONTENTS

제4부 평신도 사도직 단체

제1장 사목협의회 구성 현황

1. 자문위원단 ····· 310
2. 회장단/상임위원 ····· 310
3. 위원 및 단체장 ····· 311

제2장 분과위원회 및 소속 단체 구성 현황

1. 총무단 ····· 312
2. 재정분과 위원회 ····· 313
3. 전례분과 위원회 ····· 314
   - 전례단
   - 상투스 성가단
   - 아우름 성가단
   - 반주단
   - 성찬봉사회
   - 제대회
   - 전례 꽃꽂이회
4. 선교분과 위원회 ····· 322
   - 연령회
   - 예비신자 교리봉사회
5. 교육분과 위원회 ····· 325
   - 울뜨레야
   - 가톨릭 성서모임
   - 성서백주간
   - 성령기도회
   - 성소후원회
6. 사회복지분과 위원회 ····· 331
   - 애덕회
   - 빈첸시오회
7. 가정분과 위원회 ····· 334
   - M.E
   - 첫 영성체 교리교사회
8. 노인분과 위원회 ····· 337
   - 노인대학
9. 청소년분과 위원회 ····· 339

10. 청년분과 위원회 ····· 341
청년전례단 – 쉐마
청년봉사단 – 동살
청년성가대 – 아나빔
청년성서 모임 – 태멘
청년연극단 – 옹기마을
생활성가단 – 예따사
청년레지오 – 즐거움의 원천 pr., 믿음의 샘 pr.
청년복사단
11. 시설관리분과 위원회 ····· 350

제3장 구역 구성 현황

1. 남성구역분과 위원회 ····· 351
2. 여성구역분과 위원회 ····· 358

제4장 레지오 마리애 구성 현황

1. 겸손하신 모후 꾸리아 ····· 365
사도의 모후 Pr.
하늘의 문 Pr.
무염시태 Pr.
다윗의 탑 Pr.
정의의 거울 Pr.
자비의 모후 Pr.
성가정의 어머니 Pr.
온유하신 모후 Pr.
중재자의 모후 Pr.
2. 파티마의 성모 꾸리아 ····· 368
순교자의 모후 Pr. (A)
순결하신 모후 Pr.
신비로운 장미 Pr.
천주의 성모 Pr.
순교자의 모후 Pr. (B)
천상의 모후 Pr.
성가정의 어머니 Pr.
은총의 샘 Pr.
사랑의 모후 Pr.
은총의 모후 Pr.
결백하신 모후 Pr.
인자하신 모후 Pr.
사랑의 샘 Pr. (A)
천사들의 모후 Pr. (A)
찬송하올 어머니 Pr.
사랑의 샘 Pr. (B)
천사들의 모후 Pr. (B)
3. 천주의 성모 꾸리아 ····· 373
천주의 성모 Pr.
영원한 사랑의 모후 Pr.
성인의 모후 Pr.
은총의 샘 Pr.

CONTENTS

천지의 모후 Pr.
바다의 별 Pr.
희망의 모후 Pr.
중재자의 모후 Pr.
하느님의 에덴 Pr.
사랑의 샘 Pr.

4. 공경하올 어머니 꾸리아 ····· 376

인자하신 모후 Pr.
사랑의 어머니 Pr.
로사리오의 모후 Pr.
도움의 어머니 Pr.
모든이의 어머니 Pr.
자애로우신 어머니 Pr.
애덕의 모후 Pr.
겸손하신 모후 Pr.
천상의 모후 Pr.
상아탑 Pr.
성실하신 모후 Pr.
정의의 거울 Pr.
그리스도의 모후 Pr.
거룩하신 모후 Pr.
자비로우신 어머니 Pr.
하늘의 문 Pr.
성모성심 Pr.

5. 자비의 성모 꾸리아 ····· 381

평화의 모후 Pr.
천상의 모후 Pr.
즐거움의 원천 Pr.
믿음의 샘 Pr.
겸손하신 모후 Pr.
그리스도의 어머니 Pr.
기쁨의 원천 Pr.
자비로우신 마리아 Pr.
구세주의 어머니 Pr.

6. 순결하신 모후 꾸리아 ····· 384

황금 궁전 Pr.
자비의 모후 Pr. (B)
상지의 좌 Pr.
평화의 모후 Pr.
교회의 어머니 Pr.
애덕의 모후 Pr.
샛별 Pr. (A)
거룩하신 어머니 Pr.
바다의 별 Pr. (A)
자애로운 모후 Pr.
희망의 모후 Pr.
지혜로우신 어머니 Pr.
사랑의 샘 Pr.
기쁨의 샘 Pr.
샛별 Pr. (B)
바다의 별 Pr. (B)

제5부 특별기고 및 신자들의 글

방배동 성당의 숨겨진 이야기들 _ 김종세 ····· 392
신앙인이 된 보람 _ 지태욱 ····· 396
지난 30년을 감사하고 앞으로 30년을 준비하자 _ 최상철 ····· 398
연령회… 그리고 파티마에서의 묵주기도 봉헌 _ 최현태 ····· 400
요셉 노인 대학 4반세기에 대한 회고 _ 조기선 ····· 402
방배동 성당과 함께 한 신앙생활 _ 김천수 ····· 405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_ 윤영전 ····· 407

※ 편집 후기 – 사랑과 화합 속에 지내온 30년간의 발자취 _ 이창진 ····· 410








김영일(발타사르) 신부님 사제서품 40 주년기념
축
2000.3.19 천주교방배동교회













01

BANGBAEDONG CATHOLIC CHURCH

본당사

1. 방배동의 유래와 특성
2. 여명기 – 방배 본당의 시작
3. 태동기 – 방배 본당 성전의 건립
4. 성장기 – 방배 본당의 성장
5. 안정 및 도약기 – 성장하는 방배 본당
6. 성숙기 – 굳건해지는 방배 본당

1 방배동의 유래와 특성



방배동의 유래는 관악구와 서초구의 경계에 솟은 우면산을 등지고 있는 동리라는 뜻을 방배라 한 데서 연유한다. 방배동의 연혁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말까지 경기도 과천군 상북면 방배리였으나 일제 때인 1914년 경기도 구역 확장 때에 이 지역은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방배리가 되었다. 이후 1963년 서울특별시의 구역 확장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편입되었으며 1988년 1월 1일 서초구가 강남구로부터 분리 신설되어 서초구 방배동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위치는 서초구의 서쪽 끝에 있으며 서울에서 과천에 이르는 도로와 남부순환로가 교차하는 곳에서 우면산에 이르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근래에 신흥주택가로 발전한 곳이지만 지금도 남아 있는 자연부락 명칭들을 통해 옛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천씨가 많이 살았다 하여 천촌말이라 불렀고, 그 뒤에 있는 골짜기를 뒷굴, 그 뒷굴에 있는 논을 뒷굴논, 천촌말 고개 너머의 벌을 뒷벌, 천촌말과 사궁말 앞 벌을 앞벌, 천촌말 근처의 산개천둑을 갤둑이라 하였고, 거꾸로 넘어간다 하여 가꿀고개, 논이 깊어 구레논, 쪽박 엎어 놓은 것 같다 하여 쪽박산, 산 아래로 뱅 돌아간다 하여 뱅도래미, 새로 생긴 마을은 새말, 옛날에 큰 마을이 있었던 터는 새텃말, 뱀장어가 많아 장앗들, 치달은 골짜기라 하여 치골, 호랑이가 살았다는 호랑바위, 돌 한쪽으로 건너던 다리로 임금의 거동하던 길을 쪽다리,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달라고 하여 이복촌(이북굴)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방배동에는 고분이 있었는데, 이 고분에서 1970년대에 조선 초기의 목우 6점이 출토되었다. 높이 7~8cm의 목우들은 출토 당시 부분적으로 부식된 곳도 있었으나 거의 완전한 형태였으며, 원래 채색을 한 듯 약간의 채색 흔적이 남아 있다. 6개 중 5개는 인물상으로서 3개는 여인상이고, 2개는 남자상이다.

남자 한 사람은 평정건을 쓰고 한 사람은 변발을 하고 있어서 고려 후기 몽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옷도 남자는 두루마기 같은 포를 입고 있고, 한 여자는 길이가 긴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다. 나머지 한 개는 마상으로서 균형이 잘 잡히고 사실적인 표현에다 나무결을 잘 살린 작품이다. 이 고분은 방배동의 개발로 인하여 현재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2 여명기
방배 본당의 시작

1. 공소설립

1981년 1월. 반포본당 박병윤(토마스) 신부는 신자 수가 약 5,700여 명으로 늘어나자 좀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본당 설립의 필요성을 느꼈다. 반포본당을 다니기에는 교통이 불편했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배동 지역에 본당을 설립하기로 하고 사목회와 협의하여 모금을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서울대교구에 분가의 필요성을 알려서 허락을 받았다.

그러던 중 1981년 중반에, 박병윤 신부가 다른 본당으로 가고 반포본당 제2대 주임신부로 김영일(발타사르) 신부가 부임해 오게 되었다. 김영일 신부는 방배동 본당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새 성전을 설립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기금 확보가 중요함을 알고 기금모금 활동을 강화했다. 매주 성금 외에 주일헌금에서 1백만 원씩을 따로 떼어서 무조건 본당 설립 기금으로 했다.

드디어 1981년 10월 8일 방배동 지역 공소를 설정하고 방배동 106-1에 위치한 남서울빌딩 2층 220평을 공소 건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남서울빌딩은 반포세무서 건너편에 있는 4층 건물로 지금은 개신교 말씀교회와 세무관련 사무소들이 입주해 있다.

남서울빌딩에 공소를 설립했지만 공소예절을 따로 드린 것은 아니고, 신자들은 전과 다름없이 반포본당에 나가서 미사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남서울빌딩의 방배공소는 이름만 있을 뿐, 실제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으며, 방배동 본당 설립을 위한 과정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2. 방배동 성전(공소) 건립 준비위원회 발족

공소를 설정하고 공소건물 임대계약을 했지만 본당을 설립하는 데에는 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동안 반포본당 사목협의회에서 보아 오던 본당 설립에 관한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반포본당 사목협의회 내에 성전 건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을 임명했다. 위원장에는 김정희가 임명되었다. 김정희 위원장은 반포본당에서 사목협의회 부회장으로서 방배 본당 건립 준비에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하 위원들도 방배동 지역에 거주하는 사목위원들로 임명하여 새로운 본당 건립에 더욱 정성을 쏟도록 했다.

성전 건립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자 본당 건립을 위한 모금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성전 건립 준비위원회는 방배 본당이 설립된 후에는 사목협의회로 개칭하여 활동했다.

성전 건립 준비위원회 임원 겸 초대 사목협의회 임원	
준비위원장	김정희(알로이시오)
부위원장	윤봉현(베네딕도)
	최호식(라우렌시오)
	박수명(스테파노)
총무	이강수(바오로)
위원	방배동 거주 반포성당
	사목위원 10명
사무장	김홍기(빌리버)

3. 상가 성전 완성

1982년이 되자, 공소로 임대 계약한 남서울빌딩에 본당과 사제관을 꾸미는 작업을 시작했다. 우선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본당을 꾸미기 위한 제대와 음향기기, 비품 그리고 신자들이 앉을 의자가 필요했다.

제대는 익명의 신자가 1백만 원을 헌금해 주어 구입하였고, 14처를 비롯한 성물 일체는 반포본당의 김교만(서울대 미대 교수) 형제가 기증했으며, 많은 교우들이 성전에 필요한 것을 알아서 준비해 주었다. 새로운 성전을 내 손으로 꾸민다는 뿌듯함이 신자 각자의 마음속에 넘쳐흘렀다. 목수 2명과 신자들이 밤샘 작업을 하여 마침내 본당의 모습이 꾸며졌다.

건물이 큰길가에 위치한 탓에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창을 이중문으로 하여 어느 정도 방음이 되도록 했다. 비좁지만 사제관도 꾸며야 했다. 건물 내부 한쪽에 방을 들이고 조그맣게 응접실과 침실을 만들었다. 난방은 연탄을 땔 수 있도록 새마을 보일러를 설치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름보일러가 널리 보급되지도 않았고, 새로 성전을 꾸미는 데 들여야 할 돈도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넉넉하게 할 수 없었다. 부엌에 필요한 물건들은 여성 신자들이 열성적으로 봉헌했다. 냉장고는 물론 책장 등도 준비되었다.





1 2 3 4 5

01 꾸미기 전의 제대
02 성당 내부 좌측
03 성당 내부 우측
04 고해소
05 만남의 방







3 태동기
방배 본당 성전의 건립



1. 상가 성전 시대

1) 본당 설립 승인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전 건립 위원회를 비롯한 봉사자들과 모든 신자들이 합심하고 기도와 희생을 기울인 끝에 상가성전의 준비가 매우 순조롭게 되었으며, 드디어 1982년 2월 25일 서울대교구 공식 승인에 의거(공문 82-6호)하여 '천주교 서울대교구 방배동 교회'로 설립이 되었다.

1982년 3월 2일에 방배동 성당 초대 주임신부인 김운회(루카) 신부가 발령이 되었다.

2) 초대 김운회(루카) 주임신부 부임

김운회(루카) 초대 주임신부는 서울대교구 가톨릭학생회 지도신부로 재임하면서 동성고등학교와 가톨릭학생회를 지도해 온 소탈하고 친화력이 넘치는 분이었다.

김정희(알로이시오) 성전 건립 준비위원장 등 몇 명이 김운회신부가 계시는 혜화동 가톨릭회관 2층 사무실에 가서 모셔왔는데, 신부님이 떠나려 하자 학생들이 신부님과의 이별을 몹시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고 모시러 간 일행은 참으로 좋으신 신부님이라는 인상을 깊이 받았다고 한다.



첫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 성당에 들어오는 김운회 주임신부

김운회 신부는 3월 3일 반포본당의 김영일 신부에게서 관할구역 등 사목 사무를 인계받았다.

당시 관할구역과 신자수는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2동 일부에 거주하고 있는 374세대 1,357명이었다.

김운회(루카) 신부 약력	
1973. 12. 08	사제 수품
1973. 12. 08 ~ 1982. 02	가톨릭 학생회 지도신부
1974. 03 ~ 1980. 08	동성중학교 교도주임
1979. 03 ~ 1982. 02	성심여고 지도신부
1981. 03 ~ 1982. 03	교구 중 · 고등학생 연합회 지도신부 중 · 고등학생 지도자 연합회 지도신부 중 · 고등학교 현직 교사회 지도신부
1982. 03 ~ 1988. 09	천주교 방배동 본당 주임신부

3) 첫 미사 봉헌

1982년 3월 6일 오후 6시, 본당 첫 미사를 김영일 신부와 김운회 신부의 공동 집전으로 봉헌했다. 그동안 본당 건립 준비에 애써 온 준비위원들과 신자들은 감격적인 미사를 드렸다.

이어서 김운회 신부의 환영식을 개최했다. 신자 대표로 환영식 식사를 한 김정희 사목회장은 '젊으시고 활달하시며, 영도력이 탁월하신 김운회 신부님을 모시고 방배동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전파의 도구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란다. 그러나 이제 세상에 모습을 갓 드러낸 방배동 본당은 스스로의 힘으로 서고 걷고 달려야만 했다.

200년 전 천주교가 이 땅에 처음 들어올 때에 비하면 스스로의 걸음이라도 너무나 좋은 환경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첫 발의 어려움은 어느 경우에나 힘들고 또 소중하다. 방배동 본당은 천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굳은 신앙심으로 똘똘 뭉쳐서 한 발 한 발 걸음마를 시작했다.

김운회 신부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당시 제 숙소로 아파트를 얻는다고 했는데, 그냥 상가 안에다 마련하도록 했어요. 아파트에 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사목 활동도 여의치 않을 것이고, 또 반포본당에서 받은 1억 원이 안 되는 돈을 상가를 빌리고, 본당을 꾸미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얻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상가에 있고 어설프니까 몇 사람 빼놓고는 반포본당과 사당동본당으로 다 나갔어요. 그렇지만 인원이 적으니까 적은 대로 굉장히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활성화되었습니다. 열심히 똘똘 뭉치게 되더군요."

적은 수의 신자들이 똘똘 뭉쳐서 신앙생활을 활성화하는 모습은 눈물겹도록 아름다웠다.

한 달 뒤인 4월 12일 오후에는 서울대교구 경갑룡 주교가 본당을 방문했다. 경갑룡 주교는 성당 내부를 둘러본 후 본당 신부를 비롯하여 신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었다. 경갑룡 주교의 방문은 새 성전을 이끌어 나가는 주임신부는 물론 사목협의회 임원들을 비롯한 신자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 본당은 점차 활성화되어 갔다. 본당이 활성화되자, 반포본당에 나가던 신자들이 방배동 본당에 나오게 되었다.




김영일 신부와 김운회 신부의 공동 집전으로 첫 미사 봉헌

4) 봉사 단체 구성

▷ 제2대 사목협의회 구성

성당이 설립되고 첫 미사를 무사히 봉헌하자, 김운회 신부는 방배동 본당을 설립하기 위해 애를 써 온 성전 건립 준비위원회를 사목협의회로 개칭하여 본당의 살림살이와 나름의 활동을 해 나가도록 했다.

먼저 방배 본당 관할 구역을 12개 사목구역으로 확정하여 교우들 간의 유대와 신자 관리의 효율화를 꾀해 나갔다. 사목 구역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하고 방배동 주택지역은 도로를 살펴서 구역신자들이 유대를 갖기 쉽도록 나누었다.

제1구역 및 제2구역은 삼호아파트, 제3구역은 궁전아파트, 제4구역은 방배본동, 제5구역은 중앙아파트와 방배본동 일부 지역, 제6,7구역은 방배1동 일부 지역, 제8구역은 방배1동 일부와 방배2동 일부, 제9구역은 방배1동 일부와 경원아파트 · 일신연립 등이었고, 제10구역은 경남아파트, 제11구역은 삼익아파트 일부와 신동아아파트, 제12구역은 소라아파트로 나누었다.

또한 사목협의회는 4월 28일 모임을 갖고 제2대 사목협의회 회장단을 선출했다. 이어 사목위원을 임명하여 실질적인 방배동 본당 사목협의회를 구성했다.

제2대 사목협의회는 새 성전 부지를 물색하고 임시성전을 지어 상가성당 시대를 마감하는 중요한 시기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다.

제2대 사목협의회 임원	
고문	김정희(알로이시오), 윤경중(요셉), 김종환(타대오)
회장	윤봉현(베네딕도)
부회장	최호식(라우렌시오), 박수명(스테파노)
총무	이강수(바오로)
기획분과	이용근(브루노)
기성분과	박관규(바오로)
선교분과	최흥규(아우구스티노)
전례분과	장태진(베드로)
청소년분과	한정련(마르티노)
재정전문위원	박윤식(요한), 임문규(세베로), 이강수(바오로)

▷ 연령회 창립(1982. 5. 15)

비좁고 시끄러운 환경의 상가성당이었지만, 신자들의 열성은 대단했다. 이런 각 개인의 열성을 참된 신앙생활로 이끌어 주고 방배동 지역의 신앙 파수꾼으로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했다. 주임신부와 신자의 연결과 본당활동을 하는 사목협의회와 사목구역을 정하여 신자들의 조직체계를 갖추었지만, 구역반은 지역에 의해 나누어졌기 때문에 구성 신자의 연령 폭이 매우 넓은 편이었다.

사목협의회에서는 신자들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친교단체를 창립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모임을 추진했다.

초대 연령회 임원	
회장	김종실(가브리엘)
부회장	신언순(데레사), 지진찬(안나)
총무	이군자(사베리아)
서기	김경희(베로니카)
회계	전희정(말가리다)
임원	구 로사, 김 가밀라, 김 발비나, 김 아가다, 남 심포로사, 노 바울라, 박 카타리나, 신 안젤라, 전 말다, 박 헤레나

1982년 5월 16일 50세 이상 아버지 모임인 요셉회, 5월 9일 50세 미만의 젊은 아버지 모임인 성우회, 82년 5월 3일 50세 이상의 어머니 모임인 성모회, 5월 14일 50세 미만의 젊은 어머니 모임인 애덕의 모임을 창립하도록 했다.

▷ 요셉회, 성우회 창립

1982년 5월 16일, 요셉회를 창립했다. 50세 이상의 남자 교우들로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당 발전을 위한 사도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개인 성화와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본당의 중심적 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친목단체로 구성했다. 방배 본당이 반포본당에서 분리되어 설립되었듯이, 요셉회도 반포본당의 성지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본당이 설립된 지 1개월이 조금 넘은 4월 25일 김운회 주임신부는 주보를 통해 각 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장했다. 이에 반포성당에서 성지회원으로 활약했던 정인화(안드레아), 윤경중(요셉), 김정희(알로이시오), 이용근(브루노), 최흥규(아우구스띠노) 등 5명이 여러 차례 회합을 가진 끝에 단체명을 '요셉회'로 결정하여 5월 16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창립총회에는 15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회칙을 제정했으며 월 회비 등을 결정했다. 요셉회는 특강을 열어 신심을 두텁게 하고 매년 1회 이상 피정을 가기로 했다.

초대 요셉회 임원	
고 문	윤경중(요셉), 김정희(알로이시오), 김종환(타대오), 윤봉현(베네딕도)
회 장	정인화(안드레아)
부회장	최흥규(아우구스티노), 이용근(브루노)
총 무	이인수(바울로)
재 무	정경조(요셉)

초대 성우회 임원	
고 문	윤봉현(베네딕도)
회 장	최호식(라우렌시오)
부회장	박수명(스테파노), 이강수(바오로)
총 무	조민증(토마스)
재 무	변성남(가브리엘)
전 례	김원모(안드레아)
선 교	태영균(방지거)
친 교	강병진(베드로)

▷ 성모회, 애덕의 모임 창립

50대 이상 어머니의 모임인 성모회와 50대 이하 젊은 어머니의 모임인 애덕의 모임이 창립되었다. 젊은 어머니의 모임은 4월 26일 창립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출했다. 임원들은 따로 회의를 갖고 명칭을 '애덕의 모임'으로 결정했다.

초대 애덕의 모임 임원	
회 장	이세재(테글라)
부 회 장	박순자(안젤라), 김유정(데레사)
총 무	고방자(마리안나)
재 무	박문자(마리아)
서 기	이주경(아우구스타)

성모회는 본당에 교적을 둔 중년 이상 자매들을 주축으로 미사 참례 및 기도로써 신심생활의 향상과 자매들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목적으로 했다. 1982년 5월 3일 오전 10시, 50여 명의 자매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첫 모임을 갖고 회장단을 선출했다.

초대 성모회 임원			
회 장	윤영선(엘리사벳)	부 회 장	이무정(마리아)
총 무	이재관(모니카)	서 기	허완선(막시마)

그리고 7월 18일 미사 후에는 청년 신자들이 모여 청년회를 창립했다. 이로써 사목협의회를 비롯한 친교단체들이 창립되어 새 성전으로서의 힘찬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초대 청년회 임원			
회 장	김제봉(바오로)	부 회 장	박민정(리디아)
총 무	김춘호(비오)	재 무	원정숙(막달레나)
서 기	안희숙(노엘라)		

▷ 레지오 마리애 창설

방배 본당은 1982년 5월 남성 쁘레시디움 평화의 모후 Pr.을 창단했다. 강원배(요한)를 비롯한 14명의 단원들은 모임을 갖고 임원을 선출하고, 교황 비오 12세가 레지오 마리애에 보낸 서한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지도신부의 지도로써 참된 사도적 정신을 뚜렷하게 계발하고, 모든 활동을 순종과 절대적 복종으로써 그 지시한 대로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모임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방배 본당에서 갖기로 했다.

평화의 모후 Pr. 임원	
지 도 신 부	김운회(루카)
단 장	강원배(요한)
부 단 장	이호식(요한)
회 계	정연진(마태오)
서 기	이종수(프리모)
단 원	강병진(베드로), 김연태(야고보), 김준회(요셉), 남궁견(바오로), 박대규(안드레아), 신명철(실베스텔), 이길호(테오도로), 이선문(베드로), 태영균(방지거), 황현주(아우구스티노)

여성 쁘레시디움은 7월 16일 창설되었다. 은총의 모후 Pr.(단장:구송자 로사), 하자 없으신 모후 Pr.(단장:이우자 마리아), 샛별의 모후 Pr.(단장:한장옥 마리아), 겸덕의 장미 Pr.(단장:이정자 아녜스), 성모영보 Pr.(단장:신옥련 세실리아)을 조직했다. 각 단원들은 김운회 지도신부의 지도 아래 참된 사도직 정신을 뚜렷이 계발하고 모든 활동을 순종과 절대적 복종으로써 '기도와 활동의 평신도 사도직'을 충실히 수행하며, 개인의 성화를 통해 방배동 지역사회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했다.

5) 수녀 부임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소속 김송곤(피델리스) 수녀가 1982년 5월 1일 본당에 부임해 왔다. 김 피델리스 수녀는 성지 이스라엘에서 성서 연구를 마치고 귀국하여 본당 전교수녀로 부임했다. 수녀원은 경남아파트 2동 501호(35평)를 임대하여 사용했다. 수녀원에 필요한 살림살이는 많은 교형자매들이 협조하여 마련했다.

이어 그해 9월 1일 청소년 담당 류순애(마리로사) 수녀가 부임했다. 이로써 본당에는 2명의 수녀가 상주하게 되었다.

수녀 부 · 이임 현황(김운회 신부 사목시기)				
성 명	본 명	담 당	부 임 일	이 임 일
김 송 곤	피델리스	전 교	1982. 5. 1	1985. 2. 2
류 순 애	마리로사	청 소 년	1982. 9. 1	1983. 9. 1
김 순 자	보니따스	청 소 년	1983. 9. 1	1984. 9. 1
김 영 자	카 스 타	전 교	1985. 2. 2	1988. 2. 7
곽 유 희	마 르 코	청 소 년	1985. 2. 2	1986. 2. 3
김 영 미	에 디 따	청 소 년	1986. 2. 5	1988. 2. 7
김 행 자	사 비 나	전 교	1988. 2. 8	1991. 9. 2
김 병 옥	후밀리아	청 소 년	1988. 2. 8	1990. 2. 5
신 종 련	마 티 아	전 례	1988. 2. 8	1989. 8. 31

2. 임시(가건물) 성전 시대

1) 성당 부지 구입(1982. 7. 27)

상가를 임대하여 성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건상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본당 성전을 건립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사목협의회를 중심으로 성전 건립기금 배가 운동을 전개하여 나가는 한편 성당 신축 부지를 물색했다.

성당 부지는 방배동 지역의 중심이 되고 큰길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을 우선으로 알아 보았다. 상가성전에서의 소음 등이 신앙 및 친교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성전 건립 후보지가 나타났다. 경남아파트 옆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대행 행려병자 장례식장 부지였다. 오갈 데 없는 행려병자들이 사망하면 이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대부분 화장터로 향했기 때문에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웃한 경남아파트에서 행려병자 장례식장을 옮겨 달라고 서울특별시에 진정을 하기도 했다.



행려병자 장례식장(임시 성당 시절에는 회합실로 사용했다)

행려병자 장례식장이었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에서 나가 달라고 했지만 서울특별시에서도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있던 중이어서 주변 사람들은 성당이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었다. 땅 주인은 땅을 팔려고 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땅주인의 며느리가 열성적인 본당 신자여서 주인을 설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땅주인이 재산 문제로 조카뻘 되는 사람에게 칼부림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했을 때 김운회 신부가 기도해 주며 인도하여 땅주인 이태진은 대세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 결국 며느리의 도움과 김운회 신부의 노력으로 그 주인은 땅을 팔기로 마음을 정했다.

마침내 1982년 7월 27일, 새 성당 부지를 계약했다.

이 성당 부지에 가건물을 지어 임시 성당으로 사용하면서, 1984년 7월 18일에는 대지를 추가로 구입하여 성당 부지를 확장했다. 추가로 구입한 대지는 표와 같다.

새 성당 부지 계약		
위	치	방배2동 256-1~2
면	적	대지 738평, 건물 106평
금	액	3억 3,210만 원 (738평 X 450,000)

추가 대지 계약		
위	치	방배2동 257
면	적	496평
금	액	1억 6,400만 원

2) 성전기금 모금 운동

반포본당에서 방배동 본당 설립기금 모금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나 방배동 본당을 설립했고, 그로부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새 성전 건립 부지를 계약했다. 방배동 본당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커다란 발걸음으로 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방배동 본당이 설립된 뒤에도 성전 건립을 위한 헌금을 계속했다. 처음에는 성전 건립기금과 함께 의자 헌

금을 하여 신자 1인당 10,000원 이상 헌금하도록 했다.

의자 헌금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신자 가족 수만큼의 의자 헌금을 했지만 10개 이상 헌금한 신자들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의자뿐만 아니라 본당의 제대를 비롯하여 비품들의 헌금도 열성적인 신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익명의 신자는 자신의 목에 걸었던 금목걸이 3돈쭝을 성전 건립기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초기의 헌금으로 상가성당의 임대보증금과 각종 시설비를 사용하고 나니 성전 건립기금은 5,000여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1982년 6월 14일 당시의 성전 건립기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성전 건립 기금 현황(1982. 6. 14 현재)

총 입 금	118,128,266원
총 지 출	69,067,562원
잔 액	49,060,704원
지출내역 : 성물건물 임차보증금	55,000,000원
시설비	14,067,562원

성당 건립 부지를 계약했지만 기금은 턱없이 부족했다. 성당을 지을 때 대개는 교구에서 부지를 마련하도록 지원해 주었다. 그러나 방배동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하여 지원을 해 주지 않고 교구에 내는 책정금을 감면해 주는 정도에 그쳤다. 땅을 사는 것부터 스스로 하라고 했다. 그렇다고 기금이 따로 나올 곳도 없었다. 오직 신자들의 정성어린 헌금으로 충당하는 수밖에 없었다.

성당 건립부지 계약 사실을 신자들에게 알리고 새 성전을 짓는 성스러운 일에 모두 동참하도록 강조했다. 김운회 신부는 자신의 영명축일에 신자들이 봉헌한 예물을 전액 성전 건립기금으로 봉헌했다. 매주 5~10명의 신자가 성전 건립기금 헌금을 해 오던 것이 20~50명으로 늘었다. 성전 건립기금 헌금은 본인이 약정한 금액을 나누어서 내도록 했다. 새 성전을 짓기 위한 성전 건립기금 헌금에 신자들은 열성적으로 동참했다.


서울주보

방배동 성당

3) 임시 성당 건축(1983. 4. 12)

성당 부지가 준비되고 성전 건립기금 모금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임시 성당 건립 문제가 야기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남서울빌딩의 상가성당은 성당으로서의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다. 여름에 창문을 열어 놓으면 밖의 소음이 심하게 들려왔고, 옆집에서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항의를 하여 창문을 꼭꼭 닫고 미사를 드려야 했다.

사목협의회에서는 신부님과 의논하여 성당 부지에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임시 건물을 간단히 짓기로 했다. 그러자 임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스스로 봉헌을 하겠다고 나서서 도와주었다. 제우전기의 김성부 신자는 전기공사를 맡아서 해 주었고, 목공 · 조석공 · 슬레이트공 · 미장공 · 콘크리트공 · 철물공 등 경험이 있거나 기술이 있는 신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봉사했다. 정식으로 설계를 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의 손길 가는 대로 '그냥' 지었다. 지붕은 슬레이트로 얹었다.

"성전이니까, 하느님의 집이니까, 희생하는 마음으로 했지 소름끼쳐서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해냈어요. 냉동실의 피 묻은 솜 등 산더미 같은 쓰레기들을 모두 치우고 시설을 뜯어냈어요. 깨끗이 청소하고 교리실을 만들었어요.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던 1층의 공간이 조금 넓었는데 사실 좀 으스스하고 음침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곳에서 회합을 하고 모임을 가졌어요. 신자들이 그런 줄 다 알면서도 참으로 열심히 했어요. 이곳이 내 집이라는 고마움 때문에, 이곳을 차지했다는 기쁨으로, 시체실이었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이 나서 청소를 하고 회합들을 했어요. 이곳이 하느님께 기도하는 집이고 우리의 성전을 지을 곳이라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지요. 신앙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궂은 일을 솔선해서 해낸 청년회를 비롯하여 애를 썼던 사목위원들, 방배동이 우리나라 최고의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하느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루어 내지 못할 일들이었다.

4) 성전 건립을 위한 바자회 개최

사목협의회에서는 성전 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전 교우의 참여의식과 일치를 이룩하며 이웃에게 방배동 본당의 참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보를 통해 바자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티켓 판매에 나서는 한편 각 지역의 구역장들이 신자 가정을 방문하여 기증품을 접수했다. 신자들의 열성은 대단하여 수많은 기증품이 접수되었고 티켓도 계획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많은 양이 판매되었다.



바자회 당일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방문하여 격려를 해 주었고, 모든 교우와 지역 주민들까지 참여하여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바자회 수익금은 9,293만 원으로 1억 원에 가까웠으니, 방배동이 아니고서는 쉽게 이루지 못할 성과였다. 이 수익금은 성전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충당될 예정이었다. 수익금 중에서 약 10%를 떼어 방배동 지역 불우이웃 170세대에게 쌀 한 가마씩을 나누어 주어 지

바자회 당일 운영 책임자		
대 상	책 임 자	책임단체
식품 코너	윤 엘리사벳 각 구역장	성모회
위탁판매 코너	신현식 태영균 이성진	연령회 전 레지오팀 영세 1,2기
티켓 판매	이상우	주일학교 여교사 고등부 학생회
기증품 코너	정연진 전 마르타	애덕의 모임 성가대 겸덕의 장미 Pr. 성모영보 Pr. 청년회(여)
현장 안내	이호식 이선문	성우회 청년회(남)
행운권 및 연예인 코너	이상용	



바자회 현장을 방문한 김수환 추기경



바자회 행사

역사회와 함께하는 베품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실천하기로 했다. 방배동 큰 장날 바자회본부는 1983년 6월 24일자 주보에 다음과 같이 결산보고를 마치고 그 임무를 끝냈다.

5) 성당 이전 및 임시 성전 축성식

1983년 4월 12일부터 가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임시 성전이 완성되었다.

드디어 1983년 6월 18일(토) 오후 5시 어린이 미사부터 신축 임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등 성전을 이전하기 시작했다. 교리실 및 부속시설의 보수를 끝내고 8월 6일에 이전을 완료했다. 비좁고 더웠던 상가성당 시대를 마감하고 비록 임시 건물이지만 '우리의 성전'을 갖게 된 것이다.

새로 임시 성당을 지어 이전했지만, 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성당까지의 진입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신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여름 장마철에는 흙탕물이 튀는 등 더욱 심했다. 이에 사목협의회에서는 도로 포장을 하기로 했다. 성당은 임시로 지은 건물이지만, 신자들의 불편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9월 2일에 진입로 포장공사를 시작하여 9월 4일에 완료했다.

1983년 10월 16(일) 오후 4시. 서울대교구 경갑룡 주교의 집전으로 임시 성당 축성식을 가졌다. 방배동 본당의 첫 견진성사를 겸한 이날 축성식은 축성 예절, 견진 예식, 축하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견진 예식에서는 그동안 준비를 해온 300명의 신자가 견진성사를 받았다.

이 임시 성전은 1987년 12월 현재의 본당 건물이 건

립 완료될 때까지 4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배동 신자들의 마음의 안식처로서, 친교화합의 장으로서 새 성전 건축의 성스러운 일을 하는 본부가 되었다.



1
2 3

01 임시 성당 전경
02 축성식 테이프 절단식
03 축성식 미사 집전





4 성장기
방배 본당의 성장



1. 성전 건립

1) 성전 건립 준비위원회 구성(1985. 7. 3)

임시 성당을 지어 이전하기 위해서는 부지 구입 대금 잔금을 모두 지불해야 했다. 상가성전의 보증금을 찾고 그동안 신자들이 봉헌해 준 건립기금을 모두 털어 잔금을 지불했다. 성전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방배동 큰 장날 바자회를 여는 등 신부와 신자들과 사목협의회가 모두 애를 쓴 덕분으로 겨우 잔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이제 성당을 건축하는 일만이 남은 것이다. 그러나 신자들 간에 성당 건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과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이 대립되었다. 반포성당 시대를 거치며 반포성당 설립 및 성당 건축에 참여했던 신자들 중에서 보수적인 신자들은 성당 건립을 서두르지 말자고 했다.

임시 성당을 지어 미사를 드린 지 1년이 지나자, 성당 신축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리실이나 기도실, 주일학교 등 여러 부대시설이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본당 교우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성당 신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1985년 7월 3일, 사목협의회에서는 성전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성전 건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기존의 사목협의회에서 해 오던 성전 건립에 관한 제반 업무와 새 성전의 설계 및 신축의 큰일을 효율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한 것이었다. 성전 건립 준비위원회는 사목협의회 임원 중에서 임명했으며, 방배동 지역의 명망 있는 신자들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구본호(프란치스코) 당시 사목협의회 부회장이 임명되었다. 성전 건립 준비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성전 건립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1987년까지는 새 성전을 완공하기로 일정을 잡고 일을 추진해 나갔다.

2) 설계 및 감리 계약(1985. 11. 26)

1985년 11월 26일 '건축문화' 대표인 설계사 김영섭(시몬) 형제와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에 들어갔다. 한편 성전 건립 준비위원회 위원들은 보다 좋은 성전을 건립하기 위하여 서울대교구 내에 있는 잘 지었다는 성당들을 돌아보았다. 10여 명의 위원들이 조를 짜서 성당을 방문하면서 어떤 성당을 지을 것인가 의견을 모았다. 여의도 성당, 신수동 성당, 정릉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성당도 가 보았다. 로마네스크식으로 지어진 성공회 성당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성당은 아무래도 중후한 멋이 있는 것이 좋으므로 뾰족탑이 있는 고딕 양식이 이미지가 강하고 성당다움이 있다고 했다. 여의도 성당은 김영섭 형제가 설계한

신축 성당 건물 개요

◎ **대지면적 :** 2,406㎡(727.81평)

◎ **층별면적**

층별	면 적	주요 내용
지하	1,133.18㎡(342.79평)	성모회
1층	1,155.94㎡(349.67평)	소성당(324석), 기도실, 영안실, 휴게실, 사무실, 사제관, 주임신부 서재, 거실, 침실, 객실, 식당
2층	1,002.30㎡(303.19평)	회중석(1,015석), 유아실(32석), 사제관(보좌신부 거실, 침실)
3층	208.04㎡(185.32평)	성가대석(236석), 파이프오르간, 수녀원(수녀 침실, 객실 공동실, 식당 기도실)
합계	3,573.46㎡(1080.97평)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철골트러스

◎ **설　　비 :** 냉난방시설, 팬코일 유니트, 옥내소화전 소화설비

◎ **공사기간 :** 1986년 5월 ~ 1987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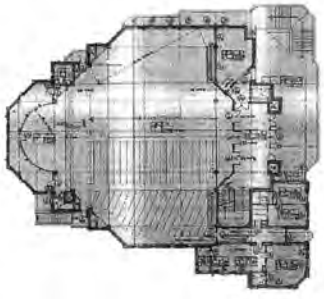
◎ **소요예산(예정) :** 건축, 전기, 설비공사 = 약 13억 원(120만 원/평)
가구, 성미술, 조경 기타 = 약 2억 원 / 합계 : 약 15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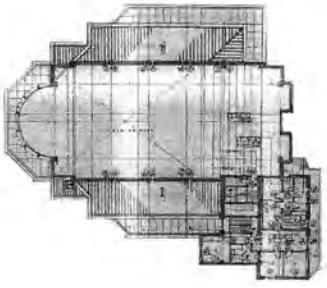
정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것으로 실용적이고 현대식 감각이 뛰어난 성당이었다. 성당 안은 마치 오페라하우스 같은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성당으로서 현대적 감각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여의도 성당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성전 건립 준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설계자에게 알려 주었다. 교우들이 생각하는 성당은 내면적인 면보다 외형적인 것으로서, 성당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고딕 아니면 로마네스크 양식이 좋다고 했다.

성전 건립 준비위원들이 서울 시내 성당을 돌아다니면서 애를 쓴 것은 우리의 성당을 좀 더 잘 지으려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설득하며 힌트를 주었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은 성공회 성당이 가장 좋으니 외양만이라도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그 결과 로마네스크 양식이 절충된 현재의 성당이 설계되었다.

막상 설계에 들어가 보니, 대지에 포함되어 있는 공원용지 60평 정도가 애를 먹였다. 공원용지를 피해서 건물을 배치하려고 하니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성전 건립 준비위원회에서 행정 당국과 협의를 했지만 공원용지 부분은 피해야만 했다. 결국 사제관과 성당 본 건물을 붙여서 설계를 해야 했다.



신축 성당 조감도

3) 제2차 성전 건립기금 모금 시작(1985. 12. 8)

1985년 11월에는 소라아파트 지역을 제14구역으로 하고 일부 지역을 조정하여 사목구역을 14개로 개편했다. 11월 19일 구역반장 모임을 통해 알리고 현주소와 교적이 틀리는 신자들을 바르게 정리하여 올바른 구역반이 편성되도록 했다.

1985년 12월 4일에는 사목협의회 임원 및 성전 건립 준비위원회 임원을 개편했다. 제4대 사목협의회 회장에는 성전 건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구본호(프란치스코)가 임명되었고, 성전 건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수명(스테파노)이 임명되었다.

1985년 12월 8일부터 '하느님 모신 성전 우리 집처럼'이라는 주제 아래 성전 건립기금 모금을 시작했다. 새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는 약 15억 원의 돈이 들 예정이었으며, 이 금액은 모두 신자들의 헌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12월 8~15일간 구역 반별로 약정서를 나누어 주어 당장 헌금을 하지 않더라도 약정을 하도록 하고 약정서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성전의 완공 예정인 1987년 7,8월까지는 20개월 정도가 남았으므로 그동안 십일조는 꼭 성전 건립에 봉헌하겠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했다.

1987년 2월 말까지 성전 건립을 위한 약정액은 4억 2백만 원으로 411세대가 약정했다. 총공사비 15억 원의 약 30%, 총신자 세대수 2,232세대의 20%가 약정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다.

4) 건축 허가(1986. 5. 31)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는 번거롭고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특히 더한 것 같다. 이런저런 이유로 4월에 마쳐야 했을 건축허가를 5월 말에야 받을 수 있었다.

방배성당 부지는 건물의 고도를 제한받는 군사보호지역으로서 주변에 있는 육군부대의 방호협의를 받아야 했다. 군부대의 작전상 또 보안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다행히 본당을 지원해 주는 분이 군부대 부대장의 직속상관을 지낸 적이 있는 분이었다. 그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어 서울특별시를 경유하여 강남구청에 협조 통보가 완결되어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강남구청 허가번호 86-0226호(1986. 5. 31)였다.

성전 건립을 위한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자녀로 불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거룩한 동기와
선한 지향을 실천할 힘을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당신이 거하실 성전을 건립코자 하오니,
이 힘겹고 고된 역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 선조 순교자의 희생과 용기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 형제적 사랑과 협력으로
새 성전을 이룩하는 날,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길이 찬미하며,
평화와 구원의 제사를 봉헌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 천주교 방배동 교회 -

5) 건축회사 선정(1986. 5. 20)

방배성당을 짓겠다는 건설회사는 자천 타천으로 여러 회사가 있었다. 그들은 견적만이라도 넣게 해 달라고 했으나 견적을 받아놓고 거절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므로 성전 건립 준비위원들이 상의한 끝에 나중에 거절해도 아무 잡음이 없을 4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에게 시방서를 배부하고, 4개 업체의 견적을 받았다.

1986년 5월 8일 성전 건립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비교표, 설계사의 기준원가서 외에 참고견적 등을 고려하여 1주일 동안 심의한 결과 1개 업체를 제외하고 3개 업체의 견적 가격이 엇비슷하여 결정이 어려웠다. 그러나 건설회사의 크기나 외형보다 최근에 성당을 지어 본 경험이 있는 조흥공영을 제1후보자로 결정했다. 한편 설계사측에 각 공사별 소요자재를 엄정히 뽑아 계약내역을 만들도록 하여 5월 20~21일 사목위원의 동의를 받아 조흥공영과 계약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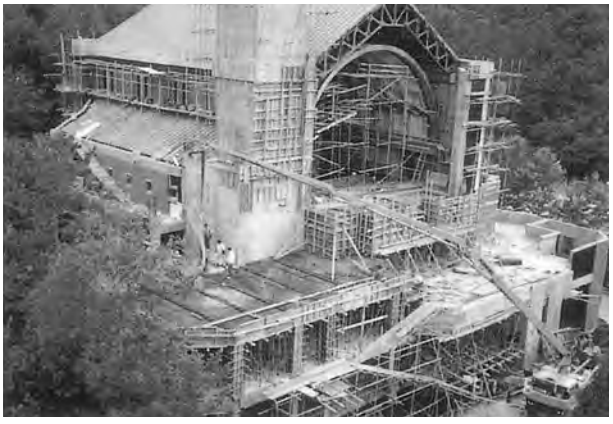
6) 신축 성전 기공식(1986. 6. 8)

1986년 6월 8일 12시, 드디어 성전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서울대교구 김옥균(바오로) 주교의 집전으로 미사를 드린 뒤에 감격적인 첫 삽을 떴다. 미사에서는 김옥균 주교의 특별강론이 있었으며, 성가단의 특별성가가 울려 퍼졌다. 기공식에서는 성수를 뿌리고 첫 삽질을 했다. 반포본당의 김영일 신부, 서초본당의 박병윤 신부, 유병일 신부가 축하를 겸해 참석했고, 우리 본당의 김운회 신부, 구본호 총회장이 함께 첫 삽을 떴다. 이어서 본당 사목협의회 고문단 및 임원 일동이 삽질을 했으며, 각 단체장 및 신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삽질을 했다.

이로써 주님의 성전을 쌓아올리는 성전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계시고 우리들이 하느님께 감사의 제사와 예배를 드릴 전당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흠숭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기도 드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가꾸어 가게 되었다.

7) 공사 진행

기공식을 마친 후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성전 건립 준비위원회에서는 1986년 3월에 창간된 〈방배가족〉에 성당 신축 진행사항을 알리며 신자들의 성전 건립기금 봉헌을 촉구했다.



레미콘 타설 장면(1987. 6. 11)

1986년 8월말 현재 520여 세대에 5억여 원의 약정금액을 집계할 수 있었다.

가정부 생활을 하는 어느 자매는 한 달 수입을 전부 봉헌해 주었고, 세 자녀를 데리고 홀로 사는 어느 자매는 재산의 반을 성전 건립기금으로 봉헌했다. 동덕여중 2학년 김희수(가밀라) 학생은 특대생으로 받은 장학금 40,000원을 성전 건립기금으로 봉헌하는 갸륵함을 보였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친 건립금들은 방배성당 건립의 큰 활력소가 되었다.

1986년 11월말 당시 620세대가 성전 건립기금 약정을 했다. 우선 10월까지 지하층 공사를 마치고 임시 성당을 철거하려고 계획했지만 신축 성당 지하층에서 미사를 드리려면 난방장치를 따로 해야 하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임시 성당 철거는 1987년 봄으로 미루었다. 1986년 말까지 약 30%의 공정이 진행되었다. 신축공사는 겨울 동안 쉬었다가 봄에 다시 시작했다.

1987년 6월 10일. 성전 건립 전체 예산 12억 1,800만 원 중 6억 3,800만 원을 집행했다. 9월말 까지 집행해야 할 잔액 5억 8,000만 원 이외에도 제대 및 감실, 강론대, 14처, 스테인드 글라스 등 필요비품과 성 예술품 구입대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성전 건립기금 봉헌을 독려했다. 340여 세대의 교우가 약정 없이 성전 건립기금을 봉헌했고 여러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기금을 봉헌했다. 6월 10일 성전 건립 준비위원회에서 모임을 갖고 성전 신축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논의하여 수정했다.

8) 새 성전 준공 기념 바자회 '방배동 큰 장날'

(1897. 10. 31 ~ 11. 1)

성전 신축이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되어 10월 입주가 가능해지자, 본당에서는 '새 성전 준공 기념 바자회'를 열기로 했다. 방배 본당 공동체의 하나 됨과 나눔의 실천을 통한 신앙생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를 해 나갔다.

먼저 바자회 '방배동 큰 장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

여 위원장에 최흥규(아우구스티노)를 임명하고 지도위원 및 책임봉사자를 임명했다.

바자회는 10월 31일 ~ 11월 1일에 열기로 했다. 기념 품권을 6만 매 발행하여 판매하고, 기증품은 각 세대당 1점을 기준으로 하여 2천여 점을 목표로 했다. '방배동 큰 장날' 운영위원회와 모든 신자들의 헌신적인 협조와 참여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울대교구 김수환 추기경은 준공을 일주일 앞둔 10월 15일, 본당을 방문하여 주임신부를 비롯한 성전 건립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방배 본당의 무궁한 발전과 성전 축성이 성대한 가운데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또한 친필 기념휘호를 써서 바자회 기증품으로 주며 성금에 보태도록 했다. 추기경은 바쁜 시간을 내어 성당 건립 관계자들과 저녁을 함께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뜻있는 사람의 특청을 받고 휘호를 써 주어 즉석에서 3백만 원의 성금을 거두어 주었다. 또한 본당에서 바친 미사 예물도 건축성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방배 본당 교우들의 기증품 외에 외부 인사들이 보내준 기증품도 많이 답지했다.

1987년 10월 31일~11월 1일. '방배동 큰 장날' 바자회가 열린 날은 비가 오겠다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준공을 앞둔 성당이 마지막 단장을 하며 웅장하게 서 있었고, 이웃 본당의 많은 성직자들, 귀빈들, 전 교우들, 그리고 이웃의 비신자들까지도 넓은 광장을 가득 메웠다.



김수환 추기경님 축하글 작성

추기경님 건축기금 하사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본당 준공을 앞두고 귀로와 격려를 위해 10월 15일 저녁 본당을 방문하셨다. 추기경님은 이날 로버트 런시 영국 성공회 대주교와의 만찬 약속까지 취소하시고 본당에 오셔서 신부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셨다.

특히 김 추기경님은 본당에서 바친 미사예물 30만 원을 건축성금으로 되돌려 주시면서 성전 건립을 축하해 주셨고, 본당 방문길에 방배동 큰 장날 바자회에 기증품으로 친필 휘호를 써 주시며 성금에 보태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찬장을 지켜 주시며 마침 이날이 성녀 데레사의 축일임을 상기시키면서 '주님 안에 하나 됨'을 강조하시고 모든 신자들의 열기를 찬양하셨다. 저녁을 마치고 수고하는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면서 방배 본당의 무궁한 발전과 성전 축성이 성대한 가운데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격려하셨다. 추기경님의 이날 방문을 계기로 신부님을 비롯하여 모든 방배가족은 큰 힘과 축복을 받은 데 감사해야겠다.

– 〈방배가족〉 1987년 11월호 –

9) 새 성전 축성식(1987. 12. 12)

성당 건축이 완성되어 가는 동안에 10월 5일 수녀원이 신축 성전으로 이전했다. 10월 16일에는 사제관, 사무실, 회의실이 새 성전으로 입주했다. 1987년 12월 12일 오후 3시, 방배동 본당 새 성전 축성미사가 김수환 추기경의 집전으로 봉헌되었다.

방배동 본당 전 교우들과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성당 축성, 2부 축성미사, 3부 축하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982년 3월 6일 반포본당에서 방배동 본당으로 건립해 나온 지 5년 9개월, 1986년 6월 8일 성전

건축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뜬 지 1년 6개월 만의 일이었다. 반포본당 시절부터 함께해 온 교우들은 오랜 감회와 가슴 뿌듯함으로 새 성전의 축성식을 봉헌했고, 그동안 새로 전입해 온 교우들도 함께 기도와 희생과 봉사를 한마음으로 모아 주님의 은총 속에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기쁨과 보람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다.

"하느님 보십시오. 저희가 하느님이 계실 집을 완성했나이다. 기도와 묵상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할 터를 마련했나이다."







1 2
3
4 5 01-05 새 성전 축하식





천주교 방배동 교회 신축 성당 개요(1987. 12. 12)



1. **대지면적 :** 1,225평(임대 대지 200평 별도)
2. **건축면적 :** 1,112평
3. **층수 :** 지하 1층, 지상 3층
4. **수용인원 :** 좌석 1,200석
5. **구조 및 설비 :** 철근 콘크리트조 + 철골조/냉난방 시설
6. **층별 내용**

구 분	층 별	내 용	면적/개소	비 고
성 당	지하층	교리실 및 회합실 청소년 휴게실 폐백실 기계 전기실	15개실 45평 15평	40인 기준 냉 · 난방시설, 공기정화 시설
	1 층	소성당 만남의 홀 및 로비 영안실 성당사무실 화장실 기타 공용 부분	95평 90평 17평 15평	300인 수용
	2 층	대성당, 제의실 유아실 및 공용 부분		1,000인
사제관 및 수녀원	3 층	성가대석, 부속실 등	65평	200인
	1 층	보좌신부 거실, 서재, 침실 식당, 주방 등	46평	사제 3인
	2 층	주임신부, 은퇴사제 거실 및 침실	39평	
	3 층	수녀원	36평	수녀 3인
	다락방	기도실	19평	

7. **설계**

1) **건축가 :** 건축문화설계연구소 대표 김영섭(시몬)

2) **설계기간 :** 1985년 9월~1986년 5월(9개월)

3) **설계 개념 :**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주 외장재는 자연과 조화되는 재료를 선택했다. 건축 양식은 재래의 여러 양식주의(고딕, 로마네스크, 바로크 등)를 절충한 것으로 후기 현대 양식으로 설계되었다. 성당 내부의 빛살 문양은 고대의 즐목문 양식을 인용하여 전체적인 조화와 통일감을 형성했고 부가적으로 음향 조절에 이용했다. 색조화는 기본적으로 부활 성당의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면서도 통일감을 주기 위하여 버건디 핑크색을 주로 사용했다. 목재 부분의 색도 이와 조화되도록 화이트 오일 스테인을 사용했다. 내부 천장 높이(18m)가 높음에 따라 성가대의 잔향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최종 표면을 요철이 있는 재료로 마감했다. 제단의 성물들도 이와 같은 건축 개념과 양식에 의하여 동일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 되었다.



천주교 방배동 교회 신축 성당 개요(1987. 12. 12)

8. 감실, 14처, 성체등, 부활상, 스테인드 글라스

1) 감실



제작자는 영국의 런던대학과 왕립미술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수학한 박영 씨. 디자인 개념은 부활의 승리를 상징한 V자로 사면을 테두름했고, 내부는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 어부와 그물의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중심 주제는 성체성사가 뜻하는 것 중 하나인 물고기 두 마리, 즉 무수히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나타내고 있다. 색 조화는 구심체를 이루기 위하여 검정색과 황금색, 은색의 대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부 그물은 한국 전통공예 예술인 포목 상감으로서 연철을 마치 직조하듯이 일일이 금을 그어낸 후 은선을 상감한 정교한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감실 상자는 외부의 흑단과 내부의 오동나무로 짜여 있다.

2) 14처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그리고 있는 14처는 프레스코화(Fresco: 벽에 회를 바르고 회가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려내는 가장 오래된 회화기법 - 우리나라 고구려 벽화와 16~17세기까지의 중요한 서양회화기법)이다. 작가는 서울대 미대와 뉴욕의 프래트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하고 파나마 산타마리아대학, 칠레국립대학 교수를 역임한 진영선 교수로서 현재 국민대학교 조형대학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3) 성체등



감실 바로 위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는 성체등은 현재 공주대학 미술교육과에 재직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을 수행한 바 있는 이남규 교수의 작품으로서 역시 감실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그물과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 색은 버건디 핑크에 빨강, 파랑, 노랑의 기초 3원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깊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유약이 사용되었다. 이남규 교수는 현재 한국 가톨릭미술가협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대표작으로는 명동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다.

4) 부활상



성당 2층 전면 발코니 위에 놓이게 될 부활상은 현재 서울대 미술대학에 재직 중에 있는 최인수 교수에 의하여 구상되고 있으며 1988년 부활절에 완성될 예정이다.

5) 스테인드 글라스

본 성당과 조화를 이룰 스테인드 글라스는 밑그림을 구상하여 제작은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최영심 씨 부부에게 의뢰할 예정이며 역시 1988년 부활절을 전후하여 완성될 것이다.

9. 시공

1) 시공자 : 건축, 설비 - (주)조흥공영 대표 이현국
전기 - (주)제우전기 대표 김성부

2) 공사기간 : 1986년 5월 ~ 1989년 5월(약3년)

2. 봉사단체 구성

1) 사목협의회 재편성

새 성전 건축이 끝나자 사목협의회는 기구를 5개 분과위원회에서 8개 분과위원회로 개편했다. 재정전문위원을 재정분과위원회로 하고, 문화홍보분과 · 교육 분과 · 구역분과를 신설하고 기획 분과를 없앴다. 성전 건축기간 동안 제반 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친교활동을 활발히 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하느님 앞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함이었다.

제3대 사목협의회 임원	
고 문	윤경중(요셉), 김정희(알로이시오), 김종환(타대오)
회 장	최호식(라우렌시오)
부 회 장	구본호(프란치스코), 박수명(스테파노)
총 무	이상우(토마스)
부 총 무	박대규(안드레아)
기 획 분 과	정연진(마태오)
기 성 분 과	정인화(안드레아)
선 교 분 과	김연태(야고보)
전 례 분 과	윤봉현(베네딕도)
청소년 분과	한정련(마르티노)
사회복지분과	이인수(바오로)
여 성 분 과	김문자(안젤라)
재정전문위원	이강수(바오로), 박윤식(요한)

제4대 사목협의회 임원	
고 문	윤경중(요셉), 김정희(알로이시오), 김종환(타대오), 이석규(요셉)
회 장	구본호(프란치스코)
부 회 장	정인화(안드레아), 한정련(마르티노), 박수명(스테파노)
총 무	이상우(토마스)
부 총 무	박대규(안드레아)
기 획 분 과	정연진(마태오)
기 성 분 과	박관규(바오로)
선 교 분 과	이호식(요한)
전 례 분 과	김기진(안토니오)
청소년 분과	김찬진(야고보)
사회복지분과	최흥규(아우구스티노)
여 성 분 과	김문자(안젤라)
재정전문위원	이동호(토마스모어), 이세형(베드로)

2) 구역 반 재편성

방배 본당이 설립될 때 12구역이던 사목 구역을 신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1983년 11월 2일 삼호아파트 지역을 본당 제13구역으로 신설했다. 1985년 11월 소라아파트 지역을 제14구역으로 하면서 사목구역을 정비하였고 1986년에 임광아파트 지역을 제15구역으로 하여 사목 15개 구역 83개 반으로 조직되었다.

3) 레지오 마리애

꾸리아 임원단			
창조주의 모후 Cu.(1983.12.4)			
단 장	이호식(요한)	부 단 장	조 금(카타리나)
서 기	허완선(막시마)	회 계	이세재(테글라)
창조주의 모후 Cu.(1986,남성)			
단 장	윤경중(요셉)	부 단 장	김광섭(미카엘)
서 기	이나영(베로니카)	회 계	최명동(프란치스코)
파티마의성모Cu.(1986년,여성)			
단 장	임동석(아닛다)	부 단 장	현안자(젬마)
서 기	허완선(막시마)	회 계	손교자(비비안나)

3. 신앙생활 활성화와 성가정화

1) 친교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본당을 설립할 당시에 374세대 1,375명이던 신자 수가 1982년 말에는 750세대 2,534명으로 늘어났다. 본당에서는 사목 목표를 '친교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해'로 세우고 본당 공동체의 결속을 더욱 굳건히 하고 모든 단체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갔다. 가정기도문을 활용하여 가정에서부터 기도를 생활화하고, 만남의 방을 충분히 활용하여 형제적 사랑을 나누며, 지역 모임과 미사를 좀 더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기초 공동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외짝교우의 신자회를 적극 추진하여 교회로 안내하도록 했다. 특별사업으로 성전 건립을 위한 헌금재가운동을 벌여 성당구입을 마무리하고 임시 성전을 지어 이전했다.

방배 본당의 모든 신자들은 친화력 있는 김운회 주임신부를 구심점으로 방배동 지역 성화의 터를 마련하고 한 발씩 달려 나가기 시작했다.

2) 김대건 신부 유해, 본당 순회기도(1983. 6. 22 ~ 23) 와 103위 시성식(1984. 5. 6)

1983년 한국교회 차원에서 '한국 순교 복자들의 시성운동'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대교구에서는 모든 신자를 대상으로 순교자 시성시복을 위한 순회 기도회를 실시했다. 본당에서는 6월 22~23일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본당에 안치하고,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을 위해 고통을 증거한 한국 순교 복자들이 전 세계에서 존경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느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구했다. 이를 위해 20일 지역장들이 모임을 갖고 제반 준비사항을 점검했고, 6월 21일 저녁 8시에 참회 예절을 가졌다. 6월 22일 오후 6시 김대건 신부의 유해가 정장과 한복으로 단장한 본당 신자들이 양쪽에 도열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삼호아파트 입구에서 본당까지 도보로 봉송되었다. 유해는 다음 날까지 본당 제대 앞에 안치되었고 신자들은 줄을 이어 참배하고 기도를 드렸다.

3) 영세식 및 견진성사

1982년 10월 17일과 24일에 방배 본당 예비신자들이 세례를 받았다. 먼저 10월 17일 중 · 고등학생 및 초등학생 51명. 유아 32명이 본당 김운회(루카)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10월 24일에는 5월부터 5개월간 입교준비를 해 온 성인 122명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1982년 한 해 동안 320명의 예비자들이 하느님의 새로운 자녀로 탄생했다.



영세식 기념 촬영

1대 김운회 신부의 재임기 동안 1983년 406명, 1984년 657명, 1985년 710명, 1986년 558명, 1987년 525명이 세

례를 받고 새 신자가 되었다.

본당의 첫 견진성사는 1983년 10월 16일에 임시 성전 축성식과 함께 경갑룡 주교의 집전으로 거행되었고, 291명이 견진성사를 받았다. 이를 위해 10월 10~14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열리는 견진교리 강의를 통하여 성숙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자신에게서 탈피하여 용기를 갖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다.

이후 1985년 9월 22일에는 김옥균 주교의 집전으로 293명이 견진성사를 받았으며, 1987년 11월 14일에는 강우일 주교의 집전으로 203명이 견진성사를 받았다.

4) 한마당 축제(1985. 5. 19)

본당이 건립된 지 3주년이 되는 1985년 5월 19일, 본당 운동장에서 한마당 축제를 열었다. 상가 2층의 조그마한 임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기 시작하여, 나무와 숲이 우거진 곳에 평화와 구원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본당 교우들이 이룬 한 마음 한 뜻의 결과였다. 이런한 뜻을 살려 성우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야외미사 봉헌과 2부 운동경기 및 여흥, 불우이웃 돕기 경품추첨 및 시상으로 이어졌다.

오전 9시 30분 김수환 추기경의 집전으로 야외미사를 봉헌하고, 8~12구역의 평화팀과 나머지 구역의 사랑팀이 운동경기를 벌였다. 그러나 우천으로 인하여 일부 운동경기는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불우이웃 돕기 경품추첨은 1,000원권 티켓 4천 매를 발행하여 판매하고 교우형제들이 기증한 텔레비전, VTR, 냉장고 등을 시상했다.

5) 본당 소식지 〈방배가족〉 발행

본당이 설립되고 공식적인 전례 집회가 있은 지 만 4년이 되는 1986년 3월 본당의 소식과 교우들의 대화의 나눔지인 〈방배가족〉을 창간했다. 창간호는 김운회 주임신부의 축하 말씀과 함께 '성체와 가정'이라는 주제의 김수환 추기경의 강론을 싣고, 본당에서 처음으로 부제품을 받은 이경상(바오로), 정웅모(에밀리오) 부제를 소개했다. 그리고 당시에 진행 중이던 새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자세히 주보에 수록하지 못한 성전 건립 기금 납부자 명단을 발표했다.



〈방배가족〉 창간호 표지

이후에도 〈방배가족〉은 본당 행사와 교우들의 소식을 자세히 알리고, 사목구역을 탐방하는 등 본당 교우들의 숨은 이야기를 실어, 전 신자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마음을 이루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활기찬 방배 공동체를 이루는 데 큰 공헌을 했다. 특히 새 성전 건축이 한창인 시기에 건축 진행상황 등을 자세히 알리고 교우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어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성과였다.

당시에 활약한 기자는 하태무(안토니아)와 조민증(토마스), 임규임(베로니카)이다. 그러나 〈방배가족〉은 1988년 9월에 제28호를 발행하고 3개월 후인 그해 12월 제29호를 끝으로 발행이 중단되고 말았다.

6) 주부대학 강좌(1988. 3. 10)

나눔의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본당에서는 '애덕의 모임' 주관으로 주부대학 강좌를 열었다. 1988년 3월 10일부터 매월 2,4주 목요일에 강의를 하여 6월 23일까지 진행된 이 강좌는 지역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방배동 지역 신자들은 물론 비신자들까지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한 가정 운동을 주제로 강의를 열어 주부신자의 호응을 얻었다.

7) 요셉노인대학 설립(1988. 5 .4)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경로사상을 고취하여, 노인 사목의 평신도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방배동 천주교회 부설 요셉노인대학을 설립했다. 만 5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요셉노인대학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며,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신앙인으로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교양과 방법을 제시해 주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노력하며 지역사회의 친목과 발전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을 목표로 했다.

4. 본당 출신 첫 사제 서품(1987. 2. 6)

본당 출신 첫 사제가 탄생하였다. 1986년 2월 20일 이경상(바오로)과 함께 부제품을 받은 정웅모(에밀리오) 부제가 1987년 2월 6일 명동본당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본당이 설립된 지 채 4년도 되지 않아서 본당 출신 첫 사제가 탄생되어 신부와 본당 교우들의 기쁨은 매우 컸다.

정웅모 신부는 1987년 2월 8일 본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하고, 성인성녀들의 모범에 따라 이 시대에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몸 바치는 사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제의 길을 갈 것을 다짐했다. 본당 교형자매들은 주님의 길로 인도함에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충심으로 축하했다.



첫 미사 집전

5. 김운회(루카) 신부 이임(1988. 9. 8)

천주교 서울대교구 방배동교회가 설립된 후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해 와서 6년 반 동안 사목을 맡아 온 김운회(루카) 신부가 1988년 9월 8일 발산동본당으로 떠나게 되었다. 본당에서는 9월 4일 미사 후에 환송식을 가졌다. 환송식에서 본당 신자들을 대표하여 구본호(프란치스코) 총회장이 감사패를 전달하고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김운회 신부는 전송 나온 회장단과 각 단체 임원들 그리고 신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발산동본당 회장단의 영접을 받아 새로운 임지로 떠났다.

향기로 남은 당신

– 김운회 루카 신부님 떠나심에 부쳐 –

청정한 시절에 방배 본당 인연하여
천3백 교우들과 셋방살이 시작더니
우면산 붉은 진달래 피고 지기 어언 일곱

본당 처음 맡으신 후 4천여 명 영세시켜
서럽고 가난한 이를 먼저 기억하란 말씀
신앙은 바로 생활이니 삶의 거울 되더이다

동기동 장고 소리 바자회도 신이 났고
구름 모인 하늘 아래 운동회로 우린 하나
와아와 한마당잔치 메아리도 성가대회

정들자 이별이란 누가 했던 옛말인가
우면산 산자락에 나지막한 가건물이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 님은 벌써 떠나시네

아니 웃고 하신 강론 우릴 웃게 하신 이유
연보라 성전가득 향기로 남는 당신
님이여, 항상 복되소서 기도 중에 뵈오리다.

1988년 9월 4일 방배동 교우 일동



5 안정 및 도약기
성장하는 방배 본당



제2대 김병학(라파엘) 신부 사목시기(1988. 9. 8 ~ 1993. 11. 5)

1. 제2대 김병학(라파엘) 주임신부 부임

1988년 9월 8일, 초대 주임신부였던 김운회 신부가 떠나고 방배동 본당의 제2대 주임으로 김병학(라파엘) 신부가 부임했다. 김병학 신부는 1970년 6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1970년 12월부터 가톨릭대학 교수를 지내면서 1979년부터 천주교 이태원본당 주임신부로 사목 활동을 겸임했고, 1983년부터 천주교 역촌동본당 주임신부를 맡고 있다가 서울대교구 인사방침에 따라 방배 본당에 부임했다.

김병학(라파엘) 신부 약력	
1964. 3. 14	사제 서품(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
1964. 6. 30	신학석사(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
1967. 6.	성서학 석사(로마 성서대학)
1970. 6.	신학 박사(로마 성 토마스 대학)
1970. 12. 18 ~ 현재	가톨릭대학 교수
1970. 7. ~ 1983. 8.	천주교 이태원 본당 주임신부 겸임
1983. 8. ~ 1988. 9.	천주교 역촌동본당 주임신부 겸임
1988. 9. ~ 1993. 11.	천주교 방배동 본당 주임신부 겸임

본당 사목협의회 회장단의 영접을 받으며 본당에 도착한 김병학 신부는 환영 나온 단체 임원들과 신자 교우들에 인도되어 대성당에서 간략한 환영식을 가졌다. 유능한 학자 신부를 주임신부로 맞은 신자들의 기쁨은 컸다.

김병학 신부는 부임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방배동 본당도 다른 본당과 똑같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서와 같이 미사를 드리고, 사목회가 있고, 성탄 축제, 부활 축제 등 어느 교회에서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띄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방배동 신자들이 성당에 와서 미사를 드리고 돌아간다든가, 기도를 드리고 돌아갈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삶의 기쁨을 느끼며, 한 주일 동안 직장에 나가 일하는 데 큰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애썼습니다. 또한 안으로는 공동체로서 편안하고 평화로우며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서로 아껴 주는 교회가 되도록 애썼고, 밖으로는 주님의 복음인 사랑을 실천하여 전하는 교회,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 2
3 01-03 김병학 신부님 부임 축하미사

2. 평안함을 느끼는 본당으로

1) 평안한 교회

김병학 신부의 부임으로 방배동 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당을 설립하고 대지를 구입하여 새 성전을 건축하는 데 온 정성을 쏟으며 기초를 다진 시기에서, 이제는 내적으로 성숙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김병학 신부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교회란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면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 인간에게 베푸는 용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이웃에게도 넘치도록 베풀어지기를 바라면서 애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성당을 청소하고 꽃을 가꾸고 겨울이 되면 나무를 감싸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청소하고 꽃을 가꾸고 정원수를 감싸 주지만 그 행동은 근본적으로 동기가 다릅니다. 성당에 와서 꽃과 나무를 심고 산과 하늘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느님의 아름다우심을 체험하고 찬미하며,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웃에 사랑을 실천하려는 곳이

성당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고 평화로우며 인간적이고 인정이 넘치는 그런 성당,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하느님은 평화의 주님이시고 평화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방배동 성당은 신축 건물이었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많았다. 김병학 신부는 유럽에서 유학할 당시 신학 이외에 틈틈이 교회건축학도 청강하여 그 분야에 조예가 깊은 분이었다.

김병학 신부는 신자들이 즐겁게 모일 수 있는 장소, 모인 신자들이 하느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자신의 성화와 사회의 성화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원과 힘을 주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교회를 손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당의 미비한 곳들을 보면 발 벗고 나서서 손질을 했다.

교수신부로서 신자들의 내면적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던 김병학 신부는 신자들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성당을 가꾸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여러 시설물을 개선하여 신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그때 저는 신학교 교수직도 겸하고 있었지요, 신학교 안에 거주하면서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못지않게 본당 사목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수 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었고, 본당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기에 시간을 잘 쪼개서 맡은 일을 다 하도록 노력했어요. 주임신부가 신학대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 전부를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한 것을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수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한 복음의 내용을 신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어서 그것으로 자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 것이 다 같이 작용해서 교회가 사명을 다 하는 데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부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제가 부임했을 당시의 방배동 본당은 교회를 세우고 성당을 신축한 데 온 힘을 기울이다 보니 다른 것은 더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 큰일도 다 마쳤으니 마음을 가다듬고 '신앙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 문제와 대면하면서 신앙은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삶의 기쁨을 주며,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체험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는 근본적이 교회관을 신자들이 갖도록 하는 것, 즉 신자 공동체를 실현하려고 애썼던 5년이었습니다."

신자들에게 신앙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던 학자 김병학 신부다운 모습이었다. 특히 김병학 신부가 부임한 둘째 주일부터 청년 레지오 단원들이 교우들에게 도서 대출 봉사를 시작했으며, '도서 모임'을 구성하는 등 내실 있는 분위기 쇄신에 주력했다.

2) 성서 강좌

김병학 주임신부 부임 후 성탄을 준비하며 1988년 가을 판공 찰고지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 찰고지로 최우수 수상자 이성진(로마노) 외 10명, 우수 수상자 홍성애(세실리아) 외 69명이 나왔다. 그리고 1989년 부활 판공에도 이화규 씨를 비롯 최우수 수상자 7명, 우수 수상자 28명, 장려상 17명의 수상자가 찰고지를 제출, 수상을 했다. 1990년 5월에는 김병학 주임신부가 직접 나서

성서 강좌 안내	
주 제	창세기(구약성서)
강 사	김병학(라파엘) 신부
기 간	1990년 5월 매주 목요일
시 간	오후 8시(60분 강의)
장 소	방배동 성당
대 상	성서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
준 비	성서, 필기도구, 성가책

서 성서 강좌를 열었다. 성서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구약성서 중 창세기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 매주 목요일에 60분씩 열린 이 강좌에 많은 교우들이 참가하여 신학대학 교수의 명강의를 경청했다.

이 강좌는 1990년 가을까지 계속되었다. 외적인 성장과 함께 내면의 힘을 키우고 싶어 했던 주임신부의 의지가 담긴 프로그램은 이렇게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



보좌신부 이임



보좌신부 부임

3. 보좌신부 부임(1989. 2. 17)

보좌신부 부 · 이임 현황(김병학 신부 사목시기)				
대	성 명	세례명	부임일	이임일
1	원종현	야 고 보	1989. 2. 17	1991. 2. 21
2	장희동	베 드 로	1991. 2. 22	1993. 3. 11
3	황경원	안드레아	1991. 2. 4	1993. 11. 4
4	박기호	다미아노	1993. 3. 12	1995. 3. 16

4. 수녀 부임

수녀 부 · 이임 현황(김병학 신부 사목시기)				
성 명	세례명	담 당	부임일	이임일
조영숙	안 나 마 리	전 례	1989. 9. 1	1991. 2. 6
한선자	크 레 센 시 아	청소년	1990. 2. 8	1992. 9. 2
남금자	시 메 온	전 례	1991. 2. 7	1992. 3. 2
이춘예	알 비 나	전 교	1991. 9. 3	1992. 3. 2
김희자	안 셀 모	전 교	1992. 3. 3	1995. 2. 2
장미애	미애말첼리나	전 례	1992. 3. 3	1993. 2. 22
지경희	마 르 틴	청소년	1992. 9. 3	1993. 8. 29
김동선	임 마 쿨 라 타	전 례	1993. 2. 3	1994. 8. 22
홍혜영	마 리 에 타	청소년	1993. 8. 30	1996. 2. 22



수녀님

5. 봉사단체 구성

1) 사목협의회

1988년 11월 16일 사목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제5대 총회장으로 김종세(그레고리오)를 선출하고 임원을 개선했다. 그동안 사회복지분과위원장으로 본당 발전에 봉사해 온 김종세 총회장은 1992년 11월 3일까지 2년 동안 총회장직을 맡으면서 본당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제5대 사목협의회 기간 중인 1989년 총회에서는 여성단체분과를 신설하여 9개 분과를 운영하며, 사목 활동에서 여성 신자의 활동을 강화했다.

1990년에는 기획분과를 신설하여 10개 분과위원회가 되었으며, 1991년에는 문화홍보분과와 여성단체분과를 없애고 노인분과와 시설관리분과를 신설했다. 또한 재무관리분과를 재정분과로 하여, 전체 분과위원회 수는 그대로 두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개편했다.

1992년 11월 4일 사목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임기가 끝난 김종세 회장의 후임으로 김찬진(야고보) 부회장이 제6대 총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제5대 사목협의회 임원	
총 회 장	김종세(그레고리오)
부 회 장	정인화(안드레아), 박수명(스테파노)
총 무	이 춘(가브리엘)
재 정 분 과	김현귀(프란치스코)
사 회 복 지	안정련(마르티노)
문 화 홍 보	조민증(토마스)
전 례 분 과	엄종석(토마스)
선 교 분 과	이호식(요한)
교 육 분 과	이교선(베드로)
청소년분과	김병래(바오로)
구 역 분 과	고방자(마리안나)

제6대 사목협의회 임원	
총 회 장	김찬진(야고보)
부 회 장	정인화(안드레아), 박수명(스테파노), 지태욱(요셉)
총 무	조용부(베드로)
기 획 분 과	김광옥(프란치스코)
재 정 분 과	박윤식(요한)
사 회 복 지	김재호(프란치스코)
전 례 분 과	안용주(베드로)
구 역 분 과	김광섭(미카엘)
노 인 분 과	이용근(브루노)
선 교 분 과	엄종석(토마스)
교 육 분 과	김병래(바오로)
청소년분과	서종국(요셉)
시 설 관 리	정태수(그레고리오)
총 구 역 장	이정자(아녜스)

2) 구역 반

1988년 초에 사목구역은 15개 구역 83개 반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병학 신부가 부임할 때쯤에는 신자들이 계속 늘어나서 삼호아파트 지역의 제2구역이 2개 반에서 6개 반으로 늘어났고 방배2동과 방배3동 지역인 제9구역도 신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 또한 제12구역, 제15구역이 1~2개 반씩 늘었다.

구역 반 현황		
연도	구역	반
1989년	16개 구역	90개 반(서초동 별도)
1990년	17개 구역	91개 반(서초동을 제17구역으로 함)
1991년	17개 구역	91개 반
1992년	17개 구역	95개 반
1993년	17개 구역	98개 반(서초3동 교회 설립 후 이적)
1994년	16개 구역	95개 반

1988년 11월 20일, 제9구역 중 방배2동과 3동을 나누어서 방배3동 지역을 제16구역으로 신설하고 16개 구역 90개 반으로 조직했다. 이때에는 서초동에서도 상당수

의 신자가 방배동 본당에 다니고 있어서 구외 구역으로 따로 관리했다. 이 서초동 구역은 1990년부터 제17구역으로 조직하여 관리하다가 1993년 10월 18일 천주교 서초3동본당이 신설되고 교적을 모두 옮겨 주었다.

3) 레지오 마리애

꾸리아 임원(1993)			
창조주의 모후 Cu.			
단 장	박윤식(요한)	부 단 장	김현귀(프란치스코)
서 기	박태남(바오로)	회 계	박형섭(아우구스티노)
파티마의 성모 Cu.			
단 장	조명조(루시아)	부 단 장	송순자(아녜스)
서 기	이봉수(브리짓다)	회 계	김황주(율리안나)
공경하올 어머니 Cu.			
단 장	마영자(릿다)	부 단 장	이길자(로사)
서 기	정은주(로사)	회 계	하영희(빅토리아)

6. 사제 서품과 성소후원회 발족

1) 본당 출신 세 번째 사제 서품

1988년 7월 15일 부제품을 받은 장경원(요한) 부제가 1989년 2월 4일 명동성당에서 사제로 서품되었다.

장경원 사제는 본당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1984년 신학교 3학년으로 본당에 등록했으며 1985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2년간 대학원에서 수업을 한 후에 1988년 7월에 부제로 서품되었다. 그동안 사제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 온 교우들은 매우 기뻐했다.

장경원 신부는 2월 5일 12시에 첫 미사를 본당에서 봉헌했다. 본당에서는 미사 후에 축하식을 하여 기쁨을 나누고 훌륭한 사도가 될 것을 기원했다.

2) 성소후원회 발족(1989. 4. 23)

성소(聖召)는 부르심을 일컫는다. 하느님은 인류를 당신 사람 속으로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총 속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불리운 사람들을 당신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 백성으로 세우셨다. 그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당신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할 사제로 부르신다. 이런 부르심을 사제성소라 하고, 사제성소를 받은 사람이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하면, 그를 신학생이라 부른다. 신학교에서 십여 년간 학덕을 닦으면 단계적으로 시종직, 부제품, 사제품을 받음으로써 사제성소가 확정되는 것이다.

본당 출신으로 1987년에 정웅모 신부, 1988년에 이경상 신부, 1989년에는 장경원 신부가 서품됨으로써 3년

사제들을 위한 9일 기도문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이시고 사제이신
주 예수를 보내 주신 천주여,
우리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당신은 그들을 택하시어 당신 백성의 길잡이로 삼으시고
세상의 빛이 되도록 명하셨나이다.

전능하신 천주여,
당신 사제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신적 은총을 부어 주소서.
그들이 세속 안에 살면서도 세속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인식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갖 부정 불의와 욕심으로 오염된 사회에서
말과 행동으로 진리를 증거 하게 하소서.
또한 주 예수께서 시작하신 사랑의 사업을 지속하여
모든 이들의 목자 되게 하시며,
특히 주위로부터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소외된 자의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로써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오로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당신 성자의 모습에 보다 가까워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연속 사제 서품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성소후원회의 기금은 1990년 12월 31일 은행 이자를 포함하여 1억 5천만 원을 넘어섰다. 성소후원회 기금은 제주교구와 안동교구의 성소자를 위해 각각 1천만 원씩 보내졌다.

본당의 성소후원회 헌금과는 별도로 해마다 성소주일을 보내며 2차 헌금을 하여 교구 차원의 성소후원에 일조했다.

방배동 교회 신학생 현황

이름 \ 연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이경상(바오로)	신학대4	군복무	연구	연구	부제서품		사제서품								
강진영(바울로)	신학대3	전출													
김동원(비오)	신학대3	신학대4 (수원교구)													
정웅모(에밀리오)		신학대4	연구	연구	부제서품	사제서품									
양장욱(베드로)	신학대2	신학대3	신학대4	군복무	군복무	군복무	목동본당								
양상륭(도미니꼬)				신학대1	신학대2	신학대3	신학대4	수도원							
김형수(헨리코)	신학대1	신학대2	신학대3	신학대4	군복무	군복무	왕십리본당								
장경원(요한)		신학대3	신학대4	군복무	연구	연구	부제서품	사제서품							
김형찬(토마스)		신학대1	신학대2	신학대3	신학대4	군복무	군복무	왕십리본당							
강문석(안드레아)				신학대2	신학대3	신학대4	군복무	동작동본당							
김병선(토나스아퀴나스)							신학대1	신학대2	군입대	신학대3	신학대4	연구	연구	부제서품	사제서품
조유관(베드로)										신학대1	신학대2	신학대	신학대4	연구	부제서품
이성혁(스테파노)								신학대1	신학대2	군복무	군복무	군복무	신학대3	신학대4	신학대5
박창엽(파비아노)											신학대1	신학대2	군복무	군복무	신학대3

* **이경상(바오로) 신부** : 해외유학하여 이탈리아에서 학위 취득 후 영국에서 연구하고 귀국하여 1996년 9월 동대문 본당 주임신부로 부임.
* **장경원(요한) 신부** : 서울 교육국 학생 꼬미시움 지도
* **정웅모(에밀리오) 신부** : 종로본당 주임신부
* **김병선(토마스아퀴나스)** : 1995년 7월 4일 부제 서품, 1996년 7월 5일 사제 서품
  1996년 11월 대림본당 보좌신부로 부임
* **조유관(베드로)** : 1996년 7월 4일 부제 서품

7. 밖으로 평화, 안으로 화목

1989년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주제로 세계성체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해이다. 김병학 신부는 본당에 부임한 후 처음 맞는 해에 세계성체대회의 정신에 따라 '밖으로 평화, 안으로 화목'을 사목 목표로 세웠다. 그동안 새 성전 건축에 쏟았던 신자들의 신앙적 안식을 위한 사목으로 방침을 정했다.

가톨릭교회의 전례는 1년을 한 주기로 하여 '그리스도의 신비'를 기념한다. 이 그리스도의 신비는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시작되어 부활로써 완성된다. 그러므로 교회의 전례주년은 성탄과 부활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성탄은 부활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전례의 중심이 된다. 부활절을 더욱 성스럽게 보내는 것도 여기에 그 의미가 있다.

이 성탄과 부활에는 각각 준비기간이 있다. 4주간의 대림시기와 40일간의 사순시기이다. 대림시기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 4주 동안으로 구세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성탄일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깊이 반성하며 성탄을 준비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때 하늘에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슴을 치면서,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마태 24,30).' 예수께서는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삶의 태도를 주님의 뜻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미사 때마다 '복된 희망을 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특히 대림시기를 통해 희망의 기쁨 속에서 권능을 떨치며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우리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다. 이 대림시기에는 우리 존재 전체가 주께 향하도록 기도와 선행과 극기를 하면서 성사의 의미를 다시 인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활 속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김병학 신부는 이러한 대림시기를 통해 전 교우들이 참회와 속죄의 정신으로 구세주를 맞이하도록 준비시켰다.

8. 제44차 세계성체대회 참가(1989. 10. 4 ~ 10. 8)

1989년에는 교회의 큰 행사로 서울에서 '제44차 세계성체대회'가 열렸다. 세계성체대회는 '가톨릭교회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교회와 신도들이 참가하여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대회이다. 가능한 한 4년에 한 번씩 각 대륙을 돌아가면서 교황이 정하는 도시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교황도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꼭 참석하는 성스러운 대회이다.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는 전 세계의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계층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남북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비롯하여 로제 에체가레 추기경이 참석했고, 브라질의 세계적인 인권운동가인 돔 헬데르 카마라 대주교 등 30여 명의 성직자와 신자 등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1만여 명의 신자가 참석했다.

본당에서는 9월 10일 세계성체대회를 위한 한마음

제44차 세계성체대회 행사 참가현황

날 짜	행 사	장 소	본당 행사 참가
1989. 10. 4	개회미사	올림픽 체조경기장	교우 231명이 전세버스 편으로 참가
1989. 10. 5	만남의 자리	방배동 본당	독일어권 참가자들의 본당 방문
1989. 10. 6	철야기도	잠실 실내체육관	본당 교우 180명 참가
1989. 10. 7	평화 통일 기원 미사	경기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	본당 교우 20명 참가
1989. 10. 8	장엄미사	여의도 광장	많은 신자들이 참가

한 몸 자선헌금을 바치면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기도했다. 성체대회 기간 동안 본당 교우들은 예정했던 행사에 참석했고, 많은 교우들은 본당에 나와 기도했다.

또한 성체대회를 하는 동안에 본당에서는 10월 5일 독일어권 참가자들을 초대하여 함께 기도하고 세미나 행사를 하는 한편 본당 소개를 하는 등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의 나라에서 온 독일어권의 참가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했으며, 조그만 기념품을 만들어 주었다.

9. 장학기금 조성 및 지급

성소후원회 기금 모금이 끝나자 사목협의회에서는 본당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모으기로 했다. 본당의 장학금 지급은 1986년에 사목협의회 청소년분과에서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회를 조직하고, 어려운 환경의 중 · 고등학생 중에서 모범적인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1986년 10월에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3명에게 제1차 장학금을 지급했고, 그후에도 계속 지급해 왔다. 그러나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그때 기부금에 의존했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했다. 그동안에



야외미사



한마당잔치



한마당잔치(장기자랑)



한마당잔치(줄다리기)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학생들도 상당히 늘어났다.

이에 1억~2억 원의 장학기금을 모아 그 이자 수입으로 체계적으로 매년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장학기금을 모으기 위해 한마당잔치를 열기로 했다. 한마당잔치는 성당을 건축하는 동안에 두 번 열어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어려움 없이 준비했다. 특히 한마당 잔치는 교우들의 친목과 한마음을 이루게 하는 데 활력적인 요소가 크므로 모든 교우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10. 본당 설립 10주년

1) 성서 읽기의 해

1992년은 방배 본당이 설립된 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본당에서는 교구 사목방침에 적극 순응하여, 자신의 복음화를 통하여 세상의 복음화에 이바지하고자 사목 목표를 '성서 읽기의 해'로 정했다. 지난 10년 동안을 되돌아보고 전교우들이 성서를 열심히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깊이 새롭게 체험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됨으로써 자신의 성화와 세상의 성화에 기여하여 앞으로의 생활에 활력이 넘치는 계기를 삼도록 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본당의 모든 가정에서 또는 모든 단체 모임에서 성서를 더욱 정성들여 읽고 묵상함으로써 복음화를 실현하도록 했다.

2) 무료 상담실 개설

신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김병학 신부는 본당 내의 인재를 활용하여 모든 신자들이 겪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방배 본당은 전문지식을 가진 교우들이 많으므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들의 지식을 나누어 여러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취지에서 1992년 5월, 본당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교우들을 위한 무료 상담실을 개설했다.



지식나눔 무료 상담

3)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 한마당잔치

1992년 9월 27일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 한마당잔치를 열었다. 이에 앞서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품으로 도자기 컵 세트를 마련하여 교우들에게 구역 반장을 통해 나누어 주었으며, 구역 외에 거주하는 본당 교우들은 사무실에서 직접 나누어 주었다. 한마당잔치는 구역별로 운동경기와 여흥의 순서로 이어졌고 음식판매도 했다. 경품권을 추첨하여 많은 상품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한마당잔치는 방배 본당 교우들의 한마음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방배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 한마당 잔치

11. 김병학(라파엘) 주임신부 은경축 행사

1989년 9월 29일은 김병학 신부의 사제 서품 25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1964년 오스트리아에서 사제품을 받고 사제로서 자신의 삶을 바치며 살아온 김병학 신부는 본당에 와서도 가톨릭대학 교수직을 겸임하며, 본당 신자들을 위해 사목 활동에 온 힘을 기울였다.

본당에서는 1989년 10월 3일 은경축 행사의 자리를 마련했다.

10시 30분 모든 신자가 참가하여 축하 미사를 드리고 11시 30분 축하식을 했으며, 12시 30분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연이 이어졌다. 축하식에 참가한 교우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사목 활



신부님 축일 행사

동에 여념이 없는 김신부를 위하여 영적 · 물적 선물을 봉헌했다.



신부님 축일 행사

12. 청년회 활동

'평안한 본당'을 사목 방침으로 활동해 온 김병학 신부 사목시기에 두드러지는 것 중의 하나가 청년회 활동이다. 20대 청년층의 모임으로서 형제적 사랑과 일치를 목적으로 활동해 오던 청소년회가 1990년에 '청년성가단'과 '청년봉사단'을 조직했고, 1991년에는 '청년성서모임'을 조직했고, '청년연합회'를 두어 청년단체들의 상호협조 및 공동발전을 꾀하도록 했다.

1) 청년연합회

청년모임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러 단체가 생기자, 각 청년단체의 상호협조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회를 구성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부활절 달걀 판매, 피정 등의 활동을 통하여 청년 교우들 간의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는 한편, 1989년 8월 17~20일까지 3박 4일간 공세리 성당을 출발→솔뫼 성지→대천중학교→해미성지→대천해수욕장→청양 줄무덤 성지→공주 황새바위 성지를 도보로 순례하여 신앙쇄신에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 동계 및 하계에는 정기적으로 피정을 가져 신앙을 다졌다.

2) 청년성서모임

성서를 모르는 것은 하느님을 모르는 것이다. 성서를 함께 읽으며 묵상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성서 묵상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 성서 묵상을 위한 청년들의 모임은 9월에 다시 모집하여 모임을 가졌으며 1991년 3월에 제3회 모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서를 읽으며 공부하고 묵상하기 위한 조직체로 청년성서모임 '태멘'을 구성했다.





청년성서모임 '태멘'

3) 청년성가단

청년미사의 성가는 청년회 성가부에서 담당해 왔으나, 1990년 6월 청년들 중에서 성가를 통해 봉사하고자 하는 청년성가단원을 모집하여 청년성가단 'ANAWIM'을 구성했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연습을 하여 9월 28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첫 발표회를 가졌다.

4) 청년봉사단

본당 청년들 중 형제적 사랑과 일치를 목적으로 하는 친목 봉사단체로 1990년에 조직되었으며, 평소 숨은 봉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모여 본당의 숨은 일꾼으로 봉사하고 있다.

13. 김병학(라파엘) 주임신부 이임(1993. 11. 4)

본당 제2대 주임신부로 1988년에 부임해 와서 본당의 발전을 위해 온 정성을 대해 온 김병학(라파엘) 주임신부는 서울대교구의 인사방침에 따라 1993년 11월 5일 새 임지인 제기동본당으로 발령을 받았다. 본당에서는 10월 31일 대미사 후에 환송식을 했다. 환송식에는 사목협의회 회장단을 비롯한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여 신부님의 앞날에 큰 축복이 있기를 빌며 영육간 건강하기를 기도드렸다.






새 임지인 제기동 성당으로 떠나는 김병학 신부를 아쉬운 마음으로 환송하는 본당교우들

제3대 최준웅(바르나바) 신부 사목시기(1993. 11. 5 ~ 1998. 10. 8)

1. 제3대 최준웅(바르나바) 주임신부 부임

1) 신자들과 함께 있는 신부

신자 교우들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성당이 되도록 성당 구석구석까지 손질하며 애를 써 준 김병학(라파엘) 신부가 이임하고 1993년 11월 5일 최준웅(바르나바) 신부가 제3대 주임신부로 부임했다.

최준웅(바르나바) 신부 약력	
1973. 12. 8.	사제 서품
1978. 9. ~ 1983. 2	독산동본당 주임신부
1983. 3. ~ 1984. 4	필리핀 연수(동아시아 사목연수원)
1984. 5. ~ 1987. 8	동대문 본당 주임신부
1987. 9.	미국 연수(해외교포사목)
1993. 3. ~ 1993. 11	성북동본당 주임신부
1993. 11. 5	방배동 본당 주임신부

최준웅(바르나바) 신부는 1973년 12월 8일 사제품을 받고 보좌신부로 5년 가까이 지내다가 독산동본당에서 주임신부를 지냈다. 독산동본당 재임 시에는 어려운 사목환경 속에서 성당 건립을 하는 큰 사업을 이룩했고 그 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동아시아 사목연수원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귀국 후에 동대문본당에서 3년간 주임신부로 사목을 맡은 후, 미국 필라델피아에 5년간 있으면서 외국의 천주교회에 관한 연구를 하고 해외동포의 신앙생활에 훌륭한 길잡이가 되었다. 귀국한 후에는 성북동본당에서 주임신부로 사목을 맡았다가 서울대교구 인사방침에 의하여 방배동 본당에 부임하게 된 것이다.

최준웅(바르나바) 신부는 본당에 부임하여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과 함께 있는 크리스천이 되고자 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에







신부님 부임

의하면 주교는 직책명이고 '크리스천(신앙인)'은 은총의 이름입니다. 직책을 생각할 때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만 은총의 이름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로를 느낍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의 이름을 가진 같은 신앙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마음으로 사목 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최준웅 신부는 신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신자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교회일을 하고 원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썼다. 사목협의회 회장단에서 결정하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끌어 주었다.

2) 남성 구역모임 활성화

본당에 부임해 온 최준웅 신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은 구역모임이었다. 그 당시 여성 신자들은 월 1회 또는 더 자주 모임을 가지며 나름대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남성 신자들의 모임은 거의 없었다.

최준웅 주임신부는 부임한 이듬해인 1994년 2월, 구역별 남성 신자들의 모임을 시작하여 구역 소공동체를 구성했다.

처음에는 성당에 모여 간단한 다과를 들며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 신자들의 반응은 좋았으며, 이런 모임이 좀 더 빨리 구성되었어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처음에는 많이 나왔던 신자들도 모임을 계속할수록 참여율이 떨어졌다. 직장 등 사회활동에 바쁜 남성들이 구역별이기는 하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 시작된 남성모임을 제가 잘 이끌지 못해 매력 있는 모임이 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신자들이 스스로 참가하고 싶어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임신부로서 찾아야 할 열쇠입니다. 무엇보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의 모임으로, 빈번히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김수환 추기경 사목방문(1995. 3. 29)

1995년 3월 29일 김수환 추기경이 국장신부들과 함께 사목방문차 본당을 방문했다. 본당에서는 많은 신자들이 나와서 김수환 추기경을 영접했다.

추기경은 본당의 현황을 듣고 방배동 지역의 사목활동에 애를 쓰고 있는 본당신부와 사목회 임원들의 수고를 격려했다. 그리고 소공동체를 지향하는 교구의 방침과 본당 분할에 대한 관심을 갖고 빠른 기일 안에 새 성전 건립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의 말을 했다. 또한 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갖고 좀 더 활성화가 되도록 부탁했다.

1 2
3 4
5 6

01-06 김수환 추기경님 사목 방문













2. 보좌신부 부임

보좌신부 부 · 이임 현황(최준웅 신부 사목시기)				
대	성 명	세례명	부임일	이임일
4	박 기 호	다미아노	1993. 3. 12	1995. 3. 16
5	홍 사 영	바 오 로	1993. 12. 3	1995. 12. 1
6	권 철 호	다 니 엘	1995. 3 .17	1996. 11. 29
7	오 인 섭	코 마	1995. 12. 1	1996. 10. 11
8	조 신 형	도미니코	1996. 11. 29	
9	김 연 범	안토니오	1996. 11. 29	

3. 수녀 부임

수녀 부 · 이임 현황(최준웅 신부 사목시기)			
성 명	세례명	부임일	이임일
홍 혜 영	마 리 에 타	1993. 8. 30	1996. 2. 22
조 미 예	미예 루시아	1994. 8. 23	1996. 8. 26
김 학 경	예 레 미 야	1995. 2. 23	
곽 희 자	쟌 다 크	1996. 2. 22	
윤 희 주	요 셉 피 나	1996. 8. 26	

4. 봉사단체 구성

1) 사목협의회

1992년 11월 4일 사목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임기가 끝나 김종세(그레고리오) 회장의 후임으로 김찬진(야고보) 부회장이 제6대 총회장으로 추대되었다.

1994년 11월 사목협의회 총회에서는 지태욱(요셉) 부회장이 제7대 총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지태욱(요셉) 총회장은 1987년 재무관리분과위원, 1990년 선교분과위원, 1991년 청소년분과위원을 지내고, 1992년 11월 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임되어 본당 발전에 많은 애를 써 왔다.

김찬진 전회장은 다시 청소년분과 위원을 맡아 청소년 지도에 도움을 주었다.

1997년 1월 사목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임기가 끝난 지태욱(요셉) 회장의 후임으로 이춘(가브리엘) 부회장이 제8대 총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전임 지태욱 회장은 다시 사회복지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제7대 사목협의회 임원	
고 문	윤경중(요셉), 김정희(알로이시오), 이석규(요셉), 구본호(프란치스코)
총 회 장	지태욱(요셉)
부 회 장	서종국(요셉), 김광옥(프란치스코), 이춘(가브리엘)
총 무	김광섭(미카엘)
기 획 분 과	조용부(베드로)
재 정 분 과	박상설(마태오)
선 교 분 과	박윤식(요한)
전 례 분 과	천종욱(안셀모)
노 인 분 과	이용근(브루노)
교 육 분 과	배호성(토마스 아퀴나스)
시 설 분 과	정태수(그레고리오)
사회복지분과	김재호(프란치스코)
구 역 분 과	김호길(마태오)
청 소 년 분 과	임길성(발렌티노)

제8대 사목협의회 임원	
고 문	윤경중(요셉), 구본호(프란치스코)
총 회 장	이춘(가브리엘)
부 회 장	김광옥(프란치스코), 김연중(시몬), 김호길(마태오)
총 무	함의신(요한)
부 총 무	하상도(대건 안드레아)
기 획 분 과	이영기(베드로)
재 정 분 과	김경원(스테파노)
선 교 분 과	박기석(안드레아)
전 례 분 과	강창수(비오)
노 인 분 과	오영일(요한)
교 육 분 과	최영철(히야친토)
시 설 분 과	허주열(바오로)
사회복지분과	조기성(요한)
구 역 분 과	김호길(마태오)
청 소 년 분 과	김익창(안드레아)

2) 신자에게 베푸는 교회로

제7대 사목협의회 지태욱 총회장은 주임신부에게 건의하여 그동안 주임신부에게 의존해 왔던 본당의 살림살이에 관한 일들을 사목협의회 회장단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사목협의회 회장단은 자주 회합을 갖고 본당 살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고, 웬만한 일들은 부회장 선에서 결정하여 진행하도록 했다. 최준웅(바르나바) 주임신부가 민주적이고 신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사목협의회에서는 신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첫째로 구역 단체가 성지순례를 가거나 피정을 갈 때 본당에서 차량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것은 효과가 매우 커서 더욱 많은 교우들이 능동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동안에는 각 단체나 구역에서 차량 경비를 따로 마련했었기 때문에 성지순례나 피정을 갈 때 가장 큰 문제가 차량이었다.

둘째로 교우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했다. 어디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먹을 것이 필요하다. 간단한 구역 모임을 하더라도 차를 내거나 과일 등을 준비한다. 부활절에 즈음하여 본당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음식을 준비해 교우들이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이 행사를 1995년에는 구역 활성화의 일환으로 구역별로 시행했다. 구역별로 준비한 음식을 본당에 모여서 나누어 먹으며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 본당에서 경비를 모두 부담했기 때문에 교우들은 모두 좋아했다. 그러나 준비를 잘한 구역이 있는 반면에 조금 소홀했던 구역도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1996년에는 구역별로 하지 않고 모든 신자가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부활절에 '국수 나누기 행사'를 하여 교우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간단한 '국수 나누기 행사'였지만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여 준비했던 국수가 부족할 정도였다.

3) 건의함 설치(1995. 4. 23)

사목협의회에서는 교우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건의함을 설치하기로 하고 주임신부와 의논했다. 민주적이면서 개방적인 최준웅(바르나바) 신부는 좋은 의견이라며 허락했다. 1995년 4월 23일 본당 공중전화 옆에 건의함을 설치하고 '교우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모아 본당 발전의 유익한 내용을 수렴하기 위하여 건의함을 설치했다.'는 내용을 주보에 게재하여 알리고 활용하도록 했다.

4) 의료자원봉사 실시(1996. 11. 24)

본당 사목협의회 사회복지분과위원회에서는 1996년도 사업계획의 하나로 무의촌 의료자원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기는 농번기가 지난 후로 정하고, 요셉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백운성당 교우들과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

사목협의회에서는 본당 교우들과 강남성모병원의 협조를 받아 의료진을 구성했다. 안과 김재호(프란치스코), 성형외과 서종국(요셉), 피부과 김윤섭(요셉), 치과 박정봉(안토니오) 등의 본당 교우팀과 강남성모병원 내과 의사와 각 진료과 간호사로 훌륭한 의료봉사단이

구성되었다.

1996년 11월 24일, 안과, 치과, 내과, 외과, 피부과 등 의사 6명과 간호사 3명, 레지오 마리애 봉사자와 빈첸오회 회원 등 20여 명의 의료자원봉사단은 충북 제천군 백운면 평동리 백운복지 회관에서 백운성당 교우들과 인근 주민들을 진료했다.

의료기관에서 농촌 진료활동을 한 적은 있으나, 본당 차원의 무료진료는 방배동 본당이 처음이었다. 이 내용은 가톨릭 신문에 자세히 보도되어 방배동 본당을 더욱 빛나게 했다.


가 톨 릭 新 聞 1996年12月18日(日曜日)

서울 방배동 농민들에 무료진료

지역민도 혜택 선교 큰몫

원주교구 백운본당에 진료단 파견

의료자원봉사 기사가 게재된 가톨릭신문

5) 구역 반

한국 천주교 방배동 교회의 신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1992년에 9,000명을 넘어섰고 최준웅(바르나바) 신부가 부임해 온 후인 1993년 말에는 9,703명이었다.

본당 구역내 총인구 64,396명의 약 15%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었다. 1994년 말에는 신자 수가 9,225명으로 감소했는데 이것은 서초3동본당이 신설되면서 신자의 이동이 있었고,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거나 교적을 이전하지 않은 행불자를 정리하여 서울대교구 이향신자 사목부로 전출시킨 때문이었다.

1993년 말에 사목 구역은 16개 구역 95개 반이었다. 그 후 신자수가 늘어나 1995년 말에 9,500명이 넘어서자 17개 구역 98개 반으로 조정했고 1997년 1월 현재는 17개 구역, 99개 반이다.

구역반 현황	
연 도	이임일
1994년	16개 구역 / 95개 반
1995년	16개 구역 / 95개 반
1996년	17개 구역 / 98개 반
1997년	17개 구역 / 99개 반

6) 구역 소공동체

본당 17개 각 구역 모임이 여성 신자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남성 신자들은 구역 반 모임 참여도가 거의 없다시피하자, 최준웅(바르나바) 주임신부는 남성 신자들의 구역 모임을 활성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남성 신자들이 월 1회 이상 모임을 갖고 가까운 이웃 형제들 간의 사귐과 섬김과 나눔의 소공동체가 되도록 도모하기 위한 준비모임을 1994년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각 구역별로 본당 만남의 방에서 가졌다.

초기에는 최준웅 주임신부가 관심을 갖고 남성 신자 구역 모임을 추진하여 신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모임이 계속될수록 사회활동이 많은 남성 신자들이 모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가자 수가 줄어들기도 하여 안타깝게 했다.

1995년 4월 29일에는 본당소속 외짝 교우 부부들을

초청하여 환영행사를 가졌는데, 외짝 교우 부부 85쌍 중 약 60여 쌍의 부부가 세례를 받는 성과가 있었다.

1995년 6월 25일에는 구역대항 족구대회를 열어 구역모임 활성화가 되는 계기로 삼으며 한마음이 되도록 기도했다. 1996년에도 5월 19일 구역대항 체육대회를 열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외짝교우 초청 환영행사





구역대항 체육대회

5. 서품과 성소후원회

1) 사제 서품과 부제 서품

1995년 7월 4일 부제품을 받았던 김병선(토마스아퀴나스) 부제가 1996년 7월 5일 명동대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집전으로 사제품을 받았다. 김병선 사제의 서품으로 본당 출신 성직자는 4명이 되었다. 본당 주임신부를 비롯하여 성소후원회를 통한 꾸준한 지원이 사제 서품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조유관(베드로) 학사는 7월 4일 개포동본당에서 부제품을 받았다. 이들을 위해서 본당 교우들은 미사, 영성체 1회 이상, 희생기도 1회 이상, 화살기도 3회 이상, 사제를 위한 기도 3회 이상을

드리며 앞날을 축복했다. 본당에서는 1996년 7월 7일 12시 30분 김병선 신부의 집전으로 첫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에 성당 마당에서 축하연을 갖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김병선 신부는 11월 29일 대림동본당 보좌신부로 발령을 받아 사목 활동을 하고 있다.






김병선 사제 서품 첫미사




조유관 부제 서품

2) 성소후원회(1996. 4. 21)

1995년 7월 4일 김병선(토마스 아퀴나스) 부제가 서품을 받자, 주님의 부름에 응하여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을 지원하기로 하고 성소후원회 준비모임을 갖기로 했다.

당시 본당에서 김병선 부제 외에도 조유관(베드로) 학사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이성혁(스테파노) 학사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학과 4학년에, 박창엽(파비아노) 학사가 가톨릭대학 신학대학 신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1995년 8월 14일 오전 10시에 성소후원회 준비모임을 위한 미사를 드리고 첫 모임을 가졌다. 첫 모임에서는 본당 출신 신학생을 돕기 위한 성소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꾸준히 기도했다. 이 성소후원회 준비모임은 1995년 9월 11일, 1996년 1월 8일, 3월 11일, 4월 11일에 발족 준비 기도모임을 갖고 회원을 늘리며 회원모집을 했다.

6.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행사

1996년은 김대건(안드레아) 신부 순교 150주년이 되는 해였다. 서울대교구는 성 김대건(안드레아) 신부 순교 150주년을 맞이하여 9월 15일 잠실 주경기장에서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를 계획했다. 서울대교구는 7 · 8월의 각 본당 구역 및 직장 모임에서 말씀 전례를 통해 순교 정신을 본받도록 했고, 6월 중 구역 반장 월례 연수를 실시했다. 또한 7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유해 순회 기도회를 가져 구원과 복음화를 위해 투신한 김대건 신부의 순교정신을 기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구현하도록 했다.

1)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유해 순회 기도회(1996.7.30 ~ 8.1)

본당에서는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유해 순회 기도회를 1996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가졌다. 이를 위해 5월 13일부터 본당 공동체 기도를 바칠 때 성 김대건(안드레아) 신부를 기리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도를 올렸다. 유해를 모셔오기 전에는 신자들이 본당에 모여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기도를 드렸다.

2)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1996. 9. 15)

한국 가톨릭교회의 위대한 순교정신을 선양하여 겨레의 복음화와 정의와 평화의 정신을 함양하는 큰 뜻을 담은 김대건(안드레아) 신부는 순교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가 1996년 9월 15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렸다.

이에 앞서 본당에서는 9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기도를 드리며 신앙대회를 맞이하는 자세를 새롭게 했다. 9월 8일 미사에는 특별헌금을 봉헌했다. 9월 15일 본당의 교우들은 잠실운동장 부근의 교통난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행사장에 도착했고, 지구별로 지정된 좌석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신앙대회에 참가했다. 서울대교구의 김수환 추기경 및 사제들도 지하철을 이용하여 행사장에 도착했다.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서울대교구 4명의 주교단과 4백여 명의 서울대교구 사제단이 공동 집전으로 장엄미사가 봉헌된 신앙대회는 2천여 명의 수도자와 12만여 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미사 전 행사, 기념미사, 뒤풀이 순으로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성 김대건(안드레아) 신부 유해 순회 기도회

7. 사랑의 나눔

1) 백운성당과 자매결연(1994. 5. 22)

본당 친교단체인 요셉회는 본당이 설립된 직후인 1982년에 창립된 50대 이상의 남성 교우 모임으로 봉사와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이다.

1994년 요셉회 회장에 선임된 지태욱(요셉) 회장은 요셉회가 친목도모만을 위한 단체이기보다는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위한 모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회원들과 논의했다.

요셉회에서는 1994년 4월 17일 백운성당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배론 성지로 성지순례를 갔다. 성지순례를 마친 후 백운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백운성당의 교우들은 요셉회 회원들을 매우 극진히 대해 주었다.

그 후 1994년 5월 22일에 요셉회와 백운성당 간에 자매결연이 맺어졌다. 요셉회 회장단은 고문, 회원들과 함께 백운성당에서 그곳 교우들과 10시에 자매결연 미사를 드렸다. 요셉회는 주임신부의 제의도 한 벌 기증하고, 이석규(요셉) 사목협의회 고문은 액자를 기증하는 등 준비해 간 여러 가지 선물을 나누었다.

당시 백운성당은 주일헌금이 10만 원도 안 되는 가난한 성당이었다. 헌금 총액이 한 달에 30~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제천의 다른 본당으로부터 월 25만 원씩 도움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다.

2) 사랑 나누기 농산물 판매(1994. 8. 21)

요셉회에서는 백운성당의 주임신부와 상의하여 백운성당 관내의 농산물을 매월 셋째 주일에 본당에서 판매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1994년 8월 21일에 사랑나누기 농산물 판매가 처음 시작되었다. 요셉회에서는 '농촌과 농산물을 직거래하여, 농민도 돕고 가난한 시골 성당도 돕자'는 취지를 주보에 공고하여 본당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백운성당 교우들은 판매된 농산물 가격의 10%를 백운성당에 봉헌하기로 하고 감자, 찰옥수수, 들기름 등의 농산물을 판매했다. 백운성당에서는 공무원 부인들이 솔선하여 농산물 판매 봉사에 나서기도 했다.

8. 청년 모임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본당 청년회는 조직을 다양화하여, 청년교우 각자의 특성을 살리고 교회로서 지역사회의 의무를 수행하여 왔다. 청년협의회를 중심으로 하여 청년봉사단 '동살', 청년성가단 'ANAWIM', 청년성서모임 '태멘'이 활발하게 활동했다. 청년성가단에서는 매년 정기발표회를 갖고, 성가대(성인성가단)의 방배동 성당 음악회에 찬조하여 화합의 마당이 되도록 했다. 1996년 2월부터는 예비신자 교리 때 성가 봉사를 시작했다.

기존의 청년단체 외에 1994년에는 청년전례단을 조직하여 청년회 미사와 전례를 한층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며, 극단 '옹기마을'을 창단하여 정기적인 공연을 가지며 청년 문화 발전에 앞장서 왔다.

청년극단 옹기마을은 1993년 7월 25일, 연극에 관심 있는 교우들을 모집하여 창립되었다. 당시 청년 사목 활동을 담당하여 관심이 많았던 박기호(다미아노) 보좌 신부는 청년회 모임을 더욱 다양하고 활기 있게 해 나가기 위해 연극단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주보에 공고를 했다. 7월 25일 첫 공고를 시작으로 8월 1일과 8월 8일의 공고 후 모인 인원이 20명이었다. 회장단을 구성하고 연기, 연출, 분장 등 담당 분야를 정했다. 연기자는 많은데 연출이나 분장을 맡을 사람은 많지 않았다. 청년회 교우들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각자의 분야를 정하고 극단의 이름을 '옹기마을'로 결정한 뒤 10월 29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9. 삼풍백화점 희생자를 위한 기도

1995년 6월 29일에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6 · 25동란 이후 최악의 사고로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이 사고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으며,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크신 섭리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관할 서초동본당에서는 즉시 피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남성 · 여성 단체는 물론 청년층이 사고현장의 인명구조 활동 및 음식물 제공 등 봉사활동에 나섰다. 본당의 많은 신자들이 구조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솔선해서 봉사활동을 했다.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레지오 단원들을 격려하는 주임신부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제12지구 회장단 대표를 맡고 있던 본당의 지태욱(요셉) 사목회장은 7월 5일 방배 본당에서 지구 총회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지구 차원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지구 차원의 자원봉사활동 본부를 설치하고 서초동 본당 피해대책 본부를 물적으로 도울 계획이었으나, 7월 6일 서초동본당 피해대책본부가 철수함으로써 지구 차원의 자원봉사만으로 구호활동을 일원화했다.

제12지구에 소속되어 있는 방배 · 서초 · 반포 · 잠원 · 포이동본당은 한 본당에서 사흘씩 4교대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경찰 · 군인 · 의무경찰 · 119구조대원 · 자원봉사자 등 구조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500여 인분의 식사를 공급했다. 본당에서는 레지오 단원을 중심으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나와 봉사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집합 시간에 늦는 사람 없이 봉사를 함으로써 본당의 나눔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한편, 지역공동체의 일치를 조성했다.

10. 새 성전 신설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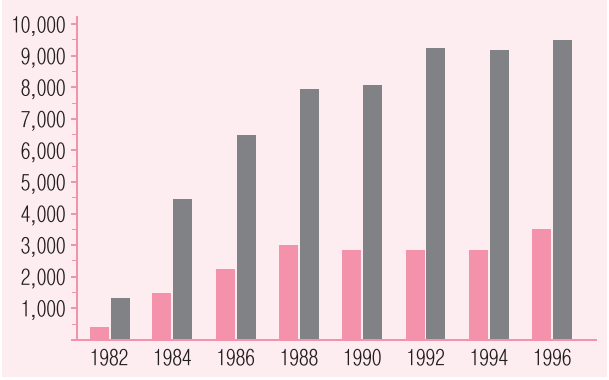
1) 교세 현황

1982년 반포본당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이래 방배동 본당의 신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1982년 3월 374세대 1,375명으로 시작된 본당의 신자 수는 1985년에 5,000명을 넘었고, 1988년에는 8,000명, 1992년에는 3,268세대에 9,314명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신자수가 많이 늘어나게 된 데에는 지역 발전에 따른 자연 증가에도 원인이 있지만 해마다 500명 이상이 세례를 받고 새 신자가 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러한 사실은 본당의 신부, 수녀를 비롯하여 레지오 단원들의 활동이 컸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당의 신자 수가 9,000명을 넘어서 1만 명에 육박하자 자본당 설립에 관한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방배동 지역의 땅값이 워낙 비싸서 쉽게 대지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같은 본당에 나왔던 교우들이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도 있기 때문에 자본당 설립을 반대하는 신자들도 있었다.

교세 증감 현황

연 도	세 대 수	신 자 수
1982	374	1,375
1984	1,580	4,506
1986	2,296	6,430
1988	3,051	8,015
1990	3,245	8,929
1992	3,268	9,314
1994	3,211	9,225
1996	3,369	9,516



2) 대지 구입

신자 수가 늘어나자 본당의 교리실과 주일학교에서 사용할 교육관, 청소년들이 사용할 청소년 활동실이 비좁아졌다. 혼배성사라도 하는 날에는 축하객을 제대로 대접할 장소도 부족했다. 최준웅(바르나바) 주임신부는 사목협의회와 협의하여 지하 교리실을 늘리기로 하고, 성당의 앞마당 부분까지 지하층을 더 파서 지하와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층 확장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다.

그런데 1996년 3월 김옥균 주교가 방문했을 때, 지태욱 총회장, 김찬진 전회장, 김광옥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옥균 주교가 돌아가고 지태욱 총회장, 김찬진 전회장, 김광옥 부회장만 남았을 때 김찬진 전회장이 말했다. "제 집 이웃집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계속 유찰되어서 싼값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집을 방배동 본당에서 구입하게 되면 제 집도 싸게 내 놓겠습니다.

김찬진 전회장은 오래 전부터 땅을 팔려 내놓았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팔리지 않고 있었다. 김찬진 전회장의 집과 이웃집을 합하면 360여 평이 되므로 새 성전 건립부지로 가능했다. 방배성당의 본당 건물 1층이 292평이므로 360여 평 대지라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성당을 지을 수 있었다.

지태욱 총회장은 이를 최준웅 주임신부에게 보고했다. 최준웅 신부는 전부터 새 성전 설립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 입찰에 응하기로 했다. 김광옥 부회장이 나서서 입찰 준비를 했다.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면 부동산 브로커들이 담합하여 계속 유찰을 시켜가며 가격을 낮추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입찰에 응하면 방해를 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김광옥 부회장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상황을 알아 보며 입찰 준비를 했다. 주임신부와 사목협의회 회장단이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입찰가격을 논의했다.

응찰자가 1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도록 했다. 김광옥 부회장은 준비했던 금액을 써내 응찰했다. 그 결과 12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낙찰 받게 되었다.

새성전 건립 부지 매입 현황

서초구 방배본동 807-7
방배본동 807-8
가옥 2동 366평 (소요예산 약 30억 원)

3) 새 성전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1996. 5. 12)

성전 부지를 계약하고 나니 문제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서울대교구에서 7억 원을 지원받고, 반포본당에서 3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새 성전이 건립되면 팔레스호텔 뒤쪽의 반포본당 소속 신자들이 1,000여 명 정도 편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므로 대지 구입에 필요한 예산 30억 원 중 2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면 되었다. 사목협의회 회장단은 여러 가지로 의논한 끝에 새 성전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새 성전 건립 추진위원회 임명식은 1996년 5월 12일 10시 30분 미사 중에 있었다.

추진위원회는 회장단 외에 고문 8명, 자문위원 54명, 추진위원 232명으로 구성했다.







1 2
3
4 5

01-05 새 성전 건립 추진위원회 회합





11. 《방배동 본당 15년사》 편찬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방배동 본당은 1997년 2월 설립 15주년을 맞게 되었다. 반포성당에서 분리되어 상가를 임대하고 첫 미사를 드렸던 1982년을 생각하면 내외적으로 많은 성장을 해 왔다. 우선 1,375명으로 시작했던 신자 수가 1만 명에 가깝게 늘어나 이제는 새 성전 설립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임대성당에서, 우면산 기슭에 성전터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현재의 성당을 훌륭하게 짓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희생 봉사하는 속에서도 지역사회 봉사활동, 독일어권 신자들을 초대한 세계성체대회 참가, 한 · 일간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한일 청소년 평화교류 등 세계 복음화 운동을 전개했고, 열린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 왔다.

1996년 초 사목협의회에서는 본당 설립 15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방배동 본당 15년사》를 간행하기로 하고 편찬위원회를 구성했다. 편찬위원장 김광옥(프란치스코)을 비롯하여, 하중호(그레고리오), 천종욱(안셀모), 이영기(베드로), 박태호(미카엘), 하태무(안토니오)가 편집위원으로 선임되었다. 편찬위원회는 1996년 1월 25일 첫 모임을 갖고 《방배동 본당 15년사》의 구성을 한국천주교회사, 본당사,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약식 및 활동사, 본당 현황, 특별기고 및 사진화보로 꾸미기로 했다.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는 이영기 형제가 편집 · 출판을 맡고, 사진은 박태호 형제가 맡아 정리하기로 했다.

각 단체에 관한 것은 단체장들의 원고를 받기로 하고 1996년 3월 24일 단체장회의를 열어 자료 수집 및 각 단체의 간단한 역사와 활동사항 등을 제출해 주도록 부탁했다.

지나온 과거를 객관화하여 되돌아보고 앞날의 거울로 삼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방배동 본당 15년사》의 발간은 앞으로 이어질 방배동의 긴 역사에 던져진 시금석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일은 2000년대의 대희년을 바라보며 지역 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이어온 발자취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오늘날 물질문명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새로운 다짐으로 발전하여 내일의 바람직한 신앙공동체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방배동 본당 15년사》 편찬위원회 편집위원들의 편집회의



6 성숙기
굳건해지는 방배 본당

4대 김영일(발타사르) 신부 사목시기(1998. 10. 9 ~ 2003. 9. 15)

1. 제4대 김영일(발타사르) 주임신부 부임

신자들과 늘 함께하며 신자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적극적인 사목 반영으로 신자들로 하여금 능동적이고 솔선하는 공동체 생활과 신심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최준웅(바르나바) 신부가 이임하고, 오금동본당에서 사목을 하던 김영일(발타사르) 신부가 주임신부로 부임하였다.

김영일(발타사르) 신부는 1960년 사제품을 받고 청량리 본당에서 보좌신부로 첫 사목을 시작한 이후로 이문동본당, 중림동본당, 반포본당, 응암동본당, 오금동본당 등에서 사목 활동을 영위하였다.

특히 김영일(발타사르) 주임신부는 재무 전문가로서 서울대교구의 재정국장 시절에는 교구의 자산 관리에 솜씨를 발휘하여 교구의 재산을 많이 늘렸던 일화가 있다.

김열일(발타사르) 신부는 성령 안에 성화되는 공동체 사목의 활성화, 2000년 대희년 맞이, 신자들 개개인의 내적 쇄신을 통한 하느님과의 만남, 사회 정의를 위한 교회의 역할, 철저한 미사 참례 등을 사목 목표로 삼았다.

김영일(발타사르) 주임신부 약력	
1960. 3.	사제 서품
	서울 청량리본당 첫 보좌신부
	이문동,중림동,반포,둔촌동,응암동,오금동 주임신부
1998. 9.	방배동 본당 주임신부
2003. 9.	은퇴미사 봉헌





김영일 주임신부 부임

부임하는 즉시 구역 활성화의 일환으로 효율적이지 못했던 구역의 구분을 재편하고 구역 명칭도 새로 바꾸는 등의 쇄신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작업을 선행하였다.

2. 보좌신부 부임

김영일(발타사르) 주임신부 부임 시에 제1 보좌 조신형(도미니코) 신부, 제2 보좌 김연범(안토니오) 신부가 재임중 이었으며, 같은 해에 김연범 신부가 이임하고 신중호(베드로) 신부가 제2 보좌로 부임하는 등 다음의 표와 같이 9명의 보좌신부가 함께 사목 활동을 하였다.

보좌신부 부 · 이임 현황(김영일 신부 사목시기)

제1 보좌

대	성 명	세례명	부임일	이임일
6	조신형	도미니코	1996. 11. 29	1999. 12. 3
7	양경모	바르나바	1999. 12. 3	2001. 3. 6
8	이문호	빈첸시오	2001. 3. 6	2003. 12. 5
9	남상만	베 드 로	2003. 12. 5	2006. 11. 21

제2 보좌

대	성 명	세례명	부임일	이임일
4	김연범	안토니오	1996. 11. 29	1998. 11. 27
5	신중호	베 드 로	1998. 11. 27	2001. 1. 9
6	이문호	빈첸시오	2001. 1. 9	2001. 3. 6
7	배한상	스테파노	2001. 10. 5	2003. 12. 5
8	민범식	바 오 로	2003. 12. 7	2005. 11. 20



조신형 보좌신부 이임





양경모 보좌신부 부임

3. 수녀부임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소속인 본당 수녀들이 주임신부의 본당사목을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 표와 같이 재임하였다.



입교 환영행사 중 수녀님

수녀 부 · 이임 현황(김영일 신부 사목시기)			
성 명	세례명	부임일	이임일
박정애	올리비아	1998. 2. 13	1999. 2. 19
이복애	루카	1998. 2. 16	1999. 2. 19
이영자	유제니아	1999. 2. 18	2002. 2. 18
성정아	니코데모	2000. 8. 21	2002. 2. 18

4. 봉사단체 재편성

1) 사목협의회 구성

1999년 5월 23일 사목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임기가 종료된 이춘(가브리엘) 회장의 후임으로 김동진(암브로시오)이 제9대 사목협의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김동진 총회장은 특유의 친화력과 조직의 단합 능력을 발휘하여 김영일(발타사르) 주임신부, 보좌신부들의 본당사목 구상을 실천하는 데 성실한 보좌를 하였으며, 특유의 유연한 리더십으로 사목협의회 위원들의 공동체 일치 및 활성화 활동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었다.

또한 경제, 사회적으로 험난했던 시기인 IMF 위기 시절에 여러 가지로 사기가 저하된 주변의 신자들을 음양으로 돌보며 활력을 불어넣는 등 사목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새로이 구성된 사목협의회 상임위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제9대 사목협의회 상임위원회	
총 회 장	김동진(암브로시오)
부 회 장	김연중(시몬), 김호길(마태오)
총 무	하상도(대건 안드레아)
부 총 무	이창진(요셉)
재 정 분 과	송재웅(베드로), 박동수(베드로)
교 육 분 과	최영철(히야친토), 천광순(미카엘)
시 설 분 과	허주열(바오로), 나명주(안토니오)
남성구역분과	유대식(안드레아), 이규홍(이냐시오)
여성구역분과	이건순(마리안나), 유영자(요안나 아르크), 김인숙(세실리아)
전 례 분 과	이승우(시몬), 김태웅(도로테오)
선 교 분 과	전재석(요한), 박춘화(베드로)
사회복지분과	고완석(마태오), 인동규(미카엘)
노 인 분 과	오영일(요한), 박태호(미카엘)
청 소 년 분 과	김지홍(도미니코), 이기복(안드레아)

제10대 사목협의회 상임위원회	
총 회 장	김호길(마태오)
부 회 장	허주열(바오로), 이충량(바오로)
총 무	하상도(대건 안드레아)
부 총 무	이창진(요셉)
재 정 분 과	송재웅(베드로), 박동수(베드로)
교 육 분 과	윤만중(클레멘스), 박정섭(베드로)
시 설 분 과	김수연(마태오), 이은호(리차드)
남성구역분과	유대식(안드레아), 최영구(안토니오), 이호석(스테파노)
여성구역분과	최은혜(세실리아), 문재숙(로사), 지소연(아가페)
전 례 분 과	이승우(시몬), 이순자(세레나)
선 교 분 과	김수택(베드로), 조용현(바오로)
사회복지분과	고완석(마태오), 윤영국(스테파노)
노 인 분 과	조상원(베드로)
청 소 년 분 과	김지홍(도미니코), 이기복(안드레아)



사목위원 피정


사목회의

2001년. 12월 16일 사목협의회 총회에서는 김호길(마태오)을 제10대 사목협의회 총회장으로 선임하였다.

김호길(마태오) 회장은 모든 조직에서의 효율성과 현실적인 상황을 명료하게 판단하고 시행하는 합리적인 성향으로, 실속 있게 사목협의회 조직을 꾸려나가는 전통을 세운 총회장이다.

2) 구역 조직 재편

구역의 구분이 불합리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역을 재편하였다.

구역 명칭 변경 : 1998년 11월 8일부터			
종전	변경	종전	변경
8구역	8구역	13구역	5구역
9구역	12구역	14구역	3구역
10구역	6구역	15구역	2구역
	7구역	16구역	11구역
11구역	1구역	17구역	9구역
12구역	4구역	18구역	10구역

3) 레지오 마리애

레지오 마리애 조직에게 신자들이 본당생활을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따라서 적극적인 단원 모집과 조직의 확장을 시행함으로써 레지오의 활성화에 전기를 마련하였다.

4) 청년단체

김영일(발타사르) 주임신부는 '청년 공동체는 우리 교회의 희망이자 미래'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협의회를 중심으로 청년조직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힘을 썼다.

'동살', '청년성가단(ANAWIM)', '테멘(성서모임)', '옹기마을(연극단)' 등이 열심히 활동을 하였다.

특히 '옹기마을'은 열성적인 활동을 하였는데, 그냥 연극이나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몸짓으로 기도와 묵상을 드리는 하느님의 도구라는 믿음으로 매년 정기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청년 공동체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사목시기이다.

5. 성전 보수

성당 건물의 노후화(보일러와 배관 등)로 보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미사와 각종 본당 행사 때에 좌석과 방향에 따라 스피커 음향의 부조화로 인한 신자들의 불편함과 많은 애로가 접수됨에 따라서 보수와 교체 공사를 시행키로 결정하고, 당시의 넉넉지 않았던 본당의 살림살이를 고려하여 보수기금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2차 헌금과 성전 보수 특별헌금을 실시하여 성전을 보수할 수 있었다.

6. 의료 봉사 실시

본당의 사목협의회 사회복지분과에서는 사랑의 몸소 실천과 나눔의 일환으로 무의촌 의료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시기는 농번기가 지난 후에 방배동 본당과 자매결연을 맺은 백운성당 교우들과 그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하였다.

사목협의회에서는 본당의 교우들과 강남서울병원의 협조를 받아 안과, 치과, 내과, 외과, 피부과 등 의료진과 간호사 및 레지오 마리애 봉사자와 빈첸시오회 회원 등으로 의료봉사팀을 구성하였다.

보람이 충만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모두가 뿌듯함을 한껏 느꼈던 봉사로, 무료 진료를 받은 환자들 중에는 병세가 호전되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상담과 약의 처방을 지속적으로 부탁하는 사람도 꽤 많았다.

백운성당의 주임신부는 전교 효과를 위하여 복지관에 진료활동 장소를 꾸미기도 하였으며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농촌 지역을 찾아 무료 진료 활동을 실시하여 준 방배동 본당의 신부님과 교우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는 뜻을 전하였다.







백운성당 의료봉사

7.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 서명 및 장기 기증, 헌혈

올바른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미사를 참례하는 신자들 거의 모두가 참여하였으며, 헌혈 참가 64명, 장기 기증 신청 22명의 성과를 이루었다.

8. 구역 친선 겨루기(2002. 4. 14 ~ 5. 26)

김영일(발타사르) 주임신부는 남성 신자들의 구역,반 모임에 대한 참여도가 너무 저조한 상황을 고려, 남성 구역모임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매주 주일 11시 미사 후 구역 친선 겨루기를 실시하기로 하고, 대진표와 일정에 따라 족구 등 시합을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큰 관심 없어 하던 신자들이 점차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구역의 단합과 참여에 큰 도움이 되었다.

9. 구역 성가 대회(2002. 4. 30)

구역 모임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구역 대항 성가대회도 개최하였는데, 구역 봉사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신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집결되면서 상당한 보람이 있었던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10. 본당 전 교우 성지순례(2000. 6. 4)

대희년을 맞이하여 김영일(발타사르) 주임신부는 출애굽의 정신으로 전 교우를 대상으로 경기도 안성 소재 미리내 성지에서 십자가의 길, 대미사 봉헌 등 행사를 실시하였다.

미리내는 험난하였던 박해를 피해 산골 오지로 피신하여 점점이 흩어져 살던 천주교 교우들의 집에서 흘러나온 호롱불빛과 밤하늘의 별빛이 맑은 시냇물과 어우러져 보석처럼 빛나고, 그것이 마치 성군을 이룬 은하수와 같다 해서 붙여진 아름다운 우리의 옛 지명이다.





구역 성가 대회

한국 최초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묘소와 이윤일 요한 성인의 묘소,그리고 16위 무명순교자의 묘역이 있는 거룩한 성지이다.

본당 신자들은 이날 이곳의 성인들의 고결하고 숭고한 신앙의 터전에서 다시 한번 성인의 희생을 되새겨보면서 저마다 마음속에 신앙심을 다잡는 기회가 되었다.

전체 교우 중 2120명이란 대규모의 신자들이 구역별로 할당된 70대의 버스로 나누어 이동하였으며, 화창하고 축복된 날씨 속에 아무런 경미한 사고도 없이 보람있는 행사를 마치게 되었다.



1 3
2 4 5

01-05 미리내 성지순례









11. 사랑의 나눔

1) 웃어른 모시는 날

매년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본당의 노인대학 학생 전원과 구역 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남녀노인(비신자 포함)을 초청하여 정성을 들인 음식과 기념품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였다.

2) 우면산 내셔널 트러스트 사업 참여

우면산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시민 땅 한 평 갖기 운동'이 서초구민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통해 우면산 자연경관을 보존하여 자원의 사회적 공유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기에 뜻있는 교우들은 우면산 살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본당 차원에서 도움을 주었다.

3) 한마음잔치(2001. 6. 3, 2003. 6. 1)

구역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하고 교우들 간의 친목 나누기를 위한 한마음 잔치가 상문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다. 화합과 일치를 이루고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는 즐겁고 보람있는 하루가 되었으며, 야외미사, 구역대항 체육대회, 구역별 알뜰구매시장, 경품 추첨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4) 어린이 나눔잔치

순수한 어린이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어린이 신자들이 뜻있는 행사를 가졌다.

의류, 약품, 식품, 문구류, 기타 잡화 등 상태가 양호한 물건들을 기증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을 하였으며, 김영일(발타사르) 신부는 이러한 행사로 인하여 어린









웃어른 모시는 날







한마음 잔치

이들이 장차 이 사회에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생각을 갖게 하는 보람의 기회였다고 치하를 보냈다.

5) 해외(브라질) 동포를 위한 도서 수집(1999. 9. 12)

브라질의 작은 예수회가 주관하여 브라질 현지에 교민들의 조국에 대한 이해와 교육, 선교를 목적으로 도서관을 설치하였는데, 방배 본당에서 도서를 지원하기 위한 수집행사를 가졌다.

수집도서는 신앙서적, 교양서적, 소설, 수필, 전집류 등이었다.

6) 알뜰시장 기증 물품 수집 행사

불우이웃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물품 수집 행사'를 개최하였다.

주류, 가전제품, 스포츠용품, 상태 양호한 의류, 기타 생활용품 등 수집된 물품은 본당의 날 행사에서 알뜰시장 판매로 기금을 마련하여 불우이웃에 전달하게 되었다.

7) 대만 어린이 합창단 공연(2000. 7. 15 ~ 16)

한국과 한국교회를 알기 위해 내한한 대만의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한국 신자들 앞에서 펼친 우정의 공연은 한국과 대만의 오랜 인연을 새롭게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대만 가톨릭교회의 대표적인 어린이 합창단인 '대만 빈센트 어린이 합창단(단장 여만덕 신부)'이 7월 15, 16일 우리 본당을 방문,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합




알뜰시장 기증 물품 수집 행사

창 공연을 통해 대만 성가와 동요 등을 소개했다.

'대만을 미워하지 말아요', '메아리', '한 개의 고구마', '아베마리아', '사랑', '야훼의 축복이 넘치네' 등 10여곡을 메들리로 준비한 이들은 공연 마지막 순서로 '도라지 타령'을 한국어로 합창, 참석 신자들이 함께 손뼉을 치고 어깨짓 장단을 맞추는 등 흥겨움도 연출하였다.

12. 사제 서품과 부제 서품(2001. 12. 12)

본당 출신인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소속 신학생 남승원(토마스 아퀴나스)의 부제 수품식이 본당 대성당에서 김옥균 주교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13. 김영일(발타사르) 주임신부 기념 미사

1) 고희 기념 미사(1998. 12. 27)

고희를 맞이한 김영일(발타사르) 주임신부를 축하하고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하는 미사와 행사를 가졌다.

전 교우들의 정성어린 영적 선물 봉헌(미사 영성체, 희생, 묵주기도, 화살기도, 사제를 위한 기도)으로 주임신부의 건강을 기도하였으며, 대미사 후 외빈 신부들과 신자들이 어우러진 축하 행사를 가졌다.

2) 은퇴 미사(2003. 9. 7)

김영일(발타사르) 주임신부의 은퇴 미사가 2003년 9월 7일 오전 11시 본당 대성당에서 봉헌되었다.

1960년에 사제품을 받은 김영일(발타사르) 신부는 40여 년간의 사제생활 동안 교구청과 본당사목을 열성적으로 영위하여 왔다.

14. 김영일(발타사르) 신부 이임

2003년 9월 16일, 김영일(발타사르) 주임신부가 5년 간의 방배 본당 사목을 마치고 이임하였다.

1 2
3 4

01-04 김영일 주임신부님 서품기념 행사









제5대 임덕일(아마투스) 신부 사목시기(2003. 9. 16. ~ 2008. 9. 2.)

1. 제5대 임덕일(아마투스) 주임신부 부임

신자들 개개인의 내적 쇄신과 구역, 반모임 활성화를 중점으로 사목 활동을 해 오던 김영일(발타사르) 신부가 은퇴하고, 장안동본당에서 주임사목을 봉직한 임덕일(아마투스) 신부가 주임신부로 부임하였다.

임덕일(아마투스) 신부는 1970년 사제품을 받고 시흥동본당, 사당동본당, 청담동본당, 장안동본당에서 사목 활동을 영위하였다.

2003년 9월 방배동 본당 주임신부로 부임한 임덕일 신부는 재임기간 동안 본당 공동체의 중심인 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구역별 순회 미사,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는 한마당 잔치, 전신자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묵주기도를 고리기도로 하는 성모성월, 성모의 밤 행사 등을 실시하면서 역동적으로 사목 활동을 펼쳐 나갔다.

아울러 그리 넉넉지 않았던 본당 살림살이 속에서도 신자들과 협심하여 제대 위 천정의 돔 모자이크 공사, 스테인드 글라스(예수와 12사도, 복음사가, 성가대 뒤 성모자상) 공사를 실시하여 아름답고 성스러운 성전을 꾸미는데 역량을 발휘하였다.



대성당 돔 모자이크와 스테인드 글라스

임덕일(아마투스) 주임신부 약력	
1970. 12. 8.	사제 수품(축일 8월 31일)
1970. 12. 9~2003. 9. 15.	서울대교구 시흥동, 사당동, 청담동, 장안동 주임신부
2003. 9. 16.	방배동 본당 주임신부
2008. 9. 2.	꾸르실료 대표지도신부 (2012년 10월 현재)

2. 보좌신부 부임

임덕일(아마투스) 주임신부 재임시에 제1 보좌에 이문호 신부, 남상만 신부, 최형규 신부가, 제2 보좌에 배한상 신부, 민범식 신부, 김종호 신부, 김범준 신부가 부임하여 본당 주임신부의 사목 활동을 보좌하였다.

보좌신부 부 · 이임 현황(임덕일 신부 사목시기)				
제1 보좌				
대	성 명	세례명	부임일	이임일
8	이문호	빈 첸 시 오	2001. 3. 6	2003. 12. 5
9	남상만	베 드 로	2003. 12. 5	2006. 11. 21
10	최형규	미 카 엘	2006. 12. 21	2008. 12. 9
제2 보좌				
대	성 명	세례명	부임일	이임일
7	배한상	스 테 파 노	2001. 10. 5	2003. 12. 5
8	민범식	안 토 니 오	2003. 12. 5	2004. 9. 21
9	김종호	야 고 보	2005. 11. 25	2007. 11. 20
10	김범준	세례자요한	2007. 11. 20	2008. 12. 9

1 2
3 4 01-04 보좌신부 이임 · 부임









3. 수녀 부임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소속인 본당 수녀들이 주임신부의 본당사목을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 표와 같이 재임하였다.

수녀 부 · 이임 현황(임덕일 신부 사목시기)			
성 명	세례명	부임일	이임일
이덕애	마르셀	2003.8.24	2004.8.15
홍 고르넬리아	고르넬리아	2002.2.24	2005.2.20
강미용	헤콜	2003.8.24	2005.2.20
김 이네스	이네스	2005.2.20	2006.8.20
백 마리아콜베	마리아콜베	2006.8.27	2008.2.24
사 안토니아	안토니아	2005.2.20	2007.8.19
최 콘세크라타	콘세크라타	2007.8.19	
박은경	레나	2008.2.24	




수녀 부임

4. 봉사단체 구성

1) 사목협의회 재편성

임덕일(아마투스) 주임신부는 재임 중 다음과 같이 11대, 12대, 13대 사목협의회 상임위원회를 편성하였다.

제11대 사목협의회 상임위원회	
총 회 장	허주열(바오로)
부 회 장	이승우(시몬), 최상철(요한)
총 무	홍상봉(스테파노)
기 획 분 과	하상도(대건 안드레아)
재 정 분 과	김수연(마태오)
남성구역분과	이남영(가롤로)
여성구역분과	이영숙(스콜라스티카)
교 육 분 과	김수택(베드로)
전 례 분 과	이순자(세레나)
선 교 분 과	조용현(바오로)
사회복지분과	조용호(마리아)
시 설 분 과	천승수(요셉)
노 인 분 과	최현태(요셉)
청 년 분 과	박태호(미카엘)
청소년분과	최영구(안토니오)

제12대 사목협의회 상임위원회	
총 회 장	최상철(요한)
부 회 장	한호형(T. 아퀴나스), 박황호(F. 사베리오), 이순자(세레나)
총 무	한상헌(스테파노)
부 총 무	이호석(스테파노)
재 정 분 과	김수연(마태오)
남성구역분과	하상도(대건 안드레아)
여성구역분과	정선영(벨라뎃다)
전 례 분 과	이보라(바울라), 남원기(프란치스코)
선 교 분 과	조용현(바오로)
교 육 분 과	김수택(베드로)
사회복지분과	조용호(마리아)
가 정 분 과	이순자(세레나)
노 인 분 과	최현태(요셉)
청소년분과	최영구(안토니오)
시 설 분 과	김용대(이시도로)



사목회 이 · 취임식

제13대 사목협의회 상임위원회	
총 회 장	한상헌(스테파노)
부 회 장	박황호(F. 사베리오), 박순원(아우구스티노), 이순자(세레나)
부 회 장 겸 남성구역분과	하상도(대건 안드레아)
부 회 장 겸 여성구역분과	정선영(벨라뎃다)
총 무	김정근(하상 바오로)
부 총 무	홍기탁(요셉)
재 정 분 과	유승진(루카)
전 례 분 과	안용순(엘프레다)
선 교 분 과	정숙자(율리아나)
교 육 분 과	김규만(마티아)
사회복지분과	김영희(아라셀리)
가 정 분 과	김태웅(도로테오)
노 인 분 과	방용주(리고리오)
청소년분과	남원기(프란치스코)
시 설 분 과	김연웅(프란치스코)





사목회 이 · 취임식

2) 구역 활성화

2003년 11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월, 수, 금요일 오후 8시에 구역별 순회미사를 개최하여 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구역별로 실시한 미사 일자는 다음과 같다.

구역별 순회미사 일자			
미사 일자	구 역	미사 일자	구 역
11월 3일(월)	1구역	11월 19일(수)	9구역
5일(수)	2구역	21일(금)	11구역
7일(금)	5구역	24일(월)	7구역
10일(월)	8구역	26일(수)	14구역
12일(수)	12구역	28일(금)	4구역
14일(금)	6구역	12월 1일(수)	13구역
17일(월)	10구역	3일(수)	3구역

구역장, 반장들이 임덕일(아마투스) 주임신부님께 드리는 글

신부님께서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방배성당의 오랜 숙원이던 스테인드 글라스, 파이프 오르간, 제대 위 돔 모자이크 천정화 등을 시설하시어,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성전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신심을 더욱 두터이 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본당 설립 25주년을 맞이하여 교황님의 전대사를 받게 해 주심은 우리 전 신자들의 가슴에 대대로 남을 은총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제로서, 주님의 귀한 아들로서, 누구도 감히 해 내기 어려운 이토록 귀한 일들을 주님과 신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해 주신 신부님을 우리 모든 신자들의 가슴에 영원히 새기고자, 신부님에 대한 모든 신자들의 가슴에 뜨거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 드립니다.

2007년 6월 3일
천주교 방배동 교회 남,여 구역장 • 반장 일동

3) 레지오 마리애

200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본당의 3개 꾸리아 소속 쁘레시디움 전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이 참여하는 묵주기도로서 고리기도를 바치는 성모신심행사를 실

시하였고, 레지오 마리애 행동단원, 쁘레시디움의 확장과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활성화했다.

4) 연령회

2007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위령성월을 맞아 매주 월~토요일 오후 7시 30분, 연령들을 위하여 전 신자들이 참여하는 매일기도를 바치도록 주관하였다.

5) 청년단체

임덕일(아마투스) 주임신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청년분과 각 단체들의 내,외적인 활동이 왕성하게 진행되었다.






레지오 마리애의 다양한 활동 모습






청년단체의 활동 모습

5.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중요 행사

1) 경축미사와 윷놀이 대회

2007년 1월 7일 본당 설립 25주년의 해를 맞아 초대 주임신부로 봉직하였던 김운회(루카) 주교를 모시고 한 해 동안 계획된 모든 행사와 화합 및 신심 함양 프로그램의 진행에 은총을 간구하는 미사를 올렸으며, 설립일인 2월 25일에는 정진석(니콜라오) 추기경님 집전으로 창립25주년 기념 경축 미사를 올렸다.

이날 미사 후 성당 대운동장에서는 25주년 경축 구역대항 윷놀이 대회를 개최하여 전체 교우들이 즐겁게 본당 탄생일을 경축하였으며, 특히 미사를 마치신 추기경께서도 신자들과 어울려 함께 윷놀이를 즐겼다.





1 2 3 4 5 6

01-06 25주년 경축미사와 윷놀이 대회





2) 전대사와 축복장

본당 설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임덕일(아마투스) 주임신부는 2007년초 교황(베네딕토 16세)님에게 축복장을 청하였는데, 2007년 4월 7일 부활성야 미사 중에 축복장과 더불어 전대사의 은총도 함께 받았다.



축복장

임덕일(아마투스) 주임신부는 "우리 신자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신청은 하였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걱정을 하였는데 전대사까지 내려 주셔서 더없이 기쁘다."면서 신자들에게 "교황님의 축복장을 받은 만큼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하느님의 자녀가 돼 달라.",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임신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3) 전 신자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2007년 5월 13일(일) 전 신자 1,500여 명이 전용열차 편도 2시간 40분, 도보순례 편도 40분이 소요되는,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소재 나바위 성지를 순례하였다.

나바위 성지는 1839년 기해박해로 3명의 성직자를 모두 잃고 6년 동안 목자가 없이 방황하던 조선 땅에 복음의 불씨를 지피고자 1845년 10월 12일 밤 김대건 신부 일행이 중국 상해를 떠나 40여 일 동안 무수한 죽을 고비를 넘기며 관헌들의 눈을 피해 숨어 들어온 첫 도착지로서 김대건 신부 일행에게는 피난처이며, 우리 신자들에게는 소중한 신앙의 선물을 마음속에 담아가게 해 주는 뜻 깊은 성지이다.

기차를 타고 강경역에서 내린 후, 걸어서 성지까지





전대사







전 신자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가는 길에 삼삼오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 선물도 한껏 받았다.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기획된 나바위 기차 성지순례에 함께 한 본당의 모든 신자들은 성인들의 숭고한 삶과 고결한 정신을 가슴 깊이 느끼면서 우리의 신앙심을 돈독히 하였다. 봄 기차여행을 통한 교우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본당 공동체 활성화에도 의미 있는 하루였다.

4)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특강

2007년 6월 13일 이해인(클라우디아) 수녀님을 초빙하여 창립 25주년 기념 특별강의를 전 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많은 교우들이 대성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수녀님은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를 갖고 참되고 아름답게 사는 것에 대한 강의를 김정식(로제리오) 형제님의 기도노래 도움 속에 진행하였다.



이해인 수녀님 특강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특강

5) 돔 모자이크 완공 공개행사

그동안 전체 신자들의 열렬한 후원과 관심 속에 진행되어온 돔 모자이크 공사가 종료되어 2007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와 함께 공개하는 행사를 가졌다.

임덕일 주임신부는 본당의 제대 위 천정에 돔 모자이크를 설치 하기로 확정하고 작가와의 첫 구상에서부터 아이디어를 교환하였으며, 착공과 중간의 시공과정 등 꼼꼼하게 검토와 점검을 거친 끝에 완성을 하였다.



돔 모자이크는 바로 아래에 위치한 유리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12사도들'과 어우러져 경건하면서도 멋스러움을 자아내고 있다.

멀리서 보는 풍요로운 시각적 효과를 주기 위해 색유리를 다양한 크기로 잘라 사용했다. 하늘을 표현한 작품은 흰색과 하늘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단순한 색상 구조를 갖고 있는 듯 하지만 크기를 달리한 유리조각은 실제로 하늘을 연상하게 한다. 성령의 비둘기를 감싸고



있는 황금빛은 씨앗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통해 복음과 신앙인 모두가 부활의 희망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의도가 숨어있다.

이 방면에 유명한 작가인 제작자 손승희(소벽 막달레나)씨는 제작의 의미를 "작은 모자이크 한 조각 한 조각이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성령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염원하며 제작했다"고 말했다.



주교님 축하 글

6)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한마당 잔치

본당 설립 25주년을 기념하여 2007년 10월 21일 이웃에 있는 상문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본당의 날 기념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거의 매년 체육대회 행사를 열어 왔으나, 특히 본당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는 2007년에는 특별한 강복 속에 조규만(바실리오) 주교님의 집전으로 야외미사로 거행되었으며, 아울러 보다 많은 교우들의 참여와 구역의 단합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구역 대항 줄다리기, 남성들의 족구시합, 여성들의 피구시합, 각 연령층을 망라하여 팀을 구성한 계주시합 등 다양한 종목의 겨루기를 진행하였고, 구역별로 준비한 흥겨운 응원 퍼포먼스는 행사중의 백미였다.

또한 여성 구역장들이 교우 자매들과 함께 구역별로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여 먹거리를 나누었으며, 마음을 졸이는 주임신부님의 종합채점 결과 발표와 흥미 만점의 경품권 추첨은 즐거운 재미와 친교를 한층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경품권 추첨 때에는 두 가지 이상 경품이 당첨된 신자들이 당첨되지 못한 교우에게 한 가지 상품을 양도하는 등 그야말로 나눔과 화합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솔선하여 연출되어 본당 신자로서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한층 돋보이게 하였으며 교우들이 초청한 친척과 친구, 이웃 등 비신자들과 즐거운 시간도 가졌고 모범적인 선교를 하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한마당 잔치

7)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음악회(상투스 성가대)

주일의 전례 봉사와 특별한 본당 안팎의 행사를 통하여 성가로써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매주 연습 모임에 임하면서 단원 간의 화합을 키워 가고 있는 본당의 상투스 성가대가 2007년 11월 24일(토) 오후 8시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음악회에서 성가대는 경쾌한 동요 메들리와 닐니리맘보,빈대떡신사 등의 흥겨운 민요가락,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쎄시봉노래 등 정겨운 가요 등을 불러 참여한 신자들에게 즐거운 저녁시간을 선사하였다.

8)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마감미사

2007년 12월 16일 염수정(안드레아) 주교님의 집전으로 1년간 지속되었던 본당 설립 25주년의 모든 행사와 잔치를 주님의 축복 속에 무사히 마친 데 대한 감사의 미사를 드렸다. 아울러 임덕일(아마투스) 주임신부는 전 신자 일동으로 천주교생명수호위원회에 1억원의 생명수호기금을 봉헌하였다.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마감미사

6. 기타 행사

1) 남성 구역 가을맞이 행사

본당의 남성 구역 활성화와 신입 교우 환영을 위한 친교행사가 2003년 10월 11일 화창한 가을날에 진행되었다.

본당을 출발하여 우면산을 왕복 산행한 후 본당의 대운동장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교우들끼리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2) 훈화 모음집《사랑의 산책길》출판 기념회

2003년 10월 12일 임덕일(아마투스) 주임신부의 훈화 모음집《사랑의 산책길》출판 기념회를 개최하여 판매 수익금 전액을 경노 수녀회 기금으로 기탁하였다.

사랑은 하느님의 계명입니다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돕지 않는 것은 복수이고, 도와주지 않았던 사실을 일깨우며 도와주는 것은 증오이며, 지금 일이 항상 처음 일인 것처럼 기꺼이 도와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는 것, 걷는 것, 말하는 것 등을 배우지만 아무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이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같이 날 때부터 받은 것,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움과 악의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인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미움과 악의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자루의 양초로 많은 양초에 불을 붙여도 처음 양초의 빛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라도 늦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더 빠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은 시간이 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실천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임덕일 신부의《사랑의 산책길》에서

경노 수녀회는 350여 년 동안 노인을 봉양하고 있는 프랑스 수녀회 한국 지부이다.

《사랑의 산책길》은 임덕일 신부의 사제생활 동안 사목현장에서 신자들과 나눴던 훈화를 모아서 엮은 책으로 신자들 모두의 일상에서의 다양한 이야기들, 정치 문화 등 사회 문제에서부터 교회 문제까지 포괄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 안에 저자 자신의 사제로서 혹은 자연인으로서의 삶의 현장 안에서 읽는 복음과 묵상이 담겨 있어 읽는 이들로 하여금 생생한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3) 묵주기도의 밤 행사

2004년 10월 27일 오후 8시, 초 봉헌 부부 53쌍(남 : 정장, 여 : 한복)을 포함한 전 신자들이 참여하는 묵주기도의 밤 행사를 실시하였다.

4) 상설고해소 축복식, 현판식

2004년 10월 31일 주일날 김옥균(바오로) 주교님이 11시 대미사 중에 본당 상설 고해소 축복식을 집전하였다.

상설 고해소는 11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12시, 오후 2시~6시에 운영된다.

5) 정월 대보름맞이 구역 친선 윷놀이대회

2006년 2월 19일 주일 11시 교중미사 후에 성당 대운동장에서 정월 대보름맞이 구역 대항 친선 윷놀이 대회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군데군데 장작으로 쥐불도 놓고, 여성 구역에서 정성들여 준비한 음식도 맛있게 나누고, 우리의 민속놀

이인 윷놀이를 구역 대항 토너멘트로 진행하면서 영하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본당의 활성화와 구역의 단합을 도모하였다.

특히 주임신부와 신자들이 어우러진 여러 판의 번외 윷놀이경기도 즐거움이 백미였던 화합의 행사였다.





윷놀이 행사

6) 쉬는 교우 회두를 위한 고리기도

2006년 10월 1일(일)부터 11월 30일(목), 본당 설립 25주년을 뜻있게 맞이하기 위해, 쉬는 교우 회두를 위하여 연결고리로 하는 묵주기도를 바치는 행사를 2개월간 실시하였다.

7) 성경 필사대회

2007년 1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당 전 교우들이 모세오경 및 신약 성경 전체를 필사하는 행사를 실시하여 살아 있는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8) 본당 야외 행사

본당 전 신자 참여 야외 행사를 2008년 5월 18일에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서 진행하였다.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야외 미사, 성모신심행사, 레크레이션 등을 계획하였는데 우천으로 인하여 활발한 행사를 갖지는 못했으나, 어려웠던 일기 속에서도 의미 있고 운치 있는 일정을 소화하였다.

7. 임덕일(아마투스) 주임신부 이임

2003년 9월 부임해서 5년 동안 방배동 본당사목에 힘써 온 임덕일 주임신부께서 2008년 9월 2일 이임하였다.

본당 사목을 마치고 떠나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의 세월, 떠나는 이 순간까지 저는 솔직한 자세로 방배동 공동체를 지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이나 풍성한 부와 함께 나약하고 빈곤한 사람들, 아픔과 괴로움을 통해 성숙된 사람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나약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를 의식하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다함께 응답할 때 우리 모두는 새로운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재주와 영리한 헌신보다는 겸손과 신뢰를 통한 행위야말로 신앙과 은총의 샘을 솟게 하는 것입니다.
우면산 산자락에 펼쳐진 숲 속, 영혼의 삶이 이루어지는 성전, 그곳에 아름답게 비추어지는 영롱한 성화들, 장엄하게 울려퍼지는 파이프 오르간의 음율 속에 금빛 찬란하게 내려지는 은혜로운 성령의 비둘기 유리화. 그 하나 하나 사는 날까지 아름다운 기도로 엮어 간직하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은 커다란 힘이 되었고, 혹은 사랑받지 못했을지라도 사랑함으로서 한마음 한 영혼을 지니고 떠남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평화와 기쁨을 바라고 지나간 날들은 사라짐 없이 신앙의 빛으로 엮어 갈 때 그 빛은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이름인 나의 형제 자매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8. 8. 31. 임덕일(아마투스)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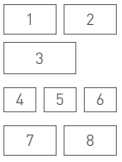












01-03 성경 필사 및 필사본 전시
04-06 야외 행사
07-08 임덕일 신부님 환송

제6대 이원규(마태오) 신부 사목시기(2008. 9. 3. ~ 재임중)

1. 제6대 이원규(마태오) 주임신부 부임

임덕일 신부가 이임하고 제6대 주임으로 이원규(마태오) 신부가 2008년 9월 2일에 부임하였다.

이원규(마태오) 신부는 1947년 2월 8일에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1975년 12월 8일에 사제품을 받았다.

1976년 1월 8일 청량리본당 보좌신부로 첫 사목을 시작하여 불광동본당, 군종, 왕십리본당과 특히 교포사목(일본)을 7년간 하고 수유동본당 주임신부 재임 후 방배동 본당 주임신부로 부임을 하였다.

영명축일은 9월 21일(성마태오 복음사가 축일)이다.

이원규(마태오) 주임신부 약력	
1947. 2. 8.	서울에서 출생
1975. 12. 8.	사제 서품
1976. 1. 8.	청량리성당 보좌신부
1977. 1. 7.	불광동성당 보좌신부
1978. 3. 9.	군종신부
1982. 5. 3.	왕십리성당 주임신부
1986. 8. 29.	유학
1992. 2. 14.	사회복지회 지도신부
1997. 10. 10.	교포 사목(일본)
2003. 9. 16.	수유동성당 주임신부(겸 제6지구장 신부)
2008. 9. 2.	방배동 성당 제6대 주임신부

이원규(마태오) 주임신부는 부임 후 신자 영성 강화, 가정 성화, 본당의 화합과 일치 등 신자들의 가톨릭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단단히 하는 데 사목 방향의 역점을 두었다.

신자들의 교육, 재교육을 위한 피정 모임과 특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한편, 친교를 나누고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로 다져가기 위하여 (첫째) 기도하는 공동체, (둘째) 구역, 반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 (셋째) 레지오 마리애를 비롯, 1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하기, (넷째) 적극적인 전례 참여와 이웃에 복음 전파 등 구체적인 신자들의 신앙생활 활성화 목표를 설정하고 사목을 시작하였다.

부임 첫해부터 본당의 날 행사(야외미사와 체육대회)의 기획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진두지휘를 하고, 구역 성가 경연대회의 개최, 각종 동호회 신설 등 공동체 활성화와 신자들 간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분주한 사목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원규 신부님 오시는 날




세족례



윷놀이 대회

2. 보좌신부 부임

이원규(마태오) 주임신부 재임시에는 최형규(미카엘)제1 보좌신부, 김범준(세자 요한) 제2 보좌신부를 비롯하여 총 6명의 보좌신부가 주임신부의 사목을 보좌하였다.

보좌신부 부 · 이임 현황(이원규 신부 사목시기)				
제1 보좌				
대	성 명	세례명	부임일	이임일
11	최형규	미 카 엘	2006. 11. 21.	2008. 12. 9.
12	곽희태	스 테 파 노	2009. 12. 1.	2012. 2. 21.
13	이재학	예 로 니 모	2012. 2. 21.	재임중
제2 보좌				
대	성 명	세례명	부임일	이임일
11	김범준	세자 요한	2007. 11. 20.	2009. 12. 1.
12	신광수	베 드 로	2008. 12. 9.	2011. 2. 22.
13	김경진	베 드 로	2011. 2. 22.	재임중






보좌신부 이임 및 부임

3. 수녀부임

이원규(마태오) 주임신부 재임시에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소속의 수녀들이 주임신부의 사목을 도왔다.



수녀 부 · 이임 현황(이원규 신부 사목시기)			
성 명	세례명	부임일	이임일
박은경	은경레나	2006.11.12	2009.2.15
최콘세크라타	콘세크라타	2007.8.19	2010.2.14
정현경	아스테리아	2009.2.22	2010.8.15
전배경	엠마	2010.2.21	2012.6.3
김미라	마리앤	2010.8.15	
오미경	마리비따	2012.6.3	

4. 봉사단체 구성

1) 사목협의회 재편성

이원규(마태오) 주임신부는 2009년 11월 1일 사목협의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4대 사목협의회 회장에 하상도(대건 안드레아) 형제를 임명하는 등 상임위원회를 재편성하였다.

하상도(대건 안드레아) 총회장은 두터운 신앙심을 바탕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20여 년간 방배 본당 사목협의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봉사를 해 온 형제이다.

남다른 친화력과 뛰어난 기획력으로 각 분과 위원들과 단체장들을 리드하며 주임신부의 사목을 충실히 보좌하고 있다.

새로이 구성된 14대 사목협의회 상임위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14대 사목협의회 상임위원회	
총 회 장	하상도(대건 안드레아)
부회장(노인,시설)	최현태(요셉)
부회장(문체,청년)	이창진(요셉)
부회장(선교,청소년)	박양규(요한)
부회장(교육,재정)	주용식(바오로)
부회장(전례,홍보)	이순자(세레나)
부회장(사회,가정)	이영숙(스콜라스티카)
부회장(남성총구역)	황석환(세례자 요한)
부회장(여성총구역)	강인희(아녜스)
총 무	홍기탁(요셉)
부 총 무	최상열(미카엘)
재 정 분 과	박광수(레오)
전 례 분 과	김태웅(도로테오)
선 교 분 과	김성숙(안나)
교 육 분 과	김규만(마티아)
사 회 복 지 분 과	유승진(루카)
가 정 분 과	노병희(세실리아)
노 인 분 과	방용주(리고리오)
청 소 년 분 과	남원기(프란치스코)
시 설 관 리 분 과	김연웅(프란치스코)
청 년 분 과	이종운(베르나르디노)
문 화 체 육 분 과	김태곤(대건 안드레아)
홍 보 분 과	김주현(사무엘)









사목협의회 재편성

2011년 11월 일부 직제변경과 임원의 교체로 인하여 재편성된 사목협의회 상임위원회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14대 사목협의회 상임위원회(재편성)	
총 회 장	하상도(대건 안드레아)
부회장(노인,선교,시설)	최현태(요셉)
부회장(문체,청소년,청년)	이창진(요셉)
부회장(교육,재정,홍보)	주용식(바오로)
부회장(전례,사회,가정)	이영숙(스콜라스티카)
남성총구역장	김태곤(대건 안드레아)
여성총구역장	강인희(아녜스)
총 무	홍기탁(요셉)
부총무(남)	최상열(미카엘)
부총무(여)	김순주(크리스티나)
재정분과	박광수(레오)
전례분과	김정은(안젤라)
선교분과	김성숙(안나)
교육분과	최영섭(요셉)
사회복지분과	유승진(루카)
가정분과	노병희(세실리아)
노인분과	방용주(리고리오)
청소년분과	이성용(세레노)
시설관리분과	김연웅(프란치스코)
청년분과	이종운(베르나르디노)



사목회의 전체 회의

2) 구역 조직 확대 재편

구역장, 반장 모임의 질을 높이는 한편 본당의 날 행사 등 구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오던 중 2011년 11월 20일 그동안 숙원 과제 중의 하나였던 본당 관할 구역의 재편이 진행되었다.

즉 방배2,3동 일부 지역의 신자들이 불가피하게 사당동본당 교적을 갖고 있었는데 방배 본당으로 명료하게 정리가 된 것이다.

그 결과 방배 본당의 신자 수는 8,880명에서 11,09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구역 숫자 또한 13개 구역에서 17개 구역으로 확장되었다.

3) 레지오 마리애와 단체들의 활성화

본당 구역의 확대로 인하여 레지오 마리애 또한 3개 꾸리아 55개 쁘레시디움에서 6개 꾸리아 80개 쁘레시디움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사회복지분과 빈첸시오회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교육분과의 성서 모임, 청년분과의 청년단체들이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단합과 일치를 이뤄가고 있으며, 선교분과 소속의 연령회는 고인에게 영원한 안식을 빌어 주고 유족에게는 마음의 위로와 함께 장례절차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서 형제애를 나누는 참 봉사를 성실히 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시설분과 구성원들과 사목회 회장단은 주임신부를 보좌하여 모든 신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으며 방배동 본당의 오랜 숙원 사업 중의 하나였던 주차장 포장공사를 완성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1 2 3 4 5

01-02 청년들 성탄 공연
03 빈첸시오 재창립
04-05 청년 공연





5. 신심과 영성의 심화를 위한 노력

이원규(마태오) 주임신부는 신자들의 내적인 성숙을 위한 사목 활동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1) 전 신자 새해 피정

2009년 1월 19~20일 이틀에 걸쳐 전 신자를 위하여 낮 시간 참석이 가능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낮 1시~5시까지의 오후반과, 직장과 사업 등 일상의 일과를 마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녁 7시~11시까지의 저녁

반으로 편성하여 4시간씩 4회 피정을 진행하였다.

많은 신자들이 참석을 하여 강론을 듣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내적인 평안을 살찌우는 피정의 시간이 되었다.

2) 미사 전 성서 읽기와 성무일도 바치기

2009년 2월 25일부터 평일 미사 시작 15분 전부터 성서 읽기를 진행하며, 성무일도는 새벽미사는 미사 후 각자가 바치고, 10시 미사와 저녁미사는 미사와 더불어 바치도록 생활화하기로 강조하였다.

3) 신앙학교

피정을 통한 전 신자들의 교육을 위하여 신앙학교를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박용수(바오로) 선교사(가톨릭 교리신학원)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나누었다.

4) 사순 음악 피정과 음악이 있는 십자가의 길

2010년 3월 29일 사순 특강 중 성가를 비롯한 음악 피정을 실시하였으며, 3월 26일 금요일에는 음악과 묵상이 어우러진 거룩한 십자가의 길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6. 화합과 일치를 위한 행사

1) 본당의 날 행사(2008. 10. 19)

화합과 일치를 위한 본당의 날 행사로 2008년 10월 19일 상문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야외미사와 구역대항 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구역민들 간의 단합의 장이 내실 있게 마련이 되었는데, 특히 구역 대항 체육 겨루기 등 남성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활발하였다.











본당의 날 행사





구역 성가 경연대회

2) 구역 성가 경연대회(2009. 12. 28)

'성가는 두 배의 기도'라는 말이 있듯 성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구역 구성원들 간의 단합과 화합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된 행사였다.

경연 당일의 행사도 중요하였지만, 길게는 몇 개월 전부터 구역의 교우들끼리(특히 남성 교우들) 수시로 만나서 연습하고 친교를 나누는 등의 보람 있는 시간들이 지속적으로 연출되었다.

비전문가 신자들의 짧은 연습이었지만 일부 구역의 수준 높은 하모니는 심사위원인 신부님, 수녀님들이 놀랄 정도였다. 다소간의 과열된 경쟁의 모습은 옥의 티였다.

3) 전 신자 성지순례- 배론성지(2010. 6. 13)

순교성인의 숭고한 삶과 고결한 정신을 가슴 깊이 느끼고 본받아 우리의 신앙심을 돈독히 하는 한편, 기차라는 향수와 아늑함을 느끼게 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교우들의 호응도가 더욱 높았던 뜻깊은 행사였다.

2010년 6월 13일 주일 08시에 용산역에 집결하여 구학역(충북 제천시 봉양읍 소재 간이역)까지 무궁화호 16량의 기차를 이용하고 1시간을 도보로 성지까지 걸었는데, 기차를 타는 왕복 약 5시간 동안을 같은 구역의 형제자매들끼리 한 량의 열차 속에서 화합의 시간을 만끽하였고, 나머지 이동 중에는 묵주기도와 교우들간 친교의 시간을 대자연 속에서 흠뻑 나누었다.

1,200여 명의 신자들이 큰 오차 없이 성숙한 모습으로 행사에 임하였으며, 성지에서의 대성당 미사, 황사영 토굴, 최양업 신부 묘소, 최초의 신학교 등 성지순례도 엄숙하게 진행하였다.

남녀 구역장을 비롯한 사목협의회 위원들의 세심한 계획과 준비, 본당의 모든 행사 때마다 현장 봉사에 열




전 신자 성지순례(배론성지)

렬히 앞장서는 청년 교우들의 솔선과 노력으로 조그만 문제도 없이 잘 치러진 은총의 행사였다.

4) 레지오 마리애 사진 전시회

방배동 본당 설립 2개월 남짓 지난 1982년 5월 남성 쁘레시디움인 평화의 모후 Pr.을 창단하는 등 방배동 본당의 가장 뿌리깊은 신심단체인 레지오 마리애가 2011년 9월 24~25 양일간 사진전시회 행사를 가졌다.

각종 봉사활동과 기도 모임, 정기 회합과 피정, 친목 도모, 어려운 이웃 돌봄, 방문 등의 과정에서 기록해 놓았던 사진들을 한데 모아 만남의 방에서 전시회를 하였는데, 지난날도 추억하고, 단원들 간의 유대를 한층 돈독히 하는 한편, 성모님의 군대로서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 각오를 다지는 알찬 시간이 되었다.

5) 구역 대항 연도대회(2011. 11. 26)

돌아가신 신자들에 대한 교우들의 배웅이자 하느님께 드리는 청원의 노래인 연도는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신자들에 대한 은근하고 저력 있는 전교의 수단이기도 하다. 가톨릭 신자로서 이렇듯 중요한 연도를 조금이라도 어설프게 바칠 수는 없는 바, 신자들의 연도 교육과 구역 교우들간 화합의 시간을 갖고자 구역 대항 전 신자 연도대회를 개최하였다. 본당 연령회 최현태(요셉) 회장의 기획과 진행으로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다.

6) 전 신자 등산대회

2011년 6월 12일 전 신자 등반대회를 실시하였다. 35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하여 가까이에 있는 우면산을 왕복하며 자연 속에서 친교를 나누며 보람 있는 시간을 나누었다.





전 신자 성지순례(베론 성지)

7.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이원규(마태오) 주임신부 부임 후 총 10회의 세례성사가 있었으며 4회의 견진성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견진성사			
일 자	견진자수	일 자	견진자수
2009. 5.30	204명	2011. 6.25	146명
2010. 5.29	67명	2012. 5.19	128명
합계 : 545명			

세례성사			
일 자	세례자수	일 자	세례자수
2009.8.29	62명	2011. 3. 5	54명
2009.11.7	60명	2011. 6.18	63명
2010. 3. 6	51명	2011.10. 8	48명
2010. 7.24	76명	2012. 3.24	62명
2010.10.30	51명	2012. 7.21	65명
합계 : 592명			



세례성사



견진성사

8. 사랑과 나눔

1) 칠레 대지진 긴급 구호 재해 의연금 모금(2010.3.14)

2010년 2월 27일 남미의 칠레에서 발생한 진도 8.8의 커다란 지진으로 1,000명에 가까운 인명이 손실되었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전달하고자 '칠레 지진피해 재해 의연금'을 거두어(2차헌금-7,302,110원) 전달하였다.

2) 불우이웃 돕기 전 신자 참여 바자회(2010.10.23~24)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전 신자들의 뜻을 모아 '불우이웃 돕기 기금 마련 자선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전체 신자들로부터 기증받은 수천 가지의 물품들을 토요주점, 일요장터, 재미있는 경매, 경품 추첨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여 모든 신자들이 즐거운 보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바자회의 상세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 결산

- **토요주점(소성당, 만남의방) 10월 23일 토요일 19시~22시**
  와인,양주 등 각종 주류와 안주를 저렴하게 판매, 경품 추첨 (21시 30분경)
- **일요장터(앞마당, 주차장) 10월 24일 주일 10시~17시**
  생필품등 만물상, 각종 먹거리 판매, 경품 추첨(13시, 17시)
- **재미있는 경매(소성당) 10월24일 주일 13시30분~16시**
  미술품, 소장소품, 귀중품 등 (서면기재형)
- **바자회 결산 내용**
  총 수익금 : 145,604,378원(기부금, 티켓 판매, 물품 판매)
  비용 지출 : 29,838,390원(물품 구입, 경품 구입, 음식 재료)
  순 수익금 : 115,765,988원





불우이웃 돕기 전 신자 참여 바자회

3) 사순시기 불우이웃 돕기 헌금

사순시기를 보내면서 어려운 이웃 돕기 특별헌금을 거두었다. • 사순시기 불우이웃 돕기 성금 총액 : 10,275,060원

4) 방배동 집중호우 재해 지원

2011년 7월 27일 갑자기 엄청난 양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서 우면산 산사태가 여러 방향으로 발생하여 방배동 본당의 관할 행정구역인 방배동 일대가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처참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18명의 인명이 손실되었고 재산상의 피해는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 많은 숫자의 방배동 본당의 교우들도 슬프고 힘든 상황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원규(마태오) 주임신부는 본당에서 사목협의회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본당 차원의 수해 복구 지

원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재해 지역들을 둘러보고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방문하여 위로와 기도를 올리는 한편, 피해 복구에 동원된 군인과 공무원, 지역 주민들을 격려하였다.

방배동 본당에서 지급된 재해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방배동 집중호우 재해 지원

- **직접 피해를 당한 본당 교우 가정 위로금 지급 :** 27세대 4250만 원
- **재해 복구 현장에 투입된 군장병 간식 지원 :** 3일간 206만 원
- **이재민 음식 제공 :** 6일간 88만 원

그리고, 방배동 본당 부근 또한 산이 패이고 토사가 밀려오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방배동에 이런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일본의 야마구찌성당(이원규 마태오 주임신부가 사목했던 본당)의 이상원 요한 신부를 비롯한 신자들이 의연금으로 10만 엔(약 140만 원)을 보내 왔으며, 구립 서초여성회관에서도 100만원과 사랑의 쌀 40Kg을 의연품으로 보내 주었다.

9. 본당 성전의 보수

1) 본당 내부 공사

이원규(마태오) 주임신부는 본당 내의 노후 시설의 개선, 비효율적인 시설의 재배치 필요, 추가 시설의 필요성 등 사목협의회의 건의를 받고 성당 사무실, 화장실을 재배치하고 노약자와 몸이 불편한 장애교우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1개월 여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을 하여 잘 정돈된 사무실, 깨끗한 화장실, 2층 대성당까지 연결된 엘리베이터 등 본당의 환경이 모든 신자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좋아졌다.

2) 축복의 방, 유아방 리모델링 공사

많은 단체들이 회합의 장소로 사용하며, 혼배미사 때 폐백실로 활용되고 있는 축복의 방과 대성당 내의 유아방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집기류 등이 부족하여 전폭적인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2011년 8월에 시행하였다.

3) 주차장 포장공사

본당의 주차장은 비가 올 때나 눈이 쌓였다가 녹을 경우에 바닥에 웅덩이가 패어서 물이 고이고 흙탕물이 흥건해서 승 · 하차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자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차량의 진출입의 불편함은 물론, 주차시 차량의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어 주차를 하기에도 힘이 드는 등 주차장 활용의 효율성도 낮음에 따라 그동안 신자들로 부터 주차장 시설 개선에 따른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던 숙원 과제였는데, 이원규(마태오) 주임신부의 결단으로 몇 개월간의 설계와 시공 계획 끝에 2012년 7월 10일에 드디어 말끔한 아스팔트 포장으로 완성이 되었다.

공사 기간 동안 혼배미사 등 본당의 여러 가지 일정 조율과 상당 시간 주차장 사용이 불가하여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모두가 협조하여 큰 무리 없이 무사히 완공할 수 있었다.

깨끗이 포장된 바닥에 알맞은 넓이의 주차선을 긋고 나니, 훨신 많은 댓수의 차량 주차가 가능해졌고, 주차장으로 인한 그동안의 불편했던 일들이 모두 해소가 됨에 따라 서울에서 아름다운 명소로 회자되고 있는 방배동 본당이 더욱 빛이 나게 되었다.









1 2
3
4
5 6

01-02 성당 내부공사 장면
03-06 주차장 공사 및 완공 후 전경





10. 기타 행사

1) 성체조배실 개관 행사

성체 안에 현존 하시는 예수님께 대해 신심과 사랑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소중한 장소인 성체조배실의 축성식이 2009년 7월 30일 염수정(안드레아) 주교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성체조배실 개관 행사

2) 김영일(발타사르) 신부님 금경축 미사

2003년 방배동 본당 주임신부를 끝으로 은퇴하신 김영일(발타사르) 신부님의 사제 수품 50주년 축하 미사와 축하식이 이원규(마태오) 주임신부의 주례로 2010년 4월 18일 본당에서 개최되었다.

본당 전체 교우들의 기도와 축하 그리고 영육간 건강 기원 속에 김영일 신부님의 친구 신부님들과 여러 사제들이 참석하여 축하를 하였다.









김영일 신부님 금경축 행사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행사

11.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서울대교구는 2012년도 사목지침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로 정하고 교회 안에서 복음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만연 해 있음에 대한 성찰과 하느님의 나라를 충실하게 건설하기 위한 이정표로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하고 있다.

이에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방배동 본당에서는 교구의 사목 지침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원규 마태오 주임신부의 2012년 사목목표에 따라 "신자들 개개인의 신앙적 성숙"을 바탕으로 "교회와 지역사회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 피정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중에 걸쳐 이를 진행하였는데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화신문

2012년 10월 28일

전 신자 한마음으로 30돌 기념행사

서울 방배동본당, 28일 설립 30주년 폐막미사 봉헌

평화신문 스크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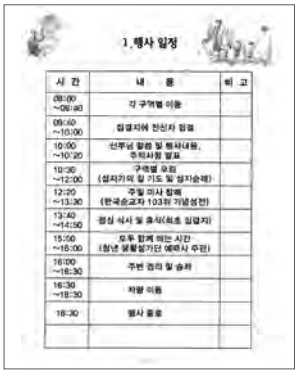
1) 전 신자 성지순례(2012. 5. 20)

앞서 간 신앙선인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 마음 깊이 느끼고자 설레임 속에 5월의 맑은 날 본당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그 첫번째 행사로 전 신자 미리내 성지 순례 행사를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가운데 진행을 하였다.

참여한 1,275명의 교우들이 각 구역별로 배정된 버스를 나눠 타고 묵주기도와 함께 친교를 나누며 성지에 도착하여 14처 기도와 대성당에서의 뜻 깊은 미사, 삼삼오오 성지탐방, 모두가 함께 한 점심식사, 구역별 친교를 나누었으며 청년들이 준비한 야외 음악공연을 관람하였다.

참석한 모든 신자들이 이원규 주임신부의 세심한 돌봄 속에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한낮의 뜨거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200여 년 전 순교자들의 인내와 고통 그리고 순명을 되새기며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순례를 마친 데 대하여 함께 기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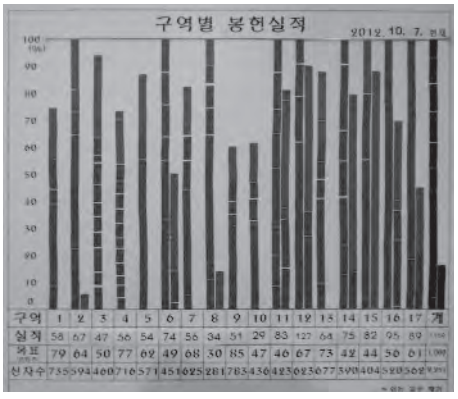

1. 행사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08:00 ~09:00	각 구역별 이동	
09:40 ~10:00	집결지에 전신자 집결	
10:00 ~10:20	신부님 말씀 및 행사내용, 주의사항 설명	
10:30 ~12:00	구역별 이동 (설치기적 및 기도 및 성지순례)	
12:20 ~13:30	주일 미사 참례 (한국순교자 103위 기념성전)	
13:40 ~14:50	점심 식사 및 휴식(최초 집결지)	
15:10 ~16:00	모두 함께 하는 시간 (청년 불꽃놀기단 예배사 주관)	
16:00 ~16:30	주변 관람 및 쇼핑	
16:30 ~18:30	차량 이동	
18:30	행사 종료	

2) 묵주기도 100만단 바치기(2012. 7. 1 ~ 10. 7)

30주년 기념 모든 행사가 주님의 은총 속에 무사히 사랑을 완성하며 진행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묵주기도 100만단 바치기"를 전 신자가 참여하여 100일 동안에 진행 하였다.

기간 동안 각 구역장을 통하여 묵주기도 단수를 매주 집계, 상황판에 구역별 변동 막대그래프와 1만단짜리 장미꽃을 붙여 나가는 이벤트로 신자들의 관심도를 높인 결과, 115만9천단의 묵주기도를 바쳤으며, 특히 12구역은 예상 목표의 2배에 가까운 12만7천여 단을 봉헌하는 열성을 보였다.





묵주기도 100만단 바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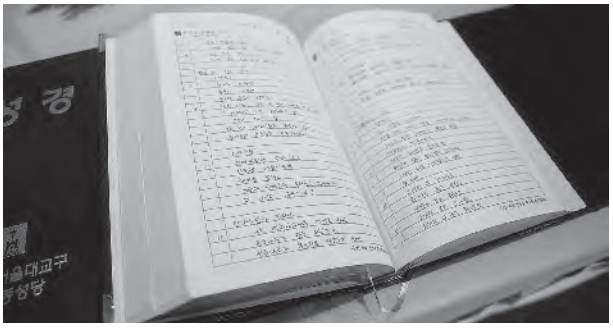
3) 전 교우 참여 성경필사 및 필사본 전시(2012.10.20)

이원규 주임신부를 시작으로 보좌신부, 수녀, 전체 신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뜻 깊은 릴레이식 성경필사를 2012년 3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완성하였다.

참여한 모든 신자들의 정성이 섬섬옥수 깃들여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 탄생하였으며 정성껏 제본을 마치고, 모든 신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전시하는 행사를 하였다.

특히 염수정 교구장께서는, "성경필사는 성경공부를 게을리하던 사람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님이 누구시고 왜 좋으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번 방배동 성당 전체 교우 형제자매들의 참여로 기획된 성경필사본의 완성을 주님의 은총 속에 축하드리면서 우리 신자들 하나하나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며, 한층 더 말씀을 실천하고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에게도 참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축하 말씀을 보내 주었다.





전 교우 참여 성경필사 및 필사본 전시

4) 한마음 체육대회(2012. 9. 23)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본당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생활"이기에 친교와 화합의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다. 이러한 중요한 근본 속에 30주년 기념행사 가운데 가장 큰 화합과 친교의 잔치인 구역대항 체육대회, 그리고 음식 나눔 한마당 잔치가 9월의 따스한 햇살아래 거행 되었다.

사목회와 청년단체를 비롯한 봉사자들이 매주 모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였으며, 행사 당일의 완벽한 진행까지 역대 어느 화합잔치보다 알차고 성대한 행사가 되었다는 신자들의 소감이었다.

주임신부님의 집전으로 야외미사가 봉헌 되었고, 하상도 총회장의 개회 선언과 김태곤, 강인희 남,녀 총구역장의 선수대표 선서가 이어졌다.

전신자 참여 O,X 게임에 이어 구역별 열띤 응원전과 함께 17개 구역이 사전에 추첨하여 확정한 대진표에 의하여 〈남녀 릴레이경주〉, 〈남자부 족구〉, 〈여자부 자유투〉, 〈남녀 패널티킥 차기〉등 흥미진진한 게임이 진행 되었는데 릴레이, 프리드로우, 패널티킥 차기 등에서 보여준 적극적이고 활기찼던 여성교우들의 열기는 이날 행사의 가장 큰 흥밋거리 였으며, 구역별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경품추첨과 구역민들간 친교의 시간이 이어졌다.

특히 행사장 중앙에서 별도로 벌어진 어린이 운동회에서는 수녀님, 어린이학교 교사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재롱과 웃음이 넘쳐나는 즐거운 장면들이 연출되었다.

종합성적은 〈우승 1구역〉, 〈준우승 11구역〉, 〈3위 3구역〉의 순서로 집계가 되었으며, 체육대회 성적발표

구역별 종합 성적표

구분	이어달리기		족구	패널티킥	자유투	참석율		응원	계	순위
	남	여				참석자	점수			
1구역	150	60	60	150	60	92	40	90	610	종합우승
2구역	60	60	60	120	90	97	40	60	490	4
3구역	90	60	90	90	60	74	40	150	580	3위
4구역	60	60	60	60	60	81	40	60	400	4
5구역	60	60	60	60	150	71	40	60	490	4
6구역	60	60	60	60	60	72	40	60	400	4
7구역	60	60	60	60	60	67	40	60	400	4
8구역	60	60	60	60	60	49	40	60	400	4
9구역	60	120	120	60	60	97	40	60	520	4
10구역	60	60	60	60	120	34	40	60	460	4
11구역	120	60	150	60	60	82	80	60	590	준우승
12구역	60	60	60	60	60	95	40	60	400	4
13구역	60	60	60	60	60	98	40	60	400	4
14구역	60	90	60	90	60	80	100	60	520	4
15구역	60	60	90	60	60	65	40	60	430	4
16구역	60	60	60	60	60	46	40	60	400	4
17구역	60	150	60	60	60	94	60	120	570	4

와 시상식 후에 이재학 예로니모 1보좌신부의 지휘아래 흥미 있는 경품추첨 순서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본당의 모든 행사 때마다 힘들고 궂은 일을 맡아 희생과 봉사를 솔선하고 있는 이종운 베르나르디노 사목회 청년분과장, 박수현 율리안나 청년회장과 청년 각 단체 구성원들이 본 행사 역시 준비과정부터 진행과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봉사를 하여 모든 교우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과 고마운 마음을 표시 하였다.

종목별 점수배분표

구분	1위	2위	3위	등외
1. 운동경기 이어달리기(남) 이어달리기(여) 족구 패널티킥 자유투	종목별 150점	종목별 120점	종목별 90점	종목별 60점
2. 응원	150점	120점	90점	60점
3. 참석율	100점	80점	60점	40점

5) 주일학교 글짓기 사생대회 및 전시회(2012. 10. 7)

2012년 10월 7일, 본당의 대 운동장에서 진행된 본 대회에는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 120명, 중 고등부 학생 80명 등 총 200명이 참석하여 2개의 주제를 설정하여 각각 초등부 1부, 초등부 2부, 중고등부의 3개부로 나누어 경연을 가졌다.

〈글짓기〉, 〈사생대회〉는 "방배동 성당", "하느님 사랑", "십계명"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창작을 하였으며, 〈5행시 짓기 대회〉는 "방.배.동.성.당" 의 다섯 글자를 주제로 각자의 솜씨를 뽐냈다.

또한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과 함께 가족들이 참석하여 협동으로 모자이크 만들기, 못난이 사진 콘테스트 등 재미있는 이벤트도 함께 하였다.

본 대회는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장래, 성당의 주역이 될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신앙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삼고자 하였다.

대회 종료 후 주임신부님을 비롯, 신부님 수녀님들이 함께 심사를 하여 각 주제별, 부문별로 마태오상, 예로니모상, 베드로상, 마리비따상, 에스더상 등 5명씩의 수상자를 선발하여 주일 미사시간 중에 시상을 하였으며, 10월 20~28일에 걸쳐 신자들의 격찬 속에 본당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또한 본당 교우인 펜 화가 이승구 요셉과 조명혜 엘리사벳 부부가 그린 전국의 오래된 성당 펜화 그림도 함께 전시를 하였다.

6) 빈첸시오 기금마련 자선까페(2012. 1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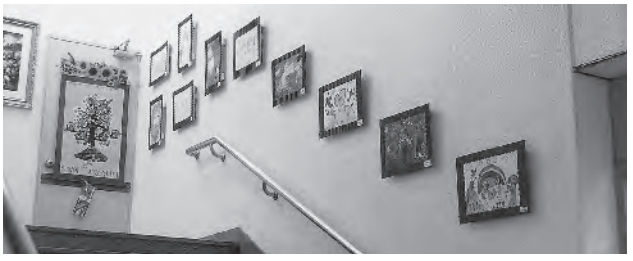
깊어가는 가을에 교우들 간의 친목도모와 이웃돕기 기금마련도 겸하여 음악회 행사 및 그림, 글 전시회와 어우러진 자선카페운영 행사를 본당의 소강당과 만남의 방에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였다.

이영숙 스콜라스티카 부회장과 유승진 루카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복지분과 소속의 봉사자들이 준비한 김밥, 떡볶이, 커피 등 먹거리와 칵테일 바 운영, 경품 추첨 등 흥미로운 이벤트가 풍부한 행사였다.

많은 교우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나누면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 하였으며, 특히 주임신부님을 비롯한 교우들이 기증한 경품추첨도 모두가 즐거웠던 축제 한 마당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2,345,730원의 수익금 전액이 빈첸시오회에 전달되었다.





1 2
3 4
5 6
7 8

01-04 한마음 체육대회(2012. 9.)
05-08 주일학교 글짓기 사생대회 및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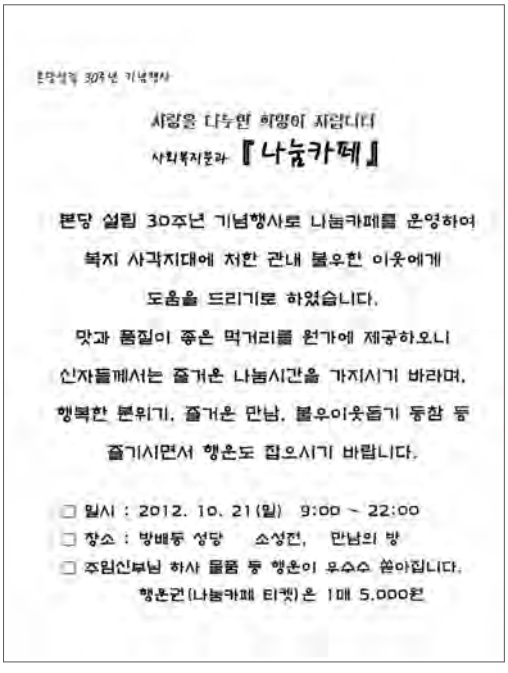










1 2 3 4 5

01-05 빈첸시오 기금마련 자선카페(2012. 10.)

7) 음악회

본당 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음악회가 10월 21일 주일날 저녁 7시 30분에 본당 대성전에서 열렸다.

전문 연주자인 구예은 자매의 웅장하고 경쾌한 파이프오르간 독주를 시작으로 청년 성가대 아나빔, 아우름 성가단의 합창과 70세가 넘은 윤영전 스테파노 형제의 힘이 넘쳐나는 "그리운 금강산" 독창이 이어졌으며 노인대학 어르신들의 합창과 율동은 성전을 메운 신자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

청아하고 아름다운 선율의 수준 높은 바이올린을 연주한 김유리 율리아 자매, 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준비한 귀여운 율동을 가미한 합창과 오페라 독창, 방배 본당의 자랑인 상투스 성가대의 "신고산 타령"과 "신부님 청춘" 합창에 이르러서는 모든 신자가 어우러진 흥겨운 한마당이 되었으며, 청년 공연팀 예따사의 연주와 노래를 마지막으로 한시간 반이 훌쩍 흘러갔다.

깜짝 출연하여 신자들의 박수를 한껏 받은 신부님, 수녀님들의 "님쓰신 가시관", "사랑이여" 합창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가을밤을 만끽 하였다.











음악회(2012. 10.)

8) 음악피정(2012. 10. 22.)

천상의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한국가톨릭 문화원장 박유진 신부는 10월 22일(월)에 본당 30주년 기념 음악피정을 진행하여 주었다.

신부님은 아름다운 글을 읽어주기도 하고 좋은 노래를 해석해 주기도 하면서, 굵고 나지막하면서도 느긋한 목소리로 300여 명의 피정 참가 교우들을 이끌었다.

성가, 묵상과 VTR자료와 함께 생활성가 가수들이 진행에 참여하여 또 다른 음악의 장르를 가르쳐 주었으며, 음악피정을 통하여 많은 신자들의 영혼이 맑고 아름다워지도록 인도하여 자애로우신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여 주었다.

참가한 신자들 모두가 메마르고 지쳐가기 쉬운 마음에 위안을 받았고 더 나은 스스로의 영성을 위하여 음악피정의 중요함을 한 번 더 깨닫는 보람의 시간이었다고 느꼈다.





음악피정(2012. 10.)



9) 30주년 기념 특별미사(2012. 10. 28)

30주년 기념 프로그램의 정점인 특별미사가 10월 28일 주일날 정진석 추기경의 집전으로 김운회 주교를 비롯, 전임 주임신부인 김병학 신부, 임덕일 신부, 전임 보좌신부인 김범준 신부, 본당출신 사제인 이희천 신부와 본당 이원규 주임신부, 이재학 1보좌신부, 김경진 2보좌신부가 참석하고 본당의 신자들이 대성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미사를 집전한 정진석 추기경님께서는 강론을 통하여 누구든지 "200여 개의 서울교구 본당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꼽는 방배동 성당에 살고 있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가 "성가정을 이루고 내적인 아름다움까지 함께 갖게 된다면 이 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모든 상대방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여 서로가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자"고 신앙인의 참 자세를 강조 하였다.

이어 추기경님께서는 소성당에 조촐하게 마련 된 축

하연에도 참석하시어 함께 자리를 한 김운회 주교님을 비롯한 사제들, 배석했던 이원규 주임신부를 비롯한 본당의 사제와 수녀, 사목위원들에게 사목자세 등과 덕담을 주고 받으며 긴 시간을 함께 하였다.

추기경님은 본당의 모든 신자들에게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행사를 함께 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축원을 해 주었으며, 80이 넘은 노구에도 불구하고 본당의 초청에 흔쾌히 응해 주셨으며, 본당에 도착해서도 모든 신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반갑게 기억을 되살리면서 안부를 묻는 등 관심과 존경받는 성직자의 참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특별미사에 참여키 위하여 춘천에서 먼길을 달려오신 방배 본당을 건축한 초대 주임신부 김운회 주교님과 2대 주임신부 김병학 신부께서는 일찍 도착하여 성당을 한 바퀴 둘러보며 오래 전의 감회를 새롭게 하였으며, 직전 주임신부를 역임한 임덕일 신부께서는 낯 익은 신자들과의 반가운 해후를 나누기도 하였다.







1 2
3

01 30주년 기념 특별미사(2012. 10.)
02 30주년 기념 축하연(2012. 10.)
03 30주년 기념 사진(2012. 10.)







10) 30년사 발간

이원규 마태오 주임신부께서는 본당 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30년사를 발간키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발간 조직 위원회를 구성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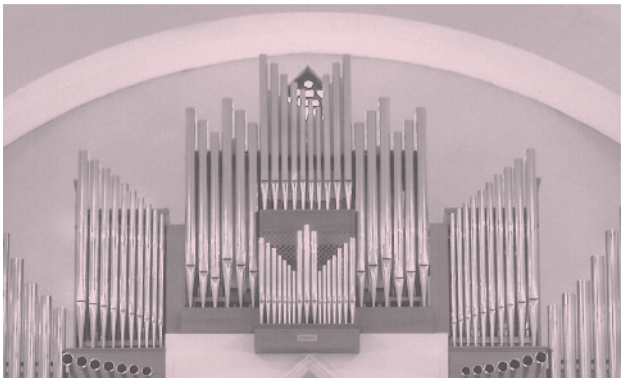
주임신부	보좌신부 수 녀	
사목회장 · 추진위원장	하상도 대건 안드레아	
자문위원단	역대회장단, 원로, 사목위원	
30년사 편찬위원장	이창진 요셉	
편집위원	김규만 마 티 아	30년사 내, 외부 원고 청탁 및 수합 정리
편집위원	박동수 베 드 로	발굴, 접수된 자료의 수합 및 분석 정리
홍보위원	이승구 요 셉	전 교우 대상으로 30년사 발간 참여 홍보자료 제작 및 활동
사진위원	박민철 라 파 엘	역대 본당 각종행사 사진자료와 30주년 관련행사 촬영 및 정리
사 무 장	이정석 발렌티노	본당 보관 각종 통계자료와 현황 확인 및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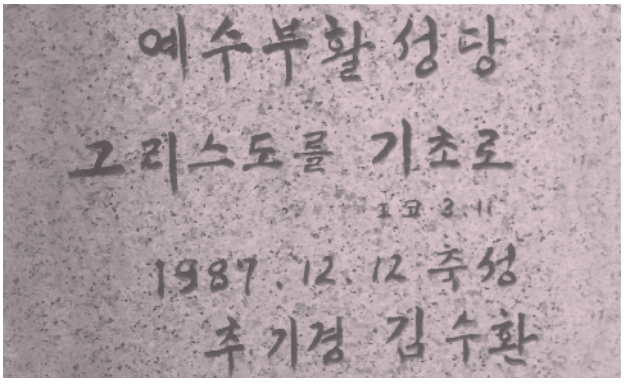
















02

BANGBAEDONG CATHOLIC CHURCH

본당의 현황

1. 역대 성직자 · 수도자 현황
2. 교세 현황
3. 미사 전례와 성사 현황
4. 사목협의회 현황
5. 단체 현황
6. 재정 현황
7. 성당 대지 및 건물 현황
8. 관할 구역도
9. 구역 배치도

1 역대 성직자 · 수도자 현황

1. 역대 주임신부

	성 명	세 례 명	재 임 기 간	현 임 지
1 대	김 운 회	루 카	1982. 3. 11 ~ 1988. 9. 9	주교, 춘천교구장
2 대	김 병 학	라 파 엘	1988. 9. 9 ~ 1993. 11. 5	원로 사목자
3 대	최 준 웅	바 르 나 바	1993. 11. 5 ~ 1998. 10. 8	월드와이드메리지엔카운터
4 대	김 영 일	발 타 사 르	1998. 10. 9 ~ 2003. 8. 31	원로 사목자
5 대	임 덕 일	아 마 투 스	2003. 9. 1 ~ 2008. 8. 31	꾸르실료 담당
6 대	이 원 규	마 태 오	2008. 9. 1 ~ 현재	방배동 주임

2. 역대 보좌신부

• 제1 보좌신부

	성 명	세 례 명	재 임 기 간	현 임 지
1 대	원 종 현	야 고 보	1989. 2. 17 ~ 1991. 2. 22	응암동 주임
2 대	장 희 동	베 드 로	1991. 2. 22 ~ 1993. 3. 12	갈현동 주임
3 대	박 기 호	다 미 아 노	1993. 3. 12 ~ 1995. 3. 17	사회사목 원장
4 대	홍 사 영	바 오 로	1995. 3. 17 ~ 1995. 12. 1	대치4동 주임
5 대	오 인 섭	토 마	1995. 12. 2 ~ 1996. 10. 11	신수동 주임
6 대	조 신 형	도 미 니 코	1996. 11. 29 ~ 1999. 12. 3	아현동 주임
7 대	양 경 모	바 르 나 바	1999. 12. 3 ~ 2001. 2. 28	의정부교구
8 대	이 문 호	빈 첸 시 오	2001. 3. 6 ~ 2003. 11. 30	의정부교구
9 대	남 상 만	베 드 로	2003. 12. 1 ~ 2006. 11. 30	도봉동 주임
10 대	최 형 규	미 카 엘	2006. 12. 1 ~ 2008. 11. 30	해외 연수
11 대	김 범 준	요 한	2008. 12. 1 ~ 2009. 11. 30	서울성모병원 원목
12 대	곽 희 태	스 테 파 노	2009. 12. 1 ~ 2012. 2. 29	수유동 부주임
13 대	이 재 학	예 로 니 모	2012. 3. 1 ~ 현재	방배동 보좌

• 제2 보좌신부

	성 명	세 례 명	재 임 기 간	현 임 지
1 대	황 경 원	안 드 레 아	1991. 9. 5 ~ 1993. 11. 5	강일동 주임
2 대	홍 사 영	바 오 로	1993. 12. 3 ~ 1995. 3. 17	대치4동 주임
3 대	권 철 호	다 니 엘	1995. 3. 18 ~ 1996. 11. 28	당고개성지 주임
4 대	김 연 범	안 토 니 오	1996. 11. 29 ~ 1998. 11. 26	성산동 주임
5 대	신 중 호	베 드 로	1998. 11. 27 ~ 2000. 12. 31	의정부교구
6 대	이 문 호	빈 첸 시 오	2001. 1. 1 ~ 2001. 3. 6	의정부교구
7 대	배 한 상	스 테 파 노	2001. 10. 1 ~ 2003. 11. 30	대방동 부주임
8 대	민 범 식	안 토 니 오	2003. 12. 1 ~ 2004. 9. 30	해외 유학
9 대	김 종 호	야 고 보	2005. 12. 1 ~ 2007. 11. 30	중계동 보좌
10 대	김 범 준	요 한	2007. 12. 1 ~ 2008. 11. 30	서울성모병원 원목
11 대	신 광 수	베 드 로	2008. 12. 1 ~ 2011. 2. 22	군종
12 대	김 경 진	베 드 로	2011. 2. 22 ~ 현재	방배동 보좌

3. 역대 수녀

번호	성 명	수 도 명	재 임 기 간	재임당시소임 원장/전교	현 근무지
1	김 송 곤	Sr.휘델리스	1982. 9. 1 ~ 1985. 2. 2	전교(원장)	연천 평화가 함께
2	김 순 자	Sr.보니따스	1983. 9. 1 ~ 1984. 9. 1	청소년, 전례	연봉 천주교회
3	김 영 자	Sr.카스타	1985. 2. 2 ~ 1988. 2. 7	전교(원장)	보바스병원 원목실
4	곽 유 희	Sr.마르꼬	1985. 2. 2 ~ 1986. 2. 3	청소년, 전례	제3수련
5	김 영 미	Sr.에디따	1986. 2. 5 ~ 1988. 2. 7	청소년, 전례	교동 천주교회
6	김 행 자	Sr.사비나	1988. 2. 8 ~ 1991. 9. 3	전교(원장)	서울성모병원
7	김 병 옥	Sr.후밀리아	1988. 2. 8 ~ 1990. 2. 5	청소년, 중등부	가톨릭대학법인
8	신 종 련	Sr.마티아	1988. 2. 8 ~ 1989. 8. 31	전례, 초등부	안락동 천주교회
9	조 영 숙	Sr.안나마리	1989. 9. 1 ~ 1991. 2. 6	전례, 초등부	범계 천주교회
10	남 금 자	Sr.시메온	1991. 2. 7 ~ 1992. 3. 2	전례, 초등부	공군사관학교 성무대
11	이 춘 예	Sr.알비나	1991. 9. 3 ~ 1992. 3. 3	전교(원장)	흑석동 성모교육원
12	김 희 자	Sr.안셀모	1992. 3. 3 ~ 1995. 2. 24	전교(원장)	제3수련
13	장 미 애	Sr.미애말첼리나	1992. 3. 3 ~ 1993. 2. 22	전례, 복사단	서초 어린이집
14	지 경 희	Sr.마르틴	1992. 9. 3 ~ 1993. 8. 30	중고등부	주안8동 천주교회
15	김 동 선	Sr.임마꿀라다	1993. 2. 23 ~ 1994. 8. 23	전례, 복사단	3지구장
16	홍 혜 영	Sr.마리엣다	1993. 8. 30 ~ 1996. 2. 20	중고등부	마두동
17	조 미 예	Sr.미예루시아	1994. 8. 23 ~ 1996. 8. 23	전례, 초등부	제주 성서모임
18	김 학 경	Sr.예레미아	1995. 2. 22 ~ 1998. 2. 16	전교(원장)	본원
19	곽 희 자	Sr.쟌다크	1996. 2. 20 ~ 1998. 2. 16	청소년	강북 성모의 집
20	이 복 애	Sr.루까	1998. 2. 17 ~ 1999. 2. 18	전교(원장)	버드내 천주교회
21	박 정 애	Sr.올리비아	1998. 2. 17 ~ 1999. 2. 18	청소년	마장동 천주교회
22	이 영 자	Sr.유제니아	1999. 2. 18 ~ 2002. 2. 18	전교(원장)	영원한 도움 성서연구소
23	김 경 민	Sr.어네스트	1999. 2. 18 ~ 2000. 8. 21	전례, 초등부	수원 청년성서모임
24	김 음 전	Sr.마리대건	1999. 2. 18 ~ 2001. 2. 19	청소년, 전례	노량진 천주교회
25	성 정 아	Sr.니꼬데모	2000. 8. 21 ~ 2002. 2. 18	전례, 초등부	본원
26	박 진	Sr.아숨따	2001. 2. 23 ~ 2002. 8. 21	청소년, 전례	수지 성모의 집
27	홍 희 자	Sr.고르넬리아	2002. 2. 18 ~ 2005. 2. 16	전교(원장)	연남동 분원
28	정 선 희	Sr.재니스	2002. 2. 18 ~ 2003. 8. 20	전례, 초등부	본원 편집실
29	이 영 숙	Sr.마리에스텔	2002. 8. 21 ~ 2003. 8. 20	전례, 청소년	영원한 도움 성서연구소
30	이 덕 애	Sr.마르셀	2003. 8. 15 ~ 2004. 8. 16	전례, 청소년	백석동 천주교회
31	강 미 용	Sr.헤셀	2003. 8. 20 ~ 2005. 2. 17	전례, 초등부	부산가톨릭대학교
32	사 정 숙	Sr.안토니아	2005. 2. 17 ~ 2007. 8. 20	전교(원장)	수지 성모의 집
33	김 승 미	Sr.이네스	2005. 2. 17 ~ 2006. 8. 20	전례, 초등부	도봉동 천주교회
34	최 옥 순	Sr.콘세크라타	2007. 8. 22 ~ 2010. 2. 15	전교(원장)	성모자매회
35	박 은 경	Sr.은경레나	2008. 2. 18 ~ 2009. 2. 14	전례, 초등부	휴양
36	정 현 경	Sr.아스테리아	2009. 2. 18 ~ 2010. 8. 18	전례, 초등부	서강대 대학원
37	전 배 경	Sr.엠마	2010. 2. 22 ~ 2012. 5. 28	전교(원장)	총원
38	김 미 라	Sr.마리앤	2010. 8. 18 ~ 2012. 8. 20	전례, 청소년	명혜학교
39	오 미 경	Sr.마리비따	2012. 5. 29 ~ 현재	전교(원장)	방배동 성당
40	변 복 희	Sr.에스더	2012. 8. 21 ~ 현재	전례, 청소년	방배동 성당

4. 본당 출신 사제

번호	성 명	세례명(수도명)	소속(교구, 수도회)	서품(입회)년도	현재 임지
1	정 웅 모	에 밀 리 오	서울대교구	1987	장안동 주임
2	이 경 상	바 오 로	〃	1988	가톨릭중앙의료원
3	장 경 원	요 한	의정부교구	1989	의정부교구
4	김 병 선	토마스 아퀴나스	서울대교구	1996	가락2동 주임
5	조 유 관	베 드 로	〃	1997	휴직
6	박 창 엽	파 비 아 노	〃	2000	교포 사목
7	남 승 원	토마스아퀴나스	골롬반외방선교회	2002	선교회 신학원 원장
8	조 민 환	요 한	서울대교구	2008	해외 유학
9	이 희 천	프 란 치 스 코	〃	2011	면목동 보좌

5. 신학생

번호	성 명	세 례 명	학교	입학년도	비고
1	정 규 현	마 르 티 노	가톨릭대학교	2007학번	신학대 3
2	이 상 민	바 오 로	가톨릭대학교	2008학번	복학 대기
3	이 명 진	요 셉	가톨릭대학교	2009학번	군복무 중

2 교세 현황

1. 교세 증가 현황

(2012. 8. 15. 현재)

구분 연도	신자수			증가수			감소수		
	남	여	계	세례	전입	계	사망	전출	계
1982	1,080	1,454	2,534						
1983	1,477	2,008	3,485	406	853	1,259	18	290	308
1984	1,881	2,625	4,506	657	726	1,383	26	336	362
1985	2,278	3,359	5,637	710	808	1,518	12	375	387
1986	2,567	3,863	6,430	558	758	1,316	9	514	523
1987	2,874	4,324	7,198	525	697	1,222	8	446	454
1988	3,170	4,845	8,015	535	1,119	1,654	26	811	837
1989	3,357	5,274	8,631	600	807	1,407	20	771	791
1990	3,197	4,943	8,140	535	605	1,140	26	1,605	1,631
1991	3,464	5,303	8,767	484	604	1,088	29	432	461
1992	3,713	5,601	9,314	547	571	1,118	34	537	571
1993	3,864	5,839	9,703	519	657	1,176	29	758	787
1994	3,722	5,503	9,225	275	522	797	30	1,245	1,275
1995	3,859	5,644	9,503	395	530	925	25	622	647
1996	3,884	5,632	9,516	231	482	713	26	674	700
1997	4,058	5,840	9,898	316	666	982	29	571	600
1998	2,948	4,209	7,157	365	469	834	31	3,544	3,575
1999	3,176	4,409	7,585	421	559	980	13	539	552
2000	3,395	4,762	8,157	467	687	1,154	28	554	582
2001	3,352	4,747	8,099	252	430	682	26	714	740
2002	3,420	4,814	8,234	245	574	819	16	668	684
2003	3,173	4,515	7,688	235	622	857	28	1,375	1,403
2004	3,031	4,213	7,244	166	930	1,096	17	1,523	1,540
2005	2,906	3,992	6,898	236	875	1,111	25	1,432	1,457
2006	2,978	4,056	7,034	194	687	881	14	731	745
2007	3,164	4,278	7,442	175	711	886	5	473	478
2008	3,389	4,539	7,928	340	532	872	28	358	386
2009	3,506	4,766	8,272	224	616	840	25	471	496
2010	3,727	5,123	8,850	268	807	1,075	33	464	497
2011	4,607	6,382	10,989	247	2,856	3,103	48	916	964
2012	4,696	6,489	11,185	163	447	610	34	380	414

2. 신자 연령별 구분

(2011. 12. 31. 현재)

구분	~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기타	합계
인원	415	919	1,753	2,225	1,420	2,122	1,379	501	254	1	10,989

3. 전년도 대비 총수의 증감

(2011. 12. 31. 현재)

구분	2009	2010	2011	증감수	증감률(%)
~ 9세까지	288	347	415	68	20%
10세 ~ 19세까지	676	748	919	171	23%
20세 ~ 29세까지	1,392	1,537	1,753	216	14%
30세 ~ 39세까지	1,703	1,782	2,225	443	25%
40세 ~ 49세까지	1,076	1,173	1,420	247	21%
50세 ~ 59세까지	1,558	1,655	2,122	467	28%
60세 ~ 69세까지	1,034	1,049	1,379	330	31%
70세 ~ 79세까지	333	345	501	156	45%
80세 ~ 이상	204	214	254	40	19%
기타	6	0	1	1	
합계	8,270	8,850	10,989	2,139	24%

4. 관할 행정 구역 인구수 및 신자수

(2012. 6. 현재)

구분 / 동별	총인구수	신자수(명)			구성비(%)
		남	여	계	
방배1동	17,386	920	1,252	2,172	12.5
방배2동	27,954	1,077	1,441	2,518	9.0
방배3동	26,168	1,957	2,664	4,621	17.7
기 타		581	868	1,449	
합계	71,508	4,535	6,225	10,760	15.0

3 미사 전례와 성사 현황

1. 미사전례

주 일			
요 일	시 간	대 상	참례자수
토요특전	19:00	일 반	510
주 일	06:00	〃	280
	09:00	〃	544
	10:00	중고등부	50
	11:00	일 반	1,104
	15:00	초 등 부	286
	17:00	청 년 부	320
	19:00	일 반	450
주일미사 참례자 계			3,544

주 일			
요 일	오 전	오 후	참례자수
월	06:00	-	195
화	06:00, 10:00	19:30	403
수	〃	〃	392
목	〃	〃	342
금	〃	〃	350
토	06:00		162
평일미사 참례자 계			1,844

2. 성사 현황

구분		세례	견진	혼인	첫영성체	고해	병자	장례
전년도 (2010)	남	89	23	179	23	1,896	14	34
	여	177	44	179		3,139	9	
	계	266	67	358	23	5,035	23	34
금년도 (2011)	남	88	49	168	28	2,660	12	46
	여	159	97	168		4,278	9	
	계	247	146	336	28	6,938	21	46
비고(증감율 %)		-7.7	54.1	-6.5	17.9	27.4	-9.5	26.1

3. 성사 집행 현황

• 1983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10	13	23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14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40	35	75		신자와 타교파 간	
	7세 이상 세례자	105	203	308		신자와 미신자 간	20
견진성사		94	197	291	병자성사		10

• 1984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29	22	51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47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35	44	79		신자와 타교파 간	
	7세 이상 세례자	207	320	527		신자와 미신자 간	27
견진성사		0	0	0	병자성사		25

• 1985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14	9	23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27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34	24	58		신자와 타교파 간	
	7세 이상 세례자	178	451	629		신자와 미신자 간	42
견진성사		88	205	293	병자성사		9

• 1986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9	10	19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32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30	36	66		신자와 타교파 간	7
	7세 이상 세례자	166	307	473		신자와 미신자 간	18
견진성사		0	0	0	병자성사		10

• 1987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26	14	40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42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14	24	38		신자와 타교파 간	30
	7세 이상 세례자	156	291	447		신자와 미신자 간	30
견진성사		59	144	203	병자성사		10

• 1988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21	26	47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73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15	18	33		신자와 타교파 간	10
	7세 이상 세례자	157	298	455		신자와 미신자 간	51
견진성사		0	0	0	병자성사		14

• 1989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17	18	35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52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29	26	55		신자와 타교파 간	9
	7세 이상 세례자	171	339	510		신자와 미신자 간	30
견진성사		89	201	290	병자성사		15

• 1990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20	19	39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54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10	19	29		신자와 타교파 간	12
	7세 이상 세례자	158	309	467		신자와 미신자 간	42
견진성사					병자성사		9

• 1991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23	15	38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60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6	18	24		신자와 타교파 간	8
	7세 이상 세례자	155	267	422		신자와 미신자 간	47
견진성사		66	121	187	병자성사		12

• 1992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18	26	44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71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13	10	23		신자와 타교파 간	20
	7세 이상 세례자	196	284	480		신자와 미신자 간	48
견진성사		62	110	172	병자성사		22

• 1993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21	17	38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83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17	17	34		신자와 타교파 간	16
	7세 이상 세례자	191	256	447		신자와 미신자 간	76
견진성사		52	114	166	병자성사		20

• 1994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16	10	26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83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20	17	37		신자와 타교파 간	13
	7세 이상 세례자	81	131	212		신자와 미신자 간	52
견진성사		62	118	180	병자성사		12

• 1995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12	17	29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88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11	11	22		신자와 타교파 간	13
	7세 이상 세례자	157	187	344		신자와 미신자 간	54
견진성사		69	100	169	병자성사		17

• 1996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11	7	18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83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21	28	49		신자와 타교파 간	19
	7세 이상 세례자	81	83	164		신자와 미신자 간	60
견진성사		31	57	88	병자성사		12

• 1997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12	13	25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111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19	17	36		신자와 타교파 간	1
	7세 이상 세례자	110	168	278		신자와 미신자 간	76
견진성사		49	91	140	병자성사		18

• 1998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12	10	22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80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32	26	58		신자와 타교파 간	0
	7세 이상 세례자	146	204	350		신자와 미신자 간	80
견진성사		0	0	0	병자성사		13

• 1999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9	9	18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73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31	23	54		신자와 타교파 간	0
	7세 이상 세례자	171	174	345		신자와 미신자 간	73
견진성사		106	205	311	병자성사		9

• 2000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35	31	66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71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18	16	34		신자와 타교파 간	9
	7세 이상 세례자	124	243	367		신자와 미신자 간	58
견진성사		74	88	162	병자성사		24

• 2001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11	12	23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140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6	13	19		신자와 타교파 간	0
	7세 이상 세례자	82	128	210		신자와 미신자 간	96
견진성사		0	0	0	병자성사		19

• 2002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14	13	27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166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6	7	13		신자와 타교파 간	2
	7세 이상 세례자	93	112	205		신자와 미신자 간	126
견진성사		87	122	209	병자성사		11

• 2003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19	9	28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152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13	5	18		신자와 타교파 간	0
	7세 이상 세례자	63	126	189		신자와 미신자 간	96
견진성사		0	0	0	병자성사		8

• 2004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13	10	23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146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8	13	21		신자와 타교파 간	2
	7세 이상 세례자	46	76	122		신자와 미신자 간	88
견진성사		45	64	109	병자성사		3

• 2005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8	11	19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166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7	3	10		신자와 타교파 간	2
	7세 이상 세례자	77	130	207		신자와 미신자 간	96
견진성사		0	0	0	병자성사		6

• 2006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13	6	19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162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5	10	15		신자와 타교파 간	2
	7세 이상 세례자	61	99	160		신자와 미신자 간	126
견진성사		58	86	144	병자성사		4

• 2007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18	13	31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156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9	9	18		신자와 타교파 간	6
	7세 이상 세례자	37	89	126		신자와 미신자 간	88
견진성사		0	0	0	병자성사		6

• 2008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10	7	17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109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14	15	29		신자와 타교파 간	1
	7세 이상 세례자	128	156	284		신자와 미신자 간	46
견진성사		0	0	0	병자성사		11

• 2009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1세까지 세례자	12	7	19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110
	2세부터 7세까지 세례자	17	22	39		신자와 타교파 간	12
	7세 이상 세례자	65	125	190		신자와 미신자 간	39
견진성사		75	129	204	병자성사		2

• 2010년도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4세까지 세례자	9	18	27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129
	5세부터 9세까지 세례자	6	12	18		신자와 타교파 간	18
	10세 이상 세례자	71	147	218		신자와 미신자 간	32
견진성사		22	45	67	병자성사		14

• 2011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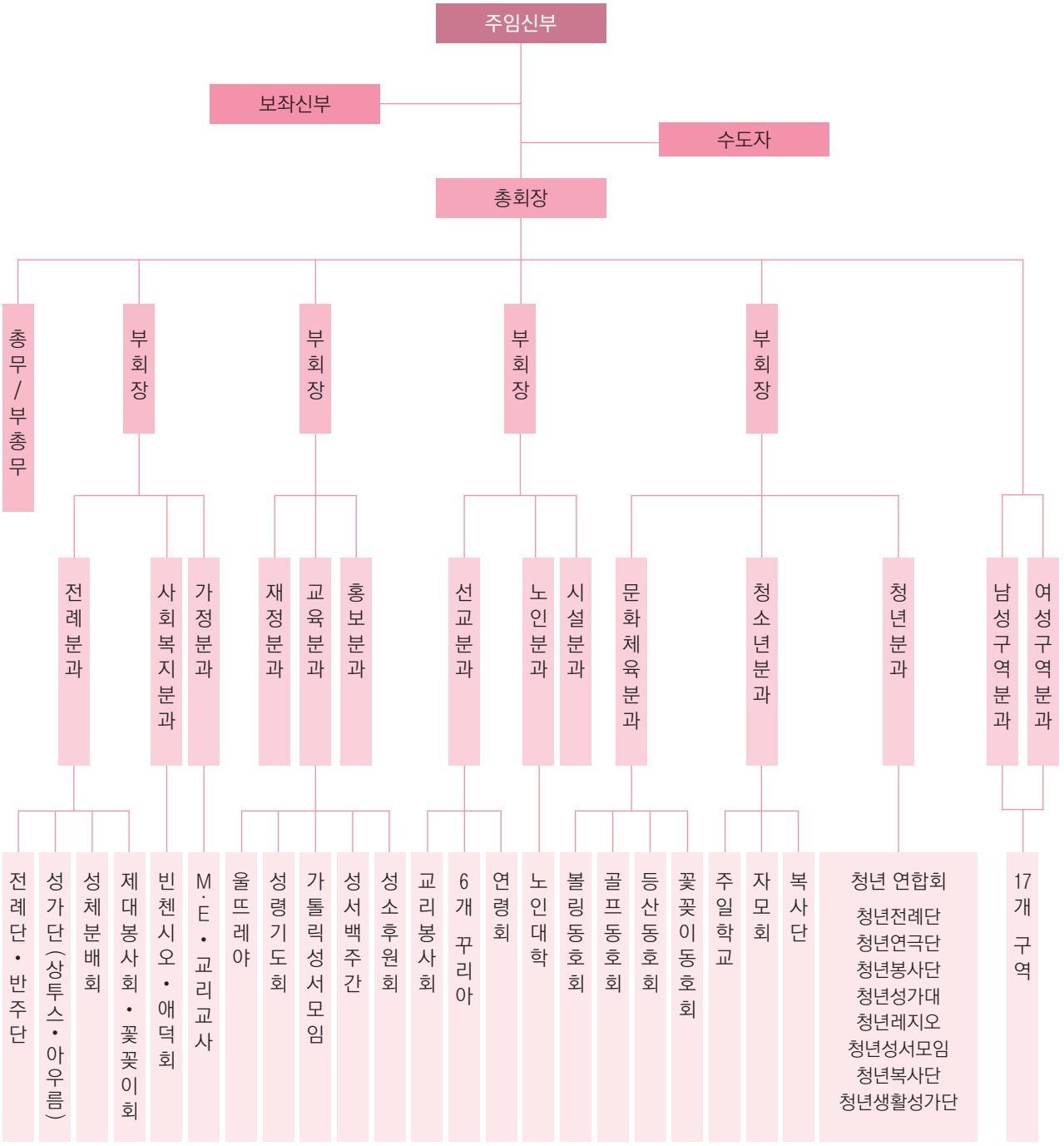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4세까지 세례자	21	29	50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112
	5세부터 9세까지 세례자	4	6	10		신자와 타교파 간	11
	10세 이상 세례자	59	119	178		신자와 미신자 간	46
견진성사		50	96	146	병자성사		12

• 2012년 8월 15일 현재

구분		남	여	계	구분		계
세례자	0세부터 4세까지 세례자	12	10	22	혼인성사	상호 신자 간	81
	5세부터 9세까지 세례자	3	4	7		신자와 타교파 간	36
	10세 이상 세례자	40	89	129		신자와 미신자 간	
견진성사		47	81	128	병자성사		9

4 사목협의회 현황

1. 기구 조직도



2. 역대 사목협의회 회장

역대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역대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1 대	김정희	알로이시오	1981. 10. 23 ~ 1982. 4. 20	8 대	이 춘	가브리엘	1997. 1. 12 ~ 1999. 5. 22
2 대	윤봉현	베네딕토	1982. 4. 21 ~ 1984. 9. 14	9 대	김동진	암브로시오	1999. 5. 23 ~ 2001. 12. 15
3 대	최호식	라우렌시오	1984. 9. 15 ~ 1985. 12. 3	10 대	김호길	마 태 오	2001. 12. 16 ~ 2003. 12. 6
4 대	구본호	프란치스코	1985. 12. 4 ~ 1988. 11. 15	11 대	허주열	바 오 로	2003. 12. 7 ~ 2005. 11. 20
5 대	김종세	그레고리오	1988. 11. 16 ~ 1992. 11. 3	12 대	최상철	요 한	2006. 6. 1 ~ 2008. 5. 31
6 대	김찬진	야 고 보	1992. 11. 4 ~ 1994. 11. 26	13 대	한상헌	스테파노	2008. 6. 23 ~ 2009. 10. 24
7 대	지태욱	요 셉	1994. 11. 27 ~ 1997. 1. 11	현 재	하상도	대건 안드레아	2009. 10. 25 ~ 현재

3. 역대 사무장

역대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역대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1 대	오병구	이냐시오	1983. 9. 1 ~ 1987. 11. 23	3 대	이덕하	요 한	1996. 11. 27 ~ 2008. 12. 31
2 대	김한식	미카엘	1987. 11. 24 ~ 1996. 9. 30	4 대	이정석	발렌티노	2009. 1. 1 ~ 현재

4. 현 직원 현황

직책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비고	직책	성명	세례명	재임기간	비고
사무원	권윤정	스텔라	2008. 1. 19 ~	(휴직중)	관리장	조광희	바오로	1991. 7. 1 ~	
사무원	이성희	플라비아	2010. 3. 10 ~		관리인	임해선	율리안나	1991. 7. 1 ~	
사무원	부은선	젤뚜르다	2012. 2. 19 ~	(계약직)	사제관	김영자	체칠리아	2008. 10. 1 ~	(계약직)

5 단체 현황

1. 평신도 사목단체 현황

번호	사목 위원회	단체명	단체수	회원수		
				남	여	계
0	사목협의회	상임위원회, 총회	14	71	63	134
1	재정분과 위원회	재정분과	1	3	0	3
2	전례분과 위원회	전례단	1	11	21	32
		쌍뚜스 성가단	1	19	35	54
		아우름 성가단	1	16	20	36
		반주단	1	0	16	16
		성찬봉사회	1	30	0	30
		제대회	1	0	11	11
		전례꽃꽂이회	1	0	10	10
		소계	7	76	113	189
3	선교분과 위원회	연령회	1	8	13	21
		예비신자교리봉사회	1	0	8	8
		겸손하신 모후 Cu.	10 Pr.	65	20	85
		천주의 모후 Cu.	10 Pr.	59	25	84
		자비의 모후 Cu.	9 Pr.	45	26	71
		파티마의 성모 Cu.	17 Pr.	0	154	154
		공경하올 어머니 Cu.	17 Pr.	0	140	140
		순결하신 모후 Cu.	16 Pr.	0	145	145
		소계 (레지오)	79	169	510	679
4	교육분과 위원회	울뜨레아	5	141	158	299
		가톨릭성서모임	17	9	113	122
		성서백주간	19	2	19	21
		성령기도회	1	0	8	8
		성소후원회	1	0	16	16
		다락방 기도모임	3	0	30	30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	1	0	0	0
		소계	47	152	344	496
5	사회복지 위원회	애덕회	1	0	14	14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	1	6	12	18
		법률상담	1	2	0	2
		소계	3	8	26	34
6	가정분과 위원회	M.E.	1	12	12	24
7	노인분과 위원회	요셉 노인대학	1	5	12	17
8	청소년 위원회	* 세부 내역 참조:	14	63	179	242
9	청년분과 위원회	2) 주일학교 및 청년 사목현황	10	56	81	137
10	시설관리 위원회	시설관리 분과	1	2	0	2
11	문화체육 위원회	볼링동호회	1	4	4	8
		등산동호회	1	8	2	10
		시니어등산동호회	1	8	0	8
		소계	3	20	6	26
12	홍보분과 위원회	홍보분과	1	0	0	0
13	남성분과 위원회	구역회(반)	17구역	117	0	117
14	여성분과 위원회	구역회(반)	17구역	0	130	130
합계			201	762	1,367	2,129

2. 주일학교 및 청년 사목 현황

• 2011년 사목 중점사항

초 등 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필리 413)를 한 해 주제 성구로 하여 신앙심 고취
중고등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필리 413)를 한 해 주제 성구로 하여 주일학교 활성화와 더불어 신앙심 고취
청 년 부	자유로운 삶 속에서 주님을 받아들이기

• 2011년 예산 지출 현황

초 등 부		
항 목		금액
2011년도 초등부 전체 지출액		49,706,390원
학생 분야	겨울행사(성탄제)	2,544,400원
	여름행사(캠프, 신앙학교)	9,144,520원
	학생 간식비	12,590,400원
교리 교사 분야	교사전체지원비 총액	25,937,070원
	교사전체지원비 중 교사교육비	2,739,830원
자모회 간식비(초등부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기재)		원

중 고 등 부		
항 목		금액
2011년도 중고등부 전체 지출액		29,641,980원
학생 분야	겨울행사(성탄제)	800,000원
	겨울피정	6,400,000원
	여름행사(캠프, 신앙학교)	9,400,000원
	학생 간식비	원
교리 교사 분야	교사전체지원비 총액	5,279,230원
	교사전체지원비 중 교사교육비	1,629,230원
고3 지원비	피정, 월모임비	2,200,000원
자모회 간식비(중고등부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기재)		5,487,000원

청 년 부		
항 목		금액
2011년도 청년부 전체 지출액		73,337,106원
상세 내역	교육비	5,755,000원
	겨울행사(피정, 전례행사)	4,905,000원
	여름행사(캠프, 신앙학교)	7,650,000원
	기타행사	9,856,690원
	단체지원금	45,170,416원

• 2011년 12월 기준 학생수

학년	교적수		등록수		출석수(평균)	
	남	여	남	여	1학기	2학기
유아부	25	20	14	16	15	15
초등학교 1학년	9	19	9	14	11	11
초등학교 2학년	17	27	14	18	15	15
초등학교 3학년	23	28	13	10	15	15
초등학교 4학년	24	30	13	15	17	17
초등학교 5학년	37	38	17	16	19	19
초등학교 6학년	27	41	10	12	15	15
합계	162	203	90	101	107	107

학년	교적수		등록수		출석수(평균)	
	남	여	남	여	1학기	2학기
중학교 1학년	47	41	15	15	15	15
중학교 2학년	37	40	10	10	10	10
중학교 3학년	45	47	10	5	8	8
고등학교 1학년	56	44	10	9	6	6
고등학교 2학년	51	49	5	0	2	2
고등학교 3학년	70	57	3	5	5	5
합계	306	278	53	44	46	46

구분	세례성사		견진성사		교적수		등록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24세	4	7	2	4	382	394	20	25
25~29세	4	19	6	15	407	526	15	17
30~35세	11	18	7	8	661	882	8	9
합계	19	44	15	27	1450	1802	43	51

• 2011년 12월 기준 교사수

구분	교사수			년차										자모	직업 직장인	대학생
	남	여	계	1	2	3	4	5	6	7	8	9	10~			
초등부		12	12	3	1	3	2		1	1		1			12	12
중고부	2	5	7	2			1	1		1	1		1		3	4

• 2011년 12월 기준 활동 실적

학년	여름행사(신앙학교, 캠프)		성탄제		첫영성체	
	남	여	남	여	남	여
유아부	5	6				
초등학교1	3	6				
초등학교2	6	6				
초등학교3			5	3	12	10
초등학교4			12	4	11	13
초등학교5			7	9	17	15
초등학교6			8	0	10	15
합계	14	18	32	16	50	53

학년	여름행사(신앙학교, 캠프)		성탄제		겨울피정	
	남	여	남	여	남	여
중학교 1학년	6	5	5	5	6	1
중학교 2학년	5	4	5	5	9	2
중학교 3학년	10	1	6	1	5	2
고등학교 1학년	4	2	4	2	1	0
고등학교 2학년	3	0	1	0	0	0
고등학교 3학년	0	0	0	0	0	0
합계	28	12	21	13	21	5

학년	세례성사		예비신자		견진성사	
	남	여	남	여	남	여
중학교 1학년	13	8	0	1	8	5
중학교 2학년	10	6	0	1	4	3
중학교 3학년	10	5	1	0	8	2
고등학교 1학년	10	5	0	0	3	2
고등학교 2학년	5	0	0	0	1	0
고등학교 3학년	3	5	0	0	0	0
합계	51	29	1	2	24	12

• 2011년 12월 기준 단체 활동

초등부	활동 인원		
	남	여	계
전례부	1	6	7
성가대		22	22
복사단	29		29
레크부		6	6
학생회			0
합 계	30	34	64
자모회		55	55
복사단자모회		20	20
교사회		11	11

중고등부	활동 인원		
	남	여	계
전례부	6	1	7
성가대	5	6	11
복사단	10		10
레크부			0
CYA(학생회)	7	5	12
합 계	28	12	40
자모회		33	33
복사단자모회		9	9
교사회	5	5	10

청년부		활동 인원			비고 (청년공동체)
		남	여	계	
청년공동체		11	8	19	
1	청년복사단	10		10	남 1
2	청년레지오(믿 음)	2	4	6	여 2
3	청년레지오(즐 거 움)	0	7	7	여 1
4	청년성가대(아 나 빔)	10	20	30	남 1 여 1
5	청년연극단(옹기마을)	2	4	6	남 1 여 1
6	청년전례단(쉐 마)	6	8	14	남 1 여 1
7	청년봉사단(동녘햇살)	8	12	20	남 2
8	청년생활성가(예 따 사)	6	6	12	남 1 여 1
9	청년성서모임(태 멘)	1	12	13	남 1 여 1
합 계		56	81	137	

6 재정 현황

1. 교무금 및 헌금 연도별 증감 현황

(2012. 8. 15. 현재)

년도	세대수	증감(%)	교무금	증감(%)	신자수	증감(%)	주일헌금	증감(%)
1982	750		33,673,770		2,534		46,598,740	
1983	1,087	44.9	65,827,500	95.5	3,485	37.5	78,306,575	68.0
1984	1,058	-2.7	88,246,000	34.1	4,506	29.3	102,967,631	31.5
1985	1,960	85.3	114,410,000	29.6	5,637	25.1	116,587,522	13.2
1986	2,296	17.1	136,690,000	19.5	6,430	14.1	130,837,662	12.2
1987	2,503	9.0	162,367,000	18.8	7,198	11.9	141,510,737	8.2
1988	3,051	21.9	203,255,500	25.2	8,015	11.4	174,349,455	23.2
1989	3,175	4.1	271,768,500	33.7	8,631	7.7	227,661,170	30.6
1990	3,245	2.2	325,534,000	19.8	8,140	-5.7	269,118,710	18.2
1991	3,063	-5.6	388,479,000	19.3	8,767	7.7	330,513,460	22.8
1992	3,268	6.7	457,334,000	17.7	9,314	6.2	372,232,350	12.6
1993	3,458	5.8	526,827,000	15.2	9,703	4.2	388,871,270	4.5
1994	3,211	-7.1	574,099,000	9.0	9,225	-4.9	381,789,800	-1.8
1995	3,340	4.0	634,788,000	10.6	9,503	3.0	407,276,380	6.7
1996	3,369	0.9	677,300,000	6.7	9,516	0.1	422,975,740	3.9
1997	3,558	5.6	726,141,000	7.2	9,898	4.0	412,259,360	-2.5
1998	2,675	-24.8	642,632,000	-11.5	7,157	-27.7	394,567,440	-4.3
1999	2,888	8.0	522,643,000	-18.7	7,585	6.0	306,636,980	-22.3
2000	3,151	9.1	547,776,000	4.8	8,157	7.5	310,808,130	1.4
2001	3,352	6.4	564,893,000	3.1	8,099	-0.7	317,592,440	2.2
2002	3,249	-3.1	584,373,000	3.4	8,234	1.7	328,588,710	3.5
2003	2,977	-8.4	618,299,500	5.8	7,688	-6.6	348,377,490	6.0
2004	2,693	-9.5	590,856,000	-4.4	7,244	-5.8	332,776,330	-4.5
2005	2,488	-7.6	697,398,000	18.0	6,898	-4.8	361,908,630	8.8
2006	2,563	3.0	798,551,000	14.5	7,034	2.0	412,859,130	14.1
2007	2,741	6.9	838,033,000	4.9	7,442	5.8	418,110,290	1.3
2008	2,979	8.7	851,445,000	1.6	7,928	6.5	432,932,640	3.5
2009	3,173	6.5	995,451,000	16.9	8,272	4.3	486,549,940	12.4
2010	3,472	9.4	1,046,132,000	5.1	8,850	7.0	494,497,110	1.6
2011	4,283	23.4	1,284,450,000	22.8	10,989	24.2	573,710,080	16.0
2012	4,386	2.4	775,650,000		11,185	1.8	420,794,090	

2. 교무금 납부 실태

(2012. 8. 15. 기준)

• 교무금 책정 현황

책정액	인원	책정액	인원	책정액	인원	책정액	인원
~10,000	26	10,000	218	20,000	304	30,000	376
40,000	88	50,000	501	60,000	55	70,000	62
80,000	34	90,000	7	100,000	287	110,000	15
120,000	21	130,000	5	140,000	6	150,000	43
160,000	2	170,000	7	180,000	4	200,000	47
220,000	5	240,000	1	250,000	10	300,000	22
350,000	1	400,000	4	410,000	1	500,000	3
600,000	1	700,000	1				

• 구역별 교무금 책정 및 납부 현황

지역	총세대수	책정세대	책정수	미책정세대	책정비율(%)	납부세대	납부율(%)
01구역	248	126	129	122	50.8	120	48.4
02구역	203	120	124	83	59.1	118	58.1
03구역	157	100	102	57	63.7	100	63.7
04구역	271	139	145	132	51.3	135	49.8
05구역	220	125	130	95	56.8	123	55.9
06구역	170	105	107	65	61.8	104	61.2
07구역	223	117	121	106	52.5	117	52.5
08구역	108	49	53	59	45.4	49	45.4
09구역	309	141	144	168	45.6	134	43.4
10구역	147	71	73	76	48.3	67	45.6
11구역	160	74	75	86	46.3	76	47.5
12구역	214	109	109	105	50.9	110	51.4
13구역	257	124	126	133	48.2	118	45.9
14구역	146	85	88	61	58.2	82	56.2
15구역	153	71	75	82	46.4	66	43.1
16구역	190	88	89	102	46.3	88	46.3
17구역	197	116	118	81	58.9	116	58.9
구역외	799	88	90	711	11.0	81	10.1
거주불명	223	0	0	223	0	0	0
합 계	4395	1848	1898	2547	42.0	1,804	41.0

• 년도별 주요 수입 현황

년도	교무금	주일헌금	특별헌금	기부금	기타	계
1982	33,673,770	46,598,740	6,690,430	228,350,000	1,115,746	316,428,686
1983	65,827,500	78,306,575	20,978,410	191,763,806	17,827,188	374,703,479
1984	88,246,000	102,967,631	26,030,748	115,148,826	16,992,712	349,385,917
1985	114,410,000	116,587,522	26,603,693	1,593,565	86,801,224	345,996,004
1986	136,690,000	130,837,662	26,545,710	481,081,630	53,502,585	828,657,587
1987	162,367,000	141,510,737	15,370,989	648,159,304	454,040,176	1,421,448,206
1988	203,255,500	174,349,455	13,877,160	86,913,465	24,578,753	502,974,333
1989	271,768,500	227,661,170	23,506,080	36,650,000	1,129,064	560,714,814
1990	325,534,000	269,118,710	27,476,800	37,428,400	10,782,413	670,340,323
1991	388,479,000	330,513,460	34,001,850	61,825,520	9,898,960	824,718,790
1992	457,334,000	372,232,350	37,174,780	57,705,480	8,065,656	932,512,266
1993	526,827,000	388,871,270	46,672,770	79,638,400	8,820,200	1,050,829,640
1994	574,099,000	381,789,800	46,736,190	82,696,110	20,039,522	1,105,360,622
1995	634,788,000	407,276,380	45,264,120	94,949,780	55,486,161	1,237,764,441
1996	677,300,000	422,975,740	50,569,600	57,940,020	90,581,716	1,299,367,076
1997	726,141,000	412,259,360	50,711,570	885,735,700	364,741,375	2,439,589,005
1998	642,632,000	394,567,440	61,994,860	2,877,920,523	1,423,087,618	5,400,202,441
1999	522,643,000	306,636,980	33,608,480	107,550,680	229,232,205	1,199,671,345
2000	547,776,000	310,808,130	29,960,200	181,969,330	193,642,397	1,264,156,057
2001	564,893,000	317,592,440	38,834,000	52,807,150	184,635,337	1,158,761,927
2002	584,373,000	328,588,710	46,496,660	52,548,350	284,993,405	1,297,000,125
2003	618,299,500	348,377,490	53,823,700	46,897,450	258,383,013	1,325,781,153
2004	590,856,000	332,776,330	55,670,000	46,281,100	325,745,093	1,351,328,523
2005	697,398,000	361,908,630	58,859,500	65,621,952	566,637,016	1,750,425,098
2006	798,551,000	412,859,130	67,423,100	91,970,110	494,958,622	1,865,761,962
2007	838,033,000	418,110,290	69,196,400	80,089,750	696,313,792	2,101,743,232
2008	851,445,000	432,932,640	68,227,950	22,634,850	528,864,419	1,904,104,859
2009	995,451,000	486,549,940	77,364,840	169,979,800	530,826,673	2,260,172,253
2010	1,046,132,000	494,497,110	118,741,840	450,386,800	488,827,668	2,598,585,418
2011	1,284,450,000	573,710,080	119,951,080	529,516,056	566,436,542	3,074,063,758
2012	775,650,000	420,794,090	49,879,930	299,577,200	300,986,767	1,846,887,987

7 성당 대지 및 건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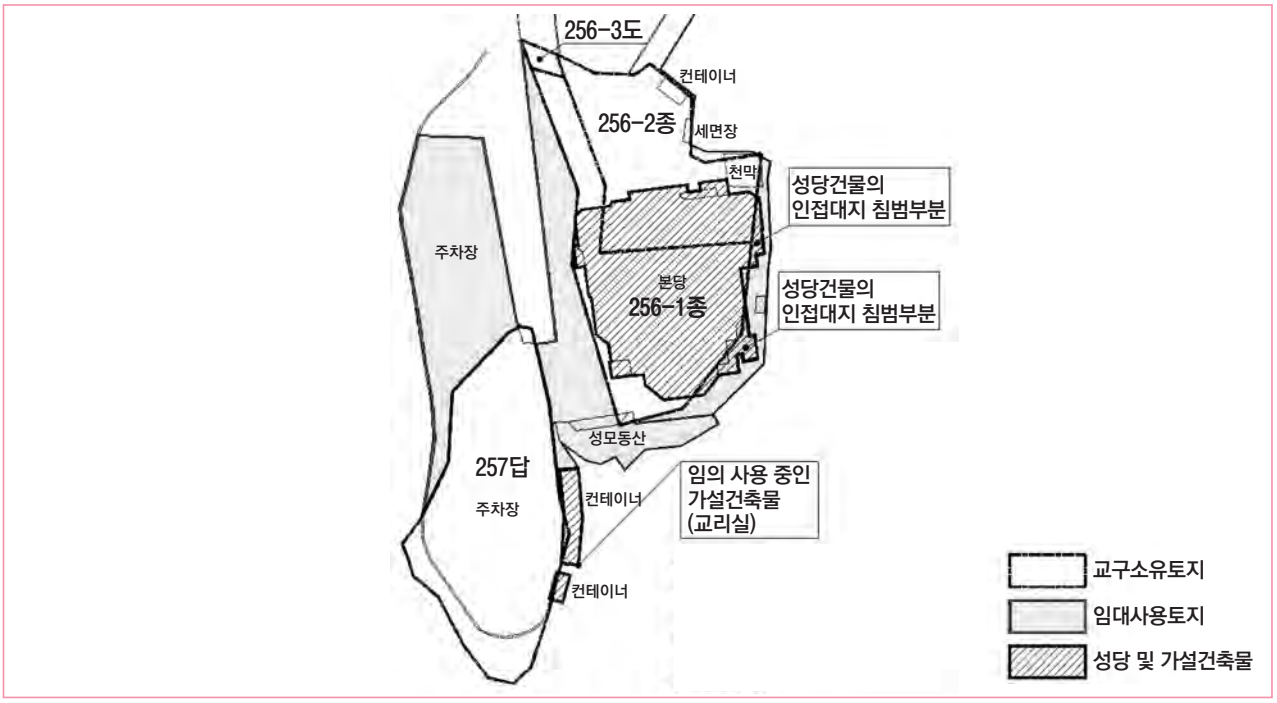
1. 대지

구 분	지 목	평 수	등기여부	비 고
본 당	종교용지	739	등기했음	방배3동 256-1, 2, 3번지
기 타	답	497	등기했음	방배3동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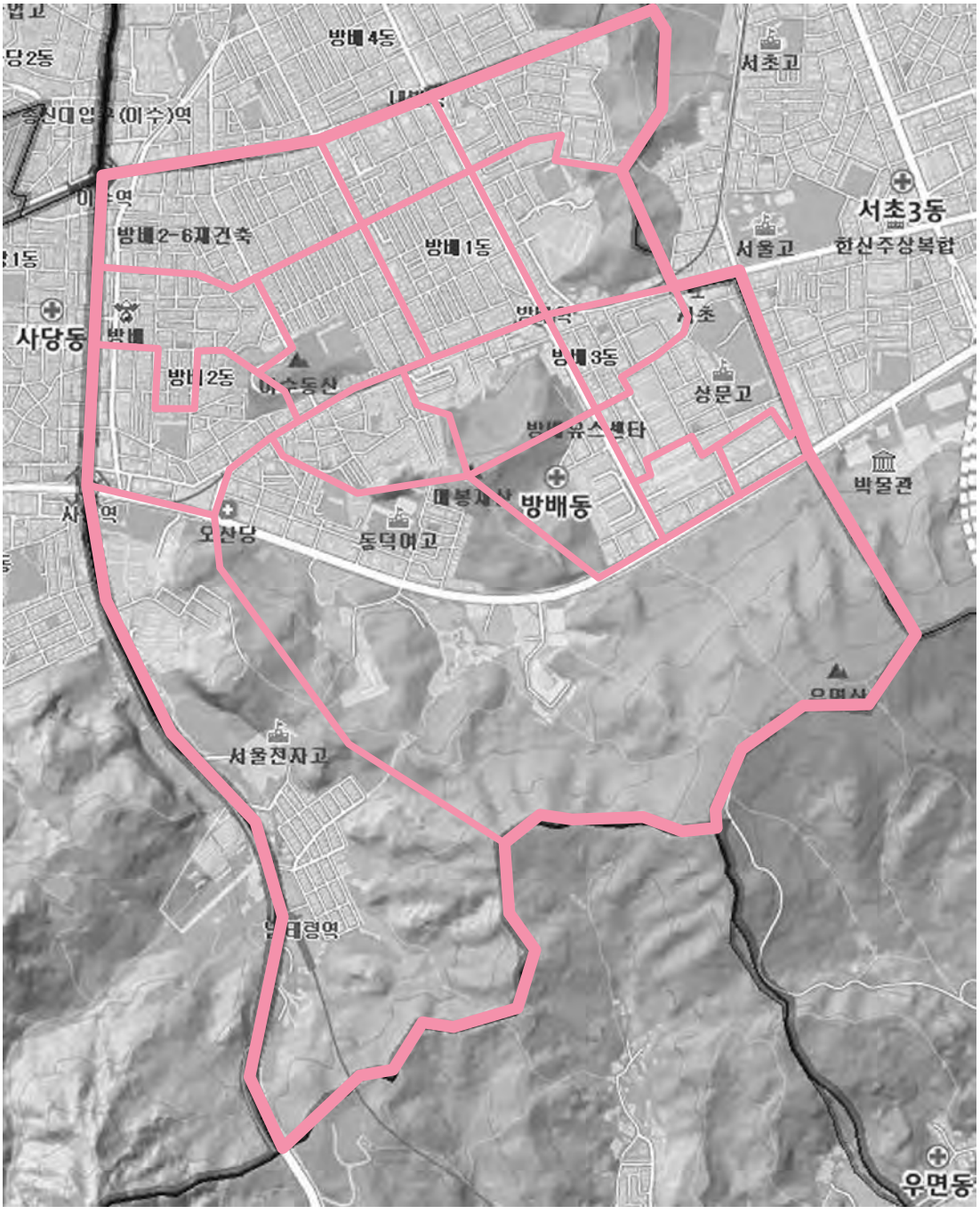
2. 건물

구 분	건평수	수용인원	등기여부	비 고
성 당	968 평	1,607	미등기	※ 인접 대지 점유 부분 미결 상태
사 제 관	96 평	4		
수 녀 원	48 평	3		
교 리 실	(성당지하 1층)	(360)		
총 건평수	1,112 평			

3. 건물 배치도 ('09년 1월 토목업체의 현황측량 성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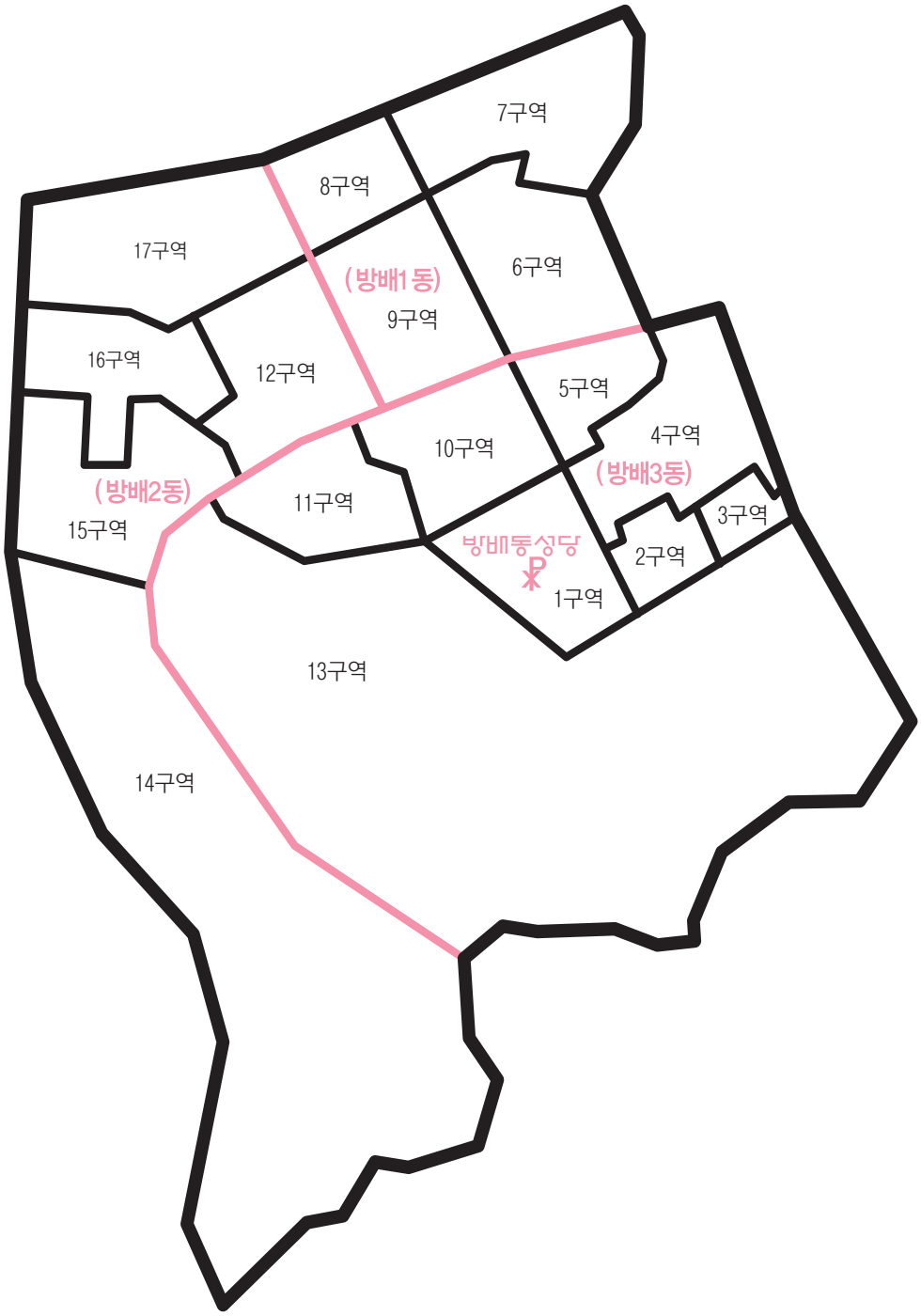


8 관할 구역도


방배4동
서초고
서초3동
한신주상복합
서울고
방배1동
방배2-6재건축
사당동
방배
방배2동
방배3동
상문고
박물관
방배동
오산당
동덕여고
서울전자고
우면동

9 구역 배치도

1. 구역도


7구역
8구역
17구역
(방배1동)
6구역
9구역
16구역
12구역
5구역
10구역
4구역
(방배3동)
(방배2동)
11구역
3구역
15구역
방배동성당
2구역
1구역
13구역
14구역

2. 구역별 주요시설

동	구역	구분(번지, 주요건물 시설)
3동	1구역	1026-1031 경남, 신동아럭스빌, 대우로얄즈, 공작빌라트, 삼호한숲
	2구역	1009-1011, 1015, 1025 임광아파트
	3구역	1007-1008 삼성래미안아트힐
	4구역	992-1006, 1018-1020, 1023-1024 삼익A, 서초중앙하이츠, 금호어울림, 서초ESA, 삼환나뜨르빌, 상문고등학교
	5구역	983-988, 991, 1021-1022 신동아아파트, 청광, 방배3동사무소
	10구역	981-982, 1032, 1038 대우효령, 현대맴피스, 브라운스톤, 대우, 백석대학교
	11구역	529, 530(북), 537, 539, 541, 980(7-14) 구름다리, 방배패밀리, 어린이공원
	13구역	476-490, 530(남), 553-651, 우면산 방배래미안타워, 대림아트e-편한세상, 대우, 오산당병원, 방현초교, 동덕여중고
1동	6구역	167-190, 902-906, 990 서리풀e-편한세상, 한화, 방배아파트, 방일초등학교, 효령대군묘소(청권사)
	7구역	141-150, 883-901 대림아파트, 황실자이, 엘지자이, CJ나인, 브라운스톤, 롯데캐슬
	8구역	321-338, 931-941 금강그리빌, 남양연립, 외환은행
	9구역	909-930 흥아, 대림아크로타워, 동용미래푸메, 방배1동사무소
2동	12구역	964-969, 972-979, 980(7-14제외) 이수중학교, 롯데하이츠, 삼영주택, 동화마을, 삼우, 신구, 청암빌라트, 방배오피스텔
	14구역	511-512, 2525-3240 전원마을, 삼성래미안아파트, 우성아파트, 서초전자고교, 까리따스방배복지관
	15구역	441-454, 461-462, 467-475, 527-528, 531 이수초등학교, 서울메트로, 파스텔시티, 그린골프연습장, 방배2동사무소
	16구역	433-437, 439-440, 455-460, 463-465, 970-971 방배경찰서, 방배노인복지센터, 방배종합시장, 네스코뮤즈빌
	17구역	421-432, 438, 942-963, 3005, 3250 구산타워, 세앙아르비체, 신구드림하우스, 유니드, 실버하우스


조 명 희
2011. 1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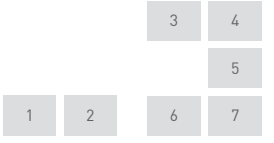
BANGBAEDONG CATHOLIC CHURCH

사진으로 보는 방배동 성당 30년사

1. 초대 김운회(루카) 주임신부(현 춘천교구장·주교) 사목시기
2. 제2대 김병학(라파엘) 주임신부 사목시기
3. 제3대 최준웅(바르나바) 주임신부 사목시기
4. 제4대 김영일(발타사르) 주임신부 사목시기
5. 제5대 임덕일(아마투스) 주임신부 사목시기
6. 제6대 이원규(마태오) 주임신부 사목시기



임시성당 기공식(1983. 4. 12)



01-02 김운회 신부님 부임(1982. 3.)
03 부활절 강론(1982. 4.)
04-06 성모의 밤 촛불 봉헌(1982. 5.)
07 첫영성체(1982. 6.)





































1 2 3 4 5 6 7 8 9 10 11

01-03 첫 야유회 방배샘터(1982. 7.)
04-07 미리내 성지순례(1982. 10.)
08-09 초등부 가을소풍 국립묘지(1982. 10.)
10-11 본당피정(1982. 11.)







1 2 3 4 5 6 7 8 9 10 11

01-05 토지 구입 후 김수환 추기경님 현장 방문(1982. 12.)
06-11 김수환 추기경님 본당 방문(1982. 12.)

















1 2 3 4 5 6 7 8 9 10 11

01-02 경갑룡 주교님 사목방문(1983. 2.)
03-06 초등부 첫영성체(1983. 2.)
07-10 임시성전 기공식(1983. 4.)
11 단체장 부부피정(1983. 4.)









제1대 김운회(루카) 주임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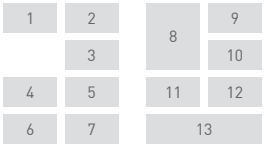












01-07 새성전 추기경님 방문기념(1987. 10.)
08-13 새성전 축성 기념 바자회(1987. 10.)


축
새성전축성식






기증품


방송실
운영회본부석



















1 2 3 4 5 6 7 8 9 10

01-07 새성전 축성미사(1987. 12.)
08-10 새성전 축성 기념 축하연(1987. 12.)





제1대 김운회(루카) 주임신부















1 2 3 4 5 6 7

01-07 새성전 준공 기념 한마당 잔치(1988. 5.)

제 2 대 1988 ~ 1993 김병학(라파엘) 주임신부 사목시기



김병학 신부님 부임하는 날(1988. 9. 8.)











1 2 3 4 5 6 7

01-07 김병학 신부님 부임 환영식(1988. 9.)









01-02 영세 기념(1988. 12.)
03-04 노인대학 수료식(1990. 4.)
05 영세식(1990. 7.)
06 첫영성체(1990. 9.)
07-08 김병학 주임신부 영명축일(1990. 9.)
09-12 초대보좌 원종현 신부 떠나시던 날 (1991. 2.)


























1 2 3 4 5 6 7 8

01-02 장희동 보좌신부 환영식(1991. 2.)
03-04 노인대학 수료식(1991. 4.)
05-08 한마당 잔치 야외미사(1991. 5.)

제2대 김병학(라파엘) 주임신부

















1 2 3 4 5 6 7 8 9

01-04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한마당잔치 장기자랑 및 레크레이션(1991. 5.)
05-08 성모의 밤(1991. 6.)
09 영세식 후 기념촬영(1991. 12.)





















01-08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 한마당잔치(1992. 9.)
09 성가대 음악 발표회 후 기념촬영(1993. 10.)


12 구역
14 구역
16 구역
13 구역
11 구역











새성전(방배4동) 건립 기공식(1997. 8. 30.)

1 2 3 4 5

01-05 주임신부님 영명축일(1994. 6.)












2 등 상


경 한마당 잔치 축


2 등 상
3 등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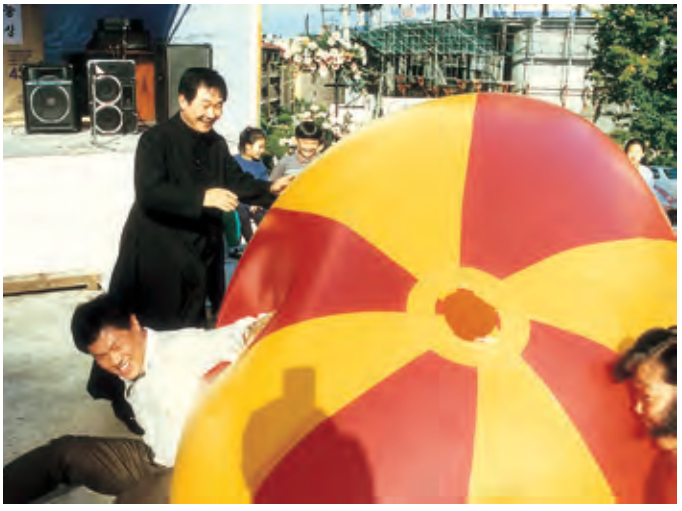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01-12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한마당잔치(1994. 10.)






시진동우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01-04 사진동우회 사진 전시회(1994. 10.)
05-06 견진성사 후 사진 촬영(1994. 11.)
07-08 성빈첸시오 창립(1994. 11.)
09-12 추기경님 본당 방문(1995. 3.)













1 2 3 4 5 6 7 8 9 10 11

01-02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자원봉사 현장 방문(1995. 6.)
03-04 영성체 기념(1995. 10.)
05 견진성사 기념(1995. 11. 11)
06-08 오인섭 보좌신부님 환영식(1995. 12.)
09-11 세족례(1995. 4.)




오인섭토마신부님

















1 2 3 4 5 6

01-06 성모의 밤(1996. 5.)













1
2 5
3 4 6 7

01-04 김병선 사제 서품식(1996. 7.)
05-07 백운성당 농산물 판매(1996. 9.)














한마당축제


한마당축제


한마당축제







01-09 본당 공동체 친교를 위한 한마당잔치(1996. 10.)




YAMAHA






YAMAHA






1 2 6 7
3 8 9
4 5

01-05 외짝교우 초대 환영식 및 만찬(1996. 10.)
06-09 성모의 밤(1997. 5.)







1 2 3 4 5 6 7 8 9

01-03 조유관 사제서품 후 첫미사(1997. 7.)
04-09 방배4동 본당 신설 기공식(1997. 8.)






본당 성전 기공식
축


경
신설예정본당 성전 기공식
축
•집전: 최 창 무 (안드레아) 주교님
•일시: 1997년 8월 30일(토) 오후 5시 30분




신설예정본당 성전 기공식
축
예정본당 성전 기공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01-07 본당설립 15주년 기념 한마당축제(1997. 10.)
08-13 성탄미사(1997. 12.)










시리이 말씀이 사람
트라되 디입세서 게우











1 2

3

01-03 울뜨레야 송년의 밤(1997. 12.)









미리내 성지순례 야외미사(2000. 6.)

1 2

01-02 성모의 밤(1999. 5.)





제4대 김영일(발타사르) 주임신부























1 2 3 4 5 6 7 8 9 10 11

01 조신형 신부님과 레지오 야유회(1999. 9.)
02-05 노인대학 야외 소풍 행사(1999. 10.)
06 노인대학 수료식(1999. 11.)
07-11 백운성당 무료진료봉사(1998. 11.)







축
공
하
연











1 2 3 4 5 6 7 8 9 10 11

01-04 레지오 단원들 근로봉사(1999. 11.)
05-08 공경하올 어머니 cu.
연차 총 친목회(99. 12.)
09-11 조신형 보좌신부 이임(2000. 2.)







1 2 3 4 5 6 7 8 9 10 11

01-03 양경모 보좌신부 부임(2000. 2.)
04-05 김영일 신부님 서품 40주년 축하연(2000. 3.)
06-11 성모의 밤(200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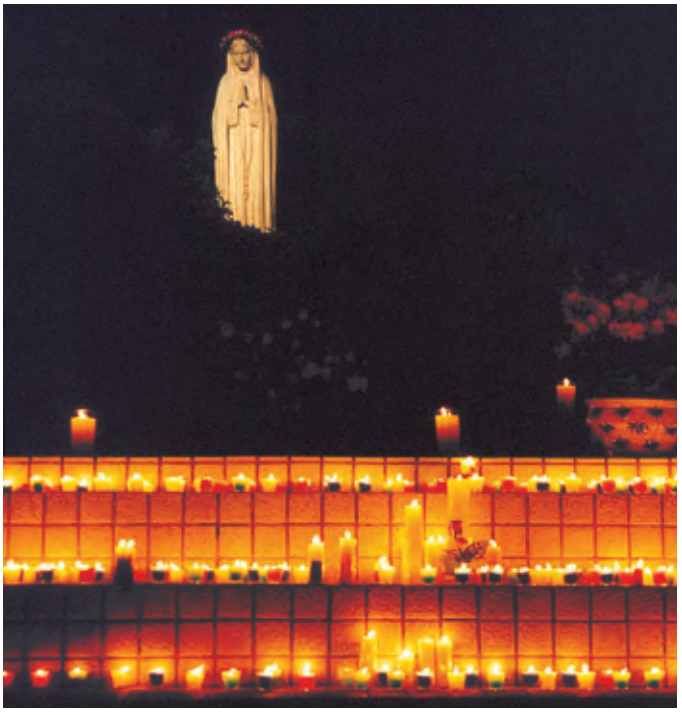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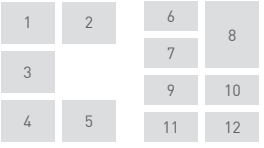












01-05 예비자 입교식(2000. 5.)
06-12 견진성사(2000.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01 성모의 밤(2000. 5.)
02-07 대희년맞이 전신자 미리내 성지순례(2000. 6.)
08-12 성체현양조배(2001. 4.)

























1 2 3 4 5 6 7 8 9 10 11

01-03 본당의 날 행사(2001. 5.)
04-05 노인대학 웃어른 모시는 날(2001. 5.)
06-11 신부님, 수녀님 합동영명축일(2001. 7.)


















1 2
3
4 5

01-04 성탄미사(2001. 12.)
05 신부님과 함께(2002. 7.)







부활절 특별미사 중(2005.)

1 2

01-02 정월대보름 윷놀이(2005. 2.)

























01-04 부활절(2005. 3.)
05-07 본트랩 칠드런의 사운드 오브 뮤직 콘서트(2005. 4.)
08-09 성모의 밤 행사(200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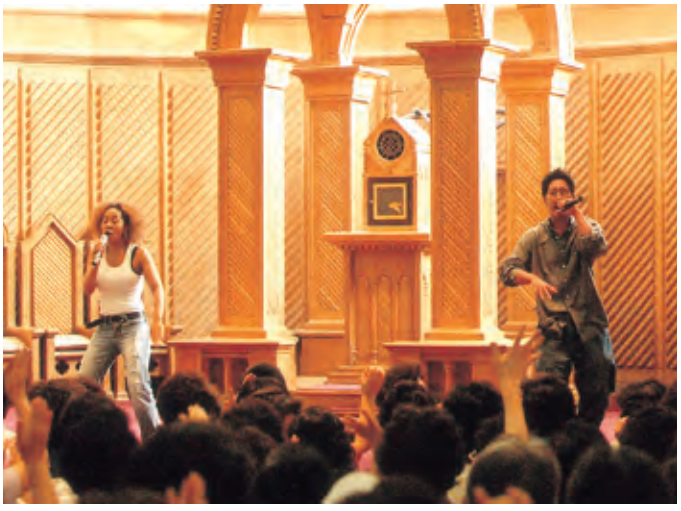


1 2 6 7
3 8 9
4 5 10 11

01-05 웃어른 모시는 날(2005. 5.)
06-08 첫영성체(2005. 5.)
09-11 사랑의 징검다리 인순이 콘서트 (2005. 8.)


















01-03 부제 서품식(2005. 12.)
04-05 영세식(2005. 12.)
06-08 성탄행사(2005. 12)
09 옹기마을 공연(2006. 1.)
10-12 윷놀이(2006. 2.)










대보름맞이 구역 친선 윷놀이 대회




13구역
12구역
11구역
10구역
9구역
8구역
7구역
6구역
5구역
4구역
3구역
2구역
1구역











1	2	8	9
3	4	10	
	5	11	12
6	7	13	14

01 성모의 밤(2006. 5.)
02-04 12지구 청년음악제(2006. 5.)
05-06 웃어른 모시는 날(2006. 5.)
07 첫영성체(2006. 5.)
08 옹기마을(2006. 7.)
09 예따사 정기공연(2006. 8.)
10-14 본당의 날 야외행사(2006. 10.)












경
본당의 날 야외행사
축


경
본당의 날 야외행사
축




9구역








성경필사는 기도이며,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 성경필사에 임하는 마음가짐 >











1 2 7 8
3 4 9
5 6 10 11

01 성가대 발표회(2006. 11.)
02 최형규 보좌신부님 오신 날(2006. 11.)
03-11 본당 창립 25주년 개막미사 (2007.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01 부활절 세족례(2007. 4.)
02 영세식(2007. 4.)
03 레지오 친목회(2007. 4.)
04-10 나바위 성지(2007. 5.)
11-12 첫영성체(2007. 5.)






나바위성지 야외미사


나바위성지 야외미사

















1 2 3 4 5 6 7 8 9 10

01-02 청년캠프(2007. 7.)
03 성모성월대축일 돔 공개행사(2007. 5.)
04 상무교회 건설모금미사(2007. 9.)
05-06 본당의 날 행사(2007. 10.)
07-08 작은음악회(2007. 11.)
09 마감미사(2007. 12.)
10 성탄미사(2007. 12.)




경
본당설립
25주년기념
한마당잔치
축


7구역
















INRI

















1 2 3 4 5 6 7 8 9 10 11 12

01 영세식(2008. 3.)
02-03 부활절(2008. 3.)
04 첫영성체(2008. 5.)
05-06 사목위원 이임식(2008. 6.)
07-08 본당출신 사제서품식(2008. 6.)
09-12 조민환 신부님 첫미사(200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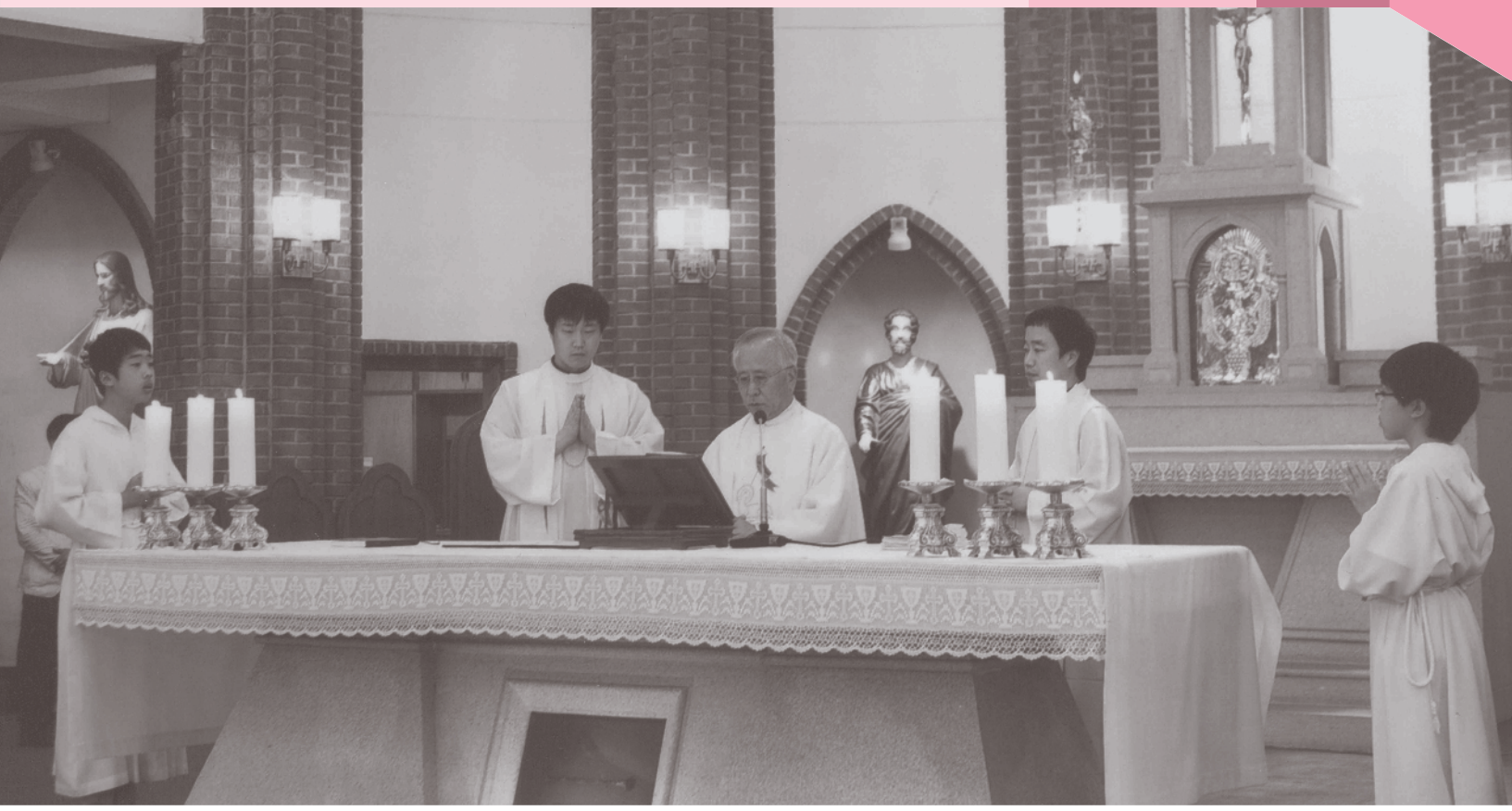






1 2
3 4

01-02 천상의 모후 pr. 1000차 주회
03-04 예따사 공연(2008. 8.)



대성당 미사



1 2

01-02 주임신부님 부임(2008. 9.)























1 2 3 4 5 6 7 8 9 10 11 12

01-02 옹기마을 공연(2008. 9.)
03-04 체육대회(2008. 10.)
05-06 영세식(2008. 11.)
07 미션 볼링 클럽(2009. 1.)
08-10 구정 민속놀이(2009. 2.)
11-12 부활절(2009. 4.)








웃어른 모시는날
방배동성당


웃어른 모시는날
방배동성당


웃어른 모시는날
방배동성당


웃어른 모시는날
방배동성당









1 2 3 4 5 6 7 8 9 10 11

01-06 웃어른 모시는 날(2009. 5.)
07-08 빈첸시오 재창립회(2009. 5.)
09-11 첫영성체 미사(2009. 5.)







1 6 7
2 3 8 9
4 5 10 11

01 견진성사 기념(2009. 5.)
02-03 성체조배실 축성식(2009. 7.)
04-05 청년캠프(2009. 8.)
06-08 청년단체 예따사 공연 기념(2009. 8.)
09-11 주임신부님 축일(2009. 9.)


















HAPPY DAY











1	2	8	9
3	4	10	11
5	6	12	13
	7	14	15

01-02 청년성가대 아나빔(2009. 11.)
03-04 김범준 보좌신부님 이임(2009. 11.)
05-06 곽희태 보좌신부님 이임(2009. 11.)
07 미션 볼링동호회 연말결선전 참가(2009. 12.)
08-09 성탄전야미사(2009. 12.)
10-12 성지가지 축성(2010. 3.)
13-15 상투스 성가대(2010. 3.)














1 2 3 4 5 6 7 8 9 10

01-02 성모의 밤(2010. 5.)
03-08 베론성지순례(2010. 6.)
09-10 영세식(2010. 7.)























1 2 6 7
3 8 9
4 5 10 11

01-02 벨기에 합주단 연주회(2010. 8.)
03 수녀님 가시는 날(2010. 8.)
04-05 바자회(2010. 10.)
06 청년성가대 발표회(2010. 11.)
07 청년성가대 발표회 중
곽희태 신부님 기타 독주(2010. 11.)
08 음악회(2010. 12.)
09-11 이희천 신부님 사제서품(2011. 2.)






















1 2 3 4 5 6 7 8 9 10

01 신광수 2보좌신부 이임(2011. 2.)
02 김경진 2보좌신부 부임(2011. 2.)
03-04 연도대회(2011. 11.)
05-06 성가대 합동공연(2011. 12.)
07-08 성탄미사(2011. 12.)
09 곽희태 1보좌신부 이임(2012. 2.)
10 이재학 1보좌신부 부임(2012.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01-05 부활절(2012. 4.)
06-07 성령기도회 주간모임
08-09 성서100주간 회합
10 꽃꽂이회 회합
11-12 야우름성가단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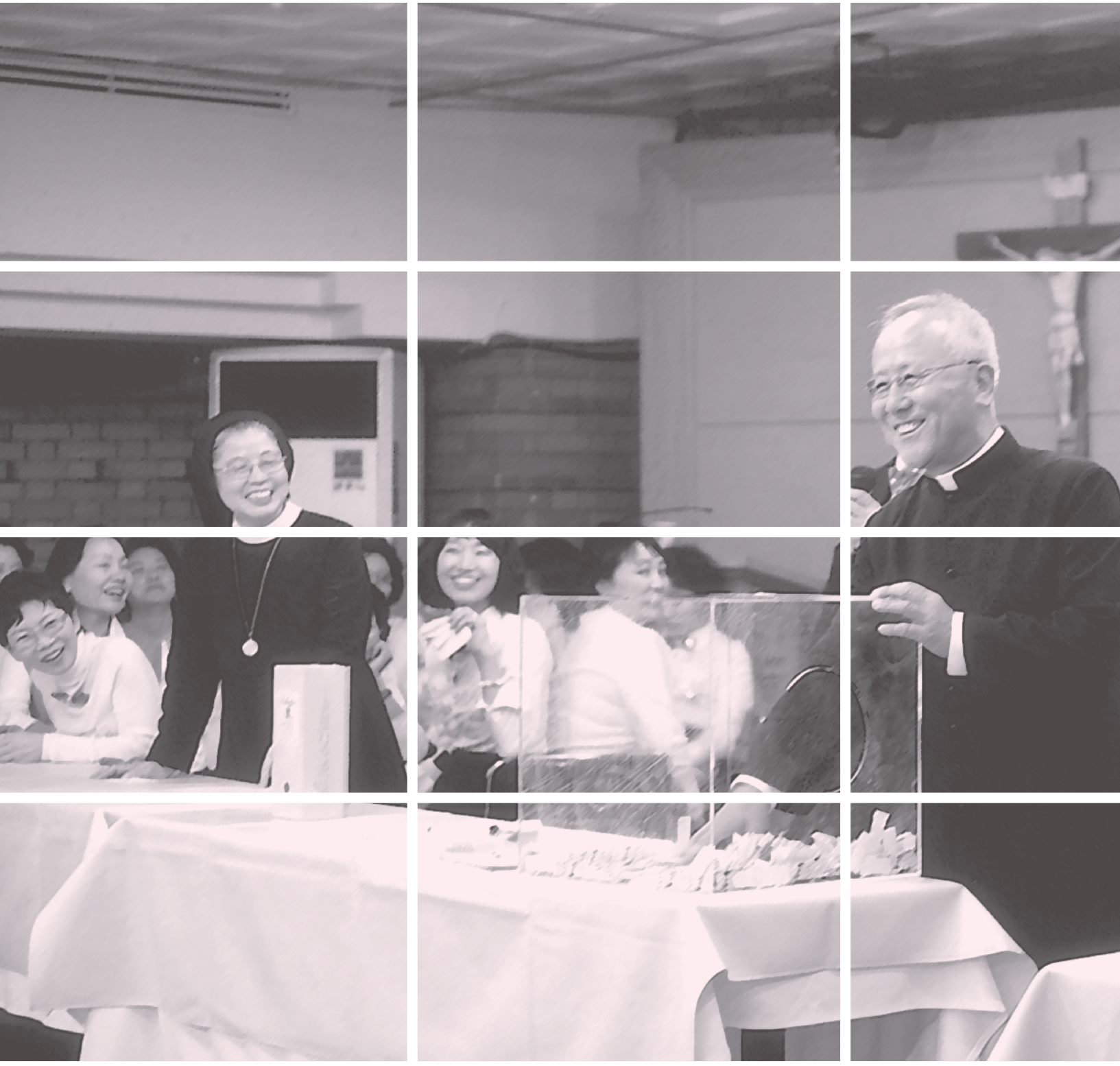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01 ME 모임
02 ME 주말체험 수료를 마치며
03 전례분과 모임
04-06 연령회 선종봉사
07-08 초등부 활동





방배동 성당
설립 30주년
기념 행사
화보 모음


미리내성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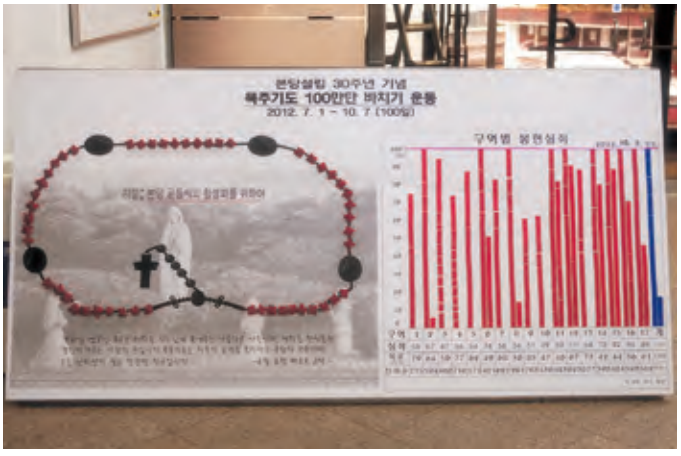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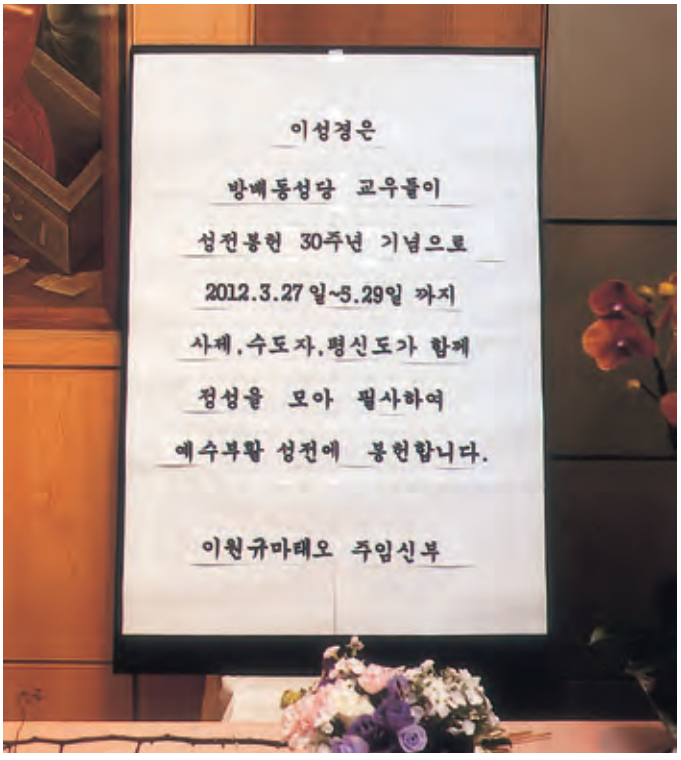


1	2	7	9
3	4	8	
5	6		10

01 미리내성지 도착(2012. 5.)
02-04 14처로 이동하여 기도
05-06 청년단체 공연
07-09 미리내성지 대성당 미사
10 점심 식사













01 묵주기도 100만단 바치기 운동
02-04 성경 필사
05-12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체육대회(2012. 9.)

















1 2 3 4 5 6 7 8 9 10 11

01-06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체육대회(2012. 9.)
07-11 주일학교 글짓기 사생대회 및 전시회(2012.10.)


하느님사랑
삼계명
사진




하느님사랑
사진




본당 30 주년
Funny Festival
내가 짱!
짱!


1차 15:00시
2차 21:30
행운권 추첨함




2차 21:30











1 2 3 4 5 6 7 8 9 10

01-10 빈첸시오 기금마련
자선까페(2012.10.)


















1 2 3 4 5 6 7 8 9

01-06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음악회(2012. 10.)
07-09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음악 피정(2012. 10.)



















1 2 7 8
3 4 9
5 6 10 11

01-02 30주년 기념 특별미사(2012. 10.)
– 추기경님 환영
03 김운회 주교님 환영
04 김병학 신부님 환영
05 임덕일 신부님 환영
06 추기경님 미사 집전 입장
07-11 30주년 기념 특별미사 중










주교님
주임신부님











01 30주년 기념 특별미사 중(2012. 10.)
02 추기경님 미사 후 퇴장
03-04 미사 후 만찬
05 행사 종료 후
06-07 30년사 편찬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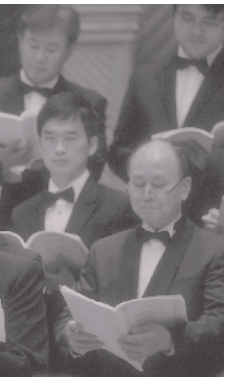









2012









04

BANGBAEDONG CATHOLIC CHURCH

평신도 사도직 단체

1. 사목협의회 구성 현황
2. 분과위원회 및 소속 단체 구성 현황
3. 구역 구성 현황
4. 레지오 마리애 구성 현황

1 사목협의회 구성 현황

1. 자문위원단

• 자문위원

김종세(그레고리오), 지태욱(요셉), 이춘(가브리엘), 김호길(마태오), 최상철(요한), 한상헌(스테파노)

2. 회장단/상임위원

소속분과	성명	소속분과	성명
총 회 장	하상도(대건 안드레아)	재정분과 위원장	박광수(레오)
부 회 장	최현태(요셉)	전례분과 위원장	김정은(안젤라)
부 회 장	주용식(바오로)	선교분과 위원장	김성숙(안나)
부 회 장	이창진(요셉)	교육분과 위원장	최영섭(요셉)
부 회 장	이영숙(스콜라스티카)	사회복지분과 위원장	유승진(루카)
총 무	홍기탁(요셉)	가정분과 위원장	노병희(체칠리아)
부 총 무	최상열(미카엘)	노인분과 위원장	방용주(리고리오)
부 총 무	김순주(크리스티나)	청소년분과 위원장	이성용(세레노)
남성 총구역장	김태곤(대건 안드레아)	청년분과 위원장	이종운(베르나르디노)
여성 총구역장	강인희(아녜스)	시설관리분과 위원장	김연웅(프란치스코)



3. 위원 및 단체장

소속분과	단체명	직책	성명	소속분과	단체명	직책	성명
남성 총구역		부총구역장	이무관(치릴로)	사회복지 분과		위원	이난훈(수산나)
		부총구역장	박진희(골룸바노)			위원	이재연(오포루투나)
		총무	강지흔(안드레아)		애덕회	회장	김옥진(루갈다)
여성 총구역		부총구역장	김영자(올리바)		빈첸시오	회장	최재행(레오)
		회계	송명자(에스텔)	가정분과	M.E대표(겸)	부위원장	김익환(모세)
재정분과		부위원장	박경식(도미니코)		M.E대표(겸)	총무	조명순(마리안나)
		위원	박진희(골룸바노)		첫영성체교리교사(겸)	위원	이연화(글라라)
전례분과		부위원장	오미숙(체칠리아)			위원	인연숙(베르나르디나)
	전례단	단장	오미숙(체칠리아)			위원	함안숙(유스티나)
	상투스 성가단	단장	최병욱(스테파노)			위원	오영임(데레사)
	아우름 성가단	단장	배긍면(미카엘)	노인분과		부위원장	조기선(요한)
	반주단	단장	한희정(요안나)			총무	고영배(프란치스코)
	성찬봉사회	회장	한상헌(스테파노)		노인대학	학장	지태욱(요셉)
	제대회	회장	김미정(젤마나)	청소년 분과		부위원장	엄운숙(소피아)
	꽃꽂이회	회장	안애순(율리아)		중고등부	교감	김다연(엘리사벳)
선교분과		부위원장	한선옥(안나)		중고등부	대표교사	서시영(소화 데레사)
		총무	이규순(아녜스)		초등부	교감	배정은(요세피나)
	연령회	회장	최현태(요셉)		초등부	대표교사	장은성(젬마)
	교리봉사자회	대표	이영순(안젤라)		중고등부 자모회	회장	박희라(마리아)
	겸손하신 모후 꾸리아	단장	이상우(안토니오)		초등부 자모회	회장	김정수(체칠리아)
	천주의 성모 꾸리아	단장	문병규(즈가리야)	청년분과		부위원장	박민철(라파엘)
	자비의 성모 꾸리아	단장	전민원(바오로)			청년회장	박수현(율리안나)
	파티마의 성모 꾸리아	단장	원혜연(안나)			청년부회장	김선우(알버트)
	공경하올 어머니 꾸리아	단장	전이숙(효주 아녜스)			청년총무	김윤택(빅토리노)
	순결하신 모후 꾸리아	단장	김현주(데메트리아)		청년전례단(쉐마)	단장	박태규(미카엘)
교육분과		부위원장	허현회(토마)		청년연극단(옹기마을)	단장	나소해(아나스타시아)
		위원	이재우(미카엘)		청년봉사단(동살)	단장	이창헌(바오로)
	울뜨레야	간사	박상권(베드로)		생활성가단(예따사)	단장	우주성(바오로)
	가톨릭성서모임	대표	최은혜(체칠리아)		청년성가단(아나빔)	단장	손성민(렘베르토)
	성서백주간	대표	정길남(비비안나)		청년레지오(즐거움의 원천)	단장	최보영(안나)
	성령기도회	대표	임성희(루치아)		청년레지오(믿음의 샘)	단장	최선영(데레사)
	성소후원회	대표	신정옥(모니카)		청년성서모임(태멘)	대표	전서진(레베카)
사회복지 분과		부위원장	최복순(마리아 막달레나)		청년복사단	단장	김윤택(빅토리노)
		총무	임미숙(엘리사벳)	시설관리분과		부위원장	최형일(스테파노)
		위원	이세영(모니카)				

2 분과위원회 및 소속 단체 구성 현황

총무단

1. 기본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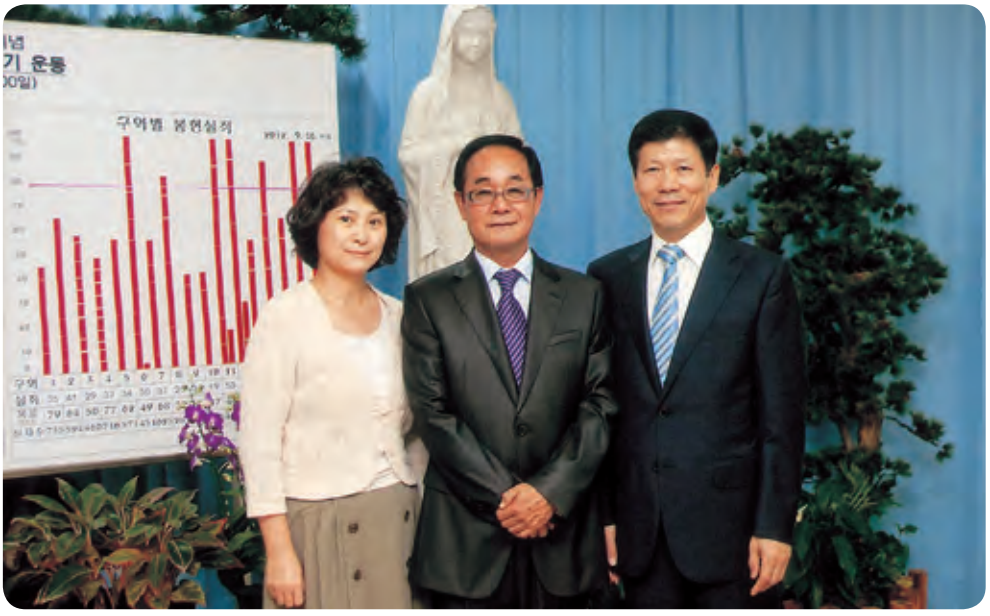
사목협의회 회장을 보좌하여 각 분과위원회 업무를 취합 조정하고 그 집행을 지원한다.

2. 세부업무

- 모든 기획과 집행 관리
- 각종 회의 소집 진행 및 안건 자료 정리
- 회의록의 기록과 보존
- 분과위 업무 계획 및 집행 사항의 취합
- 본당 행사 및 사업에 대한 제반 관리
- 각종 행사의 사진촬영 및 기록 유지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총 무	홍기탁(요셉)
부 총 무	최상열(미카엘)
부 총 무	김순주(크리스티나)



재정분과 위원회

1. 기본직무

본당의 모든 활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이고 명확한 예산 집행으로 제반 사목활동 활성화에 적극 기여한다.

2. 세부업무

- 재정 계획의 수립과 집행 관리
- 집행 예산에 대한 감사
- 집행예산의 통계관리
- 교무금과 헌금의 변화 관리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위 원 장	박광수(레오)
부 위 원 장	박경식(도미니코)
위 원	박진희(골룸바노)



전례분과 위원회

1. 기본직무

미사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기쁘게 봉헌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전례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전례 관련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2. 세부업무

- 각종 전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전례 교육의 활성화
- 미사 참례 및 성체조배의 생활화
- 전례봉사단 운영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위 원 장	김정은(안젤라)
부 위 원 장	오미숙(체칠리아)
단 체 장	
전례단 단장	오미숙(체칠리아)
상투스성가단 단장	최병욱(스테파노)
아우름성가단 단장	배긍면(미카엘)
반주단 단장	한희정(요안나)
성찬봉사회 회장	한상헌(스테파노)
제대회 회장	김미정(젤마나)
꽃꽂이회 회장	안애순(율리아)



전례단

1. 기본 설립목적

본당의 모든 전례해설 봉사를 통해 신자들이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완전한 미사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2. 활동내용

- 각종 미사에 전례 해설 참여
- 본당의 행사에 미사와 전례 준비
- 전례단에 참여할 교우 모집 및 교육

3. 임원진 명단

직 책	성 명
단 장	오미숙(체칠리아)
부 단 장	신승도(사도 요한)
총 무	인연숙(베르나르디나)
회 계	박옥순(아가다)
서 기	권윤희(안젤라)

4. 역대 단장

기 간	성 명
1983~1984	정연진(마태오)
1985	이성진(로마노)
1986	김기진(안토니오)
1987	정연진(마태오)
1988	이성진(로마노)
1989	엄종석(토마스)
1990~1991	조용부(베드로)
1992~1994	안용주(베드로)
1995~1996	천종욱(안셀모)
1997~1999	강창수(비오)
2000	이승우(시몬)
2001	김태웅(도로테오)
2002~2003	강창수(비오)
2004~2006	이순자(세레나)
2007~2008	이보라(바울라)
2009	안용순(엘프레다)
2010~2011	김정은(안젤라)
2012~현재	오미숙(세실리아)



상투스 성가단

1. 기본 설립목적

Sanctus는 "거룩하시다"라는 뜻으로 상투스 성가단은 성가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화합과 개인 성화를 바탕으로 주일미사에 전례 봉사를 하는 단체이다. 본당의 성가대는 1982년 8월에 처음 결성된 어머니 성가대를 모태로 하였으며 그 후 기혼남녀 4부 혼성 성가대로 발전하였다. 성가를 통하여 하느님을 찬미하고 미사를 더욱 아름답게 봉헌할 수 있도록 한다.

2. 활동내용

- 교중미사의 전례에 맞춘 성가 봉사
- 각종 성가 행사에 본당을 대표하여 참여
- 단원의 모집과 관리, 매주 1회 정기 연습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직 책	성 명
단 장	최병욱(스테파노)	반 주 자	유현진(미카엘라)
부단장	최상열(미카엘)	악 보 장	이은숙(글라라)
부단장	유제연(가타리나)	소 프 라 노	이경희(엘리사벳)
총 무	조성길(마태오)	알토 파트장	정선희(안나)
총 무	이효열(분다)	테너 파트장	이재우(미카엘)
지휘자	최용호(프란치스코)	베이스 파트장	김성일(요셉)
단원 구성			
소프라노 19명, 알토 17명, 테너 9명, 베이스 9명			

4. 역대 단장

기 간	성 명	기 간	성 명
1983	전양선(벨라뎃다)	1998~1999	이충성(베드로)
1984	이문자(안젤라)	2000~2001	변성남(가브리엘)
1985~1986	신명철(실베스텔)	2002~2003	천성호(베드로)
1987~1988	전대석(알로이시오)	2004~2005	김정호(요셉)
1989~1990	이세형(베드로)	2006~2007	유인섭(파비아노)
1991	이춘(가브리엘)	2008~2009	김치문(야고보)
1992~1993	박상설(마태오)	2010	조성기(바오로)
1994~1995	함의신(요한)	2011	이종석(유스티노)
1996~1997	박대규(안드레아)	2012	최병욱(스테파노)



아우름 성가단

1. 기본 설립목적

성가를 통하여 주님께 찬미를 드리는 아우름 성가단은 30~40대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2011년 11월에 설립되었다.

2. 활동내용

- 주일 저녁 7시 미사에 성가 봉사
- 매주 정기 연습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단 장	배긍면(미카엘)
부 단 장	박명순(글라라)
총 무	서명부(토마스 아퀴나스)
지 휘 자	김종기(프란치스코)
반 주 자	김진희(아드리아나)
악 보 장	주인선(엘리사벳)
소프라노 파트장	유해인(마리아)
알 토 파 트 장	정지인(에스텔)
베 이 스 파 트 장	정경두(베드로)



반주단

1. 기본 설립목적

오르간 반주를 통하여 거룩하고 품위 있는 분위기에서 미사봉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

2. 활동내용

- 각종 미사에서 성가 및 전례 반주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단 장	한희정(요안나)
총 단원 16명으로 구성	

4. 역대 단장

기 간	성 명
2004~2007	김현주(아네스)
2008~현재	한희정(요안나)



전례분과
위 원 회

성찬봉사회

1. 기본 설립목적

미사시 성체분배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대비하여 교구장이 적격한 신자를 지명,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주교의 명에 의하여 성체분배를 할 수 있도록 조직된 단체로서, 방배 본당은 2002년에 설립되었다.

2. 활동내용

- 각 미사시 신부님을 보좌하여 성체분배
- 월1회 월례 회합 (성체조배기도, 교육, 친교모임)
- 4년 임기 중 2년마다 갱신교육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회 장	한상헌(스테파노)
총 무	우상용(비오)
부 총 무	최주호(빈첸시오)
총회원수 35명	

4. 역대 회장

기 간	성 명
2002	김동진(암브로시오)
2003	김종세(그레고리오)
2004	김호길(마태오)
2007	조상원(베드로)
2008	허주열(바오로)
2009	최상철(요한)
2010	한상헌(스테파노)
2011	박황호(F.사베리오)
2012~현재	한상헌(스테파노)



제대회

1. 기본 설립목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의를 비롯한 미사제구를 정성들여 정결하게 관리함으로서 미사가 거룩하고 숭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단체

2. 활동내용

- 제의실 청소
- 제의관리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회 장	김미정(젤마나)
총 무	송은희(효주 아녜스)
총회원수 11명	

4. 역대 회장

기 간	성 명
2009~2011	송명자(에스텔)
2012~현재	김미정(젤마나)



전례 꽃꽂이회

1. 기본 설립목적

미사 전례의 의미와 상황에 알맞은 꽃 장식으로 제대를 꾸미고 그 상징을 표현하는 봉사단체로서 1996년부터 2개팀으로 구성하여 매주 봉사를 하고 있다.

2. 활동내용

- 전례 제대꽃 조성
- 혼배미사 꽃길 장식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회 장	안애순(율리아)
부 회 장	임미숙(비비안나)

4. 역대 회장

기 간	성 명
1996~현재	안애순(율리아)



선교분과 위원회

1. 기본직무

본당의 전체 교우들이 순교자적인 삶을 지향하고 개인 성화에 노력하며 이웃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도록 한다.

2. 세부업무

- 자기 성화를 통하여 선교활동을 강화
- 쉬는 교우들에 대한 본당 공동체의 관심과 노력
- 예비신자 교리 교육
- 새 가족 찾기 운동 전개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위 원 장	김성숙(안나)
부 위 원 장	한선옥(안나)
총 무	이규순(아녜스)
단 체 장	
연령회 회장	최현태(요셉)
교리봉사자회 대표	이영순(안젤라)
겸손하신모후cu. 단장	이상우(안토니오)
천주의성모cu. 단장	문병규(즈가리야)
자비의성모cu. 단장	전민원(바오로)
파티마의성모cu. 단장	원혜연(안나)
공경하올어머니cu. 단장	전이숙(효주 아녜스)
순결하신모후cu. 단장	김현주(데메트리아)



선교분과
위 원 회

연령회

1. 기본 설립목적

연령회는 교회 신자들의 임종과 운명, 염습과 입관, 위령기도(연도), 입관예절, 장례미사, 장지 수행 등 상장례 일체를 종합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이다.

1910년대에 들어 장례때 노동력의 제공과 미사 봉헌을 하는 등 오늘날의 연령회 활동의 기본틀이 형성되었다.

2. 활동내용

- 교우 임종시 장례 절차의 주선과 본당의 각 단체에 알림
- 전 신자 대상 연도교육 및 상가 방문 활성화 계몽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회 장	최현태(요셉)
부 회 장	김정자(아녜스)
총 무	조정희(카릿다스)
회 계	김원자(체칠리아)
총 회원수 20명	

4. 역대 회장

기 간	성 명
1982	김종실(가브리엘)
1983~1985	지진찬(안나)
1986~1989	임준남(헬레나)
1990~1992	이화규(요셉)
1993	이성진(로마노)
1994	송수현(율리오)
1995	김영희(루피나)
1996~1998	이선문(베드로)
1999	조상원(베드로)
2000~현재	최현태(요셉)



선교분과
위 원 회

예비신자 교리봉사회

1. 기본 설립목적

예비신자들에게 교리반 입교 후 올바른 교리와 진실된 하느님 말씀을 교육시킴으로써 천주교 신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초석을 놓는 봉사단체.

2. 활동내용

- 예비신자 교리반 편성 및 교리교육
- 예비신자 피정계획 및 진행
- 세례식, 고해성사 도움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대 표	이영순(안젤라)
총 무	윤혜원(가타리나)
총 회원수 10명	



교육분과 위원회

1. 기본직무

전 신자의 복음화 재교육과 연수 등 본당 차원의 교육계획 수립과 진행을 관장하고 하느님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화를 이루는 데 주력한다.

2. 세부업무

- 전 신자 대상 피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가정과 사회의 성화를 위한 단체(성경모임, 성령기도회, 울뜨레야 등) 모임 활성화 지원
- 그룹 성경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시행
- 신자 재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사순특강, 대림특강)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위 원 장	최영섭(요셉)
부 위 원 장	허현회(토마)
위 원	이재우(미카엘)
단 체 장	
울뜨레야 간사	박상권(베드로)
가톨릭성서모임 대표	최은혜(체칠리아)
성서백주간 대표	정길남(비비안나)
성령기도회 대표	임성희(루치아)
성소후원회	신정옥(모니카)



교육분과 위원회

울뜨레야

1. 기본 설립목적

하느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영혼을 새롭게 무장하는 은총을 누렸던 꾸르실리스타들이 본당에서도 굳건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세속의 삶 속에서 누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

2. 활동내용

- 울뜨레야 각종 회합(월 정기, 주 팀회합)의 개최
- 꾸르실료 체험자 선정과 지원
- 꾸르실료 봉사자 참가와 연례행사를 통한 친교 나눔의 장 마련
- 본당의 모든 단체 활성화에 역할
- 팀 주회합: 화요일 저녁(남성,여성팀), 수요일 새벽(남성팀), 수요일 오전(여성팀), 토요일 새벽(혼성팀)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간 사	박상권(베드로)
부간사(남)	박동규(스테파노)
부간사(여)	김현숙(엘리사벳)
총무(남)	박윤수(바오로)
총무(여)	안명숙(가타리나)

4. 역대 간사

기 간	성 명	기 간	성 명
1983	김연태(야고보)	1995~1996	정태수(그레고리오)
1984	이강수(바오로)	1997~1999	조상원(베드로)
1985~1986	정인화(안드레아)	2000~2001	박태호(미카엘)
1987~1988	최홍규(아우구스티노)	2002~2004	하태일(엘리지오)
1989~1990	지태욱(요셉)	2005~2008	조상원(베드로)
1991~1992	김병래(바오로)	2009~2011	변성호(바르도)
1993~1994	김영무(요셉)	2012~현재	박상권(베드로)



교육분과
위 원 회

가톨릭 성서모임

1. 기본 설립목적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과 성서를 목말라 하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녀회의 수녀들이 1971년 3월에 시작한 성서 생활화 운동 모임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단체.

2. 활동내용

- 그룹 성경공부를 통하여 신자들의 신앙교육을 지속
- 성경공부와 묵상과 체험 나누기를 통해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말씀의 봉사자 양성과 전례의 생활화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회 장	최은혜(체칠리아)
총 무	송은희(효주 아녜스)
총 봉사자 15명	

4. 역대 회장

기 간	성 명
1994~1997	김평례(세실리아)
1998	하영희(빅토리아)
1999	홍재숙(아가다)
2000	정영희(모니카)
2001	이복희(릿다)
2002~2003	이종요(데레사)
2004	홍순희(마리엣다)
2007~2008	최은혜(세실리아)
2009~2010	이복희(릿다)
2011~현재	최은혜(세실리아)



교육분과
위 원 회

성서백주간

1. 기본 설립목적

성서백주간 모임은 일본에서 45년간 선교사 생활을 하였던 파리외방선교회 소속의 마르셀 르 도르 신부님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992년 장익 주교님의 초청으로, 방배동 본당에서는 2004년에 설립된 단체이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을 이루어 배분표에 따라 성경을 읽고 매주 한 차례씩 봉사자의 진행으로 모임을 가져 구약과 신약 성경 전부를 읽고 묵상하며 생활화하는 모임.

2. 활동내용

- 매주 모임을 갖고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100주간 나누어 읽고 묵상함
- 봉사자 1명에 그룹원 8~10명으로 구성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회 장	정길남(비비안나)
총 무	정영숙(모니카)
총 봉사자 23명	

4. 역대 회장

기 간	성 명
2001	안광훈(즈가리아)
2007	김복선(로마나)
2009	김옥진(루갈다)
2011~현재	정길남(비비안나)



교육분과
위 원 회

성령기도회

1. 기본 설립목적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과 은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1984년 설립되었다.

본 기도회는 교구의 성령 쇄신 사목지침에 따라 지도신부의 협조 아래 매주 한 번의 기도회를 갖는다.

2. 활동내용

- 주 1회 기도회 개최
- 강의 말씀을 통하여 참여 신자 개개인의 영성생활 향상을 꾀함.
-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이웃을 방문, 기도와 위로를 나눔.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회 장	임성희(루치아)
부 회 장	송 영(소피아)
총 무	송명자(에스텔)
서 기	이영선(체칠리아)
회 계	장석미(막달레나)
총 봉사자 12명	

4. 역대 회장

기 간	성 명
1985	이호식(요한)
1986	이성구(안드레아)
1987	이정자(아녜스)
1988	김현자(스테파노)
19891992	황기연(고데프리도)
1993~1999	이성구(안드레아)
2000~2001	김창자(소피아)
2002~2005	이순임(스콜라스티카)
2006~2008	유정희(그라시아)
2009~2011	안금환(카타리나)
2012~현재	임성희(루치아)



교육분과
위 원 회

성소후원회

1. 기본 설립목적

사제 성소의 계발과 육성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성소'란 "하느님의 부르심"을 뜻한다.

그리스도인 각자는 자신들의 생활에 따라 구체적인 성소를 갖게 되는데, 이 가운데 교계적 사도직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사제 성소이다. 사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여러 가지 성사를 집행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생명의 은총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사제 성소는 교회의 미래이자 교회의 존재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본당의 성소후원회는 성소를 위하여 영적, 물적 예물을 적극 지원하고 예비 신학생 돌보기와 회원 상호간의 신심생활을 돈독히 하고자 설립되었다.

2. 활동내용

- 매주 본당의 학사를 비롯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개최
- 후원회원 모집과 성소회비 납부
- 정기 모임 개최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대 표	신정옥(모니카)
총 무	최향수(마틸다)
총 봉사자 17명	

4. 역대 대표

기 간	성 명
1997	한순임(헬레나)
1998	김경남(모니카)
1999	이복희(릿다)
2000	원주아(아가다)
2011	김미정(미카엘라)



사회복지분과 위원회

1. 기본직무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 미처 온정의 손길이 닿지 못해 소외된 이웃에게 형제애적 사랑을 나누며, 각종 후원사업을 위한 예산과 시행을 관리하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도직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2. 세부업무

- 년간 사업 계획과 예산의 수립 관리
- 지역 공동체와 협조하여 사랑 나눔 실천 등 계획과 시행
- 가정 간호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위 원 장	유승진(루카)
부 위 원 장	최복순(마리아 막달레나)
총 무	임미숙(엘리사벳)
위 원	이세영(모니카)
위 원	이난훈(수산나)
위 원	이재연(오포루투나)
단 체 장	
애덕회 회장	김옥진(루갈다)
빈첸시오 회장	최재행(레오)



애덕회

1. 기본 설립목적

신자들뿐 아니라 본당 관할 지역의 모든 어려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소금 역할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애덕회는 본당 내에서 성물 판매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한다.

2. 활동내용

- 성당의 성물 판매 봉사활동
- 월간 회합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회 장	김옥진(루갈다)
총 무	문복희(마리아)
총 무	이득자(수산나)

4. 역대 회장

기 간	성 명
1983	이세재(테글라)
1984	전선옥(마르타)
1985	고방자(마리안나)
1986	남영희(글라라)
1987	조화자(엘리사벳)
1988~1989	이정자(아녜스)
1990~1991	마영자(릿다)
1992	손교자(비비안나)
1993~1995	유국자(모니카)
1996~1998	김현숙(안젤라)
1999~2003	박영애(리디아)
2004~2005	정성임(엘리사벳)
2006~2008	박은영(젬마)
2009	박옥순(아가다)
2010	김혜련(아녜스)
20011	박옥순(아가다)
2012	김옥진(루갈다)



사회복지
분과위원회

빈첸시오회

1. 기본 설립목적

주보 성인인 빈첸시오 아 바올로를 본받아 애덕을 실천하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 불우한 이웃에게 정신적, 물질적인 도움을 주며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단체이다.

2. 활동내용

- 활동회원 및 후원회원 모집
-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 영세민, 빈곤 가정에 대한 의료비, 생활 보조금 지원
-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돌보기
-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가정 지원
- 기타 어려운 이웃의 발굴과 지원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회 장	최재행(레오)
부 회 장	조남대(미카엘)
부 회 장	김영자(마리아)
총 무	유상원(다니엘)
회 계	이무관(치릴로)

4. 역대 회장

기 간	성 명
1994~1998	김현귀(프란치스코)
1999~2001	조기선(요한)
2002~2007	천승수(요셉)
2008~2010	홍상봉(스테파노)
2011~현재	최재행(레오)



가정분과 위원회

1. 기본직무

나자렛 성가정의 모범과 생명 수호의 정신을 본당과 가정에 전파하고 이를 통하여 모든 가정이 사람으로 일치하고 아울러 교회의 발전과 사회의 복음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2. 세부업무

- 가정사목 지도자 및 봉사자 양성
- ME부부 공동체의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 생명 수호 운동에 능동적 협조
- 가정성화와 가정기도 생활 활성화 전개
- 가족 피정, 가족 미사, 가정성화 특강 등 추진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위 원 장	노병희(체칠리아)
부 위 원 장	김익환(모세)
총 무	조명순(마리안나)
위 원	이연화(글라라)
위 원	인연숙(베르나르디나)
위 원	함안숙(유스티나)
위 원	오영임(데레사)
단 체 장	
ME대표부부	김익환(모세), 조명순(마리안나)
첫영성체 교리교사회 대표	이연화(글라라)



M.E

1. 기본 설립목적

혼인 성사의 참 뜻을 늘 재인식하는 가치관을 생활화함으로써 가정을 성화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모범된 지름길을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함.

혼인한 부부가 대화를 통해 더욱 깊고 친밀한 부부관계로 성장하고 하느님의 계획대로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 기쁨이 넘치는 혼인생활을 누리게 하려는 운동.

2. 활동내용

- 나눔 모임과 환영 모임 개최
- 성지순례와 피정 실시
- 전국 M.E 모임 참석
- 불우이웃 돕기 등 봉사활동 전개
- 본당의 각종 행사에 도움
- 부부 독서자 등 양성
- 12지구 혼인교리 주관, 교육 및 안내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대표부부	김익환(모세), 조명순(마리안나)
부 대 표	윤현길(방글라시오), 구명옥(제노비아)
총 무	김태웅(도로테오), 박점선(유스티나)
부 총 무	변승빈(스테파노), 신영자(소화 데레사)
총 활동부부 12팀	

4. 역대 대표

기 간	성 명	기 간	성 명
1991	남 : 서정탁(요셉) 여 : 남영희(글라라)	2001	남 : 장연수(마리노) 여 : 박해순(소화 데레사)
1992	남 : 김성부(마르코) 여 : 이형숙(데레사)	2002	남 : 홍용표(미카엘) 여 : 김미정(미카엘라)
1993	남 : 천종욱(안셀모) 여 : 하태무(안토니아)	2003	남 : 하태일(엘리지오) 여 : 최미란(세레나)
1994	남 : 배호성(토마스아퀴나스) 여 : 황선자(젬마)	2004	남 : 홍용표(미카엘) 여 : 김미정(미카엘라)
1995	남 : 김정국(베드로) 여 : 김혜림(헬레나)	2005 ~2006	남 : 김문성(유스티노) 여 : 성경희(카타리나)
1996	남 : 김연중(시몬) 여 : 신선화(카타리나)	2007 ~2009	남 : 김태웅(도로테오) 여 : 박점선(유스티나)
1997	남 : 이형기(안드레아)	2010 ~2011	남 : 이종운(베르나르디노) 여 : 인연숙(베르나르디나)
1998	남 : 윤만중(클레멘스)	2012 ~현재	남 : 김익환(모세) 여 : 조명순(마리안나)
1999 ~2000	남 : 천광순(미카엘) 여 : 홍종윤(카타리나)		



가정분과
위 원 회

첫 영성체 교리교사회

1. 기본 설립목적

어린이의 신앙교육의 주체는 교회보다 가정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바,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25주간으로 구성된 본 교리는 부모님과의 주간 만남 교육을 통해 알고 나누게 된 내용을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다시 자녀들이 성당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하고 변화하였는지를 어린이 만남 교사와 공부하는 절차로 진행함.

2. 활동내용

- 초등부 3학년 이상의 어린이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1년에 걸쳐 첫 영성체 가정교리 진행
- 주 1회 주간 만남 실시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대 표	이연화(글라라)
총 무	이정미(율리안나)
총 봉사자 11명	



노인분과 위원회

1. 기본직무

노인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생활을 심화시키며 노인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2. 세부업무

- 노인대학 운영
- 웃어른 모시기 행사 개최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위 원 장	방용주(리고리오)
부 위 원 장	조기선(요한)
총 무	고영배(프란치스코)
단 체 장	
노인대학장	지태욱(요셉)



노인분과
위 원 회

노인대학

1. 기본 설립목적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노년기를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교양과 상식을 제공한다. 노인들에게 명랑한 생활과 확고한 가치관을 갖게 함으로써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자세와 참여의식 고취 속에 밝고 뜻있는 노년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함. 상기와 같이 건전한 상식과 신앙생활을 영위함에 따라 노인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생활을 심화시키고 본당 사목활동에 동참케 하는 등의 목적으로 1988년 5월 4일 설립되었다.

2. 활동내용

- 성경반, 음악반, 서예반, 무용반, 사물놀이반, 게이트볼반, 단전호흡반, 기체조반 등 8개반 운영
- 매주 수요일 수업일에 중식 제공
- 웃어른 모시기의 날 행사 주관
- 야외 나들이 학습 및 운동회 개최
- 매월 생신잔치 진행
-정기 건강검진 실시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학 장	지태욱(요셉)
부 학 장	조기선(요한)
총 무 처 장	고영배(프란치스코)
교 무 처 장	홍순희(마리엣다)
학 생 처 장	최경자(아가다)
총 봉사자 18명	

4. 역대 학장

기 간	성 명
1988~1999	이용근(부르노)
2000~현재	지태욱(요셉)



청소년분과 위원회

1. 기본직무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영적 성장을 위해 교육 및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려 주고, 그리스도께서 알려 주신 복음의 의미를 스스로 깨우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2. 세부업무

- 주일학교 운영
- 각 단체의 운영과 지원
- 자모회 운영 및 지원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위 원 장	이성용(세레노)
부 위 원 장	엄운숙(소피아)
단 체 장	
중고등부교감	김다연(엘리사벳)
중고등부 대표교사	서시영(소화 데레사)
초등부교감	배정은(요세피나)
초등부 대표교사	장은성(젬마)
중고등부 자모회장	박희라(마리아)
초등부 자모회장	김정수(체칠리아)





청소년분과 위원회

4. 역대 임원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기 간	성 명	기 간	성 명
1983~1984	서정탁(요셉)	2000~2001	임병애(데레사)
1985	태영균(프란치스코)	2002~2003	김미정(미카엘라)
1986	서정탁(요셉)	2004	김근비(미카엘라)
1987	윤재철(라파엘)	2005	이은영(비비안나)
1990~1992	이복희	2006~2007	김근비(미카엘라)
1993~1995	이명희	2008~2009	김해숙(젤뚜르다)
1996	홍기영	2010	정원경(글라라)
1997	백금희	2011~현재	배정은(요세피나)
1998~1999	김태욱(모니카)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기간	성 명	기간	성 명
1997	김용진(치릴로)	2005	이용민(아나스타시아)
1998	이희천(프란치스코)	2006	김지혜(아녜스)
1999	윤희진(루치아)	2007	이현주(노엘라)
2000	박경제(마리아)	2008	정서완(크리스티나)
2001	최재건(대건 안드레아)	2009	이도현(다니엘)
2002	정서원(크리스티나)	2010	최용원(안토니오)
2003	이성의(루치아)	2011	김지혜(아녜스)
2004	최재건(대건 안드레아)	2012~현재	김다연(엘리사벳)

자모회		
기 간	초등부	중고등부
1997	김기순(루치아)	
1998	박옥순(아가다)	
1999	한인선(안토니아)	김경남(모니카)
2000	방연희(스콜라스티카)	김경남(모니카)
2001	이선주(클라우디아)	정숙경(소화 데레사)
2002	김미정(젤마나)	정숙경(소화 데레사)
2003	최은경(카타리나)	김순미(엘리사벳)
2004	박선정(카타리나)	이세영(모니카)
2005	권정미(데레사)	조경현(말가리다)
2007	주명란(아가다)	조경현(말가리다)
2009		최승희(율리아)
2010	엄은숙(소피아)	
2011	김정희(안나)	정재화(소화 데레사)
2012~현재	김정수(세실리아)	박희라(마리아)





청년분과 위원회

1. 기본직무

본당 청년들의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과 올바른 평신도 사도직 수행을 위한 신앙심을 고취시키고자 개인 성화 및 단체활동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함.

2. 세부업무

- 본당 청년들의 올바른 신앙관 확립을 위한 행사 주관
- 청년단체 사업지원 및 단체 육성
- 본당 청년들의 친목도모 활성화 도움
- 청년 교육 및 활동계획 수립과 예산의 집행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위 원 장	이종운(베르나르디노)
부 위 원 장	박민철(라파엘)
청 년 회 장	박수현(율리안나)
청년부회장	김선우(알버트)
청 년 총 무	김윤택(빅토리노)
단 체 장	
청년전례단장(쉐마)	박태규(미카엘)
청년연극단장(옹기마을)	나소해(아나스타시아)
청년봉사단장(동살)	이창헌(바오로)
생활성가단장(예따사)	우주성(바오로)
청년성가단장(아나빔)	손성민(렘베르토)
청년레지오단장(즐거움)	최보영(안나)
청년레지오단장(믿음)	최선영(데레사)
청년성서모임(태멘) 회장	전서진(레베카)
청년복사단장	김윤택(빅토리노)

4. 역대 청년 회장

기 간	성 명
2001	김호진(방지거)
2002	김용진(치릴로)
2003	권수진(글라라)
2004	정경후(프란치스코)
2006	김윤석(알렉산델)
2008	박찬익(발렌티노)
2009	김종범(아킬레오)
2010	신동관(도미니꼬)
2011	송준호(파비아노)
2012~현재	박수현(율리안나)



청년분과 위원회

청년전례단 - 쉐마

1. 기본 설립목적

올바른 전례 예절을 배우고 미사 중 사제를 도와 전례 봉사를 함으로써 미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공부하고 친교를 나누는 단체.

2. 활동내용

- 미사 해설
- 독서와 보편 지향 기도
- 십자가의 길
- 전례단 홍보 및 신입단원 모집, 교육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단 장	박태규(미카엘)
부 단 장	송형주(테아)

4. 역대 단장

기 간	성 명
1994	오금열(돈보스코)
1995	김홍진(디모테오)
1996	이중섭(스테파노)
1997	박선욱(골로틸다)
1998	오화석(요셉)
1999~2000	박성진(클레멘스)
2001~2002	이중섭(스테파노)
2003	진성주(미카엘라)
2004	김지현(율리안나)
2005	박혜윤(아가다)
2006	김경훈(야고보)
2007	정창우(루카)
2008	이기훈(토마스)
2009	안소희(소피아)
2010	배지수(베로니카)
2011	윤지환(스테파노)
2012	황인욱(마르셀리노)
2012~현재	박태규(미카엘)



청년분과
위 원 회

청년연극단 - 옹기마을

1. 기본 설립목적

한국 초기 교회 때 박해를 피해 옹기를 구우며 숨어 살던 신앙 선조들의 정신을 본받자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청년연극단 '옹기마을'은 1993년 10월 29일 연극에 관심이 많았던 두 명의 본당 청년 형제에 의해 창단이 되었다.

본당의 신자들이 단원들의 연극을 보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는 단체이다.

2. 활동내용

- 정기 공연
- 정기 회합
- 본당 행사 지원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단 장	나소해(아나스타시아)
부 단 장	안치현(루피치노)

4. 역대 단장

기 간	성 명
1995	권수진(글라라)
1996	조웅제(레오나르도)
1997	김원규(미카엘)
1998~1999	김호진(방지거)
2000	김세은(마리아)
2001~2002	권수진(글라라)
2003	윤준호(바스톨)
2004~2006	박수지(젤뚜르다)
2007~2008	김윤택(빅토리노)
2009	이승엽(안드레아)
2010	송준호(파비아노)
2011	이채은(마리스텔라)
2012	이진호(시몬)
2012~현재	나소해(아나스타시아)



청년분과
위 원 회

청년봉사단 - 동살

1. 기본 설립목적

1991년 공동체 체험과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청년 신앙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설됨.

2. 활동내용

- 본당의 각종 행사 봉사
- 시설 복지관 공사
- 재난 재해 지역 봉사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단 장	이창헌(바오로)
부 단 장	이재경(요셉)

4. 역대 단장

기 간	성 명
1991	홍승현(프란치스코)
1992	서상은(야고보)
1993	송남규(미카엘)
1994	서상은(야고보), 최광림(요한)
1995	최영주(로즈마리)
1996	송남규(미카엘)
1997~1998	공부택(스테파노)
1999	강은숙(카타리나)
2000	박정은(프란치스카)
2001	김용진(치릴로)
2002	김미란(아녜스)
2003	고영선(테오도르)
2004	김미란(아녜스)
2005	이시내(소화 데레사)
2006	정다희(아녜스)
2007	김미란(아녜스)
2008	강지흔(안드레아)
2009	이원찬(요한보스코)
2010	이동욱(루카)
2011	이재경(요셉)
2012~현재	이창헌(바오로)



청년분과
위 원 회

생활성가단 - 예따사

1. 기본 설립목적

1998년에 창단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며 생활성가를 창작해 온 청년공동체로서 정기적인 작사, 작곡 공부와 끊임없이 한국 가톨릭 생활성가를 연구하고 기도하는 모임이며, 기존 가톨릭 성가의 장엄함과 조용함을 벗어나 흥겹고 밝은 분위기에서 악기 연주와 생활성가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단체.

2. 활동내용

- 부활절 성탄절 본당 정기 공연
- 미사 봉헌
- 타 본당 초청공연 참가
- 본당 각종 행사에 활동봉사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단 장	우주성(바오로)
부 단 장	김민선(글라라)
총 무	서윤정(레지나)

4. 역대 단장

기 간	성 명
2001	유승현(베로니카)
2002	우주성(바오로)
2003	신산하(안나)
2004	박상현(프란치스카)
2005	우주성(바오로)
2006~2007	조경희(아녜스)
2008	신동관(도미니코)
2009	김민선(글라라)
2010	임수현(아녜스)
2011	정경일(마르코)
2012~현재	우주성(바오로)



청년분과
위 원 회

청년성가대 - 아나빔

1. 기본 설립목적

주님께서 선사해 주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인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일 청년미사 성가전례를 담당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 청년들이 주님을 닮기 위해 기도하며 성음악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이다.

2. 활동내용

- 주일 청년 미사 봉헌
- 정기발표회 및 경연 대회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단 장	손성민(렘베르토)
부 단 장	김현지(엘리사벳)

4. 역대 단장

기 간	성 명
1990	신찬호(미카엘)
1990	이시영(시몬)
1991	이원필(그레고리오)
1992	김종구(토마스아퀴나스)
1993	김태균(베드로)
1993	정재민(미카엘)
1994	최재욱(아나스타시아)
1995	오자영(루치아)
1996	김성진(시몬)
1997	조강욱(바오로)
1998	김태균(베드로)
1999	김기찬(요한)
2000	설성헌(세례자요한)
2001	조영지(글라시아)
2002	박종훈(벨라도)
2003	고은림(안젤라)
2004	서영부(토마스아퀴나스)
2005	김윤석(알렉산델)
2006	유재현(돈보스코)
2007	김종범(아킬레오)
2008	여승진(알베르토)
2009	박보라(가브리엘라)
2010	고안나(안나)
2011	김선우(알버트)
2012~현재	손성민(렘베르토)



청년분과
위 원 회

청년레지오 - 즐거움의 원천 pr., 믿음의 샘 pr.

1. 기본 설립목적

레지오 마리애는 성모님의 강력한 지휘 아래 세속과 그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지상의 군대이며, 기도와 봉사와 교육을 통한 청년단원들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단체이다.

2. 활동내용

- 매주 주 회합
- 본당 봉사활동 및 대외 봉사활동
- 복지시설 정기 방문 봉사활동

3. 임원진 구성

직 책	즐거움의 원천 pr.	믿음의 샘 pr.
단 장	최보영(안나)	최선영(데레사)
부단장	안언주(요안나)	
서 기	손세은(요안나)	이상화(스테파노)
회 계	권주혜(베로니카)	김현주(비비안나)
단 원	김현정(헬레나) 김지희(소화 데레사) 곽문정(아녜스) 양지혜(힐다)	이정화(글라라) 송영재(테렌시오) 전서진(레베카)





청년분과
위 원 회

청년성서 모임 - 태멘

1. 기본 설립목적

청년성서 모임 중심으로 말씀의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본당에서 복음화에 앞장서서 봉사하는 단체. 1990년 설립됨.

2. 활동내용

- 매년 3월, 9월 신단원 모집
- 성서 나눔 및 연수, 교육 참가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단 장	전서진(레베카)
부 단 장	이용혁(레오나르도)

4. 역대 단장

기 간	성 명
1992	박은정(카타리나)
1993~1994	김경아(율리아)
1995	심지영(소피아)
1996	이계진(모니카)
1997~1998	옹호정(베드로)
1999~2001	남은하(베로니카)
2002	조영우(베드로)
2003	홍정우(요한)
2004	박미은(베로니카)
2005	김수진(안나)
2006~2007	심재희(효주아녜스)
2008	이지연(엘리사벳)
2009	조미현(스테파니아)
2010	김바라(마리아)
2011	이지연(마리아)
2012~현재	전서진(레베카)



청년분과
위 원 회

청년복사단

1. 기본 설립목적

복사란 "복종하여 섬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전례시 제단에서 미사를 드리는 사제를 돕는 사람들을 말한다. 미사 전례시 거룩한 제단 위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신앙심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단체이다.

2. 활동내용

- 매주 청년미사 복사 봉사
- 매월 정기적인 복사 교육 진행
- 월 정기 회합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회 장	김윤택(빅토리노)



시설관리분과 위원회

1. 기본직무

성전의 모든 건물과 시설의 보존과 관리, 제반 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그 책무로 함.

2. 세부업무

- 년간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집행
- 고정 자산 및 비품의 유지 관리
- 전기, 기계 배관설비의 유지 및 보수
- 각종 시설의 안전 점검과 기기의 노후화 방지
- 증축, 개축, 유지, 보수 등 집행 사안의 자료 보존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위 원 장	김연웅(프란치스코)
부 위 원 장	최형일(스테파노)



3 구역 구성 현황

남성구역분과 위원회

1. 기본직무

본당의 공동체를 구역, 반별 소공동체로 세분화 운영함으로써 구역 소공동체의 의견을 수렴, 본당의 사목에 활용하고 본당의 제반 추진사업에 적극 참여함.

2. 세부업무

- 구역 공동체 조직의 활성화
- 구역 공동체의 복음화
- 본당 주요 행사 지원과 활동의 주체적 역할
- 구역 미사와 신자 증가 운동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위 원 장	김태곤(대건 안드레아)
부 위 원 장	이무관(치릴로)
	박진희(골룸바노)
총 무	강지흔(안드레아)



제1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박동수(베드로)
부구역장	이재우(미카엘)
1 반 장	송선택(프란치스코)
2 반 장	김순철(루치아노)
3 반 장	강중원(스테파노)
4 반 장	허현회(토마)
5 반 장	전민원(바오로)
6 반 장	김규만(마티아)
7 반 장	최형일(스테파노)
8 반 장	최용수(요셉)



제2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남원기(프란치스코)
부구역장	신동우(다윗)
1 반 장	김규섭(라우렌시오)
2 반 장	강율원(마르첼리노)
3 반 장	정병진(베드로)
4 반 장	
5 반 장	박정호(요셉)
6 반 장	서경석(에드워드)
7 반 장	방용주(리고리오)



제3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박상권(베드로)
부구역장	박현서(가브리엘)
총 무	유은상(마르첼로)
1 반 장	이락천(루치오)
2 반 장	유은상(마르첼로)
3 반 장	최주호(빈첸시오)
4 반 장	고경수(루수)



제4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박진희(골룸바노)
부구역장	김배열(사도 요한)
1 반 장	최현태(요셉)
2 반 장	박문수(라티노)
3 반 장	박인봉(레오)
4 반 장	허상만(베드로)
5 반 장	김창환(베드로)
6 반 장	김배열(사도 요한)
7 반 장	김수연(마태오)
8 반 장	김종진(베다)
9 반 장	이충성(베드로)



제5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서윤창(프란치스코)
부구역장	정영준(베드로)
1 반 장	하대웅(프란치스코)
2 반 장	이윤호(바오로)
3 반 장	윤만중(클레멘스)
4 반 장	이길용(베드로)
5 반 장	한호형(토마스 아퀴나스)
6 반 장	천광순(미카엘)
7 반 장	이창진(요셉)



제6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안창엽(요셉)
부구역장	박영청(베네딕토)
1 반 장	조오호(니콜라오)
2 반 장	이봉룡(아우구스티노)
3 반 장	서진섭(요셉)
4 반 장	김명복(요셉)



제7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박영수(마태오)
부구역장	박평서(요셉)
1 반 장	유승진(루카)
2 반 장	서종건(대건 안드레아)
3 반 장	이기순(요셉)
4 반 장	박진우(베드로)
5 반 장	이무호(요셉)
6 반 장	김차진(스테파노)



제8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부구역장	
1 반 장	
2 반 장	
3 반 장	
4 반 장	



제9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전재석(요한)
부구역장	이동주(바오로)
1 반 장	김태기(토마스 아퀴나스)
2 반 장	박승수(안드레아)
3 반 장	정인섭(베드로)
4 반 장	황기성(스테파노)



제10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부구역장	
1 반 장	
2 반 장	최재행(레오)



제11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박경식(도미니코)
부구역장	김귀현(프란치스코)
1 반 장	백경종(베드로)
2 반 장	
3 반 장	정철우(요셉)
4 반 장	이무관(치릴로)
5 반 장	김형제(마티아)
6 반 장	남진원(안토니오)



제12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이호석(스테파노)
부구역장	윤현길(방글라시오)
1 반 장	윤현길(방글라시오)
2 반 장	이경복(요한)
3 반 장	이형재(요셉)
4 반 장	유병기(미카엘)
5 반 장	김태웅(도로테오)



제13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우상용(비오)
부구역장	임한수(야고보)
1 반 장	최기남(비오)
2 반 장	김달수(바오로)
3 반 장	조성길(마태오)
4 반 장	변성호(바르도)
5 반 장	변성호(바르도)
6 반 장	강지흔(안드레아)



제14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박윤수(바오로)
부구역장	노호중(그레고리오)
1 반 장	정화영(스테파노)
2 반 장	정화영(스테파노)
3 반 장	장용근(시몬)
4 반 장	강기성(베드로)
5 반 장	정지환(프란치스코)



제15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이각용(바오로)
부구역장	변승빈(스테파노)
1 반 장	신원각(알로이시오)
2 반 장	정우환(루카)
3 반 장	최수덕(야곱)
4 반 장	정창호(베드로)



제16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조명환(미카엘)
부구역장	안성희(막시밀리안)
1 반 장	신덕수(프란치스코)
2 반 장	김여수(미카엘)
3 반 장	이승한(요셉)
4 반 장	김도범(안토니오)
5 반 장	전도삼(도미니코)



제17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이영택(임마누엘)
부구역장	유상용(아우구스티노)
1 반 장	김치문(야고보)
2 반 장	이성철(벨라도)
3 반 장	장명진(베드로)
4 반 장	신일수(라우렌시오)
5 반 장	김종선(요셉)



여성구역분과 위원회

1. 기본직무

본당의 공동체를 구역, 반별 소공동체로 세분화 운영함으로서 구역 소공동체의 의견을 수렴, 본당의 사목에 활용하고 본당의 제반 추진 사업에 적극 참여함.

2. 세부업무

- 구역 공동체 조직의 활성화
- 구역 공동체의 복음화
- 본당 주요 행사 지원과 활동의 주체적 역할
- 구역미사와 신자 증가 운동

3. 임원진 구성

직 책	성 명
위 원 장	강인희(아녜스)
부 위 원 장	안혹례(데보라)
총 무	박정숙(데레사)
회 계	송명자(에스텔)



제1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이수임(루치아)
부구역장	송경자(가타리나)
1 반 장	오현숙(세레나)
2 반 장	류경순(엘리사벳)
3 반 장	정은숙(루치아)
4 반 장	황순덕(율리아나)
5 반 장	김미영(헬레나)
6 반 장	김미리(엘리사벳)
7 반 장	김정희(로사)
8 반 장	이윤희(요안나)



제2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이명자(가타리나)
부구역장	정순희(모니카)
1 반 장	김정애(위비나)
2 반 장	김양숙(크리스티나)
3 반 장	유종란(루치아)
4 반 장	민인희(엘리사벳)
5 반 장	조경란(데레사)
6 반 장	문근자(베로니카)
7 반 장	김경희(테클라)



제3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송경숙(제노베파)
부구역장	한혜숙(가브리엘라)
1 반 장	임영순(글라라)
2 반 장	심현숙(로사리아)
3 반 장	한정옥(헬레나)
4 반 장	박인해(라우렌시아)



제4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임형자(벨린다)
부구역장	이득자(수산나)
1 반 장	오영임(데레사)
2 반 장	최진숙(소화 데레사)
3 반 장	정광희(엘리사벳)
4 반 장	원미정(아녜스)
5 반 장	김주원(레지나)
6 반 장	유미령(데레사)
7 반 장	육혜림(헬레나)
8 반 장	이정희(마리아)
9 반 장	박종옥(요안나)



제5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오숙자(마리아)
부구역장	명숙자(스테파니아)
1 반 장	오진화(베로니카)
2 반 장	김평옥(유스티나)
3 반 장	신지원(스텔라)
4 반 장	고성분(아녜스)
5 반 장	홍현모(릿다)
6 반 장	홍현모(릿다)
7 반 장	송난영(마리아)
8 반 장	송난영(마리아)



제6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신정자(가브리엘라)
부구역장	이영애(미카엘라)
1 반 장	한정희(아녜스)
2 반 장	최순주(체칠리아)
3 반 장	신정자(가브리엘라)
4 반 장	김숙영(수산나)



제7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윤정희(베로니카)
부구역장	
1 반 장	윤정희(마리아)
2 반 장	송남순(데레사)
3 반 장	동혜숙(스테파니아)
4 반 장	노영희(베로니카)
5 반 장	김숙(율리아나)
6 반 장	김영숙(소화 데레사)



제8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임영선(로사)
부구역장	조정희(카릿다스)
1 반 장	문득영(세라피나)
2 반 장	김영희(크리스티나)
3 반 장	배문조(마리아)



제9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이종요(데레사)
부구역장	
1 반 장	홍성애(요안나)
2 반 장	윤길주(안젤라)
3 반 장	최명희(마틸다)
4 반 장	이규순(아녜스)
5 반 장	김인숙(모니카)



제10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김정자(아녜스)
부구역장	문복희(마리아)
1 반 장	
2 반 장	윤길숙(베로니카)
3 반 장	윤길숙(베로니카)
4 반 장	조경애(율리아)
5 반 장	김혜숙(로사)



제11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김옥남(데레사)
부구역장	김양순(로사)
1 반 장	
2 반 장	인연숙(베르나르디나)
3 반 장	안금환(가타리나)
4 반 장	강석순(실비아)
5 반 장	이상이(아녜스)
6 반 장	이미옥(루치아)



제12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이상아(마리데레사)
부구역장	여화순(글로리아)
1 반 장	박송순(로사리아)
2 반 장	구명옥(제노비아)
3 반 장	이연희(프란치스카)
4 반 장	김복희(체칠리아)
5 반 장	박명순(사비나)



제13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정영희(모니카)
부구역장	조인구(글라라)
1 반 장	박춘화(페르페투아)
2 반 장	주명란(아가다)
3 반 장	정재임(안젤라)
4 반 장	손현정(안젤라)
5 반 장	손현정(안젤라)
6 반 장	오청자(엘리사벳)



제14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고윤옥(마리안나)
부구역장	김순희(파비올라)
1 반 장	김선숙(모니카)
2 반 장	윤유자(유스티나)
3 반 장	김종신(유스티나)
4 반 장	이현숙(요세피나)
5 반 장	정순례(요안나)



제15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송금례(피나)
부구역장	신영자(소화 데레사)
1 반 장	김명자(체칠리아)
2 반 장	장혜자(이냐시아)
3 반 장	박미숙(로사)
4 반 장	박혜숙(안젤라)



제16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강성순(실비아)
부구역장	문성자(데레사)
1 반 장	문영림(골룸바)
2 반 장	서향식(루치아)
3 반 장	김숙균(프란치스카)
4 반 장	오세희(글라라)
5 반 장	김춘한(케로린)



제17구역	
직 책	성 명
구 역 장	조한숙(분다)
부구역장	강영수(미카엘라)
1 반 장	박명숙(로사)
2 반 장	박삼순(안나)
3 반 장	
4 반 장	장정옥(아녜스)
5 반 장	김정순(체칠리아)



4 레지오 마리애 구성 현황

겸손하신 모후 꾸리아

1. 창단 연월일 : 1996년 11월 10일

2. 현 간부진

직 책	성 명
단 장	이상우(안토니오)
부 단 장	최미정(체칠리아)
서 기	조항순(베드로)
회 계	유영재(마틸다)
총 9개 쁘레시디움, 총 84명	

3. 역대 단장

기 간	성 명
1984~1985	이호식(요한)
1986~1988	이성진(로마노)
1989~1991	김광섭(미카엘)
1992~1994	박윤식(요한)
1995~1997	박기석(안드레아)
1998~2000	전재석(요한)
2001~2002	오상걸(도미니코)
2003~2005	인동규(미카엘)
2006~2008	최재행(레오)
2009	황석환(세례자요한)
2010~2011	이정록(예로니모)
2012~현재	이상우(안토니오)



사도의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안재영(마르티노)
부단장	고경식(루수)
서 기	고준석(아우구스티노)
회 계	서정국(스테파노)
단 원	김동배(요한), 이병욱(다니엘)



자비의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강희욱(프란치스코)
부단장	설권석(가브리엘)
서 기	
회 계	송광호(바오로)
단 원	한이석(요셉), 박경자(프란치스카), 김수현(도미니코), 최미정(체칠리아), 유종혁(안토니오)



성가정의 어머니 Pr.	
직 책	성 명
단 장	정건영(마리안나)
부단장	박인애(라우렌시아)
서 기	강호석(로사)
회 계	김호순(루치아)
단 원	임동석(아니타), 유미령(데레사), 김순분(프란치스카), 최신화(데레사), 김성숙(안나), 조영덕(글라라), 한명숙(엘리사벳), 정용분(마르타), 유영재(마틸다), 정금숙(가타리나)



하늘의 문 Pr.	
직 책	성 명
단 장	채광석(스테파노)
부단장	고완석(마태오)
서 기	김병옥(베드로)
회 계	인동규(미카엘)
단 원	김수택(베드로), 최동열(안드레아), 김성문(안토니오), 문장호(요한), 윤영한(에밀리오), 양문석(이냐시오)



무염시태 Pr.	
직 책	성 명
단 장	라병진(빈첸시오)
부단장	허상만(베드로)
서 기	박진희(골룸바노)
회 계	박문수(라티노)
단 원	박경식(도미니코), 박광수(레오), 김태곤(대건 안드레아), 하상도(대건 안드레아), 우무남(요셉), 이은호(리차드), 김종진(베다), 최현태(요셉)



온유하신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박동수(베드로)
부단장	정창래(요셉)
서 기	조항순(베드로)
회 계	김태규(야곱)
단 원	이근우(미카엘), 이성철(벨라도), 김유택(도미니코), 이용수(다윗), 최용수(요셉)



중재자의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박승우(제레온)
부단장	이상우(안토니오)
서 기	정화영(스테파노)
회 계	이영수(요셉)
단 원	신덕수(프란치스코), 윤경상(요셉), 김광창(토마스 아퀴나스), 안성회(막시밀리안)



다윗의 탑 Pr.	
직 책	성 명
단 장	장승수(시몬)
부단장	오형진(미카엘)
서 기	허현회(토마)
회 계	김정근(하상바오로)
단 원	최형일(스테파노), 김영곤(바오로), 이경렬(프란치스코), 조중진(미카엘), 양무현(율리아노), 전명현(마르코), 김차진(스테파노), 김규만(마티아)



정의의 거울 Pr.	
직 책	성 명
단 장	정덕수(프란치스코)
부단장	오광수(가브리엘)
서 기	강율원(마르첼리노)
회 계	이호석(스테파노)
단 원	김형민(베드로), 이창진(요셉), 이승구(요셉), 이봉환(바실리오)



파티마의 성모 꾸리아

1. 창단 연월일 : 1986년 6월 12일

2. 현 간부진

직 책	성 명
단 장	원혜연(안나)
부 단 장	김민자(수산나)
서 기	박정현(아녜스)
회 계	김태영(가브리엘라)
총 17개 쁘레시디움, 총 152명	

3. 역대 단장

기 간	성 명
1986~1988	임동석(아닛다)
1989~1991	최희용(마리아)
1992~1994	조명조(루치아)
1995~1996	구명자(로사)
1997	정숙자(율리안나)
1998~2000	조명조(루치아)
2001~2003	김영희(아라셀리)
2004~2006	김황주(율리아나)
2007~2009	김황주(율리아나)
2010~현재	원혜연(안나)



순교자의 모후 Pr. (A)	
직 책	성 명
단 장	김민자(수산나)
부단장	변종희(마리아)
서 기	유경옥(마리안나)
회 계	김성자(사비나)
단 원	노익원(모니카), 조동례(아녜스), 표은희(루치아)



은총의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정영희(모니카)
부단장	변해정(마리안나)
서 기	권기화(마리아)
회 계	황정희(클로틸다)
단 원	김금세(율리아), 김순현(모니카), 김정임(아녜스), 서정자(안젤라 메리치), 윤연숙(가타리나), 박옥자(안젤라)



결백하신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송금례(리나)
부단장	신미균(루치아)
서 기	여화순(글로리아)
회 계	김복순(요안나)
단 원	소복순(마리아), 서향식(루치아), 최영자(수산나), 장은희(아가다), 안순옥(마리아)



순결하신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문성자(데레사)
부단장	서금숙(엘리사벳)
서 기	장기은(모니카)
회 계	조한숙(분다)
단 원	문원자(엘리사벳), 조현주(젬마), 고은정(라파엘라), 강성순(실비아), 구자예(엘리사벳)



신비로운 장미 Pr.	
직 책	성 명
단 장	정유연(루치아)
부단장	김정매(안나)
서 기	최진숙(소화 데레사)
회 계	송남순(데레사)
단 원	김원자(체칠리아), 심지원(스텔라), 한선이(글라라), 강삼영(로사), 진은희(안젤라 에멜리아)



인자하신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김양숙(크리스티나)
부단장	신지원(체칠리아)
서 기	홍현모(릿다)
회 계	강명춘(마리아)
단 원	육금순(데레사), 정인숙(안나), 송난영(마리아)



사랑의 샘 Pr. (A)	
직 책	성 명
단 장	신숙자(안젤라)
부단장	제갈애경(발렌티나)
서 기	이선애(루치아)
회 계	김광자(비비안나)
단 원	김이순(베로니카), 김경옥(율리안나), 박은숙(엘리사벳), 신정자(가브리엘라)



천주의 성모 Pr.	
직 책	성 명
단 장	김송춘(엘리사벳)
부단장	유경숙(릿다)
서 기	정정임(아녜스)
회 계	김희정(율리아나)
단 원	이옥림(레지나), 채순자(사비나), 최필순(안나), 배현조(마리아)



순교자의 모후 Pr. (B)	
직 책	성 명
단 장	홍순희(마리엣다)
부단장	김창자(소피아)
서 기	안병연(헬레나)
회 계	오수정(유스티나)
단 원	이영옥(가브리엘라), 원혜연(안나)



천사들의 모후 Pr. (A)	
직 책	성 명
단 장	강경애(데레사)
부단장	김명자(가타리나)
서 기	송희경(세레나)
회 계	정유경(도미니카)
단 원	김명희(크리스티나), 이은자(유스티나), 이윤정(안나), 유경희(모니카)



찬송하올 어머니 Pr.	
직 책	성 명
단 장	배옥자(벨라뎃다)
부단장	강은숙(마리아)
서 기	이순희(율리안나)
회 계	장경화(글라라)
단 원	강선희(소피아), 박동순(로사리아), 이정자(헬레나), 김영자(올리바), 김영남(마리아), 김순희(루치아), 권정숙(마리아), 박순옥(레지나)



천상의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정영순(루치아)
부단장	채현숙(모니카)
서 기	곽애자(세라피나)
회 계	유종란(루치아)
단 원	모경자(엘리사벳), 고정은(골룸바), 한영숙(데레사), 조경란(데레사), 박선숙(데레사), 배성희(글라라), 이영은(헬레나)



성가정의 어머니 Pr.	
직 책	성 명
단 장	박춘화(벨베뚜아)
부단장	박정현(아녜스)
서 기	임영순(글라라)
회 계	김태자(스콜라스티카)
단 원	홍종윤(가타리나), 김선화(루치아), 김종선(가타리나), 장숙복(체사레아), 박현숙(베로니카), 신현석(안젤라)



사랑의 샘 Pr. (B)	
직 책	성 명
단 장	노병희(체칠리아)
부단장	류경순(엘리사벳)
서 기	민혜경(아녜스)
회 계	박미성(프란치스카)
단 원	박송순(마르시아), 신경화(글라라), 임봉선(요세피나), 김복기(마리아), 김태영(가브리엘라), 송영(소피아)



천사들의 모후 Pr. (B)	
직 책	성 명
단 장	백승숙(엘리사벳)
부단장	박소현(클라우디아)
서 기	권정미(데레사)
회 계	오영희(베로니카)
단 원	조미희(소피아), 서정숙(율리안나), 엄은숙(소피아), 주정화(루치아), 강수연(아녜스), 이은분(라파엘라), 신화평(아녜스)



은총의 샘 Pr.	
직 책	성 명
단 장	김철안(마카리아)
부단장	강영희(골룸바)
서 기	박종옥(요안나)
회 계	송정자(이스베리카)
단 원	최혜자(모니카), 김숙희(안나), 윤명수(마리아), 김은심(글라라), 한영자(모니카)



사랑의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박정숙(데레사)
부단장	황현숙(크리스티나)
서 기	오숙자(마리아)
회 계	김옥수(마리로사)
단 원	김명애(데레사), 박옥(아그네스), 조화자(수산나)



천주의 성모 꾸리아

1. 창단 연월일 : 2009년 11월 11일

2. 현 간부진

직 책	성 명	직 책	성 명
단 장	문병규(즈가리야)	서 기	오세희(글라라)
부단장	김도범(안토니오)	회 계	박양임(안티아)
총 10개 쁘레시디움, 총 86명			



천주의 성모 Pr.	
직 책	성 명
단 장	유병기(미카엘)
부단장	김종호(스테파노)
서 기	장명진(베드로)
회 계	주창(대건 안드레아)
단 원	박기선(안드레아), 최종하(스테파노), 이영택(임마누엘), 권영삼(베드로), 장두환(세례자요한), 박혜준(율리아노), 조기선(사도 요한), 박준성(프란치스코)



성인의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김영재(아우구스티노)
부단장	오세희(글라라)
서 기	문병규(즈가리야)
회 계	박양임(안티아)
단 원	황진석(파스칼)



영원한 사랑의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김동진(안드레아)
부단장	노상우(베드로)
서 기	이각용(바오로)
회 계	김종선(요셉)
단 원	김도범(안토니오), 김인호(미카엘), 김영철(안드레아) 유상문(대건 안드레아), 한상호(안토니오),



천지의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황용호(로물로)
부단장	윤봉묵(미카엘)
서 기	한선옥(안나)
회 계	유상원(다니엘)
단 원	고정숙(헬레나), 이원자(마리아 고레띠), 박영란(로사)



은총의 샘 Pr.	
직 책	성 명
단 장	권병휘(아우구스티노)
부단장	장용근(시몬)
서 기	조혜자(레지나)
회 계	김귀덕(엘리사벳)
단 원	이정석(발렌티노)



중재자의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이윤길(토마)
부단장	임광주(프란치스코)
서 기	정수정(요셉)
회 계	유상용(아우구스티노)
단 원	김호길(마태오), 서종권(대건 안드레아), 홍순민(미카엘)



바다의 별 Pr.	
직 책	성 명
단 장	최영주(데레사)
부단장	조영옥(안젤라)
서 기	이상이(아녜스)
회 계	이순자(릿다)
단 원	정복순(안젤라), 신명자(모니카), 안양임(루치아), 강희숙(베로니카)



희망의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박동호(스테파노)
부단장	박형섭(아우구스티노)
서 기	심용섭(스테파노)
회 계	황선철(아우구스티노)
단 원	김문환(이냐시오), 방용주(리고리오), 김홍영(요한), 신동우(다윗), 박순원(아오스딩), 심용섭(스테파노), 최영구(안토니오), 박용오(미카엘), 최해섭(요한)



하느님의 에덴 Pr.	
직 책	성 명
단 장	정재임(안젤라)
부단장	이옥재(뮤리엘)
서 기	이정순(가타리나)
회 계	김연옥(헬레나)
단 원	최재연(체칠리아), 전양미(헬레나), 곽순현(글라라)



사랑의 샘 Pr.	
직 책	성 명
단 장	한병건(파비오)
부단장	조태영(비오)
서 기	천광순(미카엘)
회 계	정진상(다미아노)
단 원	홍용표(미카엘), 배기원(알퐁소), 김종필(가브리엘), 전재석(요한), 박윤수(바오로), 박양규(요한), 송용식(바오로), 최윤식(토마스모어), 송영준(마태오)



공경하올 어머니 꾸리아

1. 창단 연월일 : 1992년 5월 12일

2. 현 간부진

직 책	성 명
단 장	전이숙(효주 아녜스)
부 단 장	유순옥(모니카)
서 기	이연화(유스티나)
회 계	최영희(아셀라)
총 17개 쁘레시디움, 총 134명	

3. 역대 단장

기 간	성 명
1992~1994	마영자(릿다)
1995~1997	이복희(릿다)
1998~2000	최은혜(체칠리아)
2001~2003	임은정(율리안나)
2004~2006	정영희(모니카)
2007~2009	박선숙(데레사)
2010~현재	전이숙(효주아녜스)



인자하신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유인래(가브리엘라)
부단장	이현숙(요세피나)
서 기	조인구(글라라)
회 계	김순희(파비올라)
단 원	신용순(데레사), 이옥희(젬마), 조혜자(베로니카), 최종실(마리아), 이상아(마리데레사), 정순자(미카엘라), 김옥남(데레사), 양영희(메릿다)



상아탑 Pr.	
직 책	성 명
단 장	한윤숙(헬레나)
부단장	박병옥(제노비아)
서 기	박명순(사비나)
회 계	이인숙(글라라)
단 원	오경애(헬레나)



성실하신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이경순(율리안나)
부단장	송명자(에스텔)
서 기	전정옥(빅토리아)
회 계	이규순(아녜스)
단 원	이복희(릿다), 윤인숙(데레사), 윤정숙(율리아나)



사랑의 어머니 Pr.	
직 책	성 명
단 장	여정옥(엘리사벳)
부단장	양선(보라미에나)
서 기	문근자(베로니카)
회 계	황선미(유스티나)
단 원	권이숙(효주 아녜스), 윤길자(살로메), 서(데레사)



로사리오의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명숙자(스테파니아)
부단장	조인순(데레사)
서 기	고혜자(로사리아)
회 계	박묘연(데레사)
단 원	신현숙(안젤라), 최향수(마틸다), 남궁수복(마리아), 이귀숙(엘리야), 김형자(스텔라), 이순옥(글라라), 오갑순(유스티나)



정의의 거울 Pr.	
직 책	성 명
단 장	이명구(베로니카)
부단장	이정신(로사)
서 기	김애숙(레지나)
회 계	이영희(가타리나)
단 원	오순옥(안젤리카), 전정숙(글라라), 구정숙(클로틸다), 박미향(엘리사벳), 이연화(유스티나)



그리스도의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박노숙(엘리사벳)
부단장	이미숙(비비안나)
서 기	김영미(젬마)
회 계	정숙영(율리아나)
단 원	김숙자(엘리사벳), 김민정(로사), 김영숙(소화 데레사), 서숙연(이레네)



도움의 어머니 Pr.	
직 책	성 명
단 장	손숙자(크리스티나)
부단장	박한진(루치아)
서 기	박미경(글라라)
회 계	현혜영(가타리나)
단 원	김현옥(마르가릿다), 신미진(프란치스카), 김영미(수산나), 백광숙(엘리사벳)



모든이의 어머니 Pr.	
직 책	성 명
단 장	이영해(미카엘라)
부단장	노부자(루치아)
서 기	박점선(유스티나)
회 계	최순주(체칠리아)
단 원	한정희(아녜스), 유명순(릿다), 안혹례(데보라), 인태선(체칠리아), 배화숙(안젤라)



거룩하신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이선희(헬레나)
부단장	한현숙(아녜스)
서 기	문혜영(글라라)
회 계	임경희(헬레나)
단 원	최소희(베로니카), 김황주(율리아나), 최명옥(데레사), 정정숙(아녜스), 민혜순(베로니카)



자비로우신 어머니 Pr.	
직 책	성 명
단 장	최진숙(실비아)
부단장	이종희(세라피나)
서 기	곽순덕(가브리엘라)
회 계	이선영(베네딕다)
단 원	하태춘(데레사), 최경희(안젤라), 남금자(요세피나), 안분선(데레사)



자애로우신 어머니 Pr.	
직 책	성 명
단 장	송경자(가타리나)
부단장	이점희(마리아)
서 기	이수임(루치아)
회 계	고인숙(글라라)
단 원	임명자(가타리나), 김혜경(유스티나), 손화석(데레사)



애덕의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이기순(율리안나)
부단장	오청자(엘리사벳)
서 기	장혜자(이냐시아)
회 계	유원경(안나)
단 원	선병애(로사)



하늘의 문 Pr.	
직 책	성 명
단 장	정선영(벨라뎃다)
부단장	정길남(비비안나)
서 기	이정숙(글로리아)
회 계	김순복(베로니카)
단 원	이영숙(루치아), 임형자(벨린다), 김경윤(베로니카), 조정숙(베로니카), 조의영(골룸바), 정광희(엘리사벳), 박정숙(모니카)



성모성심 Pr.	
직 책	성 명
단 장	최경자(아가다)
부단장	이영림(그라시아)
서 기	이순이(요안나)
회 계	이은희(안젤라)
단 원	박옥순(아가다), 정성임(엘리사벳), 김옥진(루갈다), 김영숙(류지미오)



겸손하신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김경자(베로니카)
부단장	홍손자(소화 데레사)
서 기	김신의(체칠리아)
회 계	조수정(마리스텔라)
단 원	



천상의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한상순(젬마)
부단장	황영자(안젤라)
서 기	안금환(가타리나)
회 계	신정옥(모니카)
단 원	김미정(젤마나), 최영희(아셀라), 강남희(모니카), 김양순(로사)



자비의 성모 꾸리아

1. 창단 연월일 : 2011년 3월 18일

2. 현 간부진

직 책	성 명
단 장	전민원(바오로)
부 단 장	박건순(가브리엘라)
서 기	공은경(로사)
회 계	이승한(요셉)
총 9개 쁘레시디움, 총 73명	



평화의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정인섭(베드로)
부단장	이동주(바오로)
서 기	신원철(토마스)
회 계	변주호(안드레아)
단 원	이성구(안드레아), 양호승(바실리오), 김태웅(도로테오), 김창준(프란치스코)



그리스도의 어머니 Pr.	
직 책	성 명
단 장	노영희(베로니카)
부단장	박건순(가브리엘라)
서 기	신인숙(루치아)
회 계	김명자(소피아)
단 원	서희재(요안나), 윤화숙(엘리사벳), 신명숙(아녜스), 황갑연(다리아), 석숙자(안젤라), 이숙재(안젤리카), 임귀엽(마르타)



기쁨의 원천 Pr.	
직 책	성 명
단 장	안창엽(요셉)
부단장	조오호(니콜라오)
서 기	최영섭(요셉)
회 계	이봉룡(아우구스티노)
단 원	김용진(라파엘), 박영청(베네딕토), 서진섭(요셉), 임종기(아우구스티노), 김명복(요셉), 조동규(베드로), 오창민(요셉), 김승준(안토니오)



천상의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우상용(비오)
부단장	남진원(안토니오)
서 기	김연웅(프란치스코)
회 계	변성호(바르도)
단 원	조상원(베드로), 윤두환(라우렌시오), 고명호(안셀모), 이용길(토마스)



즐거움의 원천 Pr.	
직 책	성 명
단 장	최보영(안나)
부단장	안언주(요안나)
서 기	손세은(요안나)
회 계	권주혜(베로니카)
단 원	김현정(헬레나), 김지희(소화 데레사), 곽문정(아녜스), 양지혜(힐다)



자비로우신 마리아 Pr.	
직 책	성 명
단 장	전민원(바오로)
부단장	사희경(젤마나)
서 기	이승한(요셉)
회 계	송은규(프란치스코)
단 원	한석(멜라니오), 김수민(체칠리아)



구세주의 어머니 Pr.	
직 책	성 명
단 장	이재준(대건 안드레아)
부단장	양동택(바오로)
서 기	윤용현(베네딕토)
회 계	최대운(베드로)
단 원	안용수(마태오), 권승직(베드로), 조형기(요한), 정태연(베드로), 안국헌(바오로), 김천수(다두)



믿음의 샘 Pr.	
직 책	성 명
단 장	최선영(데레사)
부단장	
서 기	이상화(스테파노)
회 계	김현주(비비안나)
단 원	이정화(글라라), 송영재(테렌시오), 전서진(레베카)



겸손하신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유미나(미카엘라)
부단장	
서 기	안혜숙(안젤라)
회 계	공은경(로사)
단 원	이정록(예로니모)



순결하신 모후 꾸리아

1. 창단 연월일 : 2008년 4월 26일

2. 현 간부진

직 책	성 명
단 장	김현주(데메트리아)
부 단 장	손미희(데레사)
서 기	이명순(크리스티나)
회 계	신영자(소화 데레사)
총 16개 쁘레시디움, 총 146명	



황금 궁전 Pr.	
직 책	성 명
단 장	김영숙(세레나)
부단장	최현숙(수산나)
서 기	박준영(요안나)
회 계	이선자(율리안나)
단 원	강수애(체칠리아), 오세옥(수산나), 박명순(로사), 전희자(엘리사벳), 최정례(미카엘라)



바다의 별 Pr. (A)	
직 책	성 명
단 장	김정자(아녜스)
부단장	안진숙(정혜엘리사벳)
서 기	이경자(이레네)
회 계	문효순(안젤라)
단 원	황수정(스텔라), 황영희(베네딕타), 원종숙(비앙카), 안애순(율리아), 박용례(마르타), 서희숙(스텔라), 신명덕(아녜스)



자애로운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김맹자(빅토리아)
부단장	홍성애(요안나)
서 기	이순호(마리암)
회 계	정환숙(루치아)
단 원	윤길주(안젤라), 김현군(수산나), 이윤정(소화 데레사)



자비의 모후 Pr. (B)	
직 책	성 명
단 장	강명순(릿다)
부단장	김춘환(캐롤린)
서 기	김남순(엘리사벳)
회 계	하원자(마리아)
단 원	김정자(리드미나), 고은자(마리안나), 김미영(데레사), 신영자(데레사), 구영희(마리아)



상지의 좌 Pr.	
직 책	성 명
단 장	공명신(안젤라)
부단장	이현숙(글라라)
서 기	원혜식(마리아)
회 계	정영희(스텔라)
단 원	조경숙(글라라), 이우선(안나), 최옥주(베로니카), 송경숙(제노베파), 김복수(아가다), 이영선(마리아)



희망의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박찬숙(글라라)
부단장	김근비(미카엘라)
서 기	한혜원(데레사)
회 계	임병애(데레사)
단 원	이금숙(크리스티나), 민인희(엘리사벳), 유정인(체칠리아), 임현식(임마누엘라)



지혜로우신 어머니 Pr.	
직 책	성 명
단 장	인연숙(베르나르디나)
부단장	오영임(데레사)
서 기	조은진(율리아나)
회 계	정인숙(아녜스)
단 원	원빈(율리아나), 김미숙(스테파니아), 최정란(마르첼리나), 한현숙(마크리나). 마인옥(요안나), 서화영(소피아), 김미숙(요세피나), 김남진(보나)



평화의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황인숙(안나)
부단장	김성은(에스텔)
서 기	장재연(마리아)
회 계	심은실(스텔라)
단 원	안용순(엘프레다), 이정학(요세피나), 이춘자(가타리나), 장현주(마드렌), 선송자(아델라이다), 이현정(루치아)



교회의 어머니 Pr.	
직 책	성 명
단 장	정윤미(엘리사벳)
부단장	최유정(안나)
서 기	이필자(마리아)
회 계	배순희(데레사)
단 원	김애선(안나), 김현주(데메트리아), 박미숙(로사), 김정애(베로니카), 이연희(프란치스카), 김선옥(리드비아), 최진자(요안나)



사랑의 샘 Pr.	
직 책	성 명
단 장	이명자(데레사)
부단장	이영희(데레사)
서 기	김길연(엘리사벳)
회 계	김행순(소피아)
단 원	조정자(엘리사벳), 백춘자(베로니카), 장윤희(아델라), 안필순(로사), 김옥분(아나타시아), 김유래(안젤라), 이명순(크리스티나)



기쁨의 샘 Pr.	
직 책	성 명
단 장	김부전(사비나)
부단장	정명자(데레사)
서 기	윤현옥(바실리아)
회 계	이상복(마리아)
단 원	정서연(루치아), 김주하(알레나), 박선자(요세피나), 정진(수산나)



애덕의 모후 Pr.	
직 책	성 명
단 장	목진욱(소피아)
부단장	김평옥(유스티나)
서 기	김현숙(엘리사벳)
회 계	김두리(프란치스카)
단 원	박상진(엘리사벳), 기연선(에테네아), 진순희(실비아), 손순금(아녜스)



샛별 Pr. (A)	
직 책	성 명
단 장	최은주(이사벨라)
부단장	우갈련(마리아)
서 기	이상현(데레사)
회 계	장경주(헬레나)
단 원	박원순(안젤라), 김옥현(클라우디아), 신청균(엘리사벳), 송기숙(수산나), 김경하(크리스티나)



샛별 Pr. (B)	
직 책	성 명
단 장	정종석(안나)
부단장	조용호(마리아)
서 기	이옥희(베로니카)
회 계	강준례(체칠리아)
단 원	이순선(체칠리아), 전상옥(프란치스카), 김재금(막달레나)



바다의 별 Pr. (B)	
직 책	성 명
단 장	이현희(수산나)
부단장	여운오(엘리사벳)
서 기	이영재(릿다)
회 계	장세영(요안나)
단 원	이영숙(스콜라스티카), 정영업(데레사), 조희재(아녜스), 최혜경(글라라)



거룩하신 어머니 Pr.	
직 책	성 명
단 장	이미정(드보라)
부단장	양창임(마리아)
서 기	황순엽(가타리나)
회 계	윤경애(마리아)
단 원	손미희(데레사), 박명자(데레사), 최혜옥(데레사), 조영자(글라라)



























05

BANGBAEDONG CATHOLIC CHURCH

특별기고 및 신자들의 글

방배동 성당의 숨겨진 이야기들 – 김종세

신앙인이 된 보람 – 지태욱

지난 30년을 감사하고 앞으로 30년을 준비하자 – 최상철

연령회… 그리고 파티마에서의 묵주기도 봉헌 – 최현태

요셉 노인 대학 4반세기에 대한 회고 – 조기선

방배동 성당과 함께 한 신앙생활 – 김천수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 윤영전

편집 후기 : 사랑과 화합 속에 지내온 30년간의 발자취 – 이창진

특별 기고

방배동 성당의 숨겨진 이야기들



제5대 사목회장
김종세 그레고리오

아름다운 성당으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우리 성당 터는, 유족을 알 수 없는 행려병자의 사체 안치실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고 그 주위에는 넝마주이들이 쓰레기더미를 쌓아놓아서, 흘러나오는 오물과 심한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을 몹시 두려워하고 기피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기피하던 그곳을 복되고 희망이 넘치는 땅으로 바꾸어 주셨으며, 더 없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어언 성전 건립 30주년을 맞게 되었다.

나는 방배동 성당의 초대 주임신부이신 김운회 주교님(현 춘천교구장) 밑에서 사회복지분과 위원장을, 제2대 주임 신부이신 김병학 라파엘 신부님을 모시고 4년간 사목회장을 하였다. 때문에 방배동 성당의 설립과 설립 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신부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였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신부님들의 사목 현장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1983년도부터 방배동에 거주하면서 구의동 성당의 사목회장을 하고 있었으며, 그전에 자양2동 성당의 건립위원장을 맡아 성당을 건립한 경험이 있다.

내가 방배동 성당을 처음 방문한 것은 방배동 성당이 반포 성당에서 분당되어 상가 건물에 임시로 세 들어 있을 때였으며, 영세식에 대부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 첫 인연이었다.

나는 구의동 성당의 사목회장을 마치고 방배동 성당으로 오게 되면서 즉시 초대 주임신부이신 김운회 루카 신부님을 찾아뵈었다. 나는 김운회 신부님께 구의동 성당에서 사목회장을 하다가 방배동 성당으로 오게 되었는데, 성당에서 아무런 봉사활동을 하지 아니하면 신심이 커지지 못할 것 같으므로 방배동 성당에서 사목위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간청하였다.

김운회 신부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사목위원을 권유하면 신자들이 자꾸 사양을 하는데, 자진하여 사목위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웃으시면서 어떤 봉사를 할 생각이냐고 물으셨다. 나는 변호사이므로 사회복지분과에서 법률 상담을 하여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신부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하여 주시면서 다음날 사목회가 있으니 바로 참석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지금의 성당 마당에 임시로 세워진 성당 가건물에서 사목위원으로 임명을 받고 법률 상담 계획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방배동 성당에서 법률 상담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니 방배동 성당은 나의 집과도 같은 성당이라고 하겠다.

김운회 신부님은 성당 신축이 제일 중요한 과업이었기 때문에 건축과 관련된 업무에 모든 힘을 경주하셨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 사목 계획 수립 등 사목위원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빨리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방배동 성당이 거의 준공 단계에 이르게 된 무렵, 김운회 신부님은 사목위원들을 대동하고 유성으로 내려가셔서 낮에는 친목을, 밤에는 사목 계획서 작성을 지시하셨다.

그러나 사목 계획서 작성 경험자는 구의동 성당 사목회장 출신인 나뿐이어서 여러 사목위원들을 독려하면서 방배동 성당의 첫 번째 사목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김운회 신부님은 방배동 성당을 건립하고 많은 채무가 쌓이자 바자회를 통하여 부족한 돈을 채우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신부님의 지시로 나는 김찬진 부회장 등과 같이 2번에 걸쳐 바자회를 실속 있게 열어 당시 부족했던 건립 기금을 모두 해결하였다. 이로써 김운회 신부님은 제2대 주임 신부이신 김병학 신부님에게 큰 부담을 안겨 드리지 않고 방배동 성당을 떠나실 수 있었다.

김운회 신부님은 성당 건립을 마친 후 김수환 추기경님을 모시고 준공식을 성대히 거행하셨다. 그러나 신부님께서 계획하셨던 두 가지 일이 미진한 상태에 있었다.

그 하나는 성당 제대 뒤의 유리창으로 된 벽면에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하시려는 계획으로, 저명한 한국 수녀님에게 스테인드글라스 제작을 의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또 하나는 성당의 2층 정중앙 앞쪽에 예수 부활상을 건립하여 안치하는 계획으로, 뜻있는 신자로부터 건립 성금까지 후원받아 놓았으나 예수 부활상을 어떻게 조각하여야 할지 깊이 생각하시다가 준공식 때까지 마무리하지 못하신 것이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김운회 신부님이 방배동 성당을 떠나셨고, 제2대 본당신부로 김병학 라파엘 신부님이 오시게 되었다. 김병학 신부님은 가톨릭 신학대학 성서학 교수로 엄격하고 실력 있는 성서학자로 알려진 분이셨고 원칙을 중시하는 근엄한 사목자이셨다.

김병학 신부님은 방배동 성당의 2대 주임신부로서, 초대 신부가 성전을 건축하였다면 2대 신부는 정신적 성전 건축을 하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항상 신앙의 심도 있는 발전을 생각하셨으며, 신자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은 경제적 부담을 하였으므로 가급적이면 신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노력을 계속 하셨다.

김병학 신부님은 부임 후 새 사목회장 선출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시다가 구의동 사목회장 출신인 나에게 사목회장을 맡아 보라고 하명하셨다. 그리하여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사람이 제5대 방배동 성당 사목회장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사목회장은 신부님의 사목 계획을 숙지하고 도와드리며 신자들의 의견을 신부님께 전달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가교적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부님을 자주 찾아뵙고 현안 문제를 경청하며 세심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했었다.

그러던 중 김병학 신부님은 우선 스테인드글라스 문제를 먼저 생각하시고, 제작을 맡기로 한 수녀님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수녀님께 작업을 시키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을 얻어 그 수녀님과의 계약을 해지하셨다. 결국 제대 뒤의 유리창을 투명유리 그대로 놓아두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런 상태에 대하여 어떤 신자들은 사계절의 풍경이 유리창을 통하여 잘 보여서 좋다고 하였고, 어떤 신자들은 스테인드글라스를 설치하는 것이 미사 때 분심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신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나누어지고 있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사목회의에서도 논의를 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부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게 되었다. 주임신부님께서는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다고 걱정을 하시다가 그 계획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임하셨다. 제3대 주임신부이신 최준웅 바르나바 신부님과 제4대 주임신부이신 김영일 발타사르 신부님 때에도 그대로 남아 있던 오랜 숙제는, 제5대 주임신부이신 임덕일 아마투스 신부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좌우에 제자들이 서 있는 스테인드글라스를 과감하게 마무리하심으로써 풀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예수 부활상 건립과 관련해서, 김병학 신부님께서 외국은 물론 국내의 여러 부활상들을 두루 보시면서 최고의 부활상을 구상하고 계시던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것은 예수 부활상 건립을 위하여 협찬을 한 신자가 예수 부활상을 건립하지 않을 생각이면 건립 헌금을 돌려받아 다른 좋은 곳에 쓸 계획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김병학 신부님은 고심 끝에 사목회장을 불러 회장의 의견을 물으셨다.

나는 신부님께 예수 부활상을 어떻게 건립할 계획인지 먼저 질문을 하였다. 그런데 신부님은 예수 부활상을 어떻게 건립하여야 할지 아직 구상을 정리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금을 반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신부님의 신중한 생각이 옳다고 판단되어 건립 성금을 반환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고 건의하였고, 신부님은 건립 성금을 오해 없이 반환하셨으며, 예수 부활상을 건립하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은 오늘도 그대로 비어 있다. 일반 신자들은 그곳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방배동 성당은 '예수 부활 성당'이다. 예수 부활 성당에 예수 부활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이라도 예수 부활상의 건립 성금을 모금하거나 뜻 있는 분의 후원을 받아도 될 것 같으며, 본당 차원에서 본당의 기금으로 예수 부활상 건립을 생각해 보는 것도 30주년을 맞는 우리의 입장에서 깊이 있는 협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내가 김병학 신부님을 모실 때 전례분과위원회에서 신부님의 지시를 거부하고 초대 신부님 때 하던 대로 전례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사태가 발생한 일이 있다. 초대 신부님이 계실 때에는 신자들에게 "일어나시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김병학 신부님이 "일어나십시오. 앉으십시오."라고 바꾸어 말하도록 하셨다, 그러자 전례를 맡은 사람들이 혼란이 온다면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초대 신부님 때의 용어가 맞는

것 같은데 김병학 신부님이 계속 새로운 용어를 고집하신다면 전례분과 위원들이 모두 사퇴하기로 결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어나시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라는 말은 어법적으로 올바른 사용이 아니라는 것이 김병학 신부님의 지적이었다. 국문학자에게 알아본 결과 김병학 신부님의 말씀이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나는 김병학 신부님이 신학박사이시며 고명한 교수이신데 잘못을 시정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 없이 하실 리 없으며, 또 내가 알아본 결과도 그러하다며 전례분과 위원들을 설득하여 오해를 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분과위원장이 신부님을 찾아뵙고 모든 잘못을 아뢰며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훌륭한 전례분과 활동을 하게 되었다.

김병학 신부님은 성당 신축을 위하여 많은 경제적 부담을 한 신자들을 배려하여 미사 때 2차 헌금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노력하셨다. 그런데 나는 그와 같은 신부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부님께 방배동 성당과 같은 좋은 성당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단체가 없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빈첸시오회 설립을 건의한 일이 있었다. 그때 신부님께서는 조금 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신부님이 제기동 성당으로 가시면서 후임 신부님과 빈첸시오회 설립 문제를 상담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 이에 제3대 본당신부로 오신 최준웅 바르나바 신부님을 부임 초에 만나 뵙고 빈첸시오회 창립을 건의하여 우리 성당에 빈첸시오회가 창립되게 되었다.

최준웅 신부님 재임시에 사목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참석한 일이 있었다. 그 사목회의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성당의 교리실과 만남 장소가 부족하여 성당 마당 지하에 교리실 등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모두 사목회에서 계획하여 만든 원안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9,000명이나 되는 본당에서 분당을 하지 않고 성당을 넓히는 공사를 하는 것은 교구의 방침에도 어긋나고 성당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기에, 나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나는 신부님께 내가 사목회장을 할 때 분당을 하려고 여러 후보지를 물색하고 다녔는데, 분당을 생각하지 않고 성당 확장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강력히 성당 확장 계획을 철회하도록 건의하였고, 신부님도 즉석에서 전 회장의 건의를 받아 주시어 즉시 분당 쪽으로 모든 문제를 연구하도록 지시하셨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방배4동 성당이 분당하게 되었다.

나는 방배동 성당의 사회복지분과 위원으로 출발하여 사회복지분과 위원장, 사목회장을 거쳐 남성 4구역장, 4구역 6반장, 법률 상담 요원으로 봉사한 하느님의 도구로서, 오늘도 즐겁고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총에 감읍하면서 이 글을 끝맺으려고 한다. 방배동 성당이 진정한 예수부활 성당으로 더욱 성화되고 발전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린다.

2012. 8.

제5대 사목회장

김종세 그레고리오

특별 기고

신앙인이 된 보람



제7대 사목회장
지태욱 요셉

주님과 같이하기로 기약한 지 어언 46년이 넘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게 된 전날 세례를 받은 나의 신앙생활은, 자녀 셋을 키우면서 21년간 공직생활로 바쁜 가운데 가정의 평화를 위한 주일 미사 참여가 전부였고, 이마저도 여느 때에는 한 달에 한 번꼴, 현장근무 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몇 달씩 거르기도 하는 등 방만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보시고 크게 노하신 것 같았습니다. 공직생활을 마친 직후의 꾸르실료 과정을 통하여 3박 4일간 신심에 가혹한 벌이 가해져 왔고, 이를 계기로 진정한 영적 생활이 움트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주모경도 모르는 상태에서 겪은 꾸르실료는, 일시적인 고통 속에 지난날을 반성하게 해 주었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교회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었으며, 앞으로의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서울대교구 남성 99차 꾸르실료 회장, 본당 내 울뜨레야 간사를 시작으로 요셉회장, 사목회 재정분과 위원, 청소년분과 위원장, 부회장의 단계적 과정을 거쳐 사목회장의 직무를 맡고 평협 이사와 평협 12지구 총회장단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교회를 통하여 나는 변하였고 할 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방배4동 새 성전 건립에 시작부터 건축까지 책임자로 참여하여 1998년 9월 25일에 분가할 수 있게끔 무사히 마치고, 이어 주어진 본당 요셉노인대학의 학장으로서의 책무를 현재까지 14년간 수행하고 있음은 주님의 은총이요, 신앙인으로서의 보람이고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꾸르실리스타로서 25년간 교회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얻은 것이 있다면 베푸는 마음, 겸손한 마음, 봉사하고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넣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교회 활동 중 백운 성당과의 농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어려운 농촌 성당을 후원하고, 봄과 가을로 신자들이 가져오는 옷을 모아 원주교구 천사들의 집을 지원하고, 제천 백운면에서 농촌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시 불철주야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격려하고, 교우들의 소리를 듣는 건의함을 운영하고, 매년 어버이날을 전후하여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사를 갖고, 본당 승강기 시설을 위하여 노인대학 학생 전원과 교사들이 시설

기금을 봉헌한 일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용기와 힘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었고 함께하신 이웃이 있기에 실천이 가능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보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삼 떠오르는 것은 메주고리에 성지순례 중 어느 날 밤 꿈에 보국(報國)이라는 글씨가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요즈음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기에 무슨 의미인지 느껴지지 않아 지도수녀님께 여쭸더니, 즉답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입니다."하셨는데,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고 다시 한 번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많은 분들이 신비스런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상치 못한 주님의 섭리를 겪을 때마다 잘못을 뉘우치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신앙생활이 성숙해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25년간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무의미하게 보낸 50여 년과 비교하여 보람된 것이 있다면,

첫째, 하느님의 존재와 힘을 깨닫게 되고

둘째, 겸손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셋째 베풀고 배려하는 마음이 움트게 되고

넷째 남은 생애를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신념을 갖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천주교 방배동 성당의 30년사를 발간함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996년도 사목회장 당시 15년사를 발간하였기에 30년사 발간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더욱 감명 깊게 느껴집니다. 미숙한 저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키워주신 방배동 성당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2. 여름

제7대 사목회장

요셉노인대학장

지태욱(요셉)

특별 기고

지난 30년을 감사하고 앞으로 30년을 준비하자.



제12대 사목회장
최상철 요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30년이면 한 세대가 바뀐다고 합니다.

저희 연배의 교우들이 새파랗게 젊었을 때 탄생한 우리 방배동 성당이 벌써 서른 번째의 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적, 외적으로 성숙되고 아름답게 살찌운 본당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참으로 오묘한 하느님의 섭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두서도 없고 무엇 하나 익숙하지 않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3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여 자랑스런 본당으로 만들어 주신 하느님의 은총과 보살핌에 우리들 모두 경건한 감사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2005년 주임신부님으로부터 사목회장을 임명받고 재임했던 시간들도 본당 역사 30년 가운데 중요한 한 페이지였다고 생각을 하니 30년을 총 정리하는 올해 더욱 새로운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성당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들, 그리고 신부님의 명을 받아 해왔던 일들을 무난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은총 속에 모든 사목위원님들이 맡은 소임을 열심히 다 해 주었으며,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단체장님들과 사랑하는 모든 신자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본당의 크고 작은 행사나 교육, 피정 등을 계획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앉아 아이디어를 모으고 갑론을박하며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던 시간들과 성당의 안과 밖에서 모든 신자들이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은총 속에 즐거움을 나눴던 날들이 너무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본당 교우들 간의 화합과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자 꾸준히 노력을 해 가는 여정에서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은 환희의 보람으로, 때로는 힘들고 안타까웠던 일들조차도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려는 하느님의 깊으신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던 분명한 하느님의 계획이었음을 선명하게 경험을 하게 된 것도 커다란 보람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덕일 주임신부님을 도와서 성당의 숙원사업이었던 대성당 내부의 스테인드 글라스 설치와 천정 돔 공사, 파이프오르간 설치 등 성전을 경건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사업을 차곡차곡 진행했던 일들은 지울 수 없는 보람찬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성전 스테인드글라스 설치공사는 제대 뒤 유리창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12사도 및 복음사가의 형상을, 성전의 양쪽 옆 환기창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많은 열매

를 맺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 하고 있으며, 2층 성가대석 뒤에는 구원의 성모마리아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제대 중앙 천정에 수 놓아진 돔 모자이크는 성령의 비둘기와 빛, 씨앗, 하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청색의 유리로 청명한 하늘을 표현하였으며 뭉게구름 속에서 내려오는 비둘기는 예수가 세례를 받고 나자 하느님께서 내려 보내신 성령의 비둘기를 상징 하였는데, 비둘기를 감싸고 있는 황금빛은 씨앗이 퍼져 나가는 모습을 통해 복음과 신앙인 모두가 부활의 희망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함축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덕일 주임신부님께서 본당설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신자들에게 의미있는 선물을 나누고자 교황님께 전대사를 요청 드려서 강복장과 함께 그 어렵다는 교황님으로부터의 전대사를 받고 모두가 기쁨을 나눴던 일 또한 커다란 은총이었습니다.

신부님의 사목계획을 가까이 에서 보좌하고 교우형제자매님들과의 본당 봉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커다란 성공을 이루기 위한 몇 가지 요소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친교의 교회상 구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당 소공동체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본당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자발적 참여 없이는 진정한 봉사가 되기 어려우며 공동체의 나아가는 방향도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소공동체 봉사자 즉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 또한 의미가 크다고 보여 집니다. 예전이나 지금도 사목협의회와 구역, 반 등 일부 단체 에서는 봉사자가 없어서 신부님의 본당 사목계획에 차질을 가져오는 상황이 지속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상인 바, 우리 모두가 평신도 사목활동에 적극 참여를 해야 하겠습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이 곡식 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시편 126편 5~6절)는 시편의 구절처럼 서로 봉사를 하려고 앞장 설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우리 본당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이며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하느님의 사랑이 충만할 것 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한 절기도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우리의 성전 안에서 차곡차곡 기도와 봉사를 해 가며 저 스스로가 영적인 성장을 느꼈었던 점과, 주님의 은총을 체험한 것, 신부님으로부터 사랑의 격려 말씀 등이 커다란 보람으로 남아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신부님의 사목활동과 본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며 하느님의 신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본당 설립 30주년을 보내며 여러 가지 신심함양과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념사업을 해 오시느라 수고하시는 이원규 마태오 본당신부님과 하상도 총 회장과 봉사자 여러분들께 노고에 대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방배동 성당의 지나온 30년의 은총이 50년, 100년 이어질 수 있도록 교우들 모두와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10.

제12대 사목회장 최상철 요한

특별 기고

연령회… 그리고 파티마에서의 묵주기도 봉헌



연령회장
최현태 요셉

엉겁결에 맡아서 시작했던 연령회장 봉사, 벌써 십 수년이 흘렀습니다.

현재까지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을 허락 해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께서 죽음에서 부활 하시어 저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셨으니 저희도 세상을 떠난 주님의 종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하리라는 굳건한 희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이 모든 믿음이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연령회원들은 오늘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연도란 "영혼을 위해 바치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연옥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죄를 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불에 의해서 죄를 정화 받는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 있는 상태를 말 하며 그 정화의 과정을 거쳐 빨리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치는 기도가 연도 입니다.

항상 돌아가신 분들을 위하여 비가오나 눈이오나 기도와 장례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연령회 회원들에게 마음 깊이 고마움을 전하며 연령회 봉사야 말로 우리 가톨릭의 정신을 구현 하는 진정한 봉사가 아닐까 하는 자부심을 함께 가져 봅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연령회 구성원 들도 연도가 발생하면 때로는 귀찮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관예절, 장례미사, 장지수행, 하관예절 등 모든 봉사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하고 보람이 충만함을 느낍니다.

또한, 연령회를 이끌고 가다 보면 봉사 현장에서 힘든 일도 많이 겪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영정 앞에서 형제끼리의 재산다툼, 종교다툼, 이 종교다툼은 자기가 믿는 종교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가족간의 다툼을 말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성수가 얼어서 성수예절 의식 때 성수를 뿌리지 못 하여 곤혹스러운 때도 있었으며, 죽음의 시간을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긴장 속에 대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십여 년을 봉사 하다 보니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 갑니다.

2012년 4월에 지도신부님 이원규 마태오 주임신부님을 모시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포르투갈의 성모님 발현지인 파티마에 도착하였는데, 매주 주말마다 파티마 성모님 발현지 성당에서 주관하는 로사리오 촛불 행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인 수많은 순례자 가운데 5개국 대표가 성모님 상 앞 단상에 올라가 성모송을 바칠 때 한국대표로 저희 부부가 성모송을 우리말로 바치는 영광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티마의 성모님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은혜로운 일인데 촛불 행렬에도 참여 하고 더구나 우리나라 대표로 우리말로 성모송을 바치는 영광을 갖게 되어 한 없는 은총을 경험 하였으며 더욱 참된 봉사를 할 것을 다짐 해 보았습니다.

2012. 10.

연령회장 최현태 요셉



특별 기고

요셉 노인 대학 4 반세기에 대한 회고



요셉노인대학 부학장
조기선 요한

1998년 5월 4일 '천주교 방배동교회 부설 요셉노인대학'이 당시 요셉회(회장: 고 이화규 요셉)의 주선으로 설립되어 개교한 이래 어언 4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개교할 당시에는 운영 방법을 몰라 사당동 '호산나노인대학'의 조언과 자료들을 많이 받았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노인대학의 설립 배경을 보자면, 당시 주임신부이셨던 김운회 루카 주교님께서 요셉회장에게 그 설립의 주선을 명하시어 요셉노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노인대학의 조직은 학장, 부학장, 총무처장, 차장, 교무처장, 차장, 학생처장, 차장으로 구성되고 별도의 이사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사회는 대학의 임원 및 봉사자들을 돕는 기관으로 신부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첫 해에는 루카 주임 신부님이 스스로 이사장직을 맡으셨고, 학장에는 이용근 부르노 연세대 교수님이, 부학장에는 김종세 그레고리오 전 총회장님이, 총무처장에는 당시 본당 사무장 김한식 미카엘 형제가 설립 과정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임명되고 제가 그 차장으로 임명되었는데, 2학기부터 사무장이 손을 떼게 됨에 따라 제가 총무처장을 시작으로 25년간 계속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교무처장엔 이호식 요한 형제가, 학생처장엔 김복선 로마나 자매가 임명되어 요셉노인대학이 출범하였습니다.

그 후 노인대학의 교과 편성은 다른 노인대학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진달래 반, 개나리 반 등으로 하다가 교사회의 결정에 따라 특기 반을 편성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된 특기 반들은 성서 반, 음악 반, 무용 반, 서예 반, 단전호흡 반, 사물놀이 반, 게이트볼 반, 기체조 반 등 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대학은 매주 수요일에 수업을 하는데, 요즈음은 12시부터 점심식사를 하고 1시부터 20분 동안 무용, 단전호흡, 기체조 등으로 날마다 번갈아 가며 몸 풀기를 한 다음, 30분까지 10분 동안 10분 교리를 제가 하고, 1시 30분부터 1교시 교양강좌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에는 각계의 권위자들을 초빙하여 전체 학생이 강의를 듣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각 반으로 나뉘어 특기 반 활동을 하고 3시 30분에 모두 마칩니다. 그런 다음 임원 교사들은 그날에 대한 평가회의와 다음 주 또는 다른

행사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나면 4시가 넘어 가곤 합니다.

교과 일정은, 매년 3월 첫 주 수요일에 입학을 겸한 개학을 하고 7월 첫 수요일에 여름 방학을 하며, 다시 9월 첫 수요일에 개학하여 12월 첫 수요일에 수료식을 겸한 겨울 방학을 합니다. 1년간 대략 32~33주(회)를 열게 되는데, 그 중에 20주(회) 이상 출석을 하면 수료증을 수여하고, 한 번도 결석이 없는 학생에게는 개근상을, 한 학기에 한 번씩 2회 이내로 결석한 학생에게는 정근상을 수여합니다. 각 반에서 한 명을 선정하여 모범상을, 전체에서 한 명을 엄정 선발하여 모범 대상을 수여하는 일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25년 동안 많은 봉사자들이 수고를 했지만, 뼈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3대 학생처장이었던 강 인숙 리브카 자매님이 1991년부터 학생처장을 맡아오다가 19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점은 우리 모두를 슬프게 했습니다. 저보다 1년인가 아래인 그는 열심한 봉사자였으며 저와는 아주 호흡이 잘 맞는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아주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또 한 분, 교무처장을 여러 해 동안 맡아 오던 고 순우 요한나 자매님이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분도 우리 노인대학에 꼭 필요한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21년간을 매년 개근을 하면서 봉사한 임소희 로사 자매님도 잊을 수 없는 분 중의 한 분입니다. 의정부 쪽으로 이사를 가는 일이 생겼지만, 1년 이상을 더 봉사하더니 나이 70이 가까우매 작년(2011년) 수료식 때 노인대학 학생처장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용근 부르노 학장님이 10여 년을 봉직하시고 방배4동으로 분당이 되어 부득이 떠나시게 됨에 현 학장이신 지 태욱 요셉 학장님이 그 뒤를 이어 지금까지 봉직하시고 계십니다. 현재의 임원진은 학장에 지태욱 요셉님, 부학장에 저 조기선 요한, 총무처장에 고영배 프란치스코님, 교무처장에 홍순희 마리에타님, 학생처장에 최경자 아가타님이 차장들과 함께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현 주임신부님이신 이원규 마태오 신부님이 부임해 오시어 요셉노인대학의 숙원사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른 노인대학들이 거의 모두 하고 있는 점심식사 제공을 시도도 못 했었는데, 마태오 주임신부님께서 허용하셨고, 지하에서 2층까지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지태욱 요셉 학장님의 요청을 들으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그 비용의 일부로 지태욱 요셉 학장님이 1천만 원을 쾌척하셨고, 100만 원을 낸 학생도 있었으며, 임원 교사들도 십시일반으로 힘을 합쳤습니다.

거동하기 힘든 노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장 흐뭇해 하시는 분이 바로 지태욱 요셉 학장님이십니다. 거의 그분의 공로라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제 요셉노인대학은 등록 학생 수만도 180여 명에 이르는 거대한 노인대학으로 발전했고, 교육 내용이나 질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곳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노인대학이 되었으며, 학생들 모두가 등교하는 수요일을 가장 행복

한 날로 여기면서 기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서울대교구 전체에서도 인정받는 대학으로 자리를 굳혔기에 25년이 지난 지금 임원과 교사 모두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요셉 노인 대학의 자랑거리는

첫째, 학생층이 몹시 두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양 각층임은 물론 지적 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둘째, 교사진이 완벽합니다. 각 반의 담당교사들은 모두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셋째, 교과 일정이 다른 대학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우수하게 편성됩니다. 8개의 특기 반 구성은 교사진의 뒷받침이 안 되면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교사들의 갈증을 느끼는 다른 대학들은 부러워만 할 뿐입니다. 넷째, 25년 동안 임원과 교사들의 마찰이나 불협화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자의 양보와 배려가 없다면, 또 부드러운 리더십이 없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4반세기를 지나온 요셉노인대학에 대한 우리 모두의 성원과 협력의 힘이 앞으로 한 세기를 또 이끌어 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졸필을 놓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8. 15. 성모 승천 대축일에
요셉노인대학 부학장
조기선 요한

특별 기고

방배동 성당과 함께 한 신앙생활



김천수 다두

나는 1931년 생으로 올해 우리 나이로 여든두 살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방배동 성당 설립 30주년이 되고, 그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30주년을 추억하는 책자를 발간한다고 하여, 나의 방배동 성당 신자생활을 함께 되돌아보려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나는 서른두 살 때인 1963년 4월 16일에 강원도 시골 화천 성당에서 세례성사를 받았고, 20년 후인 1983년 10월 16일에 방배동 성당에서 성숙한 가톨릭 신앙인을 증거하는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영세 후 본인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각처에서 믿음의 정신을 굳건히 해 오던 중 1982년 김영일 주임신부님이 사목하시던 반포 성당으로부터 새로 분당하여 설립되는 방배동 성당에서 신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신부님으로 부임했던 김운회(루카) 주임신부님을 중심으로 휘델리스 수녀님과 그리 많지 않은 방배동 거주 신자들이 가야병원 건너편의 한 상가건물 2층을 5천만 원에 전세 입주하여 주일 미사와 각종 활동을 수행하여 왔었는데, 건물 주인이 얼마 되지 않아 임대료를 1천만 원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편치 않은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방배동 경남아파트 주변에 시립 행려병자 영안실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파트 주민들이 영안실의 이전을 서울시에 진정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김포 근교로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그 부지를 우여곡절 끝에 입찰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를 구입한 후, 영안실 앞 주차장에 텐트로 가건물을 지어 임시 성전을 꾸몄고 영안실 사무실을 성당 사무실로, 정문 경비실 1층을 주방, 2층을 사제관 용도(숙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어느 정도만 와도 지대가 낮기 때문에 건물이 물에 잠겨서 신부님이 숙소로 올라가지 못할 정도가 되어, 신자들이 그 장면을 보기가 면구하여 마음들을 아파했었습니다.

하루 속히 성전 건립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공감대가 이렇듯 형성이 됨에 따라, 신자들이 합심을 하여 구역별 신립 약정서 접수는 물론, 바자회와 음식 판매 활동도 하고, 사목위원들과 원로들 모임인 요셉회 회원들은 각자 보관하고 있던 귀중품 등을 성전 건립기금으로 제공하는 등 전 신자가 일치단결하여 노력한 것이 초

석이 되어 서울에서 제일가는 성지에 성전을 건립,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는 방배동 본당에서 레지오 마리애 중도의 모후 쁘레시디움에 1984년 2월 4일 입단하여 교우가정 방문, 교우상가 돌봄 등 성당 설립 초기부터 열심히 레지오 활동에 임하여 왔는데, 시간이 꽤 지나 성당도 커지고 신자수도 늘어남에 따라 1998년 2월에 방배4동 성당을 설립, 분당할 때 쁘레시디움도 함께 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의 거주지가 방배4동 구역으로 갈리게 됨에 따라 기왕에 활동 중이던 레지오 생활 등을 방배4동 본당에서 지속해 왔었는데, 내 일생에 하느님의 전당을 만드는 사업에 동참하였던 방배동 성당은 항시 나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나의 가옥을 매도하게 됨에 따라 다시 방배동 본당 구역으로 이사를 하고, 2012년 7월 4일 구세주의 어머니 쁘레시디움으로 전입, 입단하여 현재까지 열심히 신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대세자가 운명을 하였는데, 본당의 교우 자매인 며느리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연락을 받고 성당 사무실에 통보 후 연령회원들과 함께 천주교 공원묘지의 안치 문제를 비롯하여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장례 절차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등 무사히 장례를 마치게 해 주고 유족들로부터 감동의 인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고인의 자제와 손자 등 10명의 가족들이 한꺼번에 방배동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당사자들을 만났는데, 이는 너무나 큰 은총의 선물이며 영원히 잊지 못할 보람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노력한 만큼 알고 주신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지요. 열심히 기도하고 활동하던 나에게도 그러한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103위 신앙대회 후에 교구에서 각 성당별로 신자 1명씩 신부님의 추천을 받아 로마를 방문하여 교황님을 알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일입니다. 그때 신부님께서는 나를 추천해 주셔서, 나는 김수환 추기경님과 서울대교구 신자들 100명과 함께 교황님을 알현하고 루르드에서 기적수로 목욕하면서 성모님께서 빌어 주신 은총을 마음과 몸 가득히 받았습니다. 그때 그 믿음의 정신으로 나는 지금도 신앙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마음 깊이 사랑하는 방배동 본당과 존경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행복을 오랫동안 누리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천수(다두) 씀

특별 기고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소설, 수필가, 칼럼니스트
윤영전 스테파노

본당 설립 30주년을 축하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한 방배본당이 설립된 지 30주년입니다. 본당 사목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이원규 마태오 주임신부님과 보좌신부님, 수녀님 고맙습니다. 본당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목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단체와 봉사자 여러분, 본당 교형자매님들과도 30돌 생일날을 함께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특히 30주년 기념문집에 부족한 필자의 글을 올리게 됨을 송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필자와 본당과의 인연

방배성당이 설립되기 이전, 이곳은 서울시에서 운용한 영혼안치소 였는데 본인과 방배성당과의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0년 10월 어느 날, 40세 죽마고우가 안양에서 조기축구를 하던 중 불미스러운 사고로 운명 하였습니다. 사인을 밝히느라 이곳 서울시립영안시설에 무려 15일을 안치 해 놓았을 때, 매일 찾았던 마음시린 곳인데, 그 뒤 방배본당으로 성축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사당동 본당에서 1977년 어머님을 비롯 온 가족이 주님이 부르심에 세례 받아 신자가 되었으며, 반포3단지로 이거하여 반포동 성당, 잠원동 성당에서 사목기획위원장과 구역장을 하고 1990년 방배2동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방배본당을 2개월 다니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사당동 성당으로 구역이 소속되는 바람에 사당동 본당에서 22년간 사목위원과 103형제 회장으로 있었지요. 그런 후 금년 3월부터 사당에서 방배본당으로 이전되었습니다. 31년 전 안치소와 22년 전에 미사에 참여했던 기억들, 가끔 혼례식이 있어 찾았던 방배본당은 우면산 정기 받아 서울시내 그 어느 본당보다 으뜸으로 세워진 모범 본당으로 타 지역 신자들 사이에 선망의 대상으로 회자가 되어 흐뭇했습니다. 이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와 나의 신앙생활 돌아보려 합니다.

– 참 신앙인으로 살기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 절반이 넘는 숫자가 신앙인 입니다. 초기에 각 교파의

신자수를 보면 불교가 단연 많았는데, 무려 2천만 불자라 했지요. 지금은 천만 미만이고 기독교는 1천5백만이랍니다. 그중 개신교가 1천만 정도, 우리 천주교가 5백4십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자수가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며, 어느 수준에 있을까? 많은 신자수 보다 참 신앙이 중요하지 않은가? 각 종교 교파별로 기준에 의해 입교를 하고, 모두 참 신앙인으로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신앙인이 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 보여 집니다.

신앙인이 국민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는데 참 삶을 사는 사람의 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 사회를 올바로 살아가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만재 하고 있다고는 하나 모든 신앙인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하느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면 자연스레 나라와 사회는 아름답고 참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천주교의 순교성인들을 생각하면, 200년 전에 이 땅에 천주교가 시작될 때 우리의 신앙은 박해로부터 시작했지요. 배교하면 살려주겠다는 겁박에도 굳건히 지켰던 천주교 믿음의 신앙이었으며 그러기에 103위 성인이 나셨고 앞으로도 많은 성인의 탄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신앙으로 거듭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 나의 신앙생활

본인이 천주 신앙에 다가선지 반백년도 넘은 세월, 분단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일제 말 1941년에 태어났지요. 광복이 되었으면 남북이 통일국가가 돼야 했는데 그만 분단국으로 각각의 정부를 세웠지요.

그러한 역사의 격랑 속에서 우리 백성들이 겪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희 집안도 당시 군청의 공직에 있었던 큰형이 정치적인 이유로 세상을 달리 하였으며,어린 막내 동생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망 하는 등 커다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형언 할 수 없는 슬픔 속에 빛고을 남동 천주교회에서 미카엘 세례명으로 영세를 받으셨습니다.

본인이 초등학교 시절에 집안의 유일한 천주교 신자였던 아버지는 주일날에

슬그머니 성당에 다녀오셨는데, 아버지의 행장에서 천주교 교리문답과 묵주를 발견하고 천주교와 타 종교의 실상 비교도 하면서 입교를 결심했었으니 무려 55년 전이었습니다. 고교 때에 교리 반을 다니다가 그만 영세기회를 놓치고 군에 입대하여 제대를 얼마 앞두고 베트남전쟁에 지원하면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 했습니다. 1965년 해외 최초파병에 가면 다 죽는다는 소문에도 “생사는 모두 하느님이 뜻이다.”는 믿음을 간직한 채 파병되었고 죽지 말고 살아가자는 동료 전우들과의 파병 당시의 약속도 많은 수의 동료들이 전투에서 사망 하면서 물거품이 되는 슬픈 경험도 하였습니다.

귀국하여 결혼해 3남이었지만, 노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이 영세 받았지요. 부친 미카엘, 모친 마리아, 아내 마르

타, 장남은 베드로, 차남 요한, 3남 바오로, 며느리도 모니카와 율리안나 지요. 우리 가족은 효도하여 대종회로부터 효자 효부 열부상을 받아 효열가 3대를 이루었죠. 모두가 하느님과 성모님의 내려하신 은총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사세 하실 때에는 잠원과 사당성당에서 영결미사 후, 고향선산으로 모셔 영면하고 계시지요.

– 주님의 자녀로 기도하고 행동하는 신앙

필자는 세례를 받으면서 정의 평화 사랑 실천을 모토로 했습니다. 허나 하느님이 바라는 신앙인지 늘 묵상했지요. 주일을 지키고 신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고백성사를 자주 보면 마음이 편해지지요. 주일미사에서 영성체를 모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영광이죠.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은 내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미사에서 강조한"평화"는 소중하지요. 특히 지구상에 유일하게 67년 동안 이란 분단국에서 우리에게 전쟁기운은 늘 두려움으로 상존 하고 있으며, 그래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한없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글을 마치면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주제에 '나의 신앙생활 돌아보기' 소주제로 쓰면서 내내 뇌리에는 신앙인은 성서와 교회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필자는 '바티칸공의회' 사회교리에 응답하려 "천주교사회교리학교" 제1기를 졸업하고 "사회교리교사"가 되었지요. 정의평화위원회 회원으로 우리의 소원인 평화통일의 그날이 오기를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성당"으로 거듭나는 방배본당 신자로, 주님의 은총 속에 살면서 언제나 주께 감사하며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은 은총 받으소서!! -아멘-

윤영전 스테파노 씀

편집 후기

사랑과 화합 속에 지내온 30년간의 발자취

이창진 요셉

우리 본당 설립 30주년사 발간을 위한 편집을 모두 마치면서, 이 모든 일이 방배동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은총 속에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음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올해 2월 어느 주일날 주임신부님으로부터 본당 설립 30년사 발간 편찬 봉사를 권고받고는 편찬에 대한 아무런 식견도 없는 제가 모든 걸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으로 알고 감사히 봉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와 함께 올 1년을 회사의 업무 등 바쁜 일상 속에서도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동고동락한 김규만 마지아, 박동수 베드로, 이승구 요셉, 박민철 라파엘 형제와 이정석 발렌티노 사무장님 등 편찬위원님들께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사랑과 신뢰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늘 편찬실에서 함께하면서 30년사의 좌표와 줄거리를 협의해 준 하상도 대건 안드레아 총회장님, 바쁜 일상 중에도 방문하셔서 세심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김종세 회장님을 비롯한 전 총회장님들과 사목협의회 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금번 발간하는 본당 30년사는 하느님께서 생명을 주신 우리 공동체가 사랑과 화합 속에 지내온 30년간의 발자취를 회상하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본당이 주님의 은총 속에서 더욱 더 깊고 넓은 사랑의 공동체로 발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30년사가 얼마나 사실적인 자료와 알찬 내용으로 꾸며졌는지, 우리들 본당 생활의 지난 시간의 흔적이 충실하게 배어 있는지 등에 대한 걱정과 아쉬움이 지금 순간에도 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임신부님으로부터 큰 틀의 방향 제시를 받고 난 후, 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신자들로부터의 의견 청취, 원고 정리, 본문 집필, 제반 숫자의 확인, 여러 번의 교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으나 몇 명의 편찬위원들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역량의 부족도 실감하였고 다양한 사료를 모으고 취합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으로 실망감에 빠지는 시간도 있었으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로 청원하고 우리들의 뜻을

오래된 일기장을 시간이 지난 후에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기쁘고 흐뭇했던 기억들이 우리를 즐거운 추억에 젖게 하고,
한편으론 어색하고 계면쩍었던 장면들이 우리를 아쉬움에 휩싸이게 합니다.

간구하면서 작업을 추진해 갔습니다.

또한 무더웠던 7, 8월의 여름날, 매일 저녁 편찬실에 모여서 서로서로 격려 속에 즐거운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던 편찬위원들 간의 형제애가 또 하나의 우리 방배동 본당의 내재된 저력이라 실감하면서 지속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편찬 위원들 모두는 본문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모두가 이해하기 쉽고 본당의 여러 가지 역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사진들을 선별해서 될수록 많이 수록하는 등 우리 교우들이 지난 30년간 본당생활에서 써 온 소중한 일기장을 정리한다는 사명감 속에 퍼즐 조각을 찾아 맞추어 가는 심정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꾸며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을 후에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기쁘고 흐뭇했던 기억들이 우리를 즐거운 추억에 젖게 하고, 한편으론 어색하고 계면쩍었던 장면들이 우리를 아쉬움에 휩싸이게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한껏 담겨 있을, 우리가 주인공인 30년사를 통하여 본당의 교우들 모두가 지난 시간 각자의 본당생활의 소중했던 기억을 되새기고 아름다운 추억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사목회의실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하여 주셨던 여러 단체들에게 미안함과, 틈틈이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보좌신부님들과 수녀님들께 감사를, 든든하게 먹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수시로 편찬위원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여 준 김공남 요한 형제님의 정나눔 마음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30년사에 사실의 어긋남이 있거나, 내용의 구성이나 문법의 오류, 탈자, 오자 등 편집과 교정의 과정에서 실수가 발견되더라도 교우 여러분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 작은 결과물이 바탕이 되어 50년 또는 70년, 100년 그 이후에도 소중한 자료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 번 뒤에서 후원과 응원 그리고 기도를 아끼지 않은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 11.

본당설립 30년사 편찬위원장 이창진 요셉

방배동 성당 30년사

펴 낸 이 : 이원규 마태오 신부
펴 낸 곳 : 천주교 서울대교구 방배동 성당
펴 낸 일 : 2012년 12월 20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256-1 방배동 성당
사무실 (02)584-9731
팩　스 (02)582-4965
편집·제작 : 가톨릭출판사 1544-1886



천주교 방배동 성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256-1

TEL 584-9731 FAX 582-4965